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inscrib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in 2019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2022년 문화관광해설사 현장교육

(재)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 목차 |

1장. 세계유산의 설명 방법과 해설 7
1.1 세계유산의 의미와 중요성 7
1.2 세계유산 설명의 개념 10

2장.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의 이해 27
2.1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가치 29
2.2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특성 33
2.3 지성과 인문의 상진 '서원' 문화 37
2.4 서원문화의 계승과 활용 가치 40

3장. 퇴계, 서원 향사례의 초석을 다지다 45
3.1 들어가는 말 45
3.2 백운동서원 향사례에 대한 문제제기 46
3.3 「춘추향도」와 「묘제홀기」의 제정 53
3.4 맺는 말 63

4장. 서원의 유식과 교류, 현판과 기문 67
4.1 유식 67
4.2 서원 공간에서의 유식 68
4.3 세계유산 9개 서원의 유식공간 70
4.4 육례를 통한 유식 활동 83
4.5 서원 현판과 기문을 통한 장수와 유식 87
4.6 서원과 교류활동 186

부록. 한국의 9개 서원 배치도 및 현황 193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inscrib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in 2019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2022년 문화관광해설사 현장교육

1장. 세계유산의 설명 방법과 해설

1.1 세계유산의 의미와 중요성

1.2 세계유산 설명의 개념

1장. 세계유산의 설명방법과 해설

이수정(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1.1 세계유산의 의미와 중요성

매년 한국의 유산이 세계유산에 등재되면 언론에서는 그 유산이 지닌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자랑으로 여기고 강조할 만큼 우리는 세계유산이라는 지위에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 이러한 세계유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은 1990년대 이후 국내·외적 사회적 변화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국내적으로는 1970년대~1980년대까지 이어온 경제적 성장과 1980년대~1990년대까지의 정치적 안정에 따라 유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였다. 국제적으로는 1988년 올림픽 개최 이후, 국내의 경제적·정치적 안정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 간 교류에 동참하려는 국가정책에 맞추어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늘리고 우리의 유산을 세계유산목록에 올리는 데에 많은 자원을 투입하여 왔다.

세계유산은 유네스코가 인류 공통의 자산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유산을 선별하여 목록에 올리는 국제적인 제도로 『세계유산협약』이라는 국제적인 약속과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개정되는『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 따라 등재되고 관리되는 유산이다. 협약에 따라 유네스코는 정부간 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기구의 협조를 받아 회원국이 제출한 등재신청서를 검토하여 유산 목록을 작성한다. 유산목록에 올라가면 등재된 유산이 지닌 탁월할 보편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세계유산제도는 운영주체, 결정기준, 관리방식 등이 다르다는 점에서 국내의 지정문화재와는 별도로 운영되며, 세계유산과 국내의 지정문화재 간에 중요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다면 세계유산의 진정한 의미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세계유산을 누군가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알리려면 세계유산이 지니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우리의 지정문화재와는 어떠한 차이와 공통점이

있는지에 대한 성찰도 필요하다. 세계유산의 의미를 이야기하려면 '유산'에 대하여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역사적 산물을 이해하는 관점은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다. 초기에는 르네상스 시기에 인본주의에 입각하여 역사의 연속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역사를 말해주는 물질적 산물을 재화적 관점에서 '문화재'를 인식하였다. 이 시기에는 문화재를 문헌으로 이해하고 있는 역사를 물질적 측면에 담아내는 대상으로 보고, 특정한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의 업적 등을 물질적으로 표현하는 유형적 산물로 인식하였다. 이후 20세기에 들어 역사적 산물은 과거-현재-미래 세대 간에 상속을 통해 전달되는 유·무형적 소산으로 '유산'을 인식하는 관점으로 확대·변화되었다. 1980년대부터는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자원'으로 인식하는 관점으로 다시 한번 확대·변화하였다. 유네스코의 『세계유산협약』은 1972년에 채택되었으므로, 세계유산은 앞의 변화과정 중에서 '유산'으로 이해하는 관점에 뿌리를 둔다고 볼 수 있다.

유산을 '세대 간에 상속되는 역사적 산물'이라고 보게 되면, 유산의 의미가 보다 분명해진다. 첫째로 유산의 형태는 무형적인 것도 있으며, 유형적인 것도 있다. 유형적 산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물리적 측면과 사상적·정신적 요소가 같이 있으며, 마찬가지로 무형적 산물은 기술적·정신적·사상적·관습적 측면이 물질적 요소와 어우러져 만들어진다. 유산은 형태와 요소에서 모두 유형적·무형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로, 유산은 '공적 산물'이다. 재화적 측면이 강조된 문화재와는 달리, 유산은 세대 간에 상속되는 산물이라는 관점에서 법적 소유자가 누구이든 공적 대상물이다. 개인이 아닌 모두의 유산이며, 모두를 위한 유산이다. 그러므로 유산의 등재와 지정, 그리고 관리에 필요한 재원과 인력은 공적 기금이나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판단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다수가 합의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는 합리적 판단이어야 한다.

세계유산의 관점에서 보면, 유산을 상속을 통해 전달되는 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 이해한다. 협약에서 정의하는 유산은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는 '문화재' 의 개념을 넘어서서 **인류의 창의적 표현, 행위, 공간의 총체로서 대표적 가치를 지니는 공동체적·공적 속성을 가진 대상물**로 보는 것이다. 나아가 세계유산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자원’임이 강조되고 있다. 단순히 인류에게 가치와 의미를 지닌 차원을 넘어 인류의 삶에 없어서는 안되는 자원으로 인식하므로, 보호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자 책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UN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 SDG)‘를 유산차원에서 실천하는 방안을 세부주제별로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경제, 교육, 삶의 질적 향상 등의 분야에서 유산이 해야 하는 역할을 깊이 고민하고, 적극 실행하는 사업을 도모한다.

유산을 이해하는 관점의 변화와 함께 유산이 적극 지속가능한 발전에 동참하는 과정에서는 공동체를 유산의 주체로 인식하고, 공동체의 참여와 의사결정의 주체로서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세계유산의 해서과 설명분야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기존에는 전문가 또는 특정 집단이 유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결정하여 일반대중에게 그대로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공동체가 유산의 주체로서 유산의 가치판단, 유산의 보존관리를 모두 주관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유산의 해석 주체는 공동체이며, 유산을 설명하는 것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평가한 가치에 대한 관점을 공동체 내에서 공유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기반으로 다음 장에서는 세계유산분야에서 정의하는 설명의 개념을 살펴볼 것이다.

1.2 세계유산 설명의 개념

세계유산 설명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는 대표적인 문건은 2008년 이코모스에서 제정한 「문화유산 유적의 해석과 설명을 위한 이코모스 헌장(The ICOMOS Charter for th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fo Cultural Heritage Sites)」이다. 이 헌장은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해석과 설명의 목표가 무엇인지, 특정 문화와 유산의 맥락에 맞는 기술적 수단이자 방법을 결정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원칙이 무엇인지, 그리고 유산의 광범위한 다양성을 고려하여 해석과 설명을 해나가는 데에 윤리적, 그리고 전문적으로 고려해야 할 일반적 사항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답을 제시하기 위하여 해석과 설명의 원칙과 정의를 서술하고 있다.

이 헌장에서는 '해석'과 '설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해석】 문화유산 유적의 이해를 돕고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모든 범위의 잠재적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발간물이나 전자 형태의 발간물,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연, 현장이나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현장 아닌 장소에의 설치물, 교육 프로그램, 공동체 활동, 그리고 진행 중인 연구, 훈령, 해석과정 자체에 대한 평가 등을 포함한다.
>
> 【Interpretation】 refers to the full range of potential activities intended to heighten public awareness and enhance understanding of cultural heritage site. These can include print and electronic publications, public lectures, on-site and directly related off-site installations, educational programmes, community activities, and ongoing research, training, and evaluation of the interpretation process itself.

【설명】문화유산 유적에 해석적인 정보, 물리적 접근, 해석적인 인프라 등을 통하여 해석적 내용에 대하여 신중하게 계획된 소통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정보를 전달하는 판넬, 박물관 형태의 디스플레이, 정형화된 도보 관람, 강연, 가이드 관람, 멀티미디아 어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전달될 수 있다.

【Presentation】more specifically denotes the carefully planned communication of interpretive content through the arrangement of interpretive information, physical access, and interpretive infrastructure at a cultural heritage site. It can be conveyed through a variety of technical means, including, yet not requiring, such elements as informational panels, museum-type displays, formalized walking tours, lectures and guided tours, and multimedia applications and websites.

위의 정의를 다시 정리해보면, '해석'은 문화유산의 이해와 인식을 높이기 위한 모든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는 발굴을 포함한 정보의 수집, 유물의 조사와 연구, 정보를 토대로 유산의 가치와 의미, 그리고 중요성을 밝히는 것 등 유산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에 기초가 되는 모든 행위를 종합적으로 일컫는 용어이다. '설명'은 유산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유산이 지닌 의미와 중요성이 파악되면 그러한 내용을 다양한 유형의 기술적 수단을 활용하여 유산의 특성에 맞게 공유하고 전달하는 행위이다.

해석과 설명이 유산을 이해하고 보존관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중요한 행위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와 연구자들이 동의한다. 하지만 해석과 설명의 정확한 개념적 차이와 구분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그 대표적인 의견으로는, 해석과 설명을 서로 다른 행위로 보는 관점이 있고, 해석의 행위과정에 설명을 포함시켜 보는 관점을 들 수 있겠다. 전자의 경우, 해석은 유산이 지닌 가치를 평가하고 파악하는 것이라면, 설명은 그 결과를 글이나 매체를 사용하여 공유하고 전달하는 행위로 이해한다. 후자의 경우, 유산이 지닌 가치를 공유하고 나누기 위해서는, 즉 설명을 위해서는 유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파악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설명은 해석 과정의 한 부분이라고 이해한다. 그로 인해 호주의 경우 '설명'이라는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해석'의 범주에 유산에 대한 설명 결과를 공유하고 전달하는 것을 포함하여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1. 세계유산 설명 원칙

세계유산을 설명하는 원칙 역시 앞에서 언급한 2008년 이코모스 헌장에 명시되어 있다. 이 헌장에서는 해석과 설명의 기본원칙을 모두 7개 항목으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다. 이들 원칙을 통해 설명이라는 행위가 어떤 특성을 지니는지, 그리고 설명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엿볼 수 있다. 하나씩 살펴보자.

1) 원칙 1 : '접근과 이해(access and understanding)'

> **원칙 1: 접근과 이해**
> 해석과 설명 프로그램은 대중이 문화유산 사이트에 물리적, 그리고 지적으로 접근을 촉진하여야 한다.
> Principle 1: Access and Understanding
>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programmes should facilitate physical and intellectual access by the public to cultural heritage sites.

우리를 포함하여 유산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유산에 대하여 해석 하고, 누군가에게 설명을 하거나 다른사람의 설명을 듣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유산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고, 유산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과 관점, 의미를 스스로 형성해 보게 된다.

효과적인 해석과 설명은 우리가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유산에 대하여 더 깊이 이해하게 하며, 유산에 대한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인간이 지닌 지적 능력을 활용하고, 배움, 경험, 탐험 등과 같은 지적 활동을 촉진한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다른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나누고 소통하게 된다. 그러므로 해석과 설명은 유산과 관련된 모든 지적 활동이나 행위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근간이 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해석과 설명 과정에서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활동을 유익하고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매우 신경써야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유산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물리적으로 유산에 방문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

들에게 유산이 아닌 장소에서 유산에 대한 이해와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석과 설명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원칙 2 : '정보의 출처'

> **원칙 2: 정보의 출처**
> 해석과 설명은 인정받은 과학적 학술적 방법과 살아있는 문화전통을 통하여 수집된 증거에 기초하여야 한다.
> Principle 2: Information Sources
>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should be based on evidence gathered through accepted scientific and scholarly methods as well as from living cultural traditions.

해석과 설명은 유산에 내재된, 유산에 남아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하는 활동이다. 정보의 유형에는 구두 또는 글로 된 정보, 물리적 흔적, 전통, 의미 등 다양하다. 그러한 정보들은 반드시 잘 보존되어야 하고, 기록으로 남아야 하며,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접근이 쉬워야 한다.

해석은 과학, 철학, 역사,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하는 연구를 필요로 한다. 간혹 의미있는 해석에는 역사적 추측이나 지역의 전통과 구술 이야기 등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다.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기억이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그 유산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재료가 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해석이나 설명과정에서 그러한 정보를 적극 활용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

예술가나 건축가, 컴퓨터 기술자 등이 유산을 시각적으로 재현할 경우에는 환경적, 고고학적, 건축적, 역사적 자료들을 면밀히 분석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해석과 설명활동은 향후에 유산을 이해하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으므로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3) 원칙 3: 맥락과 셋팅

원칙 3: 맥락과 셋팅

문화유산사이트에 대한 해석과 설명은 그것의 폭넓은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자연적 맥락과 셋팅을 연결시켜야 한다.

Principle 3: Context and Setting

Th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cultural heritage sites should relate to their wider social, cultural, historical, and natural contexts and settings.

해석은 역사적, 정치적, 정신적, 예술적 맥락에서 유산이 지닌 중요성을 탐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산을 잘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산의 문화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대중을 위한 해석에서는 유산이 탄생한 이후부터 지금시점까지 진화, 발전해 온 모든 역사적인 단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모든 시대적인 흔적은 존중되어야 하며, 유산이 지닌 역사적 문화적 가치에 기여한 모든 집단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주변의 경관이나 자연환경, 지형학적 위치 등은 유산의 역사적 문화적 중요성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해석에서 이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유산의 무형적 측면, 즉 사상적 전통, 이야기, 음악, 춤, 연극, 문학, 시각예술, 지역전통, 음식유산 등도 해석과 설명활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4) 원칙 4: 진정성

원칙 4: 진정성

문화유산사이트의 해석과 설명은 1994년 나라문서의 정신에 따라 진정성의 기본 교의를 존중해야 한다.

Principle 4: Authenticity

Th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cultural heritage sites must respect the basic tenets of authenticity in the spirit of the Nara Document (1994).

진정성은 유산이 지닌 가치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전달하는 데에 갖추어야 하는 요건이다. 그러므로 유산을 이해하고 보존하는 데 있어서 진정성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그런데 가치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요소들은 문화마다 차이가 있고, 유산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해석과 설명은 유산의 물리적인 측면을 부정적으로 변형시키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가치를 잘 설명하여 유산의 진정성이 보존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해석과 설명 활동 또는 행사가 유산의 중요성을 보호하고 지역주민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5) 원칙 5: 지속가능성

원칙 5: 지속가능성

문화유산사이트에 대한 해석 계획은 중점 목표 중에서도 사회적, 재정적,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함께 그것의 자연적 문화적 환경에 신경써야 한다.

Principle 5: Sustainability

The interpretation plan for a cultural heritage site must be sensitive to its natural and cultural environment, with social, financial,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mong its central goals.

해석과 설명은 유산에 대한 계획, 예산확보, 관리 등에 있어서 중요한 활동이다. 해석적인 인프라나 방문자수가 유산의 가치, 물리적 특성, 완전성, 자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해석과 설명은 보존, 교육, 문화적 목적에 기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해석프로그램의 성공여부를 단순히 방문자수나 소득에 따라 판단해서는 안된다.

해석과 설명은 유산의 보존에 대한 대중적 인지도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장에 설치하는 해석적 인프라는 주기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해석 프로그램은 교육, 훈련, 고용기회 등을 통해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혜택이 돌아가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6) 원칙 6: 포용성

원칙 6: 포용성

문화유산사이트의 해석과 설명은 유산전문가, 주인, 연관 공동체, 기타 이해당사자 간에 의미 있는 협업의 결과이어야 한다.

Principle 6: Inclusiveness

Th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cultural heritage sites must be the result of meaningful collaboration between heritage professionals, host and associated communities, and other stakeholders.

유산의 해석과 설명 프로그램을 만들 때에는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 공동체 구성원, 보존전문가, 정부기관, 현장관리자, 안내해설사, 관광가이드 등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유산 소유자와 관련공동체의 권리와 책임, 관심사항 등이 해석과 설명을 계획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

해석과 설명에 대한 변화를 계획할 때에는 공개적인 의견수렴과 참여과정이 열려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이 의견을 내고 서로의 관점을 존중하는 것은 권리이자 책임이다. 지적재산권과 전통문화소유권의 문제는 해석과정과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설명에 있어서 필수적인 고려사항이다.

7) 원칙 7: 연구, 훈련, 평가

원칙 7: 연구, 훈련, 평가

지속적인 연구, 훈련, 평가는 문화유산사이트의 해석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Principle 7: Research, Training, and Evaluation

Continuing research, training, and evaluation are essential components of the interpretation of a cultural heritage site.

유산의 해석과 설명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유산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즐거움이나 혜택도 늘어나야 한다. 주기적인

점검은 모든 유산 해석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유산의 해석과 설명은 지속적으로 수정되어야 하며, 특히 유산에 물리적으로 영향을 주는 해석과 설명활동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학술적인 분석과 공개적 피드백도 수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방문객이나 관련 공동체,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 모든 해석프로그램은 모든 연령대를 위한 교육적 기회이므로, 학교 교과과정이나 사회교육과정, 특별활동, 행사 등에서 사용될 수 있다.
해석과 설명 분야의 전문가 양성은 매우 필요하며, 전문가로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기본적인 보존관리교육이나 현장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러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모든 수준의 설명 종사자들에게 열려있어야 하고, 주기적으로 최근의 기술이나 기법에 대한 공유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국제적인 협력과 경험 공유는 해석 방법과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에 매우 필요하다.

2. 세계유산 설명을 위한 고려 사항

유산의 해석과 설명 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용어로는 '경험(experience)', '소통(communication)', '이해(understanding)', '의미형성(meaning-making)' '지적, 정신적 활동과정'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게 된 것은 현재 우리가 유산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데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유산을 이해하는 관점은 지속적으로 진화되는 과정을 통해 현재의 유산개념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간략하게 서술했던 유산의 개념발전을 다시 상기시켜 보자. 과거로부터 전해진 산물에 대한 관점은 몇 차례 변화해왔다. 초기에는 역사적 증거물로 인식하였고, 1950년대를 전후하여 세대 간 전달되는 유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며, 1980년대 이후부터는 인류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공적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발달해 온 유산의 개념이 최근 다시 한번 진화하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 많은 학자들이 기존의 유산담론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지금까지 유산의 의미와 중요성은 유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알아내는 전문가 집단에 의해 결정되고, 그들의 판단에 따라 관리되며, 교육이나 안내 등 일방적인 방식을 통해 대중에게 전달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유산의 핵심적인 요소를 물질적인 측면에 두고, 상대적으로 무형적 요소는 경시하는 측면이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유산은 물리적인 실체이기보다는 '문화적 과정(cultural process)'이며, 그는 유산은 결국 기억, 경험, 정체성 등 인간이 하는 모든 지적 정신적 문화적 사회적 활동 그 자체라고 주장한다. 즉 유산은 물리적인 실체나 산물 또는 하나의 대상이 아니라, 의미를 찾아내고 발견하고 이해하는 과정이며, 그러한 의미와 가치를 인간의 여러 활동을 통해 반복적으로 실천하는 과정인 것이다. 나아가 우리가 유산에 부여하는 의미와 가치, 중요성은 원래부터 존재했다기 보다는 인간의 사유, 연구, 이해, 감상 등 인지적 활동 과정을 통해 구체화 되는 것으로, 의미와 가치를 형체화·형상화하여야 비로소 유산이 되므로, 유산은 곧 과정인 것이다.

이와 같이 유산을 하나의 물리적·정신적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유활동이나 지적활동 그 자체이자 과정으로 정의하는 관점에서 보면 앞서 이야기한 경험, 소통, 이해, 의미형성, 지적·정신적 활동은 해석과 설명의 목적이자 핵심요소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해석과 설명은 전문가나 안내해설사 관광가이드만 하는 활동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그리고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활동이다. 이러한 사항을 염두에 두고, 세계유산을 설명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1) 우리의 설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먼저 파악한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설명할 때에는 먼저 ①대상이 누구인지 알아야 하고 그에 맞게 ②무엇을 설명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 설명은 단순히 우리가 알고있는 것을 전달하고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궁금하고, 어떤 방식이든 도움이 되는 것을 전달하고 소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엇을 설명할 것인지는 누구를 위한 설명인지 먼저 파악하면 그 범위, 방법, 깊이 등이 명확해 진다.

설명의 대상을 고려할 때에는 연령대, 유산에 방문하는 다양한 이유와 목적, 관심사, 해당 유산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무엇이 궁금한지를 모두 포함하여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항을 모두 미리 파악하기 어렵다면 설명하는 과정에서 소통을 통해 대상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설명과정에서 최대한의 순발력을 발휘하여 대상에 맞게 설명내용을 첨가하거나 줄이고, 설명의 방식이나 내용의 깊이를 달리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2) 유산이 지닌 전체적인 의미와 다양한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우리가 유산에 대해 현장에서 설명하는 이유는 듣는 사람이 유산이 지닌 의미와 가치의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의미를 찾아내는 길로 안내하기 때문이다.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유산은 공적대상이므로, 그것이 지닌 가치를 모두가 이해하고, 자원으로서 유산이 주는 장점과 혜택을 통해 삶이 보다 풍요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모두에게 주는 것이 공적 책임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설명과정에서 모두가 유산이 지닌 가치와 정보를 최대한 이해하고, 그것을 소화하고 응용하여 스스로 해당 유산이 지닌 의미를 파악하고, 찾아낼 수 있도록 설명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유산이 지닌

특정 의미와 지엽적인 가치를 설명하기 보다는 유산이 지닌 전체적인 의미와 다양한 가치를 폭넓게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내용을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설명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경험으로 안내하는 입구이다. 그러므로 세계유산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그 전체적인 의미와 맥락을 알 수 있도록 특정부분만 편협하게 다루는 것 보다는 전체를 먼저 볼 수 있도록 설명내용을 구성한다. 또한 대상자가 1인이 아니라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관심분야와 앎의 정도 등이 모두 다르므로, 더더욱 유산의 전체적인 의미를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대상의 관심이나 지식에 따라 특정 분야를 설명할 때에는 유산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특정 분야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내용을 고민하여야 한다.

3) 사실과 추정을 구분하여 설명한다.

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진실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정보를 해석하고 가공하며 활용하여 유산이 지닌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기 때문에 진실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설명자의 주관적 관점을 최대한 배제하고, 확인된 사실 위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헌으로 확인된 정보, 역사적인 기록, 다른 유산에서 확인된 연관 정보 등을 주로 활용하되, 한 개인의 주관적인 이야기나 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한 가설이나 추정에 의한 흥미 위주의 이야기 등은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지어낸 이야기나 과장된 정보는 듣는사람이 설명에 재미와 흥미를 느끼도록 하는 데에 유용할 수 있지만 설명의 본래 목적과 취지에는 맞지 않는 방법이다. 물론 오랜기간 내려오는 설화나 가문 내에 전해지는 구전이야기, 세대를 넘어 내려온 전통지식 등은 개인이 임의로 지어낸 내용이 아니라 오랜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믿고, 가공해 온 문화적 축적에 해당하므로, 설명에 활용할 수 있다.

설명의 본연의 목적은 중요한 정보, 최대한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방문객 스스로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는 것이므로, 나의 주관적 관점에 따라 해석한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인 것으로 전달하지 않도록 한다.

4) 듣는사람이 의미를 스스로 해석하고,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앞의 항목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설명의 궁극적인 역할과 목적은 설명과정에서 이해한 정보와 경험을 통해 방문객 스스로 유산의 의미를 스스로 해석하고 가치를 판단하도록 독려하고 돕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듣는 사람과 소통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질문 통해 마음을 열도록 유도하고, 생각을 촉진하며, 스스로 가치와 의미를 찾아내야 겠다는 의지를 자극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상대방의 생각을 집중하여 듣고, 어떻게 더욱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지 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좋은 자료를 추천하거나, 더 탐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좋다.

5)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설명한다.

유산에 대한 설명은 즐겁고, 유익해야 한다. 설명내용이 재미있고 유익할수록 듣는 사람이 더 많이 집중하며, 이를 통해 유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커진다. 대부분의 경우, 유산에 방문하는 사람은 즐거운 경험을 하기 위해 방문한다. 학교의 지루한 수업의 연장으로 느끼게 되거나 책 또는 인터넷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지루하게 현장에서 듣는 경험을 기대하진 않는다. 설명을 듣는 사람에게 단순히 즐거움을 주는 것이 설명의 목적이나 목표는 아니지만 설명을 통해 지향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이다.

설명을 통해 방문객은 눈을 열과, 마음을 움직이며, 머리를 자극하게 된다. 그러려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면 방식의 사람이 직접 설명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제한적일 수 있다. 하지만 교육보다는 소통을 위한 설명방법을 선택한다면 나은 설명이 될 수 있다. 간단한 질문을 통해 탐구의지를 자극하는 것이 흔히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 역사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 중간중간 간단한 진문을 하고 바로 자발적인 답을 유도하거나 설명의 시작점에서 한 질문을 설명과정에서 한번씩 생각해보도록 하고, 설명의 마지막 지점에서 그 답을 듣는 방식도 있다.

또한 이야기 외에 다른 정보형태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즉 유산의 변천 과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진이나 문헌자료, 다른 유산에서의 유사한 사례를 보여주는 자료도 그 중 하나이다. 방문객은 보고, 듣고, 느끼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유산에 대한 이해가 커지므로, 단순히 이야기보다는 시각적

인 자료에 잘 반응하므로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공부하여야 한다. 유산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모으고, 유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매체나 방법 등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ICOMOS, 『The ICOMOS Charter for th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Cultural Heritage Sites』, 2008.

I. Shalaginova, 「Ethical principles of heritage presentation for World Heritage Sites」, 『16th ICOMOS general Assembly International Symposium paper』, 2008. http://openarchive.icomos.org/id/eprint/86/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inscrib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in 2019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2022년 문화관광해설사 현장교육

2장.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의 이해

2.1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가치

2.2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특성

2.3 지성과 인문의 상진 '서원' 문화

2.4 서원문화의 계승과 활용 가치

2장.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의 이해

이 해 준[1)]

2.1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가치
2.2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특성
2.3 지성과 인문의 상징 ‘서원’ 문화
2.4 서원문화의 계승과 활용 가치

‘한국의 서원’은 2019년 7월 6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43차 세계유산총회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유네스코 등재기준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입증할 OUV Ⅲ에 해당되는 유산으로 인정을 받았던 것이다. 즉 “문화적 전통, 또는 살아있거나 소멸된 문명에 관하여 독보적이거나 적어도 특출한 증거”로 한국의 서원이 그러한 완전성과 진정성을 갖추었음이 인정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14번째로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서원은 모두 9곳의 연속유산으로 영주의 소수서원(紹修書院, 1543년 건립)을 비롯하여 경남 함양의 남계서원(濫溪書院, 1552년 건립), 경북 경주의 옥산서원(玉山書院, 1573년 건립), 경북 안동의 도산서원(陶山書院, 1574년 건립), 전남 장성의 필암서원(筆巖書院, 1590년 건립), 대구 달성의 도동서원(道東書院, 1605년 건립), 경북 안동의 병산서원(屛山書院, 1613년 건립), 전북 정읍의 무성서원(武城書院, 1615년 건립), 충남 논산의 돈암서원(遯巖書院, 1634년 건립)이다.

이들 9개 조선시대의 서원은 한국지성문화의 요람으로 400여 년의 오랜 역사를 지녔고, 저명 성리학자를 제향하는 곳이면서, 각 지방의 고급 인재들이 수시로 출입하고 접촉, 교류했던 공간이자 상징적 기구였다. 특히 일방적

---

1) (현) 공주대학교 명예교수.
목포대 교수(81-94), 한국역사민속학회 회장(96-98),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99-01), 역사문화학회 회장(08-10), 공주대 문화유산대학원장(11-13), 한국서원학회장(11-14),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13-14), 문화재청 문화재위원(05-15), 공주대 사학과 교수(94-19) 역임.

인 지식 전수가 아닌 강론과 학문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고, 여론과 공론의 결집처로서 지역 지성사의 거점으로 문화적·사회적 활동은 물론 정치적 활동까지 전개한 “지성사와 인문학의 전당”이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이들 9개 서원은 가장 완비된 형태로 지금까지 400여 년 전승되어 온 제향의례, 서원이 자리 잡은 위치와 배치 공간의 탁월함, 유산 보존의 온전함, 각 서원이 행하는 지역문화 활동의 중심 역할, 다양한 도서와 책판, 고문서의 소장 전수, 서원 건물의 성격과 이해를 위한 안내 역할을 하는 현판과 기문 등은 서원의 진정성과 완전성을 존속케 한 기반이 된다.

이제 이러한 서원문화의 전통과 가치, 한국의 서원에 깃들어 있는 교육과 정신, 문화적 전통을 한국의 문화브랜드로 세계에 새롭게 알리고, 향후 계승과 보존, 활용의 노력들을 함께 해야 할 과제들을 부여받게 되었다.

2.1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가치

한국 서원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9개 서원이 16세기 중반 서원 제도의 도입으로부터 시작하여 한국사회에 서원이 정착하고 발전하는 과정의 역사와 건축적 특징을 통합적이고 연속적으로 증명하는 대표 서원들이라는 점이 세계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것이다. ‘한국의 서원’의 세계유산 가치는

> 한국의 서원은 조선시대 성리학 교육 시설의 한 유형으로, 16세기 중반부터 17세기 중반에까지 향촌 지식인인 사림에 의해 건립되었다. 이 유산은 교육을 기초로 형성된 성리학에 기반 한 한국 사회 문화 전통의 특출한 증거이다. 이 유산은 동아시아 성리학 교육기관의 한 유형인 서원의 한국적 특성을 나타낸다.

라고 요약되었다. 인성의 중시, 선현에 대한 존중, 그리고 탁월한 목조 건축미와 수려한 자연과 인간의 조화, 상호간의 소통을 기초로 한 전통교육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그리고 탁월한 보편적 가치, 등재기준, 완전성과 진정성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강조되었다.

▶ 탁월한 보편적 가치

신청유산은 향촌 지식인들에 의해 16세기 중반부터 17세기 중반 사이에 건립된 소수서원, 남계서원, 옥산서원, 도산서원, 필암서원, 도동서원, 병산서원, 무성서원, 돈암서원 등 9개 서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전국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 이 유산은 중국으로부터 전래되어 한국 사회의 많은 부분에 기초가 되었던 성리학 교육을 증진한 교육기관의 탁월한 증거이다. 서원에서 향촌 지식인들은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교육 체계와 유형적 구조물들을 창조하였다. 그들은 성리학 경전과 연구를 수행하였고, 세계에 대한 이해와 이상적 인간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들은 향촌사회의 선현들을 제향 하였고, 제향인물을 통해 강한 학문적 계보를 형성하였다. 또한, 향촌 지식인들은 이 유산을 기초로 다양한 사회적 · 정치적 활동들을 통해 성리학이 사회 전반에 전파되는데 기여하였다.

이 유산은 동아시아에 전파되었던 성리학이 지역화 되고 변영된 독특한 과

정을 통합적으로 보여준다. 이 유산은 한국에서 서원 건축의 정형화에 의해 완성된 독특한 문화전통을 나타낸다. 9개로 구성된 이 유산은 한국 서원의 특성과 발전을 보여주며, 서원이 건축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 발전하였는지 각각의 과정을 통해 보여준다.

▶ 등재 기준

(iii) 신청유산은 조선시대 교육 및 사회적 활동에서 널리 보편화되었던 성리학의 탁월한 증거이다. 이 유산은 16세기 중반부터 17세기 중반 사이에 건립되었으며, 교육을 기초로 형성된 독특한 역사 전통과 성리학의 가치를 나타낸다. 향촌 지식인들은 이 유산을 통해 성리학 교육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한 교육 체계와 건축물을 창조하였으며, 전국에 걸쳐 성리학이 전파되는데 기여하였다.

(iv) 신청유산은 한국 서원 건축 유형의 탁월한 사례를 보여준다. 서원 설립 운동의 초기단계에서 건축 유형을 정형화하는 노력들은 급속하게 성장하였으며, 이후 건립되는 서원에 영향을 끼쳤다. 이 유산은 강학, 제향, 교류를 수행하기 위한 강당, 사우, 누각 등의 건축물들을 적절하게 구성하였다. 건축 배치는 지형, 경관, 기단, 담장과 문을 통해 구현하였다.

▶ 완전성

신청유산은 한국의 성리학의 발전과 서원 유형의 정립과정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서원 9개로 구성되어 있다. 각 구성요소는 집합적으로 신청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여주며, 각각 하나의 온전한 서원으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완전성을 갖추고 있다.

신청유산은 조선시대 서원의 필수 공간 요소인 제향공간, 강학공간, 교류와 유식공간을 구성하는 각 건축물뿐만 아니라 원래의 지형, 주변환경을 온전하게 유지하고 있다. 제향공간을 구성하는 사우와 사우 내부의 위패, 전사청 등이 온전하게 존재하며, 강학공간을 구성하는 강당과 재사, 도서관, 각 건물의 편액 등이 온전하다. 누각 등 회합 및 유식공간의 구성요소 역시 온전하며, 주변의 경관, 지형 등이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 있다. 서원 주변의 경관 중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입증할 중요한 부분은 모두 유산구역이나 완충구역에 포함되어 있다.

▶ 진정성

신청유산은 형태와 디자인, 자재와 구성물질, 전통적 기법과 관리체계, 입지와 주변환경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진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신청유산은 서원 설립운동의 초기에 해당하는 16세기 중반부터 약 1세기 기간 동안 건립된 대표적 서원으로서, 역사발전 과정에서 훼철되지 않고 원형을 유지하였다. 제향자의 연고 및 경관을 포함하는 입지 환경, 제향공간, 강학공간, 교류와 유식공간의 건축 배치, 각 건물의 유형적 형태, 목재와 기와를 사용하는 물질 구성, 보존 관리의 체계 등을 원래의 모습으로 유지하고 있다.

형태와 디자인 측면에서 신청유산은 서원 역사의 건축적 구현을 보여준다. 한국의 서원은 제향, 강학, 교류와 유식 공간의 유기적 결합을 하나의 전형적인 형태로 완성하였고, 이를 지금까지 변형 없이 완벽하게 유지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목조 건축기법과 좌식형 생활 관습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건축 형태를 만들어 내었다.

자재와 구성물질, 전통적 기법과 관리체계 측면에서, 신청유산은 서원 설립 당시의 건축적 결과물을 그대로 입증하고 있다. 현재까지도 조선시대 건축기법과 자재로 최소한의 보수를 해오고 있으며, 진정성과 완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전통적인 기법으로 영건하였던 원형을 따라 현재는 공인된 기술인력과 훈련받은 장인들에 의해 최소한의 보수를 행한다. 신청유산은 문화재청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며, 전승되어오는 전통 기술을 적용한다. 목조건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흰개미, 부식, 화재 등에 대해 공인된 전문집단의 관리를 받고, 예방조치를 한다.

신청유산은 기록유산, 무형유산에 속하는 것들도 잘 보존, 전승하고 있다. 서원을 거쳐간 인물들이 남긴 전적, 문집, 기문, 목판 등은 잘 보호 관리되고 있으며, 제향은 지금까지 창건 당시의 모습 그대로 계승되어 시행되고 있다. 기록유산과 무형유산 모두 개별 유산들이 지속된 전통을 보여준다.

▶ 보존 및 관리체계

신청유산인 한국의 서원은 9개의 서원으로 구성된 연속유산이다. 신청유산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온전히 포함하고 서원의 진정성과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계가 설정되었다. 또한 서원의 보호·관리는 대한민국의 문화재보호법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등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이미 국가 사적으로 각각 지정되어 해당

서원은 물론 주변 지역까지도 보호 · 관리되고 있다.
신청유산은 제향-강학-교류와 유식이라는 기능과 유기적인 공간구성을 통해 서원의 가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각각의 기능에 해당되는 건축물과 시설물들이 유산구역에 포함되었고, 서원의 입지와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한 산림, 농경지, 강, 계곡 등이 완충구역에 포함되어 보호 · 관리되고 있다.
현재까지 신청유산을 위협하는 개발 및 환경압력 등 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요인은 경미하다. 이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과 개발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청유산 대부분이 목재 건축물인 점을 감안한다면 잠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소화설비 및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재해 및 재난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세계유산 등재 이후 방문객과 관광 산업에 의한 서원의 보호 · 관리에 대한 영향은 향후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나 해당 서원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원 보존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9개 서원은 한국서원의 특징과 역사를 통합적이고 연속적으로 증명하며, 한국 성리학 교육기관의 전형으로서 서원의 특징을 잘 보존하고 있는 연속유산으로 16세기 중반부터 17세기까지 조선시대 지방 지식인들에 의해 건립된 대표적인 사립 성리학 교육기관이며, 한국의 서원이 하나의 유형으로 정립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유산이다. 그런가하면 건축적으로도 한국 서원의 정형을 뚜렷하게 완성하여 이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전통을 건축적으로 구현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9개 서원이 가진 특성은 중국이나 일본, 베트남의 서원들과는 다른 한국만의 독특한 특성을 잘 보존·정립한 사례이자, 성리학이 동아시아 전역에 확산되어 지역적인 특색을 가지며 꽃피운 중요한 사례라는 점에서, 세계유산으로서의 탁월한 가치를 인정받았던 것이다. 이제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서원문화의 전통과 가치, 한국의 서원에 깃들어 있는 교육과 정신, 문화적 전통을 한국의 문화브랜드로 세계에 새롭게 알리고, 향후 계승과 보존, 활용의 노력들을 함께 해야 할 과제들을 부여받게 되었다.

2.2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의 특성

신청유산 9개 서원은 한국서원의 특징과 역사를 통합적이고 연속적으로 증명하며, 9개의 서원으로 구성된 신청유산은 16세기 중반 서원 제도의 도입으로부터 시작하여 한국 사회에서 서원이 정착되어 나가는 역사와 건축의 성취를 증명한다. 신청유산은 성리학이 동아시아 전역에 확산되어 지역적인 특색을 가지며 꽃피운 중요한 사례라는 가치를 갖고 있다. 신청유산은 건축적으로 한국 서원의 정형을 뚜렷하게 완성하여 이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전통을 건축적으로 구현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갖추고 있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 등재기준, 속성

구분	criterion(iii)					criterion(iv)				
	서원발전	교육체계	강학특성	제향특성	사림활동	건축적 특징	입지	배치	건축물	경관
소수서원	제도도입	●	●	●	◎	건축요소	●	◎	●	●
남계서원	설립주체	●	◎	●	●	배치방식	●	●	●	◎
옥산서원	출판활동	●	◎	●	●	누각도입	◎	●	●	●
도산서원	학맥형성	◎	●	●	●	경관구현	◎	●	◎	●
필암서원	운영방식	●	◎	●	◎	평지특성	●	●	◎	◎
도동서원	교육체계	●	◎	●	◎	경사특성	●	●	◎	●
병산서원	사회활동	◎	◎	●	●	누각특화	◎	◎	●	●
무성서원	교화활동	●	◎	◎	●	입지특화	●	◎	◎	◎
돈암서원	예학심화	●	●	●	◎	강당특화	◎	◎	●	◎

● 탁월한 충족　　◎ 평균수준의 충족

▶ 소수서원(紹修書院)

경북 영주에 위치한 조선시대 최초의 사액서원(賜額書院)으로, 사액서원은 조선 시대 왕으로부터 편액(扁額)·서적·토지·노비 등을 하사받아 그 권위를 인정받은 서원이다. 조선 1543년(중종 38) 풍기군수 주세붕(周世鵬)이 국내 주자학의 효시인 고려시대 학자 안향(安珦)을 배향하고, 유생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설립한 백운동 서원이 사액받으면서 '소수서원'이 됐다.

소수서원은 한국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서원으로서 한국 서원의 강학, 제향과 관련된 규정을 최초로 제시하여 이후 건립되는 서원에 영향을 주었다. 이와 관련된 문헌 자료도 풍부하다. 소수서원은 교육기관으로서 서원이 강학, 제향, 회합과 유식 등의 기능을 기본적으로 갖춘 기본 모델로 평가받는다.

▶ 남계서원(南溪書院)

1552년(명종 7) 한국에서 두 번째로 건립된 서원으로 지역 사림들에 의해 설립된 최초의 사례이다. 함양 출신인 조선시대 학자 정여창(鄭汝昌, 1450~1504)을 모시기 위해 설립됐으며, 1566년 사액을 받은 서원이다.
건축적으로도 강당 영역이 앞에 있고 사당 영역이 뒤에 있는 한국 서원 건축의 정형적인 배치방식이 처음 등장한 사례이다. 각각의 주요 영역을 구분하여 하나의 축선 상에 배치한 것은 이후 건립되는 서원 배치방식의 전범이 되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경남의 의병활동을 주도한 서원이기도 하며, 이에 1595년(선조 28) 왜군에 의해 전소됐으나 1603년(선조 36) 바로 재건되기도 했다.

▶ 옥산서원(玉山書院)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 1491~1553)의 덕행과 학문을 기리기 위해 1573년 설립한 서원으로 경북 경주에 있다. 1574년 옥산이라는 사액을 받았다.
옥산서원은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며 중심 건물들이 남향이 아닌 서향으로 배치되어 있고, 서원 영역의 앞에 누마루 무변루를 지어 도입하여 회합 및 유식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였고 이는 이후 서원에 누마루 설치가 일반화되게 하였다. 옥산서원은 출판과 장서의 중심기구로서의 서원의 역할을 정립하였다. 16세기 명필인 한호(1543~1605)와 19세기 명필 추사 김정희(1786~1856)의 편액이 걸려 있다. 그리고 19세기 말 조정의 근대화 정책에 반발해 성리학 전통을 고수한 8849명의 서명 상소인 만인소가 소장돼 있다.

▶ 도산서원(陶山書院)

조선 성리학의 대가 퇴계 이황(退溪 李滉, 1501~1570)이 학문을 하며 제자들을 가르친 도산서당을 모체로, 퇴계 사후 4년 후인 1574년 건립된 서원으

로 경북 안동에 있다. 이듬해인 1575년 선조는 한석봉이 쓴 '도산서원(陶山書院)' 현판을 하사하기도 했다. 이 도산서원은 서원이 학문과 학파의 중심 기구로 발전하는 한국 서원발전의 과정을 입증한다. 이황의 문인 및 제자들의 학술공간으로서 성리학과 관련된 다양한 철학적 논쟁이 펼쳐졌으며, 정조는 1792년(정조 16) 이곳에서 7000여 명이 참가한 특별과거를 실시하기도 했다. 주변환경이 특히 탁월한 자연 경관으로 인하여 일대의 경관을 묘사한 다양한 시문이 3000여 점에 이르기도 한다.

▶ 필암서원(筆巖書院)

김인후(金麟厚, 1510~1560)의 도학을 추모하기 위해 1590년 건립된 서원으로, 전남 장성에 위치한다. 필암서원은 서원들이 경사지형을 이용하던 것과는 달리, 이 서원은 평탄한 지형에 세워진 서원 건축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형에 적합한 건축물 배치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1597년 정유재란으로 소실되었다가 1624년 복원되었으며, 1662년(현종 3) 지방 유림들의 청액소(請額疏)에 의해 '필암'이라고 사액되었다.

기록물을 통해 서원의 경제적 운영방식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필암서원에는 노비의 명단과 계보도인 노비보가 현존하는데 이는 국내에 존재하는 유일한 노비족보다.

▶ 도동서원(道東書院)

한훤당(寒暄堂) 김굉필(金宏弼, 1454～1504)을 모시기 위해 세운 서원으로, 대구 달성에 위치한다. 1605년 건립되어 1607년 도동서원으로 사액을 받았고, 서원 교육 방식의 구체적인 양상을 입증한다. 도동서원은 낙동강을 북쪽으로 바라보게끔 건립되어 경사지를 활용한 서원의 건축 배치를 탁월하게 구현하였다. 건축물별로 여러 개의 단을 조성하여 외부의 자연경관을 시각적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활용한 것은 경사지 서원의 조성 기법을 잘 보여준다. 인근에는 김굉필의 묘소가 있는데, 도동서원은 묘제와 서원 제향을 결합한 유일한 서원이다.

▶ 병산서원(屛山書院)

서애 류성룡(柳成龍, 1542~1607)을 향사한 서원으로 경북 안동에 위치한다. 1613년(광해군 5) 설립됐으며 1863년(철종 14)에 사액을 받았다. 병산서원은 유생 수천명이 연명상소를 올린 곳으로 유명하며, 교육기관으로서만이 아니라 만인소 등 사림의 공론장으로도 기능을 수행한 사림활동 중심지 기능을 입증한다. 병산서원은 2010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의 일부이기도 하며 경관에 있어서도 정면 7칸, 측면 2칸으로 된 누마루인 만대루(晩對樓)는 자연경관과의 조화가 탁월한 곳이자, 많은 학자들의 수용이 가능한 큰 규모의 누각으로 유명하다.

▶ 돈암서원(遯巖書院)

1634년(인조 12) 건립된, 조선시대 예학(禮學)을 대성한 유학자인 김장생(金長生, 1548～1631)을 추모하고, 성리학의 실천 이론인 예학을 한국적으로 완성한 거점으로 충남 논산에 위치한다. 예학은 전쟁으로 피폐해진 국가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연구된 학문으로, 예서의 출간을 비롯하여 김장생의 후학들로 아들인 김집(1574~1656)과 송준길(1606~1672), 송시열(1607~1689)로 이어졌으며 1660년(현종 1)에 '돈암(遯巖)'이라 사액을 받는다. 응도당을 정침이론에 맞추어 만들었는데 응도당은 정침이론을 한국의 건축언어로 재해석하여 완성한 뛰어난 건물로서 한국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사례이다.

▶ 무성서원(武城書院)

1696년 지방관의 향촌민에 대한 학문 부흥을 목적으로, 마을 가운데 세워진 특별한 모습의 서원이다. 전북 정읍에 위치한다. 원래 통일신라 말기의 학자인 최치원(崔致遠)을 제향하기 위한 태산사(泰山祠)였으나, 1696년(숙종 22) 사액을 받아 무성서원이 되었다. 지역사회의 강학과 성리학 연구를 중심으로 했던 다른 서원들과 달리 무성서원에 배향된 인물들은 향촌 교육과 연계돼 성리학의 가치를 보급하고 학문을 권장했다. 무성서원은 특히 향촌 자치규약인 향악과 관련이 깊어 지역민 결집에 중요 역할을 했고, 최익현(1833~1906)과 임병찬(1851~1916) 선생이 바로 이 무성서원에서 항일 병오의병을 일으키기도 했다.

2.3 지성과 인문의 상징 '서원' 문화

서원은 조선시대 지방의 고급 인재들이 수시로, 출입하고 접촉·교류했던 상징적인 기구였다. 서원은 당시 성리학의 발전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교육과 문화, 그리고 지성 활동의 구심점이었고, 한국 정신문화의 저변을 형성하고 그 수준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상징적 유산이다. 서원은 '조선시대 지성의 요람이자 주요 활동장소'로서 지성사적 전통과 정신문화적 유서가 서려 있는 곳이었다. 조선시대 서원은 자기 수양의 정신자세 및 도의와 염치를 알고 도덕을 몸으로 실천했던 조선시대 선비들의 학문적 삶, 도덕적 실천의 장이었다.

서원은 자신들이 존경하고 멘토로 삼는 스승의 연고지에 후학과 문인들이 건립하고, 제향과 함께 그 정신을 이어갔다. 그렇게 하여 서원은 조선의 선비들을 길러낸 곳이면서, 한편으로는 선비들의 활발한 문화활동 공간이었다. 서원은 제향인물과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별, 학맥별 독특한 사상, 교육 방식, 운영 모습을 지닌다.

그리고 서원은 수시로 출입하고 접촉, 교류했던 거점공간이자 상징적 기구였으므로 교육과 강학 이외에 여론과 공론을 결집하는 집회소로서도 큰 기능을 하였다. 각 지역의 교육과 문화, 그리고 지성 활동의 구심점이었고, 한국 정신문화의 저변을 형성하고 그 수준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상징적 유산이다. 그런가하면 제향의례를 비롯하여 사회교육과, 도서관과 출판 기능 등 여러 문화적 기능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지성문화의 요람으로 서원에 전해지는 역사, 교육, 제향, 무형의 문화유산이 지닌 전통적 가치는 현대사회에도 계승, 활용해야 할 가치와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 교육과 지성문화의 전당

한국의 서원은 교육과 한국지성문화의 요람이었다. 서원문화에서 보여진 이들 고급 지성들의 개성과 학문적 삶, 도덕적 실천의 삶은 현대 지성들이 귀감을 삼고 더욱 부러워해야 할 모범이라 할 만하다.

한국 서원은 저명 성리학자를 제향 하는 곳이면서, 각 지방의 고급 인재들이 수시로 출입하고 접촉, 교류했던 공간이자 상징적 기구였다. 특히 한국 서원의 진면목은 자신들이 존경하고 멘토로 삼는 스승의 연고지에 후학과 문인들이 건립하고, 제향과 함께 그 정신을 이어간 것에서 잘 나타난다. 서원은

일방적인 지식 전수가 아닌 강론과 학문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고, 여론과 공론의 결집처로서 지역 지성사의 거점이 되어 문화적·사회적 활동은 물론 정치적 활동까지 전개하였다.

⊙ 지연과 학연, 공론의 요람

또 한국의 서원은 향촌사회의 문화거점이자 지성사적 활동 공간으로, 지연과 학맥, 때로는 정파의 연대와 교류의 거점이었다. 즉 서원 건립이 왜 그 시기에, 그곳에, 그리고 어떤 주체세력들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 9개 서원이 각각 특징 있는 여러 모습들로 밝혀진다. 9개 서원들은 각각 건립 이래 지역별로 그들 세력을 양성하고, 사회·정치 활동의 근거지로서 지역 사림의 공론을 형성하고, 여론을 '수렴', '결집', '소통', '대변'하는 거점 역할을 했다. 이 같은 공론 형성과 사회적 역할은 중국이나 일본의 서원과 근본적으로 차별화된 한국 서원만의 특성이다. 그리하여 서원은 지역 지성들의 활동 거점으로 국난기에 의병창의라든가, 연명상소, 격렬한 학문토론의 모습을 통하여 많은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 제향, 강학, 교류와 회합의 공간

한국 서원의 공간 구성은 다른 나라의 서원들과 차별화되는 특별한 성격으로, 제향공간인 사우와 강학공간인 강당, 교류와 회합의 공간인 누정 등의 건축물들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다. 오랜 역사와 정형화의 과정도 중요하며 탁월한 사례라는 점이 인정을 받는다. 모든 서원을 상징하는 사우와 강학공간과 함께 교류와 회합의 공간으로 도산서원의 경렴정, 병산서원 만대루, 남계서원의 풍영루, 필암서원의 확연루, 옥산서원의 무변루, 돈암서원의 응도당 등은 대표적 건물들이다.

⊙ 유교문화 자료관·박물관

한국의 서원은 '한국유교문화의 자료관, 박물관'으로 일컬어질 만큼 다양하고 특징적인 유형, 무형의 자료들을 간직하고 있으며, 서원의 역사와 전통, 건축, 경관, 기록유산 등 유·무형의 문화유산들은 바로 이러한 유교, 선비문

화의 다양성과 특성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서원은 지역별, 학맥별로 가치와 이념을 추구하는 본산이었다. 따라서 강학의 도구로써 각종의 교과용 도서나 사전류, 주요 저술이나 각 시기의 대표적 출판물들이 보급·소장되게 마련이었다. 또한 서원은 제향인물이나 그의 학맥을 잇는 인사들의 문집류, 자료나 사적들이 보존되게 마련이고, 서원의 운영과 관련된 실제적인 고문서자료들도 많이 보관되어 있다. 특히 조선시대의 출판문화를 선도했던 것도 서원이었다. 서원에서는 제향인물의 문집이나 실기의 판각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사회사적 명망과 결속의 정도에 따라서는 향약이나 시회 등 각종 계회 자료들이 발간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한국의 서원은 단지 저명한 성리학자를 추숭하고 제향하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교육과 의례의 거점 공간인 동시에 지성사적 문화전통을 대표하는 곳이었다. 즉 조선시대 선비의 학문성과 도덕적 실천성, 개성을 보여주며, 지역 문화의 역사성과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곳이 바로 서원이었다.

2.4. 서원문화의 계승과 활용 가치

조선시대 서원 문화는 학문과 학자를 대우하며, 자기 수양의 정신자세 및 도의와 염치를 알고 도덕을 몸으로 실천했던 조선 선비들의 학문적 삶, 도덕적 실천의 삶을 상징한다. 그런가하면 한국의 서원은 지연과 학연이 맺어준 교육과 지성의 장이었다. 서원은 지역별로 많은 사림을 양성하여 정계에 공급했고, 문화거점이자 지성사적 활동 공간으로, 여론과 공론의 '결집', '소통', '대변'의 기능을 수행했다. 특히 정치 및 학술 논쟁과 지역 간, 학맥(당론)간 네트워크 형성이라든가 강학, 강회, 소회, 창의 등을 통한 활동 등은 조선의 서원만이 지닌 매우 중요한 특징으로 인정받는다.

⊙ 현대에 더 절실한 서원의 선비정신

현대사회는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생(共生)'의 공동체의식이 점차 사라져가고, 정신보다는 물질이, 또 오로지 남을 딛고 올라서는 경쟁만이 살길이라는 '상쟁(相爭)'의 문화가 우리들을 압도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에서 도덕성의 타락과 참된 지성인의 부재가 커다란 문제로 지적되며, 우리의 현재를 올바로 평가하고 미래를 예시할만한 "어른"도 별로 보이지 않는다고 걱정들이다.

다시 바라보면 조선의 선비문화, 유교문화는 어쩌면 21세기의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자, 미래 사회의 화두인 '지성사'와 '정신사'의 본질적 모습을 지닌다. 우리가 잘못 인식하고 폄하해서 그렇지 조선시기는 '지성과 도덕'이 존중된 사회였다. 그리고 <양반 = 선비>의 문화 수준, 지성적 수준은 현대 인문학의 수준보다 훨씬 높았다. 우선 방대한 문집의 량, 관심의 폭(문학, 철학, 역사, 경세학, 기타 종합과학), 학문 이외의 현실적 관심과 대응력, 그런가하면 도덕성과 실천력에 있어서도 현대 지식인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명실상부한 실력 집단이었다.

그들은 경세가로서의 경쟁력도 있었고, 문화주도층이자 창조자였으며 양심과 도덕적 실천가였다. 과거사회를 이끌어 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간 선비들의 경험 철학 속에는 도덕성, 변화에 대한 비판과 대응력, 진취적 참여와 실천력이 담겨져 있다. 양반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제대로 된 선비가 없어서 나라가 망했던 것을 바로 알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현대에 정말 더 필요한 것이 선비문화가 아닌가 생각해 보곤 한다. 경쟁, 경제 중심 가치관은 인간성 상실과 가치관의 혼요로 귀결되었고,

이를 극복할 대안으로서 과거 선비의 종합적 삶의 가치와 방식이 상정되는 것이다.

특히 학문과 학자를 대우하며, 자기 수양의 정신자세 및 도의와 염치를 알고 도덕을 몸으로 실천했던 조선시대 선비들의 학문적 삶, 도덕적 실천의 삶, 개성과 자존심의 삶은 오히려 현대지성들이 귀감을 삼고 더욱 부러워해야 할 모범이라 할 만하다. 지성인의 핵심 덕목이라 할 지성사와 도덕적 실천, 어른스러움의 대명사였던 조선의 선비문화가 자랑스럽게, 그리고 글로벌 사회에서 한국정신사의 고급브랜드로, 미래 경쟁력으로 되살려졌으면 싶다. 서원은 바로 그러한 인문과 지성문화의 전당이자, 실현 장소이었다. 서원문화의 올바른 계승과 활용의 필요성, 기대가 커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성인의 핵심 덕목이라 할 지성사와 도덕적 실천, 어른스러움의 대명사였던 조선의 선비문화가 자랑스럽게, 그리고 글로벌 사회에서 한국정신사의 고급브랜드로, 미래 경쟁력으로 되살려졌으면 싶다. 세계유산 조선시대 서원의 이러한 가치가 오늘날 되살려지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정만조, 『조선시대 서원연구』, 집문당, 1997.

이수환, 『조선후기 서원연구』, 일조각, 2001.

이상해, 『서원』, 열화당, 2002.

경기대 소성학술연구원, 『한국의 서원과 학맥연구』, 국학자료원, 2002.

설석규, 『조선시대 유생 상소와 공론정치』, 2002, 선인

이해준, 「한국 서원과 향촌사회」, 『한국학논총』 29, 국민대한국학연구소, 2006.

이해준, 『조선후기 문중서원연구』, 경인문화사, 2008.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동아시아 유교문화권 속의 서원』, 국제학술세미나 자료집, 2009.

이해준, 「한국 서원 유형·무형유산의 특징」, 『한국서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국가브랜드위원회, 2011.

이해준, 「서원현판류 기문자료의 기록문화적 가치」, 『서원 현판자료 정리 보존관리의 현황과 과제』, 한국서원학회 워크숍 자료집, 2012

정순우, 『서원의 사회사』, 태학사, 2013.

한국서원연합회, 『한국의 서원문화』, 2014.

한국서원연합회, 『한국의 서원유산』, 2014.

한국서원 세계유산등재추진단, 『한국의 서원유산-현판과 기문-』, 2014.

한국서원 세계유산등재추진단,『한국의 서원유산-고문서, 고서, 책판-』, 2014.

한국서원 세계유산등재추진단, 『한국의 서원유산-제향의례-』, 2014.

이해준, 『한국서원의 전통가치와 현대적계승』, 한국학중앙연구원(공저, 책임), 2018

이해준, 「한국의 서원, 역사적 가치와 활용방안」,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백서』, 2020

이해준,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과 돈암서원」, 『돈암서원, 세대를 잇다』, 2020.

이해준, 「조선 서원의 지성사적 전통과 문화」,『서원 - 어진이를 높이고 선비를 기르다-』국립전주박물관, 재)한국의 서원통합보존관리단, 2020.

이해준, 「'한국의 서원'의 통합관리 정책」,『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등재 이후의 과제』,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국제학술포럼, (재)한국의 서원통합보존관리단, 2021.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2022년 문화관광해설사 현장교육

3장. 퇴계, 서원 향사례의 초석을 다지다

2.1 들어가는 말
2.2 백운동서원 향사례에 대한 문제제기
2.3 「춘추향도」와 「묘제홀기」의 제정
2.4 맺는 말

3장. 퇴계, 서원 향사례의 초석을 다지다

한재훈(성공회대학교 대우교수)

3.1 들어가는 말

퇴계는 서원의 본질적 기능을 '강도講道'와 '존현尊賢' 두 가지로 보았다.[1] '강도'란 스승과 제자 그리고 동문학우들이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 사상적 진리를 함께 익혀나가는 것이고, '존현'이란 선현들의 위패를 모시고 그들의 학문적 업적과 실천적 덕행을 기리며 본받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퇴계는 이 두 가지 기능을 각각 인재를 양성한다는 의미의 '작인作人'과 도덕을 존숭한다는 의미의 '숭도崇道'로 표현하기도 하였다.[2] 이때 '강도'(작인)는 서원의 교학敎學 기능을 의미하고, '존현'(숭도)은 향사享祀 의식을 의미한다.

서원의 본질적 기능이 이와 같은 두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서원 관련 연구는 대체로 교학의 장으로서의 서원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왔다. 그리고 조선시대 서원의 발전과 관련한 퇴계의 역할을 구명하는 연구들 역시 주로 교학공간으로서의 서원을 중심으로 조명되어 왔을 뿐, 그가 향사공간으로서 서원의 발전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다. 이는 서원의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인 강도(작인)와 존현(숭도) 중에서 전자에 편중된 것으로, 서원의 전모를 온전히 구명하기 위해서는 후자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이 글은 서원에 대한 균형 잡힌 연구의 진행을 위해, 특히 서원의 정착과 발전 과정에서 보여준 퇴계의 기여를 향사례享祀禮와 관련한 측면에서 살펴보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당시 서원 향사례에 대한 퇴계의 문제의식을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다음으로는 자신의 문제제기에 대한 대안으로 퇴계가 제시한 내용들을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퇴계가 서원 향사례를 완벽한 수준에서 정립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이후 서원 향사례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는 든든한 초석을 놓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

1) 『退溪全書』 卷12, 「擬與豐基郡守論書院事」: 夫書院何爲而設也, 其不爲尊賢講道而設乎?

2) 『退溪全書』 卷42, 「迎鳳書院記」: 我東書院亦昉於今日, 皆所以廣敎思敦化原也, 而其有廟以祀先賢者, 則其於崇道作人之方, 尤爲備也.

3.2 백운동서원 향사례에 대한 문제제기

조선시대 학문과 사상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퇴계退溪 이황李滉(1501-1570)은 조선 성리학의 실질적 선하先河로 평가된다. 퇴계는 「천명도天命圖」와 「성학십도聖學十圖」를 찬술하고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와 『이학통록理學通錄』을 편찬하는 등 중요한 학술적 업적을 남겼을 뿐 아니라, 지인이나 제자들과 더불어 '사단칠정논변四端七情論辯'이나 '상제례답문喪祭禮答問' 등 수많은 논변과 문답을 진행함으로써 이론적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데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퇴계가 조선성리학의 발전에 드리운 공로는 이러한 학술적·이론적 측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는 올바른 학자들을 양성함으로써 학문과 사상의 지속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안정적 기반과 실질적 여건을 조성하는 데도 큰 기여를 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서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공식화하고 사회적 인식을 제고한 점을 들 수 있다.

퇴계가 활동했던 16세기 중엽까지만 해도 조선에는 아직 서원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 시기였다. 그것은 우선 당시 건립된 서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었다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퇴계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던 시기인 명종(재위 1534~1567) 때까지 조선에 세워진 서원의 수는 22개에 불과했다. 이는 조선말 흥선대원군이 서원철폐령(1868년과 1871년)을 내릴 때 전국에 700여 개의 서원이 존재했었다는 사실과 비교해보았을 때 아직 초보적 단계에 불과했음을 말해준다.

뿐만 아니라, 퇴계 당시에는 서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폭넓게 형성되어 있지 못했다. 예컨대 국학國學이나 향교鄕校 등이 있는데 서원이라는 교학공간이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다. 이에 대해 퇴계는 서원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왕궁王宮 국도國都로부터 열군列郡에 이르기까지 학교가 없는 곳이 없음에도 서원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는 것이며, 중국이 저토록 이를 중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은거하며 지조를 지키려는 선비나 도리를 강명하고 학업을 닦으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시끄럽고 경쟁하는 세상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묵은 서책을 짊어지고 느긋하고 한적한 산속이나 물가로 숨어들어 선왕先王의 도를 노래하고 읊조리며, 고요히 천하의 의리義理를 연구하면서 자신의 덕德을 축적하고 자신의 인仁을 순숙시키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으려 합니다. 그래서 서원에 나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는 도성 한 가운데 위치한데다 갖가지 구속적인 학령學令과 마음을 움직이고 관심을 빼앗는 이물異物들로 포위된 국학이나 향교와 비교할 때 그 공효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입니다.[3]

이렇게 서원의 필요성을 역설한 퇴계는 지속적인 학문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서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마치 근원이 없는 물처럼 항구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들어 국가를 상대로 서원의 진흥을 설득했다.[4] 그런가 하면 퇴계는 서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그야말로 지원에 그쳐야 하며 간섭으로

3) 『退溪全書』 권9, 「上沈方伯」: 夫自王宮國都以及列郡莫不有學, 顧何取於書院, 而中國之所尙如彼何哉? 隱居求志之士講道肄業之倫率多厭世之囂競, 抱負墳策, 思逃於寬閒之野寂寞之濱, 以歌詠先王之道, 靜而閱天下之義理, 以蓄其德, 以熟其仁, 以是爲樂, 故樂就於書院. 其視國學鄕校在朝市城郭之中, 前有學令之拘礙, 後有異物之遷奪者, 其功效豈可同日而語哉?

4) 『退溪全書』 권9, 「上沈方伯」: 滉竊以爲敎必由於上而達於下, 然後其敎也有本, 而可遠可長. 不然, 如無源之水朝滿而夕除, 豈能久哉?

변질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점도 잊지 않고 경계했다.[5] 그러면서 퇴계는 서원이란 선비들이 학문을 성취하는 데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어진 인재를 얻는 데 있어서도 향교보다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원의 기대효과를 국가적 차원에서 주장했다.[6]

> 오늘날 국학은 어진 선비들로 운영되고 있지만, 군현의 학교들은 문구만 갖추어 놓았을 뿐 교육하는 방도가 크게 무너져 있어서 선비들이 향교에서 공부하는 것을 도리어 부끄럽게 여기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그 심각한 폐단을 구원할 방도가 없으니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때에 서원의 교육이 일어난다면 교육정책의 결함을 구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자들이 귀의할 곳이 있게 되면 선비의 기풍도 따라서 크게 변할 것이고 나라의 풍습 또한 날로 아름다워져서 임금의 교화가 성취될 것이니 성상의 다스리심에 작지 않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7]

1549년 12월 퇴계는 풍기군수로 재직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을 사액賜額해달라는 주청을 방백方伯을 통해 나라에 올렸다. 그리고 이는 서원에 대한 조야의 관심을 환기시켜 이듬해 백운동서원은 마침내 조선시대 최초의 사액서원인 소수서원紹修書院으로 사액되었다.[8] 한편, 백운동서원에 대한 사액을 주청하기 직전인 1549년 가을에 퇴계는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업적을 남겼다. 그것은 퇴계가 백운동서원에서 준행되어 오던 기존의 향사례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를 개정함으로써 서원 향사례와 관련한 중요한 표준을 제시하였다는 사실이다. 백운동서원에 대해 사액을 주청한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는 서원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같은 해 백운동서원의 향사례를 수정하여 새로운 표준을 제시한 사실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사실 퇴계가 백운동서원을 사액해달라고 주청한 것은 서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했기 때문이며, 특히 서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했다. 그래서 퇴계는 원생들이 공부할 서적은 물론이고 서원 운영에 필요한 토지와 노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9] 하지만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은 서원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외적 조처일 뿐, 그 자체가 서원의 발전을 의미하거나 담보해줄 수는 없다. 서원이 실질적인 발전을 이룩하려면 서원의 두 가지 기능인 교학과 향사가 더욱 체계적으로 정비되는 내적 조처가 반드시 동반되어야만 한다.

먼저 서원의 교학기능과 관련하여 퇴계는 교학의 원칙을 세우기 위한 다양한 제안을 했을 뿐 아니라, 1559년에는 이후 조선 서원의 전범으로 평가 받는 「이사원규伊山院規」를 제정하였다.[10] 이밖에도 서원의 교학에 관한 퇴계의 업적은 기존의 관련 연구들에서 이미 충분히 밝혀놓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논급할 필요는 없다. 이에 반해 서원의 또 다른 기능인 향사례와 관련해서 퇴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밝혀진 바가 없다. 이 글은 바로 퇴계가 서원 향사례를 정립해가는 과정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

5) 『退溪全書』 권9, 「上沈方伯」: 令監司郡守, 但句檢其作養之方, 贍給之具, 而勿拘以苛令煩條.
6) 『退溪全書』 권9, 「上沈方伯」: 非惟士之爲學得力於書院, 國家之得賢亦必於此而優於彼也.
7) 『退溪全書』 권9, 「上沈方伯」: 滉竊見今之國學, 固爲賢士之所關, 若夫郡縣之學, 則徒設文具, 敎方大壞, 士反以游於鄕校爲恥, 其刓敝之極無道以救之, 可爲寒心. 惟有書院之敎盛興於今日, 則庶可以救學政之缺. 學者有所依歸, 士風從而丕變, 習俗日美, 而王化可成, 其於聖治非小補也.
8) 백운동서원이 소수서원으로 사액되는 과정에 관해서는 송긍섭, 「李退溪의 書院敎育論 考察-書院의 性格이 變化하는 過程을 中心으로」, 『퇴계학과 유교문화』 2집(1974)에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9) 『退溪全書』 권9, 「上沈方伯」: 欲請依宋朝故事, 頒降書籍, 宣賜扁額, 兼之給土田臧獲, 以贍其力.
10) 丁淳睦, 「朱晦庵과 李退溪의 書院敎育論比較」, 『退溪學報』 53집(1987), 38쪽.

신재愼齋 주세붕周世鵬(1495-1554)이 제정하고 줄곧 시행해 오던 백운동서원의 향사례에 대해 퇴계는 크게 두 가지 분야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하나는 향사의 '진설陳設'과 관련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의식의 진행절차를 보여주는 '홀기笏記'와 관련해서이다. 신재가 찬술한 『죽계지竹溪志』[11] 중 「행록후行錄後」에는 당시 백운동서원에서 시행해오던 향사례를 보여주는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향사의 진설도에 해당하는 「안문성공춘추대향도安文成公春秋大享圖」와 진설할 때 참고해야 할 사항들을 담고 있는 「의도제용잡물식依圖祭用雜物式」이 그것이다. 이 두 자료가 당시 백운동서원에서 시행하던 진설 현황을 보여주는 것들이라면, 「제식祭式」은 간략한 형태로나마 향사의식의 진행절차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제식」은 역시 신재에 의해 별도의 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지는 「홀기」와 더불어 당시 향사의 의식절차를 보여준다.[12]

먼저 백운동서원의 향사에서 시행되어 오던 진설에 대한 퇴계의 문제제기부터 살펴보자. 퇴계는 기존에 시행되어 온 진설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으로 '밀과密果'를 진설해온 관행을 꼽았다. 신재에 따르며, 밀과는 찹쌀가루 5승(升), 조청 3승, 기름 3승을 섞어서 만들었으며, '연밀과軟蜜果'라고도 불렸다.[13] 그런데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은 우리나라 말에서 '밀蜜'자가 '약藥'자와 통용해서 쓰이는 점을 근거로 밀과는 약과를 가리킨다고 설명한 바 있다.[14] 이러한 정황들에 비추어보았을 때 밀과는 곧 약과를 포함한 한과 종류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퇴계가 백운동서원의 향사에서 밀과를 진설해온 관행을 문제시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서원'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향사'라는 특별한 의식을 진행하는데 일반 제사상에 올리는 '밀과'를 진설한 것이 정합적이지 못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퇴계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 삼가 『죽계지』에 실린 도표를 살펴보니, 우측 두 번째 두豆에 연밀과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주씨周氏[15]의 의도는 문성공 등이 모두 동인東人[16]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풍속에 따라 밀과를 제향에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여겼던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아무리 동인일지라도 기왕 학學(교육기관: 필자)에서 제향을 받드는 것이라면 당연히 옛 예법에 따라 행해야지, 어찌 밀과와 같은 일상적인 음식을 학學에서 사용할 수 있단 말인가? 더구나 과果임에도 두豆에 담아 올린다는 것은 더욱 적절하지 않다.[17]

백운동서원은 신재의 주선으로 1543년 건립되어 문성공文成公 회헌晦軒 안향安珦

11) 1543년 백운동서원을 창건한 신재는 이듬해인 1544년 백운동서원의 향사 대상인 회헌晦軒 안향安珦(1243-1306)을 위시한 죽계안씨의 행적이나 관련기록물(행록行錄) 그리고 서원의 재정상태(학전學田)와 도서구비상황(장서藏書) 등을 기록한 『죽계지竹溪志』를 찬술하였다.

12) 退溪는 「祭式」과 「笏記」를 비교, 검토하고 이들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國朝五禮儀』 '釋奠儀'를 전거로 삼아 「笏記」 역시 새롭게 정비한다. 이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상술할 것이다.

13) 『竹溪志』「行錄後·依圖祭用雜物式」: 軟蜜果, 每位各肆升.【合眞末壹斗伍升, 淸參升, 油參升.】(참고로 「安文成公春秋大享圖」에는 '밀과蜜果'로 기재되어 있으나, 「依圖祭用雜物式」에는 '연밀과軟蜜果'로 기재되어 있다.)

14) 『與猶堂全書』 雜纂集 제24권, 「雅言覺非」 '藥果'條: 按, 東語蜜謂之藥, 故蜜酒曰藥酒, 蜜飯曰藥飯, 蜜果曰藥果.

15) 신재 주세붕을 가리킨다.

16) 중국 사람에 대하여 우리나라 사람을 가리킨다.

17) 『退溪全書』 續集 권8, 「安文成公享圖」: 謹按『竹溪志』本圖, 右二豆用軟蜜果. 周氏之意, 豈不以文成諸公東人也, 循國俗而祭用蜜果, 固爲無妨也耶? 雖然, 東人旣祭於學, 則所當倣古而行, 豈可以蜜果褻味, 用之於學中乎? 且果而盛于豆, 尤非所宜.

(1243-1306)을 주향으로 모시고, 이듬해인 1544년 회헌 안향의 재종손인 문정공文貞公 근재謹齋 안축安軸(1282-1348)과 문경공文敬公 안보安輔(1302-1357) 형제를 배향으로 모셨다. 위 글에서 언급한 '문성공 등이 모두 우리나라 사람'이란 표현은 이를 두고 한 말이다. 백운동서원에서 밀과를 진설해온 관행은 밀과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 향사 대상인물들이 우리나라 인물들이기 때문에 제품祭品 역시 우리나라의 풍습에 따라도 무방하다는 안일한 생각이 밀과의 진설로 표출되었다는 것이 문제였다. 그리고 이는 서원 향사례의 본질적 성격에 대한 무지 또는 무시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이 퇴계가 가졌던 문제의식이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퇴계는 우선 서원에서 봉행하는 향사의 성격을 분명히 한다. "기왕 학學에서 제향을 받드는 것이라면"이라고 한 퇴계의 언급은 바로 서원이 교육기관임을 분명히 한 것이며, 이는 서원에서 봉행하는 향사 역시 다른 일반적인 제사와 달라야 한다는 점을 함축하고 있다. 즉, '학'으로서의 서원은 이미 교육기관이라는 특수한 성격을 갖는 공간이고, 따라서 그 자체의 존재이유와 고유한 운영방식이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봉행되는 일체의 향사의식 또한 이러한 이유와 방식에 비추어 가장 적합한 의식절차로 제정된 예법에 따라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퇴계가 문제라고 지적한 밀과의 진설은 밀과라는 특정 물품에 대한 문제제기라기보다 서원 향사례의 본질적 성격에 대한 무지 또는 무시로 빚어진 기존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다음으로 퇴계가 지적한 사항은 "과果임에도 두豆에 담아 올린다"는 점이었다. 전통사회에서 예禮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것은 그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의미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것이 없다. 의식절차 하나하나에서부터 의복과 기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각자 의미의 구현체로서 존재하고, 이러한 의미 단위들이 또 다른 의미 단위들과 결합하여 하나의 커다란 의미 집합으로 구성된 것이 곧 예이다. 서원의 향사에 사용하는 제기祭器 역시 아무 그릇이나 사용하지 않고 변籩과 두豆라는 제기를 사용한다. 이때 변은 대나무를 엮어서 만든 제기를 가리키고, 두는 나무를 깎아서 만든 제기를 가리킨다. 변과 두의 용도에 관하여 『의례儀禮』「향사례鄕射禮」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 포脯를 올릴 때는 변을 사용하고, … 해醢를 올릴 때는 두를 사용한다.[18]

정현鄭玄(127-200)은 변과 두의 용도에 관한 『의례』「향사례」의 구절에 대해 "포를 올릴 때 변을 사용하는 것은 변이 마른 제물에 적합하기 때문이고, 해를 올릴 때 두를 사용하는 것은 두가 젖은 제물에 적합하기 때문"이라고 주석했다.[19] 이러한 규정에 따라 변에는 포나 과일 종류를 올리고, 두에는 젓갈이나 절임(김치) 종류를 올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밀과가 비록 예법에 정해진 제사음식은 아니지만 굳이 올려야 한다면 '마른 제물'을 올리는 변에 담아 올리는 것이 그나마 합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백운동서원의 진설에서는 밀과를 두에 담아 올렸던 것이다.

이러한 기존의 관행은 밀과를 올리는 것 자체가 옳지 못한 데다 엉뚱한 제기에 올리기까지 했다는 이중의 과오를 저지른 셈이었다. 또한 이러한 과오는 당시 백운동서원의 향사가 제기의 용도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수준에서 봉행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퇴계가 밀과를 두에 담아 올린 부분을 지적하면서 "더욱 적절하지 않다"고 탄식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

---

18) 『**儀禮**』「鄕射禮」: **脯用籩, … 醢以豆.**
19) 鄭玄注: 脯用籩, 籩宜乾物也. 醢以豆, 豆宜濡物也.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퇴계는 '밀과'를 일상적 음식[褻味]으로 규정해 그 진설을 반대하고, "옛 예법에 따라 행해야 한다"[倣古而行]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당시 서원의 향사례가 아직 속례俗禮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데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어떤 방향으로 시정해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선언의 성격을 갖는다. '속례'란 대체로 시간적 의미에서 '금속今俗' 혹은 '시속時俗'이라는 말로 바꾸어 불리거나, 공간적 의미에서 '국속國俗' 혹은 '세속世俗'이라는 말로 불리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들에는 예禮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어떤 의식행위가 이른바 '정례正禮'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는 비판적 함의가 내포되어 있다.[20]

참고로 퇴계가 말한 『도산지』에 실린 도표란 아래 「안문성공춘추대향도安文成公春秋大享圖」를 가리킨다.

安文成公春秋大享圖[配位同][21]

右四豆		神位		左四籩	
魚醢	蜜果	簋(黍)	籩(稻)	乾棗	鹿脯
菁菹	韭菹	簋(稷)	籩(粱)	栢子	栗黃
		雞醒 俎 幣篚			
燭		香罏			燭
	爵	爵		爵	
祝坫					
	門	門		門	
		◯瓶 (正位尊所)	◯瓶 (配位尊所)		

다음으로 살펴보아야 할 사안은 향사의식의 진행절차가 명시되어 있는 홀기笏記에 관한 퇴계의 문제제기이다. 홀기는 고대에 신하가 임금을 알현 할 때 휴대했던 홀笏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품급에 따라 옥이나 상아 혹은 대나무 등으로 제작되었던 홀은 신하가 임금을 알현할 때 보고할 사항이나 지시받은 사항을 잊지 않기 위해 그 내용을 기록해두었던 용도로 사용되었다. 즉, 홀의 본질적 용도는 비망備忘이었던 셈이다. 이러한 전통에서 비롯된 홀기는 중요한 예를 진행하는 의식에서 해당 의식의 절차와 순서를 기록해 둔 문건으로, 보통 여러 겹으로 배접한 종이를 기록할 내용의 분량에 따라 여러 단으로 접어서 만든다. 그리고 실제 의식을 집전하는 집례執禮는 의식의 절차와 순서에 조금의 착오도 없게 하기 위해 이 홀기를 보면서 낭독한다.

앞에서도 간략하게 언급했던 것처럼 당시 백운동서원에서 시행했던 향사의식의 진행절차가 기록되어 있는 자료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도산지』에 수록되어 있던 「제식祭式」이고, 다른 하나는 별첩으로 만들어져 사용되었던 「문성공묘제홀기文成公廟祭笏記」(이하 「홀기」)이다.[22]

---

20) '俗禮'에 대한 退溪의 문제의식에 관해서는 한재훈, 2010 참고.

21) 「안문성공춘추대향도」는 國史編纂委員會, 『朝鮮時代嶺南書院資料』(1999), Ⅰ.紹修書院資料, 6.愼齋笏記,(117쪽) 참조.(단, 『朝鮮時代嶺南書院資料』에서는 '6.退溪笏記', '7.愼齋笏記'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잘못된 표기이며 '6.愼齋笏記', '7.退溪笏記'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을 아울러 밝혀둔다.)

22) 「홀기」 역시 國史編纂委員會, 『朝鮮時代嶺南書院資料』(1999), Ⅰ.紹修書院資料, 6.愼齋笏記,(117쪽) 참조. 참고로 「笏記」의 표지에 다음과 같은 설명이 적혀 있다. "이 홀기는 「의도제용잡물식依圖祭用雜物式」이나 「제식祭式」과 마찬가지로 당초 주신재가 제정한 것이다. 그 뒤에 퇴계선생께서 수정을

이 두 자료는 모두 신재가 제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퇴계는 이 두 자료를 비교 검토한 후, 이 두 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홀기」의 전반적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 서원에는 예전부터 「문성공묘제홀기文成公廟祭笏記」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주무릉[23]이 제정한 것이라 하는데, 그 의절이 대체로 간편하고 평이함을 따르는 데 역점을 두어 경솔하고 구차스러운 병폐가 있음을 면치 못한다. 더구나 그 중의 몇 조목들은 『주계지승제식』과 충돌하는 부분도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무릉이 제정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24]

퇴계가 신재(무릉)의 작품이 아닐 가능성까지 제기하면서 지적했던 「홀기」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홀기」에는 상향례上香禮와 초헌례初獻禮가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상향례는 초헌관이 신위 앞에 나아가 향을 세 번 피우고 폐백을 올리는 의례이고, 초헌례는 초헌관이 신위께 첫 번째 술잔을 올리는 의례이다. 따라서 이 둘은 엄연히 의미내용이 다른 의식이다. 퇴계는 다음과 같이 이 문제를 지적했다.

> 「제식」에는 상향례를 행한 다음 제 자리로 돌아온 다음 다시 초헌례를 행하도록 되어 있다. 석전성례釋奠盛禮는 상향上香·전폐奠幣와 초헌初獻이 별도의 두 절차로 되어 있다. 그것은 각각의 절차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오직 삭망전朔望奠이나 고유告由를 하는 제사 등에서만 상향과 초헌을 하나의 절차로 합하여 일시에 행하는데, 이는 간편함을 따르기 위해서다. 서원의 사당에서 지내는 제사 중에 봄·가을에 지내는 향사보다 더 큰 것은 없으니 당연히 모든 의절을 제대로 갖추어 지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기존의 「홀기」에서는 상향을 하자마자 초헌을 하라고 되어 있다. 이는 너무 지나치게 간소화한 것이다.[25]

둘째, 「홀기」에는 음복례飮福禮와 수조례受胙禮의 순서가 뒤바뀌어 있다는 점이다. 음복례는 헌관이 신위께 올렸던 술을 마시는 의례이고, 수조례는 신위께 올렸던 고기를 받는 의례이다. 이 두 의절은 향사의 모든 절차를 마친 후에 신위께 올렸던 술과 고기를 제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함께 마시고 먹음으로써 신이 주시는 복을 공유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음복수조례라고 합해서 일컫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복례와 수조례는 내용상의 차이가 엄존한다. 따라서 이 두 절차를 홀기에 명기할 때는 그 순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묵조오례의』의 「석전의釋奠儀」나 「제식」에서는 음복례를 먼저 한 다음 수조례를 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백운동서원의 「홀기」는 이 순서가 뒤바뀌어 있다는 것이 퇴계의 지적사항이다.[26]

가하여 새롭게 제정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준행하고 있으며, 이 홀기는 그 이전의 유적이다."(此笏記, 乃當初周愼齋所定, 而「依圖」「祭式」幷同. 厥後, 有退溪先生損益定式而遵行之, 此乃古迹也./ 嶺南文獻硏究所, 『紹修書院誌』 2007, 298쪽.)

23) 주세붕은 신재愼齋 말고도 남고南皐·무릉도인武陵道人·손옹巽翁 등의 아호를 사용했다.

24) 『退溪全書』 續集 권8, 「安文成公享圖[配位同]」: 書院舊有「文成公廟祭笏記」云, 是周武陵所定, 其儀大抵務從簡易, 未免有徑率苟且之病, 其間數條, 又有與『竹溪志』祭式」自相牴牾者. 由是言之, 殆非武陵所定也.

25) 『退溪全書』 續集 권8, 「安文成公享圖[配位同]」: 謹按「祭式」, 行上香禮, 降復位, 乃行初獻禮. 蓋釋奠盛禮, 上香奠幣與初獻自爲兩節, 所以重其事也. 惟朔望奠及先告事由等祭, 則上香與初獻合爲一節, 一時幷行, 所以從簡也. 今此廟祭無大於春秋享, 固當備儀, 而舊「笏記」, 旋上香而旋初獻, 是爲太儉.

셋째, 「홀기」에는 수조례를 행한 다음 올리는 수희배受禧拜가 삭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수희배는 신이 주신 복을 감사히 받겠다는 의미의 배례로서 수조례를 행한 다음 올리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기존의 「홀기」에는 이 배례가 삭제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퇴계는 다음과 같이 그 문제점을 지적했다.

> 「석전의」에 따르면 수조례를 한 다음 사배四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복을 감사히 받겠다는 의미로 올리는 수희배受禧拜이다. 변과 두를 모두 거둔 다음에는 사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사가 모두 끝났다는 의미로 올리는 제필배祭畢拜이다. 모든 예식의 절차에는 의미가 담겨있어서 함부로 삭제하면 안 된다. 「제식」은 원래 절하거나 꿇어앉는 절차에 대해 기록하지 않았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머지는 향교에서의 의식과 같다'라고만 하고 말았는데, 사람들에게 향교의 예를 참고해서 행하게 하려는 것이니 그나마 괜찮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기존의 「홀기」는 수희의 배례를 그냥 삭제하고, 변과 두를 모두 거둔 뒤에 재배하라고만 되어 있으니 잘못된 것이다.[27]

퇴계가 이상에서 제기한 세 가지 사안들에 대한 공통적 문제의식은 결국 당시 백운동서원에서 사용되던 「홀기」의 내용이 서원의 향사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결여하고 있다는 점으로 귀결된다. 즉, 의식절차들 상호간의 유기적 의미관계에 대한 이해는 물론 각각의 의식절차들에 대한 이해조차 결여한 채 그저 "간편하고 평이함" 일변도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퇴계가 "경솔하고 구차스러운 병폐"라고 지적한 것은 바로 예의 의미에 대한 몰이해와 섣부른 편의주의가 결합하여 서원의 향사례를 '내용 없는 형식의 나열'로 전락시킨 데 대한 문제제기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제기는 강도講道와 더불어 존현尊賢을 주요한 기능으로 하는 서원이 질적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26) 퇴溪全書속續集 권8, 「安文成公享圖[配位同]」: 「釋奠儀」及「祭式」, 皆先飮福後受胙, 舊「笏記」則先受胙後飮福, 非禮之本.

27) 퇴溪全書속續集 권8, 「安文成公享圖[配位同]」: 「釋奠儀」, 受胙後四拜, 爲受禧拜也. 徹籩豆四拜, 爲祭畢拜也. 凡禮之節皆有意義, 不可徑削. 「祭式」則本不載拜跪之節. 故終之曰餘如校而已, 欲人考禮而行之, 猶可也. 舊「笏記」, 直削受禧之拜, 只於徹籩豆後行再拜, 非也.

3.3 「춘추향도」와 「묘제홀기」의 제정

> 학교로 설립된 곳치고 그 어디라고 도학道學을 위하지 않는 곳이 있겠습니까만, 서원의 경우에는 도학을 위하는 의미가 더욱 더합니다.[28]

도학의 메카로서 서원이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간망했던 퇴계로서는 서원의 경제적 토대를 다지는 것 못지않게 존현尊賢과 숭도崇道의 실천적 의식인 서원 향사례의 정비는 중요한 현안이었을 것이다.[29]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조선 서원의 효시로서 선구적 위상을 갖고 있었던 백운동서원조차 향사례의 수준은 아직 많은 부분에서 질적인 제고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다. 즉, 향사 의식에서 가장 기본이라 할 진설과 홀기가 아직 속례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거나 개별 의식절차들의 의미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퇴계는 앞서와 같은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신재가 제정한 기존의 자료들을 개정하여 「안문성공춘추향도」과 「문성공묘제홀기」를 새롭게 제정하였다.

참고로 한국국학진흥원에는 원래 도산서원에 소장되어 있던 '선생유묵先生遺墨'이라는 표지가 붙은 고문서자료가 소장되어 있다.(자료번호: 국학자료 KS0069-2-83-00006. 이하 '유묵자료'로 칭함) 이 자료의 앞뒤 표지에는 각각 '춘추향도春秋享圖'[30]와 '홀기笏記'[31]라는 제목이 표기되어 있다. 「춘추향도」는 애초에 기재된 본문에 수정을 가한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으며, 그 내용은 퇴계의 문집에 수록된 「안문성공향도安文成公享圖」와 대체로 일치한다. 추측컨대, 문집에 수록된 자료는 '유묵자료'에서 수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했을 것이다. 한편 「홀기」는 신재의 「홀기」에 대하여 퇴계가 제기했던 문제점들이 수정된 형태로 반영되어 있다.

먼저, 퇴계는 「안문성공춘추향도」(이하 「춘추향도」)를 통해 기존의 진설과 관련하여 제기했던 문제점들을 반영하여 수정한 새로운 진설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安文成公春秋享圖[配位同][32]

右四豆		神位		左四籩	
魚醢 菁菹	鹿醢 韭菹	簋(黍) 簋(稷)	簠(稻) 簠(粱)	魚鱐 乾棗	鹿脯 栢子
燭 爵 祝坫		雞腥俎 幣篚 香 爵		爵	燭
門		門	正位尊 ◯	配位尊 ◯	門

28) 『退溪全書』권12, 「答盧仁甫」: 大抵學校之設, 誰非爲道學耶? 而在書院, 則爲道學之意尤專.
29) 『退溪全書』권42, 「迎鳳書院記」: 我東書院, 亦昉於今日, 皆所以廣敎思敦化原也, 而其有廟以祀先賢者, 則其於崇道·作人之方, 尤爲備也.
30) 자료의 안쪽 본문에는 '안문성공춘추향도安文成公春秋享圖'라는 제목으로 표기되어 있다
31) 자료의 안쪽 본문에는 '문성공묘제홀기文成公廟祭笏記'라는 제목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새롭게 수정된 부분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이제 밀과密果를 제거하고 녹해鹿醢로 대체한다. 좌측 첫 번째 변籩 역시 이에 대응하여 과일을 제거하고 어숙魚鱐으로 대체한다. 그렇게 되면 좌측 변에 담아 올리는 포脯·과果와 우측 두豆에 담아 올리는 해醢·저菹[33]가 둘씩 둘씩 서로 대응하여 들쑥날쑥함이 없게 될 것이다.[34]

백운동서원에서 행해오던 진설에서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퇴계가 지적했던 사항은 밀과를 올리는 것이었다. 따라서 퇴계는 먼저 밀과부터 제거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대신 그 자리에는 사슴고기를 절인 녹해鹿醢를 올릴 것을 제안했다. 이럴 경우 우측 첫 번째 줄에 진설된 두 개의 두에는 각각 어해魚醢와 녹해鹿醢가 올려지게 된다. 이어서 퇴계는 좌측 첫 번째 줄에 진설된 두 개의 변에 올릴 제품 역시 우측의 두에 올리는 것과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보고, 마른 대추인 간조乾棗를 진설했던 자리에 생선을 말린 어숙魚鱐을 올릴 것을 제안했다. 이처럼 좌측 변에 사슴고기를 말린 녹포鹿脯와 함께 어숙魚鱐을 올리게 되면 우측 두에 올리는 어해魚醢·녹해鹿醢에 대응한다고 본 것이다.

한편, 우측 두 번째 줄에 무를 담가 만든 청저菁菹와 부추를 담가 만든 구저韭菹를 각각 두에 담아 진설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대응하여, 좌측 두 번째 줄의 변에는 각각 마른 대추인 간조乾棗와 잣[栢子]을 올려서 역시 균형을 맞추도록 하였다. 참고로 기존의 진설도에는 좌측에 진설되는 네 개의 변 가운데 세 개의 변에 각각 마른 대추와 잣 그리고 밤[栗黃]을 올리도록 되어 있었다. 이에 퇴계는 좌측 첫 번째 줄에 진설하도록 되어 있던 마른 대추를 올렸던 위치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어숙을 올리게 하였고, 마른 대추는 두 번째 줄로 이동시켜 진설하도록 하였으며, 대신 기존에 진설되었던 밤은 제거하도록 하였다.

이상과 같이 함으로써 퇴계는 좌측에 진설하는 네 개의 변[左四籩]과 우측에 진설하는 네 개의 두[右四豆] 사이에 균형을 맞추고자 하였다. 즉, 좌측 변에 두 종류의 포[어숙魚鱐과 녹포鹿脯]를 진설하고 우측 두에 두 종류의 해[어해魚醢와 녹해鹿醢]를 진설함으로써 균형을 맞추었는가 하면, 좌측 변에 두 종류의 과일[간조乾棗와 백자栢子]을 진설하고 우측 두에 두 종류의 김치[청저菁菹와 구저韭菹]를 진설함으로써 역시 균형을 맞추도록 하였던 것이다. "둘씩 둘씩

---

32) 그림에서 붉은 색 굵은 글씨로 표기한 것은 退溪가 대안으로 제정하여 제시한 부분이다.

33) 『退溪全書』 續集 권8, 「安文成公享圖[配位同]」에는 '脯·醢·果·菹'가 아니라 '醢·菹'로만 되어 있다. 하지만 '유묵자료'에는 본래 '左右籩豆, 脯·醢·果·菹'라고 되어 있던 것을 다시 '左'자 옆쪽 아래에 작은 글씨로 '籩脯果右'라는 네 글자를 기입하여 삽입할 것을 보이는 한편, '脯'자와 '果'자에는 동그라미를 그려놓아 삭제할 것을 보였다. 따라서 문맥상 퇴계의 의도는 '左右籩豆, 脯·醢·果·菹'를 '左籩脯·果, 右豆醢·菹'로 수정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욱 분명히 하려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게 보아야 뒤의 "둘씩 둘씩 서로 대응한다"(兩兩相對)라는 표현과도 더욱 잘 호응하게 된다.
國史編纂委員會, 『朝鮮時代嶺南書院資料』(1999), Ⅰ.紹修書院資料, 7.退溪笏記,(121쪽)에도 같은 이름의 「笏記」 자료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는 '左籩脯·果, 右豆醢·菹'라고 기록되어 있어 이러한 추측이 타당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로 이 자료의 표지에는 "老先生筆蹟蓋久, 手澤猶存, 敬慕益篤. 或字畫破傷處, 恐後之愈久而愈失其眞, 玆以別紙粘附云."이라고 하여 이 역시 퇴계의 유묵자료임을 증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피봉에는 "退溪先生親筆笏記"라고 적혀 있다.(이 사실은 嶺南文獻硏究所, 『紹修書院誌』(2007), 299쪽 참조.) 그렇다면 도산서원에 소장된 자료가 초고이고, 소수서원 소장 자료는 초고에서 행한 수정작업이 반영된 형태의 자료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문집에는 본래의 '左右籩豆, 脯·醢·果·菹' 중에서 '脯'자와 '果'자만 삭제된 채 수록되어 있어 문리가 원활하지 못하다. 따라서 본 인용문에서는 '유묵자료'에 따라서 해석하였음을 밝혀둔다.

34) 『退溪全書』 續集卷8, 「安文成公享圖[配位同]」: 今去蜜果, 代以鹿醢, 左一籩亦對此而去果, 代以魚鱐, 則左右籩豆, 醢·菹兩兩相對, 無參差矣.

서로 대응하여 들쑥날쑥함이 없게 될 것"이라는 퇴계의 언급은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이다.

퇴계는 혹시라도 새로운 진설 품목으로 제안했던 녹해鹿醢와 어숙魚鱐을 준비하지 못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해두었다. 우선 이러한 경우에라도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원칙이 있었다. 그것은 첫째 밀과는 올리지 말아야 한다는 점, 둘째 좌측에 진설하는 네 개의 변[左四籩]과 우측에 진설하는 네 개의 두[右四豆] 사이에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퇴계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내놓았다.

> 만일 녹해鹿醢와 어숙魚鱐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차라리 녹해鹿醢 대신 근저芹菹를 올리고, 어숙魚鱐을 대신해서는 기존의 방식대로 과일을 올린다. 그리하면 예의 본의를 잃지는 않을 것이다. 밀과蜜果는 결코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35]

여기에서 퇴계는 준비하지 못한 녹해를 대신해서는 미나리를 담가 만든 근저芹菹를 올리라 했고, 준비하지 못한 어숙을 대신해서는 기존의 방식대로 과일을 올리라고 했다. 하지만 퇴계의 이러한 대비책의 실질적 내용은 백운동서원의 기존 진설과 비교해보면 밀과를 근저로 대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밀과에서 근저로 제품 하나 변경한 것뿐임에도 퇴계는 "그리하면 예의 본의를 잃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 의미를 평가했다는 점이다. 이는 밀과를 진설해온 관행이 예의 본의에 매우 위배된 것임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것으로, 앞에서 "어찌 밀과와 같은 일상적인 음식을 학學에서 사용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한 것과 조응하는 대목이다.

또한 녹해와 어숙을 올릴 경우 좌측 네 개의 변에는 두 종류의 포와 두 종류의 과일이 진설되고, 우측 네 개의 두에는 두 종류의 해와 두 종류의 김치가 진설되어 균형을 이루게 된다. 하지만 기존의 관행처럼 밀과를 올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 이와 같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밀과를 근저로 대체하게 되면, 좌측 네 개의 변에는 한 종류의 포와 세 종류의 과일이 진설되고, 우측 네 개의 두에는 한 종류의 해와 세 종류의 김치가 진설되어, "둘씩 둘씩 대응하는" 균형은 이루지 못했지만 그런대로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퇴계는 "그리하면 예의 본의를 잃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을 것이다.

이쯤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퇴계가 신재의 진설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물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을 때, '과연 그는 무엇을 근거로 이와 같은 문제제기와 대안제시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문제에 대해서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퇴계 자신이 직접적으로 밝힌 것은 없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 정황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추측을 통해 이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홀기笏記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퇴계가 무엇을 참고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홀기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퇴계가 중요하게 참고했던 전거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석전의釋奠儀」였다. 그렇다면 진설 문제에 있어서도 퇴계는 『국조오례의』를 참고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국조오례의』에는 서원의 향사례와 관련한 조목이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퇴계는 향교鄕校 향사례의 준거가 되었던 『국조오례의』 중에서 「주현석전문선왕의州縣釋奠文宣王儀」와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의 「주현석전정배위州縣釋奠正配位」 부분을 참고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

35) 『退溪全書』 續集 권8, 「安文成公享圖[配位同]」: 若鹿醢·魚鱐有未備, 則寧以芹菹代鹿醢, 而仍以果代魚鱐, 庶不失禮之本意, 蜜果恐不可用也.

州縣釋奠正配位[從享與國學同]

右八豆			神位		左八籩		
魚醢	芹菹	醓醢			魚鱐	榛子	鹿脯
筍菹	鹿醢		簋(黍)	籩(稻)		栗黃	芡仁
兎醢	菁菹	韭菹	簋(稷)	籩(粱)	形鹽	乾棗	菱仁
豕腥			幣篚		羊腥		
燭			香爐		燭		
祝坫	爵 [初獻奠此]		爵 [亞獻奠此]		爵 [終獻奠此]		
[明水]犧尊					[醴齊]犧尊		
[明水]象尊					[盎齊]象尊		
[玄酒]山罍					[淸酒]山罍		

물론 향교의 향사례는 문선왕文宣王 즉, 공자孔子에게 올리는 석전釋奠이기 때문에 좌측과 우측에 이른바 팔변八籩·팔두八豆라 하여 변과 두를 각각 여덟 벌씩 진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서원의 경우와는 구별된다. 즉, 선현을 모시는 서원의 경우에는 사변四籩·사두四豆를 진설함으로써 향교와 차등을 두었던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변·사두에 올릴 제품만큼은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임의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고 팔변·팔두에 준해서 정해야 한다는 것이 퇴계가 상정한 서원 향사례의 기본원칙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퇴계가 수정안으로 제시했던 녹해鹿醢와 어숙魚鱐은 물론 녹해가 준비되지 않았을 경우 대체물로 제안했던 근저芹菹 등은 모두 ᄅᆞᆫ묘조오례서례상의 「주현석전정배위」에 규정된 제품이라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退溪는 이러한 작업을 통해 書院의 享祀禮를 임의적 판단에 따라 집행하던 俗禮의 수준이 아닌 객관적 근거 위에 의식절차를 정립시킴으로써 질적인 제고를 기도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퇴계는 신재가 제정한 「홀기」와 관련하여 제기했던 문제점들을 반영하여 수정한 새로운 「홀기」를 내놓았다. 이 새로운 홀기의 정식 명칭은 「문성공묘제홀기文成公廟祭笏記」로 신재의 홀기와 같다. 따라서 두 홀기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신재의 「문성공묘제홀기」는 퇴계가 「구홀기舊笏記」로 지칭한 바에 따르고, 퇴계가 새로 제정한 「문성공묘제홀기」는 편의상 「신홀기新笏記」로 지칭하기로 한다. 이 「신홀기」에서 퇴계는 「석전의」(ᄅᆞᆫ묘조오례의상주현석전문선왕의」)를 전거로 앞서 제기한 문제점들을 수정하는 것은 물론 「구홀기」에는 빠져 있는 부분들까지 보완하여 서원 향사례에서 준용할 홀기의 표준을 제시하였다.

첫째, 퇴계가 제정한 「신홀기」는 「구홀기」에서 상향례上香禮와 초헌례初獻禮를 뭉뚱그려 한꺼번에 행하도록 간소화했던 것을 두 개의 의식절차로 분명하게 구분함으로써 석전성례釋奠盛禮다운 면모를 갖추도록 하였다.

○**상향례上香禮를 행한다.** 알자謁者는 초헌관初獻官을 관세위盥洗位(손을 씻는 곳)에 이르도록 인도한다. ○문성공文成公 신위神位 앞에 이르도록 인도한다. ○꿇어앉는다. ○세 번 향을 피운다.[三上香] ○몸을 굽혀 엎드렸다가 일어난다. ○다음으로 문정공文貞公 신위 앞

에 이르도록 인도한다. ○꿇어앉는다. ○세 번 향을 피운다. ○몸을 굽혀 엎드렸다가 일어난다. ○다음으로 문경공文敬公 신위 앞에 이르도록 인도한다. ○꿇어앉는다. ○세 번 향을 피운다. ○몸을 굽혀 엎드렸다가 일어난다. ○내려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인도한다. ○**초헌례初獻禮를 행한다.** 알자는 초헌관을 문성공의 술동이가 있는 곳으로 인도한다. (이하 생략)[36]

둘째, 「신홀기」는 「구홀기」에서 수조受胙를 먼저 행하고 음복飮福을 나중에 행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음복을 먼저 행하고 수조를 나중에 행하도록 바로잡음으로써 의식절차들 상호간에 갖는 의미관계의 질서를 명확히 하였다.

○**음복飮福과 수조受胙.** 집사執事는 문성공의 술동이가 있는 곳으로 가서 술잔에 복주福酒를 따른다. ○또 집사는 신위 앞으로 나아가서 고기를 떼어낸다. ○알자는 초헌관을 음복위飮福位에 이르도록 인도한다. 서쪽을 향해 꿇어앉는다. ○집사는 헌관의 왼쪽으로 나아간다. ○잔을 헌관에게 준다. ○헌관은 남기지 않고 모두 마신다. ○잔을 되돌려준다. ○집사는 북쪽을 향하고, 고기를 헌관에게 준다. ○헌관은 고기를 받는다. (이하 생략)[37]

셋째, 「신홀기」는 「구홀기」에서 수조受胙한 뒤 행해야 할 수희배受禧拜를 함부로 생략하고 변두籩豆를 거두면서 행하는 제필배祭畢拜에 결합시켰던 것을 다시 되살려냄으로써 의식절차들이 갖는 각각의 의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다.

○**음복飮福과 수조受胙.** …… ○헌관은 고기를 받는다. ○집사에게 건넨다. ○몸을 굽혀 엎드렸다가 일어난다. ○내려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인도한다. ○두 번 절한다. 헌관 이하 모두 두 번 절한다. 몸을 굽힌다.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 몸을 편다. ○**변두籩豆를 거둔다.** ○축祝은 들어가 변두를 거둔다. ○절한다. 참석자 모두 두 번 절한다. 몸을 굽힌다.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 몸을 편다.[38]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홀기」는 「구홀기」의 잘못된 부분들을 『국조오례의』등 예문에 근거하여 수정함으로써 서원 향사례 의식절차의 표준을 세우는 데 중요한 초석을 놓았다. 뿐만 아니라 「신홀기」는 「구홀기」에는 없는 부분들까지 보완하여 한층 완결된 형태의 홀기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예를 들면, 「신홀기」에서 퇴계는 정위正位와 배위配位에 대한 축문祝文 내용을 재검토하여 기존의 것을 사용해도 좋은 것은 그대로 두고,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직접 새로 지어서 실었다.[39] 또한 서원 향사례의 제관祭官과 관련하여 세 명의 헌관[三

---

36) 「文成公廟祭笏記」(한국국학진흥원 소장 고문서자료/자료번호: 국학자료 KS0069-2-83-00006): ○行上香禮 謁者引初獻官詣盥洗位 ○引詣文成公神位前 ○跪 ○三上香 ○俯伏興 ○次詣文貞公神位前 ○跪 ○三上香 ○俯伏興 ○次詣文敬公神位前 ○跪 ○三上香 ○俯伏興 ○引降復位 ○行初獻禮 謁者引初獻官詣文成公尊所 …

37) 「文成公廟祭笏記」: ○飮福受胙 執事詣文成公尊所 ○以爵酌福酒 ○ 又執事進減神位前俎肉 ○謁者引初獻官詣飮福位 西向跪 ○執事進獻官之左 ○以爵授獻官 ○獻官飮卒爵 ○反爵 ○執事北向 以俎授獻官 ○獻官受胙 …

38) 「文成公廟祭笏記」: ○飮福受胙 …… ○獻官受胙 ○授執事 ○俯伏興 ○引降復位 ○再拜 獻官以下皆再拜 ○鞠躬 ○拜興 ○拜興 平身 ○撤籩豆 祝入撤籩豆 ○拜 在位者皆再拜 ○鞠躬 ○拜興 ○拜興 平身

39) 「文成公廟祭笏記」: ◉ 文成公 祝文: "尊信斯道 闡教東方 功存學校 惠我無疆"(이 글은 『退溪全書』권45 祝文에 「白雲洞書院 祭安文成公文」으로 수록되어 있다. 단, 문집에는 '東方'이 '吾東'으로 되어 있고, 惠我無疆'이 '百世攸宗'으로 되어 있다.) ◉ 文貞公 祝文: "仍用"(이는 다른 축문들의 경우 기존의 축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제정한 것임을 방증한다.) ◉ 文敬公 祝文: "剛德廉淸 進禮退義 遺風凜然 懦夫立志"(이 글은 『退溪全書』권45 祝文에 「祭安文敬公文」으로 수록되어 있다. 단, 文

獻官]과 여섯 명의 집사[六執事]는 누가 담당해야 하는지에 관한 기준 또한 다음과 같이 명문화하였다.[40]

初獻官: 郡守, 有故則斯文	祝: 斯文 贊者一人: 院有司或諸生 謁者一人: 院諸生
亞獻官: 斯文	贊引一人: 院諸生 司尊一人: 院諸生
終獻官: 斯文	奉香一人(奉爵兼): 院諸生 奉爐一人(奠爵兼): 院諸生 院諸生不備則校生

그런가 하면 퇴계는 「신홀기」에서 「구홀기」나 「제식」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생략하거나 삭제하는 작업도 단행하였다. 예컨대 「구홀기」에는, "치재致齋하는 기간에 헌관들은 장서의 보관상태를 점검하고 건물의 유지상태를 살피며 곡식과 집기 등 재정상태를 회계해야 하며, 향사를 지내는 날 여러 사문斯文들이 모이면 다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는데[41] 「신홀기」에서는 이 내용들을 모두 삭제하였다. 그것은 아마도 이러한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홀기에 등록될 성질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한편, 신재가 제정한 「제식」에는 강신降神을 위한 삼상향三上香을 마친 다음에는 학동들로 하여금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된 「죽계사竹溪辭」를 노래하게 하고, 초헌, 아헌, 종헌이 끝난 다음에는 아홉 개의 장으로 구성된 「도동곡道東曲」을 각각 세 개의 장씩 나누어 부르게 하는 의식이 기록되어 있다.[42] 「죽계사」는 신재가 직접 지은 것으로, 백운동서원이 위치한 죽계竹溪의 지형과 문성공 안향의 업적을 기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동곡」 역시 신재가 직접 지은 것으로, 유학의 성현들을 찬양하고 그러한 도학道學이 동쪽의 우리나라로 전해지게 됨을 기뻐하는 내용이 경기체가景幾體歌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가사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죽계사竹溪辭」

集에는 '淸'이 '節'로 되어 있다.) 참고로 소수서원 소장 자료 역시 도산서원 소장 '유묵자료'와 그 내용이 일치한다.(嶺南文獻硏究所, 편 紹修書院誌 증보 2007, 299쪽 참조.) 다만, 도산서원 소장 자료는 초서로 쓰여 있고, 소수서원 소장 자료는 해서로 쓰여 있다는 점이 다르다.
이밖에도 退溪는 임고서원臨皐書院의 主享인 文忠公(圃隱 鄭夢周)에 대한 祝文도 함께 적어두었다.(文忠公 祝文: "學造天人 忠貫日月 光前啓後 永世無斁" 이 자료는 退溪의 文集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고, 편 圃隱先生集附錄 중에 「臨皐書院春秋享祝文[退溪]」로 수록되어 있다.)

40) 「文成公廟祭笏記」: 備三獻官六執事 [有司前期七日 告本官及斯文 定獻官, 執事]

41) 國史編纂委員會, 편 朝鮮時代嶺南書院資料 총서(1999), Ⅰ.紹修書院資料, 6.愼齋笏記,(117쪽): 致齋日, 獻官點曬藏書, 省視牆宇罅漏, 會計米穀什物. 受禧日, 衆斯文共察之.[司馬有司每節必檢, 院中有司每月必檢.]

42) 愼齋의 諡狀이나 年譜에 따르면 愼齋는 「竹溪辭」와 「道東曲」을 지어 享祀를 지낼 때 노래 부르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편 武陵雜稿 증보 附錄 권4, 「諡狀」[金魯敬]: "作「竹溪詞」·「道東曲」, 歌以祀之." / 「愼齋先生年譜」: "作「竹溪詞」·「道東曲」, 使歌以祀之.") 그리고 그 儀節과 관련해서는 편 竹溪志 증보 行錄後·祭式」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行上香禮 ○引初獻官盥 ○引詣文成公神位前 三上香【童歌「竹溪辭」三章】○次詣配位前 皆三上香 ○引降復位 ○行初獻禮 ○引初獻官詣尊所 西向立 詣神位前 北向跪 ○獻酌 ○讀祝 ○次詣配位前 ○獻酌 ○讀祝 ○引降復位【童歌「道東曲」首三章】○行亞獻禮 ○如初獻 引降復位【童歌「道東曲」中三章】○行終獻禮 ○如亞獻 引降復位【童歌「道東曲」末三章】

제1장
竹溪在東 小白在西 公之廟兮在其間 白雲滿洞兮前路迷 溪有魚兮山有柏 是公舊遊兮胡不歸 歸兮歸兮毋使我悲
【해석】 동쪽엔 죽계수 서쪽엔 소백산, 공의 사당 그 사이에 있도다. 흰 구름 골짜기에 가득하니 앞길이 희미한데, 시냇물엔 물고기 노닐고 산에는 잣나무 무성하여라. 이곳은 공께서 그 옛날 노닐던 곳, 어찌 돌아오시지 않으신고. 돌아오소서 돌아오소서, 우리를 슬프게 하지 마소서.

제2장
小白在西 竹溪在東 山有雲兮水有月 古今兮是同 公之來兮駕玉虯 或驂以紫鸞 酌我醴兮有我誠 庶我歆兮盡爾歡
【해석】 서쪽엔 소백산 동쪽엔 죽계수. 산에 드리운 구름과 물에 비치는 달빛은 예나 지금이나 같도다. 공께서 오시는 날 옥규(玉虯)가 수레 끌고 자란(紫鸞)이 곁말 되리. 빚은 술 잔에 담아 정성껏 바치오니, 충분히 잡수시고 기쁨을 다하소서.

제3장
公昔未生兮斯文晦 大倫墮地兮雲煙昏 自公一出兮洗三韓 白日靑天兮吾道尊 有廟枚枚兮公像在中 竹溪彌淸兮小白彌崇
【해석】 공께서 나시기 전 사문斯文이 어두울 때 윤리는 땅에 떨어져 구름과 연기에 묻힌 듯 어둡더니. 공께서 나오시어 삼한三韓을 씻으시니 청천에 백일처럼 우리 도道 높았어라. 빽빽한 사당 속에 공의 영정 모시오니, 죽계수는 더욱 맑고 소백산은 더욱 높다.

「도동곡道東曲」
①伏羲神農黃帝堯舜【再唱】 偉 繼天立極 景幾何如
【해석】 복희·신농·황제·요·순이시여! 복희·신농·황제·요·순이시여! 위偉, 하늘의 뜻 받들어 세상의 기준을 세우시니, 경기景幾 어떠하뇨.

②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 偉 주거니 받거니 聖人의 心法이 다믄 잇분니이다
【해석】 인심人心의 위태롭고 도심道心의 은미하니, 정밀하고 전일해야 진실로 그 중中을 잡으리라. 위偉, 주고 받는 성인聖人의 심법心法이 다만 이뿐입니다.

③禹湯文武皐伊周召【再唱】偉 君臣이 相得 景幾何如
【해석】 우임금·탕임금·문왕·무왕·고요·이윤·주공·소공이시여! 우임금·탕임금·문왕·무왕·고요·이윤·주공·소공이시여! 위偉, 임금과 신하가 서로가 서로를 얻었으니, 경기景幾 어떠하뇨.

④下土茫茫커ᄂᆞᆯ 上帝是憂ᄒᆞ샤 圩頂大人을 洙泗으히 ᄂᆞ리오시니 偉 萬古淵源이 그츨뉘 업ᄉᆞ샷다
【해석】 인간세상 아득하거늘 상제께서 걱정하사 공자님을 수사洙泗에 내리시니, 위偉, 만고의 연원이 그칠 리 없으셨다.

⑤顔生四勿 曾氏三省 仰高鑽堅 瞻前忽後 偉 學聖忘勞 景幾何如
【해석】 안자顔子는 '사물四勿'을 하셨고, 증자曾子는 '삼성三省'을 하셨도다. 우러러볼수록 더욱 높고 뚫을수록 더욱 단단하며, 쳐다볼 땐 앞에 계시더니 홀연히 뒤에 계시도다. 위偉, 성인을 본받음에 수고로움을 잊으시니, 경기景幾 어떠하뇨.

⑥率ᄒᆞ리 天命之性 養ᄒᆞ리 浩然之氣 再唱 偉 至誠無息이아 本니이다
【해석】 따라야 할 것 천명지성天命之性요, 길러야 할 것 호연지기浩然之氣로다. 따라야 할 것 천명지성天命之性요, 길러야 할 것 호연지기浩然之氣로다. 위偉, 지극한 성실함으로 쉼이 없는 것이야말로 근본입니다.

⑦光風霽月 瑞日祥雲【再唱】偉 그처딘 긴ᄂᆞᆯ 엇뎨ᄒᆞ 아니ᄋᆞ신고
【해석】 빛나는 바람에 맑은 달빛이요, 상서로운 햇빛에 상서로운 구름이로다. 빛나는 바람에 맑은 달빛이요, 상서로운 햇빛에 상서로운 구름이로다. 위偉, 끊어졌던 긴긴날을 어찌 아니 아십니까.

⑧人欲이 橫流ᄒᆞ야 浩浩滔天일ᄉᆡ 一千五百年에 晦翁이 나샷다 敬으로 本을 세어 大防을 밍ᄀᆞᄅᆞ시니 偉 繼往開來아 仲尼나 다ᄅᆞ시리잇거
【해석】 인욕이 횡류하여 그 거센 기세 하늘까지 닿았기에 천오백 년만에 회옹晦翁께서 나셨도다. 경敬으로 근본을 세워 크나큰 둑을 만드시니, 위偉, 지나간 성인을 계승하고 미래의 후학을 개유하심이 중니仲尼와 다르시겠습니까.

⑨三韓千萬古애 眞儒를 ᄂᆞ리오시니 小白이 廬山이오 竹溪이 濂水로다 興學衛道ᄂᆞᆫ 小分네 이리어니와 尊禮晦庵이 그 功이 크샷다 偉 吾道東來 景幾何如
【해석】 삼한땅 천만년에 진유眞儒를 내리시니, 소백산이 여산廬山이오 죽계수가 염수濂水로다. 학문을 일으키고 도를 호위함은 우리네의 일이지만, 회암晦庵을 존모하신 그 공이 크시도다. 위偉, 우리의 유도儒道가 동방으로 오시니, 경기景幾 어떠하뇨.

퇴계는 「신홀기」에서 신재가 마련한 이 의식들을 과감하게 생략하였다. 백운동서원의 향사에서 「죽계사」와 「도동곡」을 노래하게 했다는 사실은 이 의식이 일종의 서원제례악으로서 기능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문화사적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서원제례악이 다른 서원으로까지 확대·보급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일일 수 있다. 그러나 퇴계가 이를 생략하도록 정한 이후 더 이상 다른 서원으로 보급되지 못했다. 퇴계의 이러한 조처는 사상사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서원이라는 기구와 향사례라는 의식이 유학이라는 토대 위에서 성립된 것이고, 당시 조선에 서원을 건립하고 향사를 봉행하는 이유 역시 유학사상의 온전한 구현을 지향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임을 감안하면, 아무래도 '석전의'와 같은 객관적 전거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으로 제정된 이러한 의식은 올바른 서원 향사례를 정립하려는 입장에서는 간과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43]

43) 「제식」에서 제시하고 있는 「죽계사」나 「도동곡」을 노래하는 의식은 「구홀기」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퇴계가 「구홀기」의 내용에 대해 비판할 때는 그것이 「제식」과 맞지 않다는 점을 들어 「구홀기」가 신재의 작품이 아닐 가능성까지 제기했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식」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홀기」에서 「구홀기」와 마찬가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퇴계가 백운동서원의 향사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구홀기」와 「제식」 중 어느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애초에 퇴계가 홀기와 관련하여 문제로 지적했던 것은 위에서 살펴본 세 가지가 아니고 네 가지였다는 사실이다. 이 네 번째 문제제기 조항은 '유묵자료'에만 수록되어 있으며, 문집은 물론 소수서원 소장 자료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퇴계가 네 번째로 제기한 문제점은 서원 향사례에서 배례를 행할 때 재배再拜를 하는 것이 맞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 「제식」에서는 다만 재배再拜하는 예를 행하라고 했고, 「구홀기」 역시 이에 의거하여 모두 재배를 행하도록 하였다. 인정人情이란 간소함을 좋아하고 번다함을 싫어하기 때문에 모두들 이를 당연하다고 여겨왔다. 그러나 재배하는 에는 가제家祭에서나 하는 것이며, 모든 외신外神에게 제향을 드릴 때는 사배四拜하라고 되어 있다. 재배하라는 글이 있는지 보지 못했으며, 주무릉이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했는지 알 수 없다. 우선은 「석전의」에 의거하여 사배하기로 정하고 참고를 기다린다.[44]

퇴계는 당시 서원의 향사례에서 '가제에서나 행하는' 재배를 행하는 관행에 대해 몹시 미안했던 것 같다. 이는 그가 書院 향사례를 가제와 같은 차원이 아닌 더 높은 차원에서 그 위상을 정립하려 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그는 당시 서원 향사례에서 재배를 하던 관행을 '간소함을 좋아하고 번다함을 싫어하는'[喜簡厭煩] 인정에 따른 처사로 단정했다. 그리고 『한묵조오례의승』에 제시된 외신들에 대한 배례가 모두 사배라는 사실과 「석전의」에서도 사배를 하도록 규정한 바를 근거로 서원 향사례에서도 사배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추후 퇴계는 자신의 이러한 제안을 취소하는 글을 그 아래에 다음과 같이 기록해 두었다.

> 이 조항에서 "외신外神에게는 모두 사배四拜하라고 되어 있다" 또는 "재배再拜하라는 글이 있는지 보지 못했다"고 한 것은 단지 『오례의승』만을 의거하고 한 말이었다. 『한묵전서翰墨全書승』[45]에 실린 주문공朱文公의 석전석채의釋奠釋菜儀에 모두 재배를 행하라 하였고, 사배하는 예가 없음을 살피고서야 주무릉이 「제식」에서 재배하라고 한 것이 여기에 근거하여 정한 것임을 알았다. 내가 모든 의절을 두루 참고하지 못한 채 서둘러 고치려 했던 것은 잘못이다. 따라서 홀기에는 재배를 그대로 두었으며, 이 조항을 없애지 않음으로써 나의 허물을 기록으로 남긴다.[46]

이 네 번째 문제제기와 이를 취소한 기록은, 퇴계가 스스로 취소했다는 사실 때문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결과적으로 그의 본의와는 달리 문집에 수록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서원 향사례의 초석을 다지는 과정에서 보여준 퇴계의 몇 가지 면모를 읽을 수 있다. 첫 번째는 퇴계가 서원 향사례를 정립하려 하였으나 그 역시 충분한 역량을 갖춘 상태에서 이

한 쪽을 더 중시한 것이 아니라 두 자료 모두에 대해 전반적으로 비판적인 검토를 수행했음을 보여준다.

44) 「文成公廟祭笏記」: 「祭式」云"只行再拜禮", 「舊笏記」亦依此皆行再拜. 人情喜簡厭煩, 皆以爲當也. 然再拜之禮, 唯家祭爲然, 若祭諸外神, 皆云四拜. 未見有再拜之文, 未知周武陵何所據而云, 姑依「釋奠儀」四拜爲定, 以俟參考.

45) 『한묵전서승』 송말원초宋末元初 시기 인물인 웅화熊禾(1247-1312)가 유응계劉應季의 『사문유취한묵전서事文類聚翰墨全書승80책을 새로 편집하여 엮은 것으로 일종의 백과전서이다.

46) 「文成公廟祭笏記」: 今按, 此條'外神皆四拜, 未見有再拜之文'者, 只據『五禮儀승』云也. 及考『翰墨全書승』所載朱文公釋奠釋菜儀, 皆行再拜, 無四拜之禮, 乃知周武陵「祭式」只行再拜, 據此而定也. 滉不徧考諸儀, 而遽欲改之者, 妄也. 故笏記仍存再拜, 而不去此一條, 以識滉之過也.

일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즉, 당시의 서원 향사례에 대한 문제의식은 분명했지만 이를 해결할 능력이 아직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퇴계는 서원 향사례를 경전적 전거 위에 객관적으로 정립시키기 위한 관련조사와 연구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오례의』에 나오는 '외신'들에 대한 배례나 「석전의」를 참고하였다가, 다시 주자朱子의 석전석채의를 고증하여 이를 재수정하는 과정이 이를 잘 보여준다. 세 번째는 자신의 입장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수정되는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두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퇴계가 학자로서의 엄밀하고도 솔직한 면모를 보여주는 것임과 더불어 서원 향사례를 계속해서 정립해나가야 하는 과정에서 후인들이 참고할 만한 경험의 축적과정을 보여준다.

3.4 맺는 말

퇴계는 서원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을 공식화하는 길을 개척하고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퇴계는 서원을 널리 보급하는 데도 열정을 다했다. 퇴계는 백운동서원이 '소수서원紹修書院'으로 사액되는 시점에 벼슬을 그만두고 자신의 향리인 도산陶山에 은거하며 연구와 교육에 전념하였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퇴계는 영봉서원迎鳳書院·이산서원伊山書院·연경서원硏經書院·역동서원易東書院 등 10여 곳의 서원 건립에 관여하였다. 때로는 직접 참여하기도 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문인을 보내 지원하였다.[47] 이는 명종 때까지 건립된 서원이 22개소였던 점을 감안할 때 서원의 보급에 대한 퇴계의 관심과 열정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잘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퇴계는 서원의 두 가지 주요 기능인 교학과 향사의 원칙과 표준을 정립하는 데도 중요한 업적을 남겼다.

이 글은 특히 서원 향사례의 발전과정에서 퇴계의 역할을 '초석 다지기'라는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퇴계가 백운동서원 향사례에 대해 제기한 문제와 이에 대한 대안 제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원 향사례와 관련하여 퇴계가 아직 완벽한 정립의 단계에까지 이르지는 못했지만, 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튼튼한 초석을 다졌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퇴계가 서원 향사례에 대해 가능하면 객관적 전거 위에서 '속례'적 요소들을 배제하고자 한 점이라든가, 의식절차 하나하나의 의미는 물론 의식절차 상호간의 유기적 관계 의미에 대해서까지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현하고자 노력한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원 향사례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퇴계의 노력은 이후 창건되는 많은 서원들의 향사례에 하나의 시금석이 되었다. 실제로 퇴계는 만년에 그의 문인들과 더불어 역동서원易東書院의 건립에 적극 개입하면서 서원의 명칭을 직접 짓고 썼던 것은 물론 부속건물들의 명칭까지 제정할 만큼 열의를 보였다.[48] 이때 퇴계는 역동서원의 향사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백운동서원 향사례를 참고할 것을 권유한 바 있으며,[49] 실제로 역동서원의 향사홀기는 백운동서원의 그것과 거의 일치한다.[50] 뿐만 아니라 그의 사후에 건립된 도산서원陶山書院의 향사홀기 역시 이를 표준으로 하여 제정되었다. 도산서원이 조선시대 서원들 중에서 수서원首書院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큰 영향력을 끼쳤던 점을 감안하면, 조선시대 서원 향사례의 발전에 있어서 퇴계의 업적은 든든한 초석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47) 정만조, 「서원, 조선 지식의 힘」, 『도산서원과 지식의 탄생』 글항아리, 2012, 19쪽.

48) 『退溪全書』 권5, 「易東書院事實」: 是夏四月堂成, 前列六楹曰明敎堂, 東西各有溫房, 東曰精一齋, 西曰直方齋. 直方之北藏書閣曰光明室, 堂後少東立祠廟三間曰尙賢祠, 前列東西二齋各三間, 東四勿, 西三省, 其南立大門曰入道, 西齋之西立廚庫, 總名之曰易東書院, 皆先生所定也.

49) 『退溪全書』 續集卷6, 「與琴聞遠[丁卯]」: 竹溪書院「祀文成公儀」舊有謄本, 共覽去取, 以爲他日祭禹公之儀何如?

50) 한국국학진흥원소장 고문서자료(자료번호: 국학자료 KS0069-2-83-00007) 참조.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2022년 문화관광해설사 현장교육

4장. 서원의 유식과 교류, 현판과 기문

4.1 유식
4.2 서원 공간에서의 유식
4.3 세계유산 9개 서원의 유식공간
4.4 육례를 통한 유식 활동
4.5 서원 현판과 기문을 통한 장수와 유식
4.6 서원과 교류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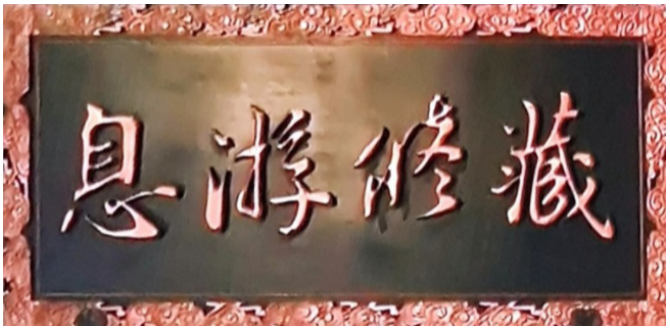
4장. 서원(書院) 유식(遊息)과 교류(交流), 현판(懸板)과 기문(記文)

-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을 중심으로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사무국장 박성진

4.1 유식(遊息)

유식(遊息)은 장수유식(藏修遊息)의 줄인말로 물러나 쉼(息)에도 배움을 함께 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공부(工夫)할 때는 물론 쉴 때에도 학문(學問)을 닦는 것을 항상(恒常) 마음에 둔다는 뜻인데 장(藏)은 늘 학문에 대한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이요, 수(修)는 방치하지 않고 늘 익히는 것이다. 식(息)은 피곤하여 쉬며 함양하는 것이고, 유(遊)는 한가하게 노닐며 함양하는 것을 말한다.



이 성어의 출전은 《예기(禮記) 학기(學記)》에 나오는 말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학의 교육(가르침)은 계절에 따른 가르침(時敎)에 반드시 올바른 업(業)에 있어야 하고, 물러나 쉼(息)에도 반드시 배움을 함께 하여야 한다.

아름답게 연주할 수 있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악기 소리(弦)가 아름답게 될 수 없고, 여러 방면으로 넓게 배우지 않으면, 시(詩)를 잘 지을 수 없는 것과 같고, 여러 예복의 입는 법을 익히지 않으면 배우지 않으면 예절을 잘 시행할 수 없는 것이니, 그 예능이 흥겹지 않으면, 배움이 결코 즐겁게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군자에게 있어서 배움이란, 마음속으로는 항상 생각을 하며(藏焉), 근면하게 공부해야하고(修焉) , 휴식하고(息焉) , 노는 것마저도(游焉) 모두 배움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능히 안심하고 학문을 추구하며 스승을 친근히 하고, 벗을 좋아하며 도리를 지킨다면, 비록 스승을 떠나 있다할지라도 그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서기(書記) 열명(兌命)편에 이르길 ‘학업을 공손하고 겸허하게 때에 맞춰 배운다면 비로소 배움에 성공하게 될 것이다.’라고 한 것이 이를 말하는 것이다.”[1)]

1) (大學之教也時，教必有正業，退息必有居。學，不學操縵，不能安弦；不學博依，不能安《詩》；不學雜服，不能安禮；不興其藝，不能樂學。故君子之於學也，藏焉，修焉，息焉，游焉。夫然，故安其學而親其師，樂其友而信其道。是以雖離師輔而不反也。《兌命》曰：「敬孫務時敏，厥修乃來」 其此之謂乎！禮記/學記)

4.2 서원(書院) 공간에서의 유식

서원 공간에서의 유식을 살펴보자. 식(息)은 피곤하여 쉬며 함양하는 것이고, 유(遊)는 한가하게 노닐며 함양하는 것을 의미하나 휴식(休息)하면서 휴양(休養)함을 말하는 것으로 산책(散策), 명상(冥想), 사색(思索) 등의 휴식과 함양을 동시에 하는 활동과 자연을 완상(玩賞)하면서 자연(自然)과 인간(人間)이 동체(同體)이자 일부(一部)인 인간을 깨닫고 이를 문학화하는 교양활동을 포함한다. 주로 자연에 대한 찬양과 느낌, 소통(疏通)를 표현하는 시작(詩作) 활동과 이를 여러 유식장소에 게첨하여 걸어두기도 한다.

서원에서의 유식공간은 강학과 제향, 부속공간을 제외한 시설과 주변공간을 포함하는데 문루(門樓), 정자(亭子), 연당(蓮塘)과 수계(水系), 계곡(溪谷), 자연물, 조망(眺望)되는 전후의 산(山) 들을 포함한다.

서원에서의 함양과 관련된 자연이나 주요 대상물을 인위적 방식이 아닌 자연을 건축공간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차경[2](借景)이라 할 수 있는데 서원에서의 대표적인 건축공간은 문루를 통해 밖의 자연을 끌어 들이는 방식이다. 건축공간 안에 자연의 형상을 상징화하여 설치하고 창문을 통해 정물적 요소를 감상하는 풍경(風景)을 들인다 하겠으며 서원에서의 대표적인 풍경은 연당(蓮塘), 소나무, 대나무, 매화나무 정원 등을 들 수가 있다.

2) 전통조경예술에서 건축밖의 경물을 빌리거나 건축공간 내의 각 풍경들을 서로 조화시켜 일체화하는 것을 말한다. 중국건축서 『원야(園冶)』에서는 자연그대로의 경관에 최소한의 인공물을 가미하는 건축공간을 추구하였는데 여기서 借景의 종류를 원차(遠借;먼 곳의 경물을 차용), 인차(隣借;가까운 곳의 경물을 차용), 앙차(仰借;높은곳의 경물을 차용), 부차(府借;낮은 곳의 경물을 차용), 그리고 응시이차(應時而借;시절 풍경에 따라 경물을 차용)로 나누었다.

유식공간	의미	성리학적 확장
문루	자연공간을 서원으로 끌어들임. 차경(借景), 풍경(風景)	군자의 기상 호연지기[3](浩然之氣)
정자	자연완상, 특정 인물을 기리는 장소	군자의 문학적 품격. 인물사모
연당	연못을 설치하고 연[4]을 키움	군자의 인생. 도연명의 애련(愛蓮)
정원	군자 상징목 소나무, 대나무, 매화, 백일홍	빈한(貧寒)에 자라 대성(大成)함 소나무-변함없는 상청(常靑) 대나무-군자의 절개(節槪) 매화-여려움을 감내(堪耐) 배롱나무 : 끈질긴 생명력과 청렴
대(臺)	논어의 무대(舞雩臺[5]) 차용(借用)	군자의 휴식(休息), 풍류(風流)
산과 계곡	군자의 요산요수[6](樂山樂水)	성리학의 천인합일(天人合一)

3) 다만 모든 문루가 호연지기의 성격과 동일하지는 않는다. 필암서원의 경우는 廓然樓라 하여 가시적으로 트인 앞공간을 호연지기의 공간이라 볼 수 있으나 기타 서원은 단충 건물에 비해 누각을 올려 멀리본다는 의미로 호연지기를 사용했다. 맹자가 말했다. “나는 말을 알며, 나의 호연지기를 잘 기르노라.” 공손추가 말했다. “감히 묻습니다. 무엇을 호연지기라고 합니까?” 맹자가 말했다. “말로 하기가 어렵다. 그 기(氣) 됨이 다시없이 크고 다시없이 강하여 곧게 기르는 데 해(害)하는 것이 없으면 곧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차게 된다. 그 기는 언제나 의(義)와 도(道)에 짝하여 함께하니 이것이 없으면 허탈이 오게 된다.”(曰, 我知言, 我善養吾浩然之氣. 敢問何謂浩然之氣. 曰, 難言也. 其爲氣也, 至大至剛, 以直養而無害, 則塞於天地之間. 其爲氣也, 配義與道, 無是, 餒也.)」(《맹자(孟子) 〈공손추 상(公孫丑上)〉》)

4) 군자를 상징하는 연(蓮)의 명칭. 우리조상들은 성리학의 최고 이념인 군자가 되고 싶은 마음의 표현으로 군자를 표현하는 연(蓮)을 전통조경공간에 하(荷), 부거(芙蕖), 부용(芙蓉)이란 명칭으로 직접적 표출하였고 시·서·화에 애련설을 표현하였다. 애련설(愛蓮說)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경관으로 건축물의 당호나 편액의 내용 등에 향원(香遠), 익청(益淸), 정정(亭亭), 쇄락(灑落), 광풍(光風), 제월(霽月)로 표출되며, 영주 소수서원의 제월교, 광풍대, 경렴정가 이와 연관된다. 군자를 상징하는 연(蓮)에 대한 표현으로 연에 대한 직접적인 상징어와 애련설에 관련된 명칭으로 궁궐정원, 서원, 민가정원, 별서, 누정, 대, 연못과 시서화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5) 論語(논어)·顔淵(안연) 편에 출전한다. "번지가 무우대 아래서 선생님을 모셨다. 여쭈었다. '감히 덕을 높이는 일과 사특함을 다스리는 일, 미혹을 분별하는 일에 대해 여쭙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좋구나! 질문이여' (樊遲從遊於舞雩之下. 曰: 敢問崇德修慝辨惑. 子曰: 善哉, 問) 崇德辨惑은 앞서 子張(자장) 또한 여쭈었던 문제다. 從遊는 따라 노닌다, 따라 배운다는 뜻으로, 학식이나 덕행이 높은 사람을 좇아 함께 지내는 것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공자께서 바람을 쏘이러 가시는 길을 수행했다는 뜻이겠다. 舞雩臺(무우대)는 춘추시기 魯(노)나라 曲阜(곡부) 남쪽 沂水(기수) 북쪽에 있던 흙으로 쌓은 축조물로 노나라에서 하늘에 기우제를 지낼 때 쓰던 제단이다. 先進(선진) 편에서 공자가 4명의 제자들에게 뜻을 물었을 때 증점은 "늦봄에 봄옷이 지어지면 어른 대여섯과 아이 예닐곱을 데리고 기수에서 목욕하고, 무우대에서 바람을 쐬고, 노래하며 돌아오겠습니다"고 대답했었다. 무대 주변에는 아름드리 은행나무가 많아 노닐기 좋았다고 한다.

중국 산동 곡부 기수의 무우대

6) [논어(論語)]의(옹야(雍也))편에 지자요수(知者樂水) 인자요산(仁者樂山)이라. 지자동(智者動)하고, 인자정(仁者靜)이니. 지자락(智者樂)이면, 인자수(仁者壽)라.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4.3 세계유산 9개 서원의 유식공간

1) 소수서원

- ❍ 문루(門樓) : 제월루(霽月樓) 혹 사루(食樓)라 불리던 문루가 있었으나 불타 없어졌다. 위치는 명륜당과 죽계천 사이에 있었다.[7)]
- ❍ 정자(亭子) : 경렴정(서원 건립당시 건축), 광풍정(원래 없던 것을 2002년에 건축), 취한대(원래 없던 것을 1986년에 신축)
- ❍ 연당(蓮塘) : 사방형의 연지가 있는데 탁정지라 칭한다. 서애 류성룡의 형인 겸암 류운용이 선조 26년(1593년) 풍기군수로 재임할 때 연못을 파고 대를 쌓았던 곳으로 훗날 창석 이준이 풍기군수로 부임하여 다시 판 기록이 있다.
- ❍ 자연물 : **취한대**(퇴계 이황 선생이 경자바위 윗부분에 터를 닦아 대를 쌓고 손수 소나무, 대나무, 잣나무를 심고 '취한대'라 이름 한 것을 본 받아 1986년에 신축한 건물이다. '취한대'란 이름은 푸른 연화산의 산 기운과 맑은 죽계천의 시원한 물빛에 취하여 시를 짓고 풍류를 즐긴다는 뜻에서 옛 시 송취한계(松翠寒溪)의 비취'翠'와 차가울'寒'자에서 따온 것이다. 퇴계는 풍기군수를 하면서 자주 서원을 찾아와 후학들을 가르쳤다 한다. 특히 죽계수라 부르는 서원 앞 개울 건너편 오솔길을 산책하는 것을 무척 즐겼다 한다. 그가 특별히 좋아하는 자리인 이곳을 취한대라 이름붙이고 주위에 21그루의 소나무와 대나무 등을 심었다고 한다. 대부분의 나무들이 모두 고사하고 현재는 당시 심었던 소나무 고사목 2그루가 남아있다. **소혼대**[8)](消魂臺;공부중 머리를

산을 좋아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움직이고, 어진 사람은 고요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즐겁게 살고, 어진 사람은 장수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리에 밝아 물이 흐르듯 막힘이 없으므로 물을 좋아한다고 한 것이다. 또한 지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며, 그러한 것들을 즐기며 산다. 이에 비하여 어진 사람은 의리를 중히 여겨 그 중후함이 산과 같으므로 산을 좋아한다고 하였다.

7) **제월루(霽月樓). 사루(食樓)**

명륜당(明倫堂) 동쪽 가 지락재(至樂齋) 남쪽 경렴정(景濂亭) 북쪽 시냇가에 비탈진 언덕이 있는데, 선배들이 일찍이 누각을 지을 만한 곳이라고 하였다. 이에 명륜당 중수를 마친 달 갑자일에 담장을 철거하고 터를 닦기 시작하였다. 담장 밑으로 한 길 정도를 파내려가니 큰 주춧돌 10개가 나왔는데 모두 한 줄로 나란히 있어 옛날 건물 터임이 완연하였다. 이를 본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전날 숙수사가 있을 때 노여(魯璵)의 시에서 이른바, '찬 시냇물 소리를 밟으며 나그네 누각으로 오르네.[冷踏溪聲客上樓]'라고 한 것이니, 이곳이 분명 그 터가 아니겠는가?" 하였다. 9월 10일 기둥을 세우고 10월 초하루에 열 칸 건물로 상량하였다. 11월에 추위가 닥쳐 기와를 덮고서 공사를 중지하였다. 이듬해 2월 14일부터 3월 그믐까지 난간과 칠을 다 마쳤다. 인력이 지난 여름보다 갑절 더 소요되었는데, 모두 서원 하인들이 돌아가면서 일을 하였다. 누각이 완성되니, 모두 말하기를, "옛날에 광풍대(光風臺)와 제월교(霽月橋)가 있었으니 다리에 이름 붙였던 것을 가지고 이곳의 이름을 삼는 것이 좋겠다." 하여 드디어 '제월루(霽月樓)라 하였다.

개기축문(開基祝文)

지락재 남쪽, 至樂齋南 경렴정 북쪽, 景濂亭北 시냇가 비탈진 언덕, 阧岸臨溪 완연히 층계가 이루어져, 宛成階級 옛날부터 말하기를, 自古有言 누각을 세울 만하다 하였기에, 可置樓閣 이에 길일을 잡아, 玆涓吉日 감히 공사 시작을 고하나이다. 敢告始役 경자년(1720, 숙종 46) 4월 25일 제월루 낙성회 겸 백일장을 거행하여 노소 합 3백여 명이 참석하였다.

明倫堂庭東畔至樂齋之南景濂亭之北。臨溪阧岸。先輩嘗曰可樓。乃於明倫堂重修旣畢之月甲子。撤墻拓基。掘墻下丈許。得舊礎十餘巨塊。一行成列。宛如舊址。觀者皆曰。在昔宿水寺時魯璵詩所謂冷踏溪聲客上樓者。此非其墟耶云。九月十日立柱。十月初吉上樑十間。十一月初寒凍蓋瓦而止。自翌年二月之望。至三月之晦。欄檻斷手丹艧畢施。用人力比前夏倍之。亦院僕輪役也。樓旣成。僉曰。古有光風臺霽月橋。可以所以名橋者。揭諸此也。遂名之曰霽月樓云。開基祝文。至樂齋南。景濂亭北。阧岸臨溪。宛成階級。自古有言。可置樓閣。玆涓吉日。敢告始役。庚子四月二十五日。霽月樓落成會兼設白日場。老少合凡三百餘人。출전 <紹修書院 雜錄>

퇴계선생이 취한대에 심은 소나무 고사목. 송유(松油)를 채취한 흔적이 남아있다

식히는 곳이라는 뜻. 학자수인 소나무숲에 있다), 광풍대(이 또한 퇴계가 명명한 휴식처이다), **광풍대**(光風臺;퇴계가 단을 쌓고 지명을 붙였다고 전한다. 광풍제월의 줄임말이다) **학자수**(명종, 선조, 광해군, 효종때를 거치며 지속적으로 조성했다고 하는데 소백산에서 흘러오는 죽계수가 뒤편으로부터 넘쳐올 수가 있다 하여 비보(裨補) 풍수(風水)를 위해 심었다고 전하나 학생들의 산책 휴식 공간으로 사용되었다), **경자바위**(죽계천변 바위에 주세붕이 백운동(白雲洞)서원, 경(敬)이라는 각자를 새겼다고 죽계지에 기록하고 있다)

❍ 계곡 : 죽계천, 죽계구곡(주세붕 선생이 죽계별곡의 배경인 이곳에 와서 놀면서 지은 시가 무릉잡고에 전한다, 퇴계 이황선생이 죽계구곡을 명명하였다고 전해오기도 하는데 순흥지에 의하면 1728년(영조4년) 순흥부사로 부임한 신필하가 다시 죽계구곡 지점을 정하였다고 기록이 나타나고 있다[9])

8) 소수서원 소나무 군락지를 지나 서원 입구에 서있는 은행나무 뒤에서 서원 입구를 지키는 왼편 낮은 둔덕을 소혼대(消魂臺)라 부른다. 유생들이 머리를 식히던 쉼터이기도 했고, 손님을 배웅하며 석별의 정을 나누는 곳이기도 했다.

9) 안축의 '죽계별곡'에 근거해, 죽계구곡이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풍기군수 신재주세붕 선생이다. 죽계구곡에 관한 내용이 『죽계지』와 『흥주지』에 나온다. 그런데 그 후 영조 때 순흥부사를 지낸 신필하(申弼夏)에 의해 죽계구곡의 명칭이 바뀐다. 그리고 구곡의 상하가 뒤바뀌고 전체 길이도 짧아진다. 『순흥지(順興誌)』의 기록에 따르면, 신필하가 명명한 죽계구곡은 초암사 위쪽에 금당반석(金堂盤石)을 1곡으로 하고, 내려가면서 순서를 정해 하류의 이화동을 9곡으로 하였다. 이때 이후 죽계구곡에 큰 혼란이 생겨났다. 누구의 것을 따라야 하는지도 문제지만, 구곡의 위치에도 문제가 생겼다. 특히 문제가 되는 곳이 제5곡 목욕담, 제6곡 청련동애, 제7곡 용추비폭이다. 이화동 상류에서 목욕할 정도의 못을 찾기 어렵고, 폭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은 환경변화와 도로 등으로 정확한 장소를 찾기가 어렵다.

소수서원 입구의 학자수와 은행나무 경렴정

❍ 원근경 : 소백산, 뒤편의 비봉산, 앞쪽으로는 연화산이 둘러쌓인 형국이다

2) 도산서원

❍ 도산서당 : 원래 문루가 없지만 도산서당 윗편이 서원공간으로 조성되면서 서당이 문루를 대신하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다. 도산서당을 두고 앞쪽에 위압적인 문루를 건립한다는 것은 아마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면에서 선생을 기념하는 유식공간으로서의 의미가 더 강해졌다.

❍ 자 연 물 : 천연대와 천광운영대(도산서원을 경내를 중심으로 양편 산기슭이 절벽을 이룬 동쪽을 천연대, 서쪽을 천광운영대(天光雲影臺)라 불렀다. 천광운영대는 퇴계선생께서 유식공간(遊息空間)으로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기르시기 위하여 1563(癸亥)년 3월에 쌓으신 곳이다). 퇴계는 공자의 무대(舞雩臺)이야기를 배경으로 군자의 풍류와 휴식을 위해 여러 대(臺)를 지정하였다. 소수서원의 취한대, 광풍대, 소혼대, 도산의 천연대, 운영대 등의 단을 조성하고 휴식처로 삼았다.

❍ 정 원 : 절우사(節友社;퇴계선생이 직접 매화·대나무·소나무·국화를 심어 가꾸던 정원 이다. 매화원을 따로 두었다. 매화는 군자의 상징으로「岳陽樓記」중 끝 부분에 나오는 "천하의 근심은 누구보다도 먼저 걱정하고, 천하의 즐거움은 누구보다도 뒤에 즐거워한다[10]"했듯이 매화는 추위를 견디고 가장 일찍 꽃을 피우며 그 향은 은은하고 멀리간다) 퇴계가 조성한 도산서당은 건물, 정원 수계 등에서 군자의 생활의 소박함과 청빈함을 실현한 미니멀리즘의 극치에 해당한다.

❍ 수계(水系) : 열정(洌井;도산서당의 식수로 사용하던 자연샘이다. 석정감열(石井甘洌), 네모지게 조성된 석조 우물이다.『역경』의 '정괘(井卦)', '정열한천식(井洌寒 泉食)'의 우물의 의미를 취하여 '열정'이라 하였다. 퇴계선생께서 자기가 배워 깨닭은 바를 누구나 와서 퍼내어 가라는 뜻을 담은 우물이 '洌井'이다) 정우당(淨友塘; 군자의 상징인 연꽃을 심었다), 몽천(蒙泉; 퇴계의 글과 시에 이 몽천으로 이름한 샘이 있어 이 곳에 도산서당을 지었다고 하였다. <주 역>의 山水蒙의 괘상은 위에 산이 있고 아래에 물이있는 형상이다. 지금 도산의 아래에 샘이 있는 것이 그것과 꼭 부합하여 내가 그 교육과 관련있는 괘상을 따라서 이곳에서 서당을 열었다. 山水蒙卦의 <大象傳>에 '산 아래 샘이 솟아나오는 것이 몽괘다. 군자가 이것을 보고 물이 흘러가듯이 과감하게 행동하며 덕을 기른다 山下出泉, 蒙, 君子以, 果行育德')

❍ 계곡 : 낙동강, 도산구곡[11]

---

10) 處江湖之遠，則憂其君；是進亦憂，退亦憂，然則何時而樂耶 其必曰："先天下之憂而憂後天下之樂而樂歟 噫 微斯人，吾誰與歸. 멀리 자연에 묻혀 살면서도 곧 그 임금(나라)을 염려하니, 이는 나아가도 근심이요 물러서도 근심이거늘 그러한즉 어느 때나 즐거워하겠는가? 반드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의 근심보다 앞서 근심하고 세상 사람들의 즐거움 뒤에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이 없으니, 나는 누구와 함께 돌아갈까? 범중엄范仲淹의 <악양루기岳陽樓記>

11) 실재 도산구곡의 위치는 낙동강을 따라 운암에서 청량까지 약 45리에 걸쳐 설정되어 있는 구곡원림인데, 언제, 누가 설정한 것인지 알 수 없었고, 그 구곡의 지점도 일정하지 않았다. 문헌조사와 2차에 걸친 학술조사를 통하여 고산구곡의 설정은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완성되었고 도산구곡의 중심 지점은 1곡이 운암, 2곡이 월천, 3곡이 오담, 4곡이분천, 5곡이 탁영, 6곡이 천사, 7곡이 단사, 8곡이 고산, 9곡이 청량이라는 것이 밝혀진 바 있다. 도산구곡시는 이이순, 이야순, 이가순, 이종휴, 조술도, 금시술, 최동익 등이 창작하였다. 유학의 나라 조선에서 성리학은 신성불가침의 국가이념이었고 중심철학이었다. 그 성리학을 집대성한 남송의 주희(주자·1130~1200)는 선비들의 흠모를 넘어 숭모의 대상이고 롤 모델이었다. 주희는 중국 복건성 무이산에서 주자학(성리학)을 성립했고, 주자가 머물렀던 무이정사에서 서원의 모범으로 삼았고, 무이산 계곡에 이름붙인 무이구곡(武夷九曲)을 본받아 조선의 사대부들은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구곡을 정하여 자연과 일치되는 이상을 현실에서 실현했다.
조선의 강과 계곡에는 100개가 넘는 구곡이 생긴다. 그중 경상도가 55개(51.4%)로 반이 넘고 충북이 22개로(20.56%)를 차지한다. 단일 지역으로는 안동이 10개로 제일 많은 것은 청량산에서 맑은 물이 낙동강으로 흘러오면서 강물은 산을 넘지 못하기에 물줄기가 계곡과 절벽이 부딪쳐 곡(曲)을 만들면

❍ 원근경 : 뒷산인 도산과 앞으로 확트인 낙동강 수계가 압권이다.

도산서원 전경(前景) 낙동강과 시사단

3) 병산서원

❍ 문루 : 만대루가 문루이며 서원들 가운데 가장 넓은 면적의 문루로 조성되었다. 마주보는 병산의 산자락이 동서로 길게 드리워져서 이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기 위한 방식으로 문루가 길게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 누정의 위층 다락은 주변의 수려한 경관을 다 끌어안을 수 있고 반대쪽으로 향하면 서원 일곽을 한눈에 살필 수 있는 주요 전망포인트이다. 한편, 강당인 입교당(立敎堂) 대청 한가운데에서 만대루가 들어선 전면 풍광을 바라보는 경관이 수려하며 한폭의 그림과 같은 경관을 자랑한다. 병산서원은 서원의 주변경관을 건축과 하나가 되도록 한 대표적인 서원에 속하며 만대루와 입교당을 주요 전망 포인트로 하는 조망경관의 보존 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 연당(蓮塘) : 광명지(光明池[12])
❍ 계곡 : 낙동강과 모래사장
❍ 원근경 : 뒷산인 화산과 앞산인 병산[13]

서 구곡문화가 생겨난 것이다.

12) 광명지(光明池)는 작은 연못이나 천원지방의 원리에 따라 네모난 것은 땅을 의미하며, 가운데 둥근 것이 하늘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우리나라 전통 연못 양식을 따르고 있다.

13)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은 주희의 생활을 교과서로 삼았는데 그 대표 학자가 회재와 퇴계, 율곡, 우암이다. 주희를 흠모한 회재(晦齋) 이언적도 자신의 호 첫 자를 주희 호 회헌(晦軒)의 첫 자로 삼고 경주 옥산계곡에 4산5대와 9곡을 만들었으며 퇴계는 주자를 사숙하여 평생 닮아가려 애썼는데 도산 구곡을 말하고 도산12곡을 노래하고 있다. 율곡은 해주 석담에 은거하며 무이산 은병봉(隱屛峰)에서 이름을 따서 은병정사(隱屛精舍)를 지었으며 무이구곡가(武夷九曲歌)를 본따서 고산구곡가(高山九曲歌)를 지어 산천을 노래했다. 우암 송시열은 화양계곡에 은거하며 화양구곡가((華陽九曲歌)을 지었다. 안

병산서원 만대루

병산서원 광명지

동 병산(屛山)과 병산서원(屛山書院)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자는 호현, 유면지, 유자휘 세 스승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유자휘 선생에게 제일 많은 학문을 얻었다고 했다. 유자휘는 주자의 아버지 친구로 무이산 근처 오부리(五夫里) 병산(屛山)아래에 은거하면서 스스로 병산(屛山)이라고 불렀고 지금은 오부리에 병산서원(屛山書院)터만 남아있다.

4) 옥산서원

- ❍ 문루 : 무변루이며 경주부윤 이제민의 부탁을 받은 홍문관부제학 유희춘은 1574년 발문과 함께 누각 이름을 '무변루(無邊樓)'라 하였다. 말 그대로 세상의 끝이 안 보이는 누각이라는 의미이다. 서원 문루가 거의 밖을 향한 개방공간으로 지어지고 현판 또한 밖에 거는 데에 반해 무변루는 서원 강당을 향해있고 현판도 내부에서 볼 수 있도록 2층 누각에 매달았다. 그야말로 무변루에 오르면 옥산서원의 건축물들이 사방으로 꽉차서 하나의 빈틈도 없는 무변(無邊)의 공간으로 나타난다. 서원의 누각은 문루이자 유생들의 휴식공간이다. 그런데 옥산서원 무변루는 숙식을 할 수 있는 특이한 구조이다.
- ❍ 원근경 : 4산(도덕산, 무학산, 화개산, 자운산)
- ❍ 계곡 : 자계천(紫溪川)과 5대(관어대, 영귀대, 탁영대, 정심대, 세심대)
- ❍ 수계(水系) : 자계천의 물을 서원 앞으로 관통시켜 학교의 상징인 반수(泮水)를 표현했다.

강당인 구인당에서 바라본 무변루

5) 남계서원

- ❍ 문루 : 남계서원의 문루 명칭은 풍영루(風詠樓)이다. 1841년에 원래 1층으로 되어있던 준도문에 다락을 얹었다. 1847년에 화재가 나서 1850년에 다시 중수하였다. 풍영루기에 "이 누에 오르면 마음이 넓어지고 정신이 즐거워지며 함영(涵泳)하고 쇄락(灑落)하여 유연히 이러한 의사를 자득(自得)하게 된다. 더구나 두류산(頭流山)의 만 겹 봉우리와 화림천(花林川)의 아홉 굽이 흐르는 물에서 선생의 청풍(淸風)을 보고 선생의 기상(氣象)을 우러러볼 수 있어서 흡사 강석(講席)에 나란히 모시고 증점(曾點)이 쟁그렁 비파를 내려놓고 대답한 아취(雅趣)가 있는 듯함에 있어서이겠는가. 그러므로 인하여 '풍영루(風詠樓)'라고 명명하였다"라고 하였다. 멀리 두류산과 남계, 그리고 펼쳐진 들을 차경(借景)한다.

❍ 동서재의 누마루 영매헌 애련헌 : 다른 서원과 달리 남계서원에는 동서재에 작은 누마를 두어 자연을 완상하도록 하였다. 애련헌(愛蓮軒)과 영매헌(咏梅軒)이 그것이다. 이 누마루를 통해서 동·서재 아래 누문 쪽으로 각각 조성되어 있는 연못에 핀 연꽃과 연못에 비친 주변의 매화를 감상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남계서원의 누마루가 유식공간의 기능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두개의 연못을 나란히 조성한 연유는 탁한 물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을 군자로 여겼고, 굳센 의지를 좋아했던 정여창의 마음은 찬 겨울을 뚫고 피어난 매화에 서려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 연당(蓮塘) : 대칭되는 두 개의 연지(蓮池)를 만들고 연꽃을 심음

❍ 매원(梅苑) : 매화나무를 심어 군자를 상징했다. 매화는 추위를 견디고 가장 일찍 꽃을 피우며 그 향은 은은하고 멀리간다.

남계서원 전경

6) 도동서원

❍ 행목(杏木) : 도동서원의 입구 은행나무가 압권이다. 도동서원에는 수령 400년이 조금 넘은 은행나무가 있다. 서원을 재건한 김굉필의 외증손자 정구가 중정당 건물 준공을 기념해 심었다. 모든 서원에는 은행나무가 있기 마련인데, 그 이유는 공자가 강단을 세우고 주변에 은행나무를 심고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행단강학(杏壇講學)에서 유래된 것이다.

❍ 문루 : 도동서원의 입구인 수월루는 전면 세 칸, 측면 한 칸에 2층 구조로 팔작지붕을 얹은 누각이다. 1층은 외삼문으로서 출입문으로 사용하고, 2층은 누마루로서 유생들의 유식 공간으로 사용했다. 수월루 이름은 차가운 겨울철에 낙동강 수면에

비친 밝은 달을 즐긴다의 한수조월(寒水照月) 문구에서 인용한 것이기도 하고, 차가운 물에 달이 비치듯이 사용에 물들지 않는 깨끗한 마음상태를 표현한 주자의 시에서 인용한 것이기도 하다. 앞에 흘러가는 낙동강과 서원을 넘어오던 다람재를 차경하는 곳이다. 수월루는 1849년 헌종 15년 창건되어 몇 차례 중수를 거쳤으나 없어져서 1974년에 현재의 모습으로 재건하였다.

❍ 건축의 유식적 요소 : 여타 서원과 달리 건축적 유식을 표현한 것들이 도동서원을 특징지운다. 중정당 석축과 담장이 그러하다. 아래쪽에는 석축기담이라고 부르는 월대가 놓여 있고 이곳에 돌들이 많이 박혀있다. 그 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각 색깔과 재질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돌 모습 또한 사각형으로 반듯하게 다듬은 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마다의 모양을 보이는 것도 특이하다. 석축기담 좌우측에는 동물형태의 물건이 작은 조형물이 있는데 오른쪽은 올라가고 왼쪽은 내려가는 형태로 되어 있다. 이것을 세호 문양이라고 부르는데, 땅의 기운을 바로 잡아주는 의미를 띄는 것이다. 세호 문양 조형물과 함께 네 개의 용머리도 심어져 있고 그 아래쪽에는 자라형태의 동물머리도 있다. 일반적으로 서원건축은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를 보이지만, 도동서원은 다른 서원에서 볼 수 없는 유식을 가미한 파격미가 있다. 담장을 자세히 보면 황토 흙 돌담장에 기와를 얹은 것으로, 벽면 아래쪽은 일반 돌을 쌓아놓았고, 위쪽에는 암기와를 일렬형태로 쭉 배열하여 사이사이에 둥근형태의 수막쇠를 어긋나게 끼워놓은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곧 음양의 개념을 구현한 것이다.

도동서원 담장. 보물로 지정되어있다

7) 필암서원

❍ 문루 : 필암서원의 문루는 확연루(廓然樓)이다. 직관으로 수양하면 확연대공 물래순응(廓然大公 物來順應)의 길이 열린다는 정명도의 말에서 나온 성어로 송준길이 힘차게 현액 글씨를 썼다. 누구나 노력하면 성인이 될 수 있다. 확연하게 큰 뜻을 이룰수 있다. 사물이 내게 다가오면 오는 그대로의 자연으로 받아들이면 나와 자연과의 구별이 없어지게 된다는 말이다. 확연루에 올라 넓게 펼쳐진 평원을 바라보면서 호연지기(浩然之氣)를 키운다는 상징을 가진다.

❍ 수계(水系) : 반수(泮水)의 상징으로 필암서원 앞에 흐르는 통안천의 물길을 서원 앞으로 돌려와 흐르게하여 공자가 물을 바라보면 했던 말인 “흘러가는 것(변화하는 것)은 이와 같구나. 밤이나 낮이나 그치지 않네.”(『논어』 子在川上曰, “逝者如斯夫! 不舍晝夜. 자재천상왈, “서자여사부! 불사주야.”) 물가에 앉아 공자의 이 말에는 물을 보고 끊임없이 흘러간다는 의미로 사용했다. 세상은 변화하지만 학문하는 군자는 온고지신(溫故知新)한다는 것을 상징화 한다.

❍ 자연물 : 필암(筆巖;1590년(선조 23) 김인후의 문인 변성온 등이 주도하여 기산리에 서원을 세웠는데, 이 서원은 정유재란 때 소실되었다가1624년(인조 4) 복원 되었다. 1662년(현종 3) '필암'으로 사액되었으며 1672년 지금의 위치로 이전했다. 서원의 명칭은 맥동마을 초입에 있는 필암바위를 서원명으로 삼았는데 필암이라는 글씨는 조선 영조때 윤병구가 쓴 것으로 전한다.) 망배단(望拜壇;일명 통곡단이라고도 한다. 인종이 돌아가시고 그 때부터 매년 기일에 난산卵山에 망배단을 쌓고 종일토록 북쪽을 향해 통곡하였다 한다. 김인후 선생의 난산비가 그 곳에 서 있다)

❍ 매원(梅苑) : 김인후 선생은 고결한 선비의 품격 답게 매화시 16수를 남겼다. 필암서원 매원과 서원 안팎에는 많은 매화나무로 작은 원림을 조성하였다.

필암서원 명칭의 배경이된 필암과 서원 경내 매원의 매화

8) 무성서원

❍ 문루 : 무성서원의 문루는 현가루(絃歌樓)이다. 현가루에서는 옛 무성현 마을을 내려다 보는 차경(借景)을 가지고 있다. 태인의 현감이었던 최치원을 기리는 사당이 서원의 효시가 되었듯이 지방 수령들이 서원을 통해 백성들의 학문을 일으키고 풍속을 교화하고자 했던 그 의미를 되새겨 현가루라 했을 것이다. 현악(絃樂)에 맞추어 노래 부른다는 뜻으로, 정사를 함에 있어서 법도가 있어 백성들이 안락하게 지내는 것을 말한다. 노(魯) 나라 때 자유(子游)가 무성(武城)의 수령으로 있으면서 예악(禮樂)으로 가르쳤으므로 고을 사람들이 모두 현가하였다고 한다. 아마 조그마한 고을 수령의 어진 정사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는데 이는 최치원이 이 곳 옛지명인 태산, 무성의 태수를 지낸 것을 연결해 논어의 무성현가를 현판으로 이름 지었을 것이다.[14]

❍ 원근경 : 무성서원은 멀리는 칠보산, 서원 뒤는 성황산(城隍山)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멀리는 동진강이, 가까이는 은석천이라는 개울이 앞쪽으로 흐른다. 최치원을 위한 사당인 태산사(泰山祀), 그리고 신잠의 생사당(生祠堂)[15]이라는 제향시을 기반으로 려말 불우헌 정극인이 세운 향학당(鄕學堂) 등을 합쳐 무성서원기반이 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은 서원의 성격과 유식, 강학 정신의 기반을 이룬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 힘입어 이 일대에는 불우헌 정극인의 여러 유적지와 최치원의 유상곡수터인 유상대(流觴臺;원래 이 곳에 퇴치원을 기념하는 태산사가 건립되었었다고 전한다). 생사당을 중심으로 최치원 사당과 정극인의 향학당이 모여 무성서원을 이룬 것이다. 따라서 마을을 앞에두고 있다는 특징보다는 최치원, 신잠, 정극인 등의 유적지를 중심한 인근일대가 가장 훌륭한 유식공간을 이룬

---

14) 공자(孔子)의 제자 자유(子游)가 무성(武城)의 원으로 있을 때에 공자가 갔더니, 고을에 현가(絃歌)의 소리가 울려 퍼지자, 공자가 빙그레 웃으면서 "닭을 잡는 데에 어찌하여 소 잡는 칼을 쓰느냐."고 농담을 한 고사가 있다. 학교를 설치하고 교육을 시키는 데 예와 악(禮樂)을 가르치므로 줄을 퉁기고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다. 子游爲武城宰子之 武城聞絃歌之聲莞 爾笑曰割鷄焉用牛 刀子遊曰昔者偃也 聞諸夫子曰君子學 道則愛人小人學道 則易使也子曰二三 子偃之言是也前言 戱之『논어(論語)』「양화(陽貨)」

15) 신잠의 생사당에 모셨던 조각상이 1973년 6월 23일에 전라북도 민속자료 제4호로 지정되었다. 조각상(彫刻像)은 언제 만든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조선(朝鮮) 중종(中宗) 때의 명관(名官)이던 영천(靈川) 신잠(申潛: 1491~1554) 선생의 영상(影像)이라고 믿어 오고 있다. 신잠 선생은 중종(中宗) 38년(1543: 癸卯) 태인 현감(泰仁縣監)으로 부임하여 명종(明宗) 4년(1549: 己酉)까지 7년간 동.서.남.북(東西南北)의 4학당(四學堂)을 세워 유학(儒學)을 진흥시키고 무명잡세를 없애고 학자금을 지원하는 등 많은 치적(治積)과 선정(善政)을 베풀었다. 그 후 강원도(江原道) 간성(杆城) 군수(郡守)로 떠나게 되자 고을 사람들이 선생의 치적(治績)과 선정을 기리기 위해 선정비(善政碑)를 세우고 성황산(城隍山: 泰仁)에 당우(堂宇)를 지어 선생의 조각상(彫刻像)과 부인(夫人), 큰아들(長子)의 상, 그리고 시녀상(侍女像), 호상(虎像)까지 함께 봉안(奉安)하여 선생을 기념 하였다. 조각상은 모두 나무로 만든 입상(立像)이며 화려한 원색을 사용했다.(선생은 첫째 부인에게 두 딸을 얻고, 재취에게는 소생이 없고 다만 시비(侍婢)에게서 아들 하나를 보았다. 조각상과 부합한다. 호랑이는 간향활리(奸鄕猾吏)에게 무섭게 형장을 내리친 신잠의 재림(再臨)을 희구하는 여망이었다./이종범) 이 고을 사람들은 매년(每年) 정월(正月) 삭망(朔望: 一日과 十五日)에 신잠 선생께 제사(祭祀)를 올려 태인(泰仁) 고을의 태평(太平)과 국세(國稅) 상납시(上納時) 풍랑과 도적 같은 불상사(不祥事)가 없기를 기원하였다. 이곳을 성황당(城隍堂)이라고 불러왔는데 이 영상(影像)을 봉안했던 성황당은 1950년경에 낡아 헐어졌으며, 영상(影像)은 현재 태인면사무소에 보존되고 있다. 1998년에 항가산(恒伽山: 相遠亭 옆) 중턱으로 새 집을 지었으나 아직 옮겨가지는 못했다. 영상은 모두 나무(木材)로 만든 입상(立像)이며 조각수법(彫刻手法)이 매우 정교(精巧)하나 만든 연대(年代)는 알 수 없다. 크기는 신잠 선생(申潛 先生) 85.6㎝, 부인상(夫人像) 76.5㎝, 장자상(長子像) 58.5㎝, 시녀상(侍女像) 55.5㎝, 호상(虎像) 61.5㎝이다.

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칠광도의 배경인 송정(松亭)과 고현향약의 중심인 고현동각(古縣洞閣) 등이 남아있다.

무성서원 주변 산수배치도

❍ 비석군 : 무성서원에는 마을공간에 들어선 특징적인 점은 유식 공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여러 비석들이 하나의 풍광을 이룬다. 1992년 세워진 병오창의기적비(丙午倡義紀蹟碑)는 을사늑약(乙巳勒約)이 있는 다음 해인 1906년 병오년 6월 12일, 면암 최익현 선생을 필두로 무성 일대 팔백 명의 선비들이 항일 횃불을 높이 들고 의병을 일으킨, 병오창의(丙午倡義)의 현장이 바로 이곳임을 알리는 비석이며 그 외에 병오창의기적비 근처에 세워진 진사 최영대 영세불망비와 강당 서쪽에 따로 담장을 둘러 분리한 공간에 통정대부 전 비서감승 신용희 불망비와 현감 서호순 물망비가 있으며, 현가루 앞에는 대원군의 형인 영상 이최응 영세불망비, 전 감역 정문술 중수 의조비 등의 비석들이 외국서원의 과거합격생을 새긴 비석인 진사제명비(進士題名碑)를 대신하여 하나의 인생의 목표를 다지는 유식공간 속에 들어와 있다.

신잠선생의 생사당에 모셨던 조각상

9) 돈암서원

❍ 문루 : 서원 앞에 이르면 누각 산앙루(山仰樓)가 있다. 산앙루는 전면 다섯 칸, 측면 세 칸의 맞배지붕 건물로, 돌기둥 위에 누각이 올라서 있는 특징이 있다. 산앙루라는 건물은 원래는 없었던 것이고 산앙루 이름을 새긴 편액만 남아 있었던 것인데, 2006년 신축한 건물이다. 유생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는 이 산앙루 위에 오르면 안쪽으로는 서원이 내려다보이고, 바깥쪽으론 넓은 들판 뒤로 산봉우리들이 보인다. 산앙루의 산앙은 산을 우러러 바라본다는 뜻으로, 학문의 높은 경지를 기린다는 뜻이다.

❍ 건축의 유식적 요소 : 숭례사 입구인 내삼문 좌우의 담에는 특별한 문구가 새겨져 있다. 담 오른 쪽에는 “대지가 만물을 짊어지고, 바다는 만천을 포용한다”라는 ‘지부해함(地負海涵)’ 문구가 새겨져 있고, 내삼문 좌우 담에는 두 글자 씩 나누어서 “지식은 넓히고, 행동은 예의에 맞게 하라”는 ‘박문약례(博文約禮)’ 문구와 담 왼 쪽에는 “상서로운 햇살과 온화한 바람”이라는 ‘서일화풍(瑞日和風)’ 문구가 새겨져 있는데, 이것은 곧 김장생의 사상을 축약한 글이다. 유생들이 휴식하거나 서원에서의 동정(動靜)에 항상 이를 명심토록한 것을 유식(遊息)의 한 형태라고 생각한다.

담장의 꽃담. 우측에서 좌로 약례(約禮)라 새겼다

4.4 육예를 통한 유식 활동

1) 육례의 의미와 서원

중국의 6례(六禮 : 禮·樂·射·御·書·數)를 배우는 것이다. 중국의 6례는 서양의 7자유과(七自由科, artes liberales : 3학(문법·수사학·변증법) 4과(산술·기하학·천문학·음악))와 같은 것으로 오늘날 자유교육(liberal education)에 해당된다. 6례와 7자유과는 실제적 지식이 아닌 이론적 지식으로 합리적 이성 계발을 목적으로 하며, '사람됨'의 교육을 위한 과목들이다.
일반적으로 조선시대에서 다루어 지는 육례는 중국 고대 국가경영을 위한 육례와는 다소 다르게 이해된다. 이미 사회가 분화된 탓도 있겠으나 중국에서의 육례는 일반 실무자인 사류(士類)들이 지녀야할 기능적인 내용들을 포함한다.

〈주례〉에는 대사도가 향의 3가지 일로써 모든 백성들을 가르쳤다고 하는데, 그 3가지 일이란 지(智)·인·성·의·충·화(和)의 6덕과 효·우·목·인·임·휼의 6행, 예·악·사(射)·어·서(書)·수의 6예이다.
6예 가운데서 예는 다시 5례로 나뉘어 나라의 귀신인 신기를 섬기는 12가지의 길례, 나라의 근심을 슬퍼하는 5가지의 흉례, 나라의 빈객을 접대하는 8가지의 빈례, 백성을 동원하여 그들을 통제하기 위한 5가지의 군례, 백성의 친함을 도모하는 6가지의 가례가 있다.

악에는 6악이 있는데, 황제를 칭송하는 운문, 요(堯) 임금을 칭송하는 함지, 순 임금을 칭송하는 대소, 우(禹) 임금을 칭송하는 대하, 탕 임금을 칭송하는 대호, 무왕(武王)을 칭송하는 대무가 그것이다.

사는 5가지가 있다. 첫째는 백시인데, 화살이 과녁을 꿰뚫어서 그 촉이 희게 나타난 것이다. 둘째는 삼련인데, 앞서 1개의 화살을 쏘고, 뒤에 3개의 화살을 연속하여 쏘는 것이다. 셋째는 염주인데, 깃머리[羽頭]가 높고 촉이 낮은 살이 빛나면서 날아가는 것을 말한다. 넷째는 양척인데, 신하가 임금과 활을 쏠 때에 임금과 나란히 서지 않고, 임금보다 아래쪽으로 한 자 떨어져서 쏘는 것이다. 다섯째는 정의인데, 4개의 화살이 과녁을 꿰뚫은 것이 정자의 모양같다고 한 말이다.

어 역시 5가지로 나뉘는데, 말이 움직이면 수레에 달린 앞뒤 방울이 울려 서로 화응하는 것을 말하는 명화란, 수레를 몰 때 물줄기가 굴곡을 따르면서 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은 축수곡, 거마가 군주의 앞을 통과할 때 수레를 모는 법인 과군표, 교차로에서 수레를 돌릴 때 춤추는 절도에 따라 하는 무교구, 수레로 짐승을 몰아 임금으로 하여금 쏠 수 있게 하는 축금좌가 그것이다.

서에는 6가지가 있다. 일·월과 같이 사물의 형태를 본뜬 상형, 인과 언을 합한 신(信) 자와 같이 둘 이상의 글자를 합하여 한 글자를 만들고 또 그 뜻도 합성한 회의, 한 글자를 딴 뜻으로 전용하는 전주, 상·하(下) 자와 같이 그 글자의 모양이 바로 그 글자의 뜻을 나타내는 지사 혹은 처사, 어떤 뜻을 지닌 음을 적는 데 적당한 글자가 없을 때 뜻은 다르나 음이 같은 글자를 빌려 쓰는 가차, 강(江)과 같이 두 문자가 결합하여 반은 뜻을, 반은 음을 나타내는 형성 또는 해성이 있다.

수는 9가지로 전지의 가로·세로를 고르게 하는 방전, 물물교환의 비례를 계산하는 속포, 품급의 차이가 있는 것을 고르게 할당하는 차분 또는 쇠분, 면적과 부피를 계산하는 소광, 공사에 관한 계산법인 상공, 주거와 인마의 운임을 원근에 따라 계산하는 균수, 나머지와 안분 비례에 관한 계산법인 영뉵, 방정식에 관한 계산법인 방정, 3각도형의 계산법인 구고가 있다. 그런데 한대(漢代)에는 6예가 6경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되어 6예지과라 하면 6경의 과목을 가리키기도 했다.[16]

서원에서는 주로 6례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 중에 시(詩)서(書)예(禮)악(樂)을 위주로 가르쳤다. 시는 시경(詩經)을 통해 주요학습인 성리(性理)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정리(情理)에 해당하는 시를 연마하는 전문적인 학습을 시켰는데 학문을 시적으로 구성하는 방법과 인간과 자연과의 상호교감을 시경(詩經)이라는 경전을 통해 가르쳤다. 사람됨을 평가하는 신언서판(身言書判)의 하나인 서예(書藝)를 선현들의 유묵을 가르치고 권장 함으로써 중요한 교약의 하나로 가르치고 평가하였으며 국가와 향촌사회, 혈연사회의 구성원간의 기본 행동인 예절(禮節)을 예기(禮記) 등의 교재 학습으로 익히도록 하였다. 서원 제향(祭享)이나 관혼상제(冠婚喪祭), 선비간의 예절인 사상견례(士相見禮[17]), 향촌 경로효친을 가르친 향음주례(鄕飮酒禮[18]), 개인간의 읍양(揖讓) 예절을 학습하기 위한 투호례(投壺禮[19]) 등을 권장하거나

---

16) 다음백과 중국 주나라 시대의 육례(六禮)

17) 사상견례는 청견(請見)·전지(傳贄)·반견(反見)·전언(傳言)·궤식(饋食)·빈출(賓出)·환지(還贄) 등의 절차로 나누어진다. 사상견은 연령·학문·덕망·지위 등이 서로 엇비슷한 사람들이 만나는 절차이므로 대등한 위치에서 대등한 대화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며, 신분·연령의 차이 등은 특별히 고려되지 아니한다.
① 청견 : 손님이 폐백을 가지고 주인의 집을 찾아가며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만나고자 하는 사유를 전한다. 폐백으로는 꿩을 쓰는 것이 보통이다.
② 전지 : 손님은 가지고 온 폐백을 시중을 통하여 주인에게 전한다.
③ 반견 : 시중이 주인의 뜻을 전하고 손님을 안으로 인도한다. 주인은 손님과 인사를 나누고 자리를 정해서 앉는다.
④ 전언 : 주인과 손님이 자리를 정한 뒤, 누구의 소개로 왔으면 소개한 사람의 소개장을 제시하고 말을 전하며, 겸해서 찾아온 용건을 간단히 말한다. 만약 특별한 용건이 없고 인사차 왔으면 그 사유를 말하며 주인에게 존경하는 의사를 표한다.
⑤ 궤식 : 주인과 손님 사이에 수인사가 끝나면 주인은 음식을 내어 손님을 접대하는데, 이 때 접대를 받는 손님은 주인에게 겸손한 사양의 태도를 잃지 아니하여야 한다.
⑥ 빈출 : 용무가 끝나 손님이 돌아갈 것을 청하고 밖으로 나가면 주인은 손님의 뒤를 따라나가 전송한다.
⑦ 환지 : 주인은 손님이 돌아간 뒤 받은 폐백과 비슷한 폐백을 마련, 종자를 시켜보내고 찾아준 고마움을 사례한다.

18) 향음주(鄕飮酒)의 뜻은 주인이 상문(庠門) 밖에서부터 손님을 절하여 맞아들여, 뜰에서 세 번 읍(揖)하고, 그런 뒤에 섬돌에 이르러 세 번 사양한 뒤에 당(堂)에 오르는데, 이는 존양(尊讓)을 다하는 때문이다. 손을 씻고 잔을 드는 것은 정결(淨潔)함을 다하기 때문이다. 배지(拜至)하고 배세(拜洗)하며 배수(拜受)하고 배송(拜送)하며 배기(拜旣)함은 공경을 다하기 때문이다. 존양(尊讓)하고 정결(淨潔)히 하며 공경(恭敬)하는 것은 군자(君子)가 서로 접촉하는 소이(所以)이니, 군자가 존양(尊讓)하면 곧 다투지 않을 것이요, 정결히 하고 공경한다면 방자(放恣)하지 않을 것이다. 방자하지 않고 다투지 않는다면 곧 싸움과 쟁론(爭論)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요, 싸움과 쟁론을 하지 않는다면 곧 폭란(暴亂)의 화(禍)가 없을 것이니, 이것이 군자가 타인으로부터 화(禍)를 면(免)하는 소이이다. 그러므로 성인(聖人)은 도(道)로써 이를 제(制)하였다.《예기(禮記)》『향음주의(鄕飮酒義)』
향음주(鄕飮酒)란 향대부(鄕大夫)가 나라 안의 어진 사람을 대접하는 것으로, 향음주례(鄕飮酒禮)를 가르쳐야 어른을 존중하고, 노인을 봉양하는 것을 알며, 효제(孝悌)의 행실도 따라서 실행할 수 있으며, 귀천(貴賤)의 분수도 밝혀지며, 주석(酒席)에서는 화락하지만 지나침이 없게 되어, 자기 몸을 바르게 해 국가를 편안하게 하기에 족하게 된다. 향음주례(鄕飮酒禮)의 골자는 배지(拜至)、배세(拜洗)、배수(拜受)、배송((拜送)、배기(拜旣) 등 다섯 가지가 골자이다. 배지(拜至)는 주인이 손을 맞아들여 처음으로 정중히 절하는 것이고, 배세(拜洗)는 주인이 작(爵. 새부리 모양에 세 발이 달린 술잔)을 씻어 당에 오르면 주인은 동쪽 층계 위의 문인 상인방(上引枋)에 북면(北面)하고 두 번 절하여 주인이 몸소

계몽하였다.

2) 서원과 문학

❍ 시(詩) : 서원 유생과 서원을 출입하는 사림(士林)의 가장 중요한 기예(技藝)라면 시문(詩文)과 서예(書藝)라 하겠으며 이는 개인 역량 표현의 중요한 요소이자 상호간 대화와 감정(感情)표현, 정리(情理) 표현의 근간을 이루고 이를 종이에 옮기는 필사기술인 서예(書藝) 또한 그 사람의 내면과 능력을 표현하는 중점 수단이다. 각 서원에는 유생들의 시와 서원한 방문한 저명한 명인(名人)들의 시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 소수서원과 도산서원의 경우를 보면 각각 약 5천수 가까지가 각종 문집이나 서원지 등에 전하고 서원에서 치루어지는 백일장[20]의 시들은 책자화하여 후대에 전해 온다. 이 내용들은 이 다음의 현판과 시판의 내용은 서원과 현판에서 상세하게 그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 시판(詩板) : 서원을 주제로 지은 대표적인 시들은 시판으로 제작되어 서원 강학당, 동서재, 정자 등지에 게첨되어 유생들의 유식활동과 시문학 활동에 중요한 모범(模範)이 되거나 시심(詩心)을 흥기(興起)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잔을 씻은데 대하여 공경의 뜻을 표하는 것이며, 배수(拜受)는 주인이 손님에게 잔을 올리면 손님은 서쪽 층계 위에서 절을 하고 잔을 받는 것을 말하며, 배송((拜送)은 손님이 이미 잔을 받으니 주인은 동쪽 층계 위에서 절하여 보낸다는 뜻이다. 배기(拜旣)는 손님이 잔을 들어 술을 다 마시고 나서 절하는 것을 말한다.

19) 병을 일정한 거리에 놓고, 그 속에 화살을 던져 넣은 후 그 개수로 승부를 가리는 형식으로 서원에서는 군자의 육예종목인 활쏘기에 대신하여 투호례가 이루어졌고 도산서원에서 퇴계가 만들어 사용한 투호가 전하여져 온다. 사마광(司馬光)의 『투호격범(投壺格範)』에는 투호의 놀이기구에 대한 설명과 노는 법이 쓰여 있다. 즉, 투호 병은 입 지름이 3치[寸]이고, 귀[耳]의 입 지름은 1치이며 높이는 1자[尺]이다. 병 속은 팥으로 채운다. 병은 던지는 이의 앉을 자리에서 2살[矢] 반쯤 되는 거리에 놓고, 살은 12개를 사용하며 그 길이는 2자 4치이다. 실수하지 않고 병에 던져 꽂힌 것을 상(上)으로 삼는데, 먼저 120을 채우는 쪽이 이긴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오늘날 그 놀이기구나 놀이방법에 대하여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놀이 때 쓰는 병의 종류나 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화살의 크기 또한 다양하다. 노는 법은 일정한 장소에 둔 투호 병을 향하여 일정한 위치에서 살을 던져 병 속이나 귀에 던져 넣는 것으로, 살이 꽂히는 데 따라 득점이 정하여진다. 던지는 위치는 병에서 2살 반, 즉 3자 가량 떨어진 거리이며, 한 사람이 살 12개를 가지고 승패를 다툰다. 살은 병의 위로 5치 가량 되는 데서 수직으로 떨어지게 한다. 투입법(投入法)에 유의할 점은 던지는 사람의 양쪽 어깨가 균형을 취할 것과 어깨가 기울어지지 않게 주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이기는 것을 '현(賢)', 지는 것을 '불승(不勝)'이라 하며 한번을 '일호(一壺)'라 한다. 그 점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헌배(獻盃)·벌배(罰盃) 등이 행하여진다.

20) 정식 과거시험은 아니고 백일(白日) 즉 낮시간 안에 지어서 제출해야하는 형식을 가르킨다. 백일장은 조선 시대에 각 지방에서 유생들의 학업을 권장하기 위하여 시문을 짓게 하여 시험을 치르던 일을 말한다. 과거 시험을 흉내내어서 시관의 주재 아래 시제를 내걸고 즉석에서 시문을 짓도록 하여 그 성적이 뛰어난 사람에게 장원을 주어 잔치를 베풀고 상을 주었다. 백일장의 기원은 1414년에 태종이 직접 500명의 성균관 학생들에게 시무책을 시험한 데서 비롯하였다.

경렴정(景濂亭)의 시판(詩板) 주세붕(周世鵬)과 퇴계(退溪) 이황(李滉), 금계(錦溪) 황준량(黃俊良), 설강(雪江) 안현(安玹) 등 당대 묵객의 시판이 걸려 있다.

4.5 서원 현판(懸板)과 기문(記文)을 통한 장수(藏修)와 유식(遊息)

1) 소수서원(紹修書院)

❍ 경렴정(景濂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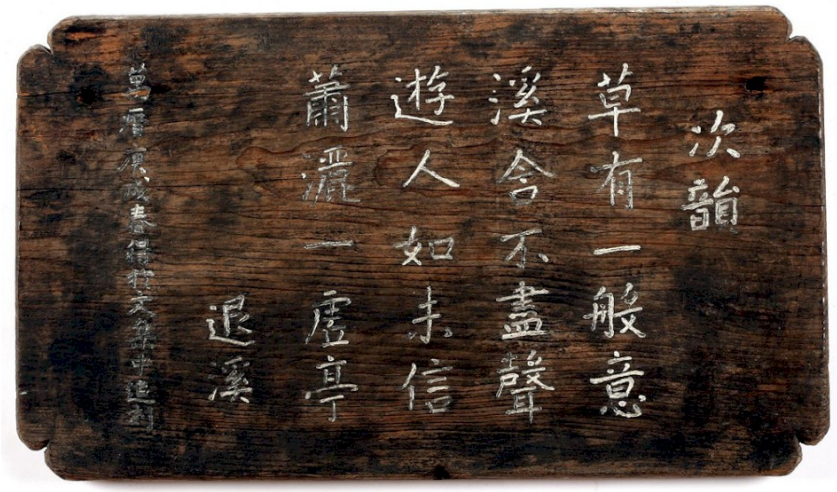
景濂亭 현판(1) / 행서, 1543년, 48×104, 傳 退溪, 傳 周世鵬
풍기군수로 부임한 주세붕 선생이 백운동서원을 창건하면서 1542년에는 문성공묘를, 1543년에 강학당과 함께 정자를 지으며 경렴정의 "경렴(景濂)"은 염계(濂溪) 주돈이(周敦頤, 1017~1073)를 경모한다는 뜻으로, 주돈이는 장시성의 루산 개울가에 집을 짓고 살았는데 그 개울이 염계이며 개울가에 염계서당을 짓고 자신를 염계선생 이라 하였는데, 중국 성리학의 틀을 만들고 기초를 닦은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景濂亭 현판 (2) / 초서, 조선 중기, 51×118, 周世鵬, 孤山 黃耆老
당대 명필(초서)로 이름 높던 고산 황기로가 소수서원 입원수학 중 스승 퇴계 선생의 명을 받아 쓴 글씨임. 필력이 뛰어나 정(亭)자의 꼬리 부분이 승천하는 모습이며, 일제 초 조선의 기를 끊고자 왜병이 의도적으로 잘라낸 흔적이 남아 있음.

題詠詩, 景濂亭 시판(1), 해서, 1543년, 27×43, 신재 주세붕, 신재 주세붕
주세붕 선생이 풍기군수 재임시설 「백운동 서원」을 창건하고, 「경렴정」정자를 세운 뒤 지은 5언 절구의 시

山立祇祇色　　산은 공경하게 서있는데
溪行亹亹聲　　냇물은 끊임없이 흐르네
幽人心有會　　은둔하는 이마음에 느낀바 있어
半夜倚高亭　　한밤중에 높은 정자에 오르네

제영시, 경렴정 시판(2), 해서, 차운, 1610년(추각), 25×43
이퇴계 선생이 처음 차운한 시판이 걸려 있었으나 오랜 세월로 마모되니 만력 경술년(1610) 봄 추각을 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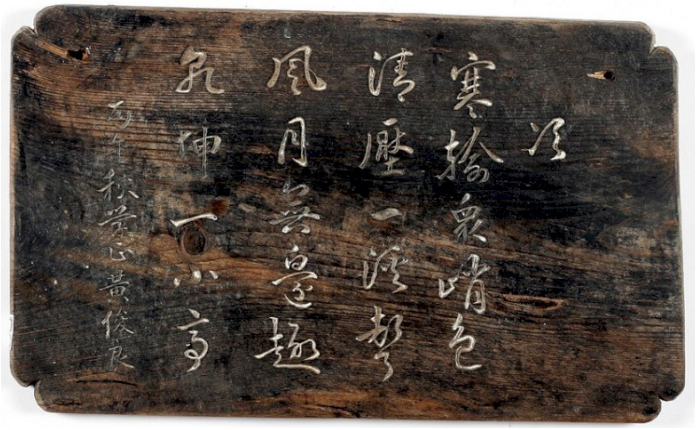


개제된 내용으로 보아 1601년 후대의 누군가가 퇴계 문집 속에서 경렴정 차운시를 찾아 다시 판각한 것으로 보인다.

草有一般意　　풀은 한결같은 뜻 머금고
溪含不盡聲　　시내엔 물소리 그치지 않네.
遊人如未信　　유람객들 믿지 못하겠다면
蕭洒一虛亭　　시원한 정자에 한 번 올라 보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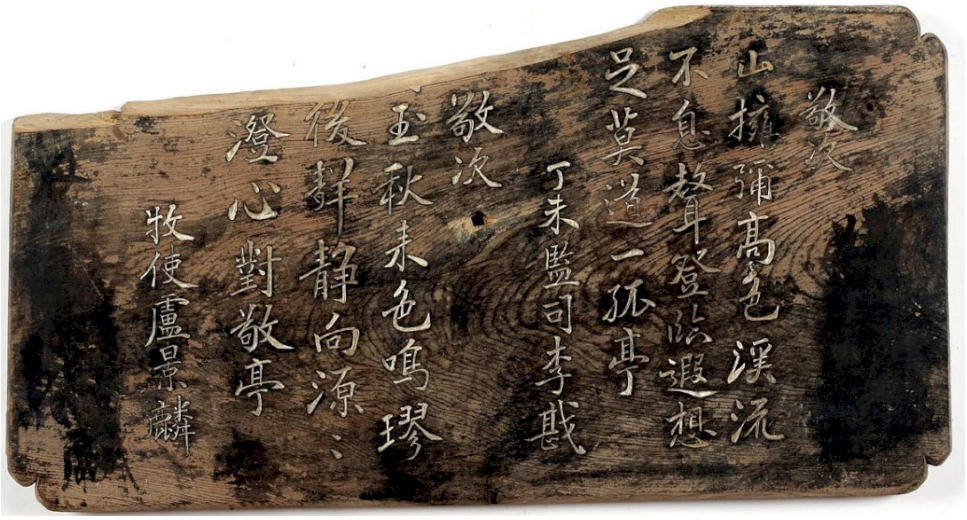
만력萬曆 경술庚戌(1610) 봄(春)에 문집 속에서 찾아 다시 새김(得於文集中追刻)

題詠詩, 景濂亭 시판(3), 초서, 1546년, 26×43, 금계 황준량, 금계 황준량
주세붕 선생의 “경렴정” 시에 차운한 시임.
해서, 초서를 혼용하여 쓴 것으로, 1546년 가을에 작성하였다.



<경렴정>차次
寒輸衆峭色鮮　　기운 높은 산 빛 실어 보내고
淸壓一溪聲咽　　빛 냇물 소리 누르네.
風月無邊趣　　풍월의 가없는 정취에
乾坤一小亭　　천지 사이 작은 정자 하나
병오丙午(1546) 가을(秋) 학정學正 황준량黃俊良. 백운서원(소수서원) 퇴계시(7언)를 황준량이 차운한 것으로 초서로 썼다. 경상도 암행어사로 부임하였을 때 지은 시이다

題詠詩, 경렴정, 시판(4), 행서, 1547년, 28×53, 이감/노경린, 이감/목사 노경린
1547년 이감이 경상감사로 부임하여 도내 순행길에 목사 노경린과 동행 방문하여 남긴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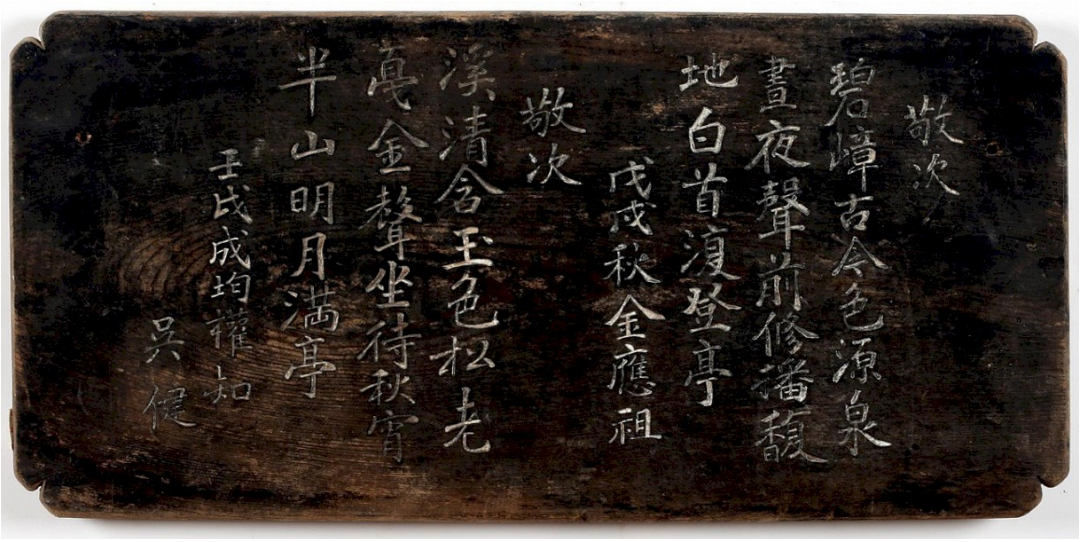


<이감 차운시>
공경히 차운함　敬次

山擁彌高色　　산은 고색을 더욱 감싸고
溪流不息聲　　냇물은 쉼 없는 소리로 흐르네.
登臨遐想足　　이 정자에 오르면 고고한 흥취 족하니
莫道一孤亭　　외로운 정자라 하지 마시게.
정미丁未(1547) 감사監司 이감李戡

<노경린 차운시>
공경히 차운함　敬次
削玉秋來色　　가을 빛 든 옥을 깎은 듯 한 봉우리
鳴琴雨後聲　　비온 뒤 시냇물은 옥을 굴리는 듯하네.
靜向源源地　　학문의 땅에 조용히 앉아
澄心對敬亭　　깨끗한 마음으로 정자를 대하네.
목사牧使 노경린盧景麟

題詠詩, 景濂亭 시판(5), 행서(차운), 1658년 / 1562년, 28×59, 김응조/오건, 김응조/오건　1658년 가을에 풍산 김응조가 차운한 시판에다, 이 앞서 1562년에 오건이 차운한 시를 함께 판각 게판되어 있는 것이 특이하다.



<김응조 차운시>
공경히 차운함　　敬次
푸른 봉우리 고금의 빛을 띠고　　碧嶂古今色
냇물은 주야로 흐르네.　　源泉晝夜聲
옛 현인들이 복을 전한 땅　　前脩播馥地
백발의 몸으로 다시 정자에 오르네白首復登亭
무술戊戌(1658) 가을(秋) 김응조金應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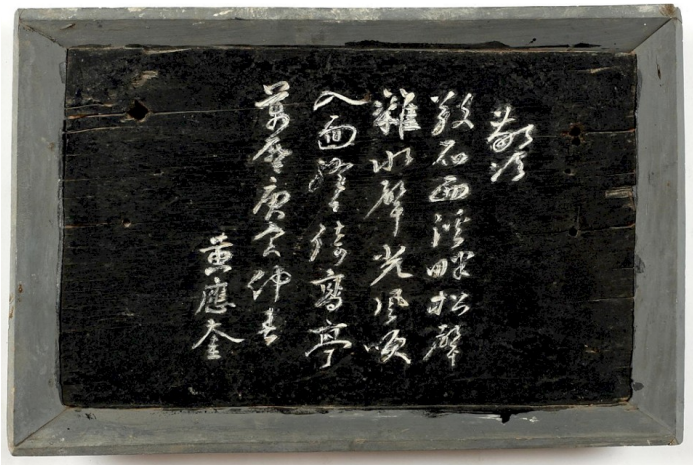
<오건 차운시>

敬次　　공경히 차운함
溪淸含玉色　　시냇물 맑아 옥색 머금고
松老憂金聲　　소나무 늙어 맑은 소리 울리네.
坐待秋宵半　　가을 밤늦도록 앉아 기다리니
山明月滿亭　　산에 뜬 밝은 달 정자에 가득하네.
임술壬戌(1562) 성균권지成均權知 오건吳健

題詠詩, 경렴정 시판(6), 행서, 차운, 1560년, 27×43, 최옹, 최옹
1560년(경신년) 경상도 암행어사로 순행 중 이곳을 들린 최옹(崔顒)이 차운한 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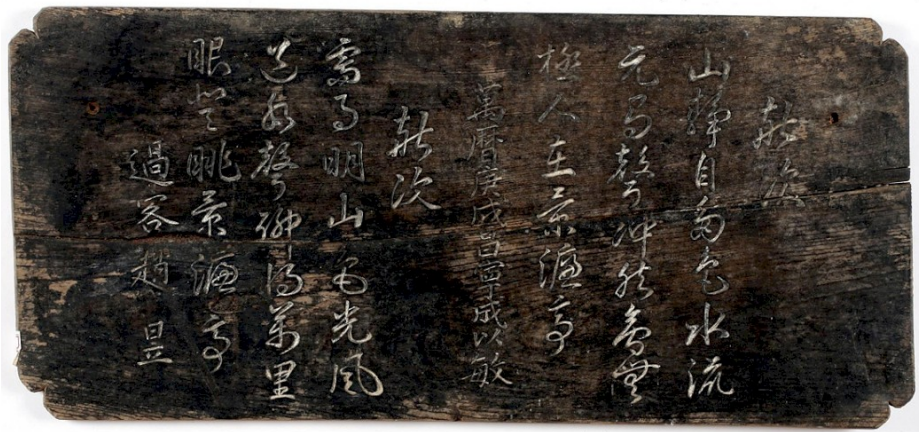
敬次　　공경히 차운함
山擁無窮翠　　산은 한 없이 푸르름 끼고
溪含不盡聲　　냇물은 끝없는 소리 머금네.
客來秋思緊　　나그네 찾아오니 가을 회포 간절하여
孤嘯倚雲亭　　외로이 읊조리며 정자에 기대네.
가정嘉靖 경신庚申(1560) 어사御史 최옹崔顒

題詠詩,　景濂亭 차운 시판, 초서, 1590년, 30×44, 송간 황응규, 송간 황응규
1590년 봄에 송간 황응규가 주세붕 시에 차운한 시판임



敬石西溪畔　　경자 바위 서쪽 시냇가
松聲雜水聲　　솔바람 속에 시냇물 소리
光風吹入面　　봄바람 불어 얼굴을 스치니
終日倚高亭　　하루종일 정자에 기대네.
만력萬曆 경인庚寅(1590) 중춘仲春 황응규黃應奎

題詠詩, 景濂亭 시판 (8) / 해 . 초서, 차운, 1610년, 27×59, 成以敏/趙 昱, 성이민/조욱 성이민과 조욱이 쓴 경렴정 차운시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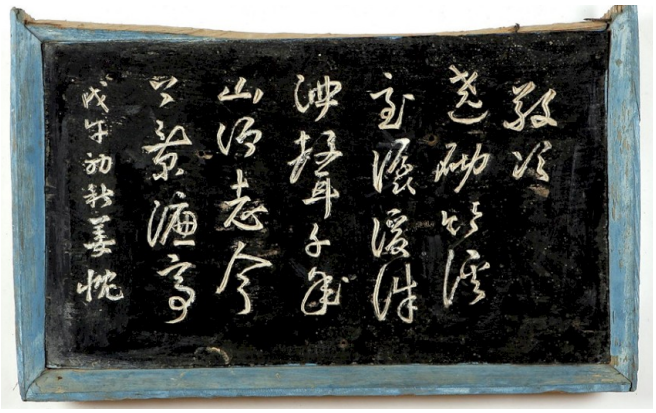
<성이민 차운시>
敬次　　공경히 차운함
山靜自多色　　산은 고요해도 절로 빛 많고
水流元有聲　　물은 흘러 원래 소리 있네.
沖然壽無極　　깨끗하여 가 없는 산속
人在景濂亭　　사람만이 경렴정에 있네.
만력萬曆 경술庚戌(1610) 창녕昌寧 성이민成以敏

<조욱 차운시>
敬次　　공경히 차운함
霽月明山色　　개인 달에 산 빛 밝고
光風送水聲　　봄바람에 물 소리 실어 보낸다.
聊將萬里眼　　애오라지 만리안 가지고자
登眺景濂亭　　경렴정에 올라 바라본다.
과객過客 조욱趙昱

題詠詩, 景濂亭 시판(9), 해서, 차운, 1619년, 23×34, 黃是, 황시
황섬의 동생이 되는 황시가 경렴정을 차운한 시판이며, 해서로 판각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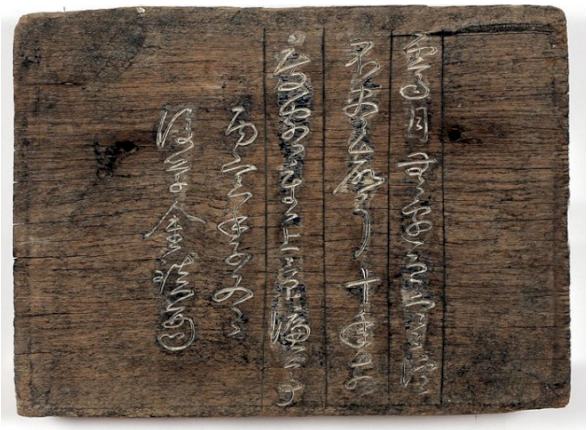
敬次　　공경히 차운함
臘殘猶雪意　　섣달 저물어 눈 내릴 때건만
溪暖已春聲　　시냇물 따사로워 이미 봄 소리 들리네.
萬事唯衰鬢　　세상만사 부질없이 백발만 느는데
幽懷屬此亭　　그윽한 정회를 이 정자에 붙이네.
만력萬曆 기미己未(1619) 가평절嘉平 하순下浣 황시黃是

題詠詩, 景濂亭 시판(10), 초서, 차운, 1799년, 37×58, 姜忱, 강침
1798년 강침이 지은 차운시판이며, 1799년 초서 판각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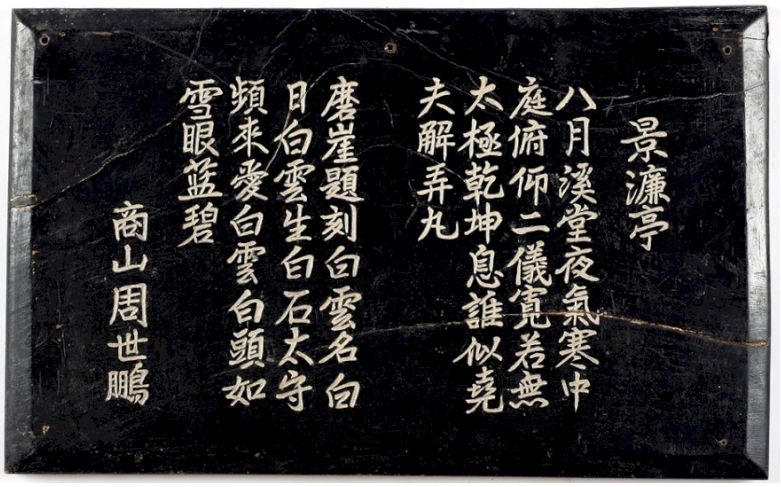
敬次　　경차
砌竹溪急　　섬돌 휘감아 흐르는 죽계수
湲殊泗聲　　잔잔히 흐르는 수사물 소리
年山仰志　　천 년 높은 산 앙모하고자
今上景濂　　이제야 경렴정에 오르네.
무오戊午 초추初秋 강침姜忱

題詠詩, 景濂亭 시판(11), 초서, 차운, 조선 중기(병인년), 27×36, 金鎭雨, 김진우
조선 중기 병인년 어느 해에 주신재의 원운에 차운하였으며, 모두 입성 “靑”자를 운자로 붙인 것이 특이함.



霽月無邊色　　개인 달빛은 끝없는 빛 비추고
寒溪不盡聲　　차가운 냇물은 끊임없는 소리 들리네.
十年前度客　　10년 전 찾아왔던 나그네
重上景濂亭　　다시 경렴정에 오르네.
병인년丙寅年 계동季冬 후학後學 김진우金鎭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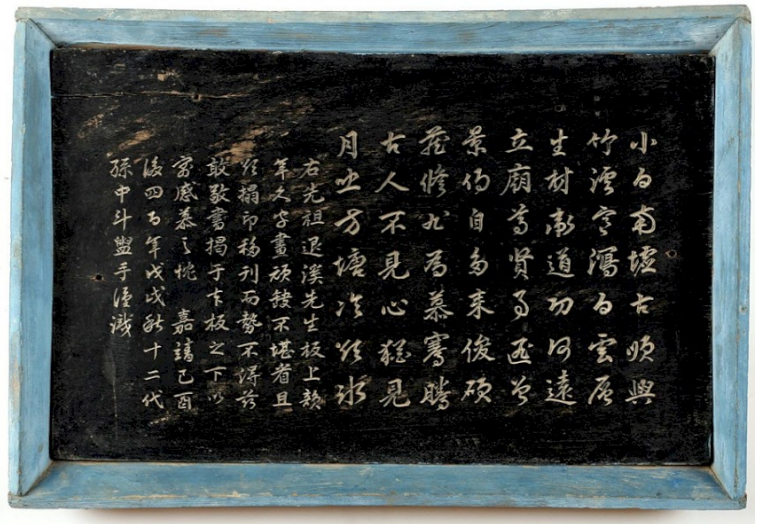
題詠詩.「경렴정」시판. 해서, 1543년, 30×49, 愼齋 周世鵬,, 신재 주세붕
시판에 서각된 시는 칠언절구 2수로 되어 있으나 후학들이 차운한 경우는 퇴계와 달리 드문 편임.



八月溪堂夜氣寒　팔월 시냇가 정자엔 밤기운 차가운데
中庭俯仰二儀寬　뜰에서 바라보는 하늘과 땅 넓기도 하여라.
若無太極乾坤息　만약 태극이 없어 건곤이 멈춘다면
誰似堯夫解弄丸　누가 요부처럼 구슬의 뜻 알리오?
磨崖題刻白雲名　벼랑에 백운동 이름 새기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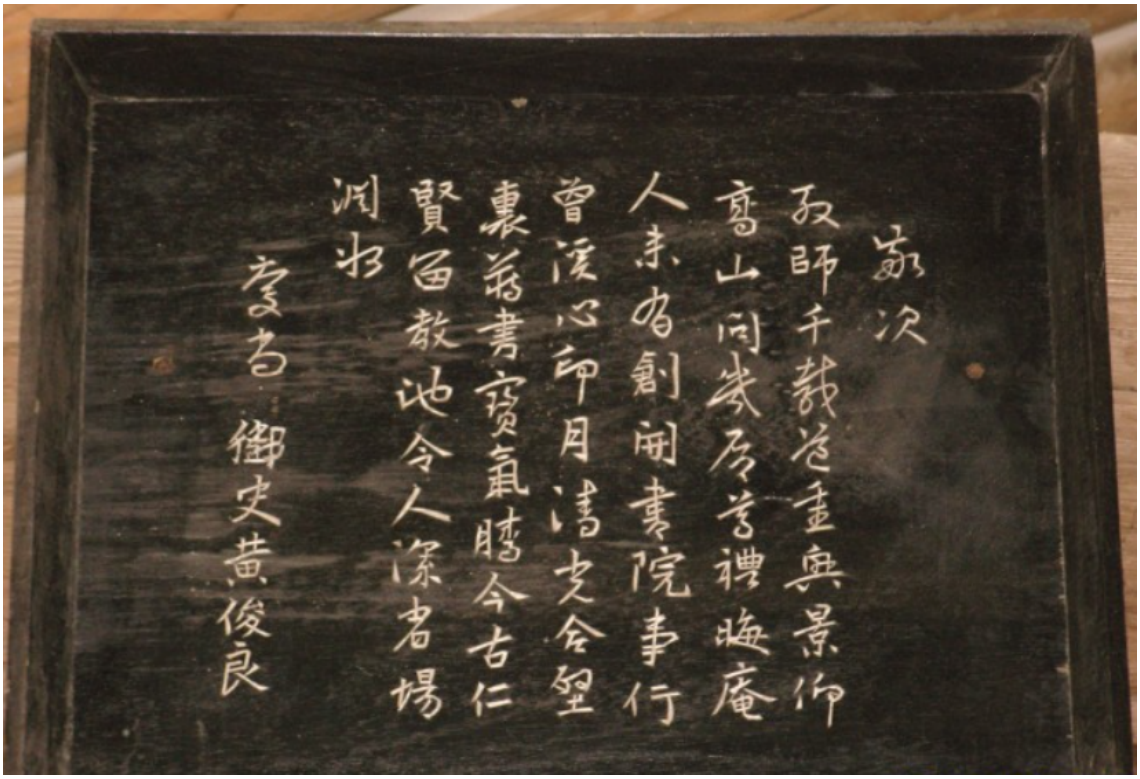
白日白雲生白石　맑은 날 흰 구름 사이에 흰 돌이 나오네.
太守頻來愛白雲　태수가 자주 찾아와 백운을 아끼는데
白頭如雪眼藍碧　머리는 백발이라도 눈은 청안이라네.
상산商山 주세붕周世鵬

제영시, 퇴계 선생 판상운 시판, 행.초서, 1549년, 38×56, 퇴계 이 황, 이 중 두 이퇴계 선생이 "백운동 서원 제생들에게" 보인 시이며, 시판이 너무 오래 되어 글자 마멸 등으로 읽기가 어렵자, 12대 후손인 이중두(李中斗)가 퇴계 선생 판상운(판上韻)을 새로 게첨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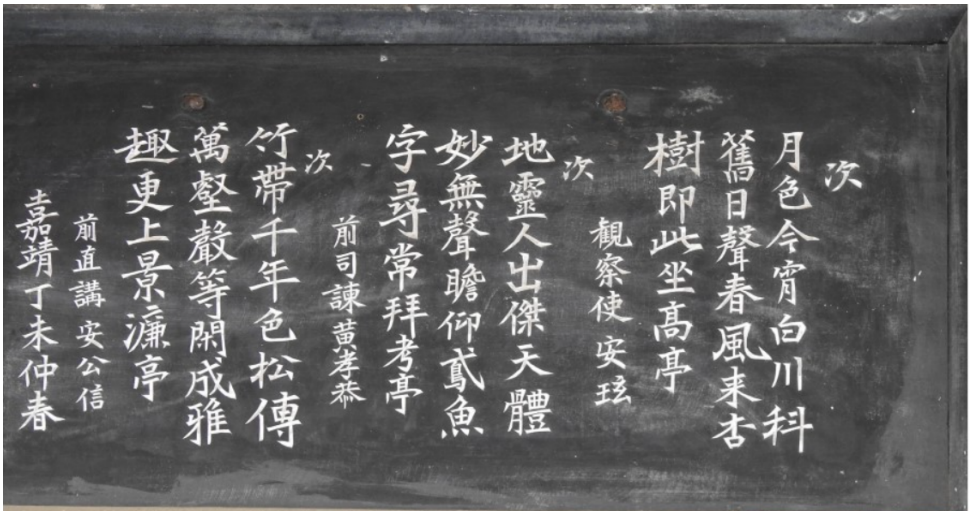
小白南墟古順興　소백산 남쪽기슭 순흥이란 옛고을
竹溪寒瀉白雲層　죽계수는 찬기운 쏟아내고 흰구름은 겹겹이 층이루네
生材衛道功何遠　인재를 기르고 유도를 지킨 것이 공이 어찌 멀며
立廟尊賢事匪曾　사당을세우고 선현을 기림은 일찍부터 섬긴 것은 아니네
景仰自多來俊碩　성현을 경모하고 우러보는 크고 뛰어난 인물들 절로많이 찾아오나
藏修非爲慕騫騰　학문을 수습하지 아니하면 오르고자하는길 이지러짐을 바라는 것이네
古人不見心猶見　옛선현은 보지못하나 마음은 오히려 헤아려 볼 수 있으니
月照方塘冷欲氷　달빛이 연못속을 비치듯 맑은정신 차갑기가 얼음이될려하네

題詠詩, 황준량의 차운시, 초서, 1551년, 36×55, 금계 黃俊良, 금계 황준량
위 시는 금계가 35세 되던 해인 1551년 2월 경상도 감군어사(監軍御使), 그해 6월 추생어사(抽栍御使)로 임명을 받아 암행길에 들려 스승 퇴계의 칠언절구 시에 차운한 시판임.



題詠詩, 景濂亭 차운 시판, 행서, 1636년, 32×52, 洪宇定, 숭정처사 두곡 홍우정
병자호란 시 태백산속에 은거했던 숭정처사로 그 절의가 후세에 알려진 인물이며, 1636년(병자호란) 이후 차운한 것으로 보임 .

題詠詩, 景濂亭 차운 시판, 1547년, 30×60, 안현/황효공/안공신, 安鉉/黃孝恭/ 安公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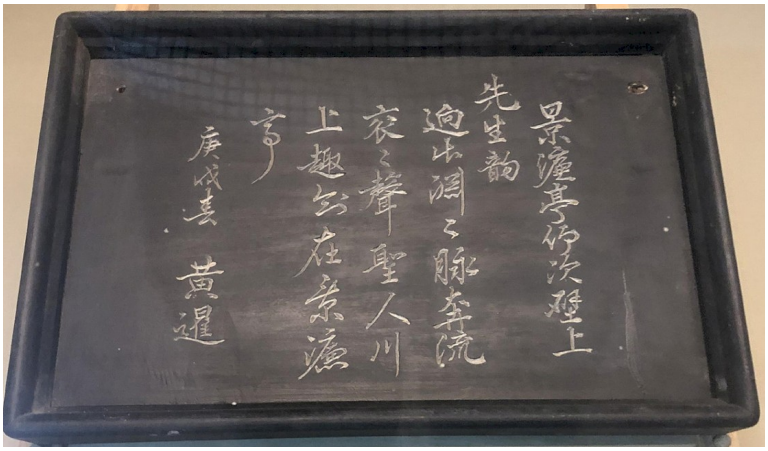


<안현 차운시>
敬 次
月色今宵白　　월색은 오늘밤 휘영청 밝은데
川科舊日聲　　냇가 웅덩이선 옛날 소리내네
春風來杏樹　　봄바람 은행나무 아래로 불어오니
卽此坐高亭　　이곳으로 나아가 정자에 높이 앉았네
觀察使 安 玆 관찰사 안현

<황효공 차운시>
敬 次
地靈人出傑　　땅은 신령하여 건출한 인재를 나게하고
天體妙無聲　　하늘의 별과달은 묘하게도 소리가없네
瞻仰鳶魚字　　우러러보니 솔개가 날고 굽어버니 고기띠는듯
尋常拜考亭　　항상 찾아와 배고하는 정자로세
前司諫 黃孝恭 전사간 황효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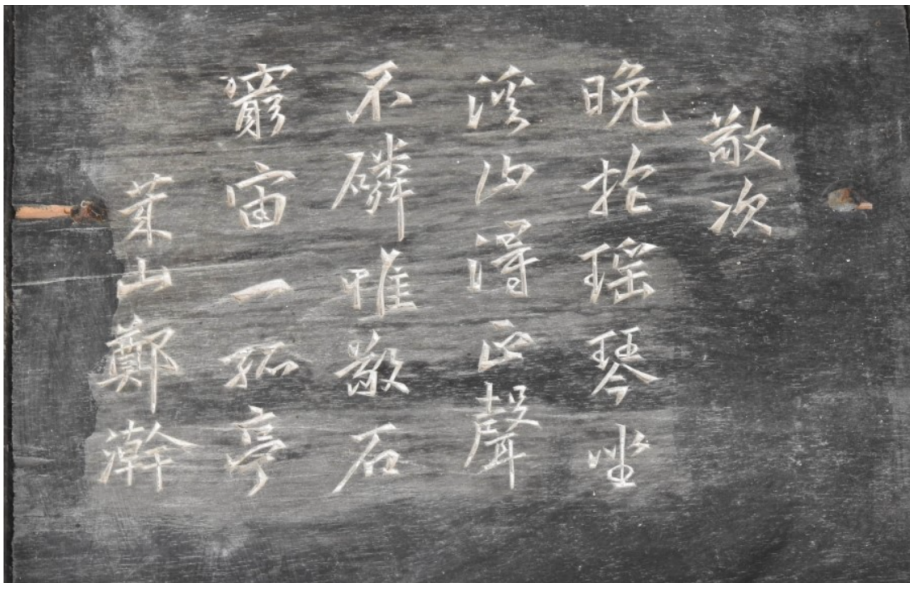
<안공신 차운시>
敬 次
竹帶千年色　　대나무는 천년의 빛을 띠고
松傳萬壑聲　　소나무는 온 산골짝 소리를 전하네
等閑成雅趣　　한가하게 가져보는 청아한 자리
更上景濂亭　　다시 경렴정에 오르네
前直講 安公信 嘉靖 丁未 仲春 전직강 안공신 가정 정미 중춘

題詠詩, 景濂亭 차운 시판, 초서, 1610년, 30×45, 황섬, 黃暹
경렴정의 원운에 황섬이 차운한 시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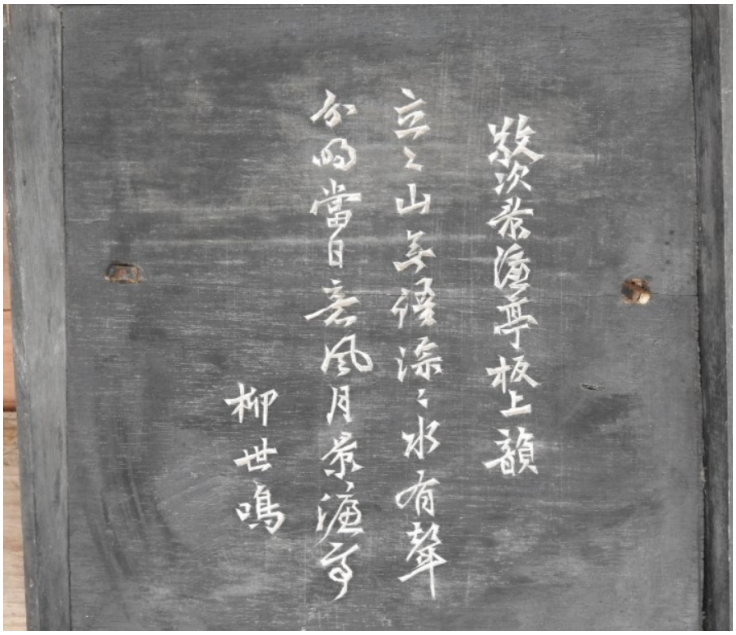


경렴정에서 삼가 벽 위 선생의 시에 차운함
산은 맥을 이어 우뚝 솟아 있고
물결은 끊임없이 흘러가네
냇가에서 성인이 느낀 듯
이제 보니 경렴정에 있음을 알겠네
경술년(1610, 광해군 2) 봄에 황섬

題詠詩, 경렴정 차운 시판, 초서, 28×37, 鄭澣, 정한
경렴정의 원운에 정한이 차운한 시판임. 정조 19년(1795) 춘당대병과에 급제한 인물로 1806년(순조 6) 순흥부사로 부임하여 차운한 시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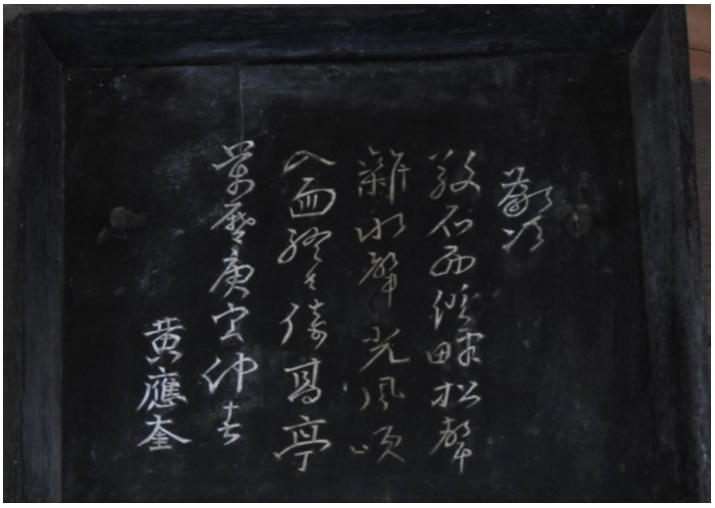
題詠詩, 景濂亭 차운 시판, 초서, 27×33, 柳世鳴, 류세명
경렴정 판상운에 차운한 시판임. 풍기군수를 역임한 겸암 류운용의 증손으로 1675년 증광문과 병과급제자임.



敬次景濂亭板上韻　柳世鳴(류세명)

경차경렴정판상운
立立山無語　우뚝 서있는 산은 말이 없고
淙淙水有聲　죽계의 물은 소리내어 흐르네
分明當日意　분명한 건 그 날의 뜻이거늘
風月景濂亭　광풍제월(光風霽月)에 경렴정
柳世鳴

題詠詩, 경렴정 차운 시판, 초서, 黃應奎



題詠詩, 경렴정 차운 시판, 초서, 1592년, 33×72, 尹卓然 , 윤탁연
퇴계의 경렴정 원운에 경상감사로 부임하여 도내를 순행차 이곳에 들린 윤탁연이 차운한 시판임. 퇴계의 경렴정 7언시를 차운한 것으로 초서로 작성되었고 1582년 경상감사로 부임했을 때 지은 시이다.『소수서원지』459~460쪽에 지락재와 관련된 시판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 시는 퇴계의 경렴정시(7언)을 차운한 것이다.
敬次　　공경히 차운함
斯道從來有廢興　유도는 종래로 흥폐가 있었고
孔門階級幾多層　공문의 계급은 층위가 많았네.
簞瓢昔者顔吾友　단표누항 즐긴 이는 나의 벗 안회였고
風詠當年聖與曾　당시의 풍영은 공자와 증점뿐이었네.
雲洞深淵魚動躍　백운동 깊은 연못에 물고기 뛰고
竹岡初旭鳳飛騰　죽계 언덕 햇살 속으로 봉황 날아오른다.
燒香展拜平生幸　향 피워 참배하여 평생 소원 이루니
舊染塵泥已渙永　지난날 더러움 얼음 녹듯 사라지네.
관찰사觀察使 윤탁연尹卓然 만력萬曆 임오壬午(1582) 봄(春)

題詠詩, 문성공 사우건립 시판, 초서, 24.2×35.3, 찰방 朴承健, 찰방 박승건
박승건이 문성공 사우건립을 경하하면서 지은 시판임.
祠宇新成闢穢原　예원 허물어 새롭게 사우 완성하니
儼然遺像返丘園　근엄한 유상 고향으로 돌아왔네
世人但道安門慶　세인들은 단지 안씨가의 경사라 하니
未識斯文一脈存　사문의 맥이 보존됨을 모르네

題詠詩, 濯纓臺 시판, 해 . 초서, 1593년, 32×52, 謙庵 柳雲龍, 겸암 류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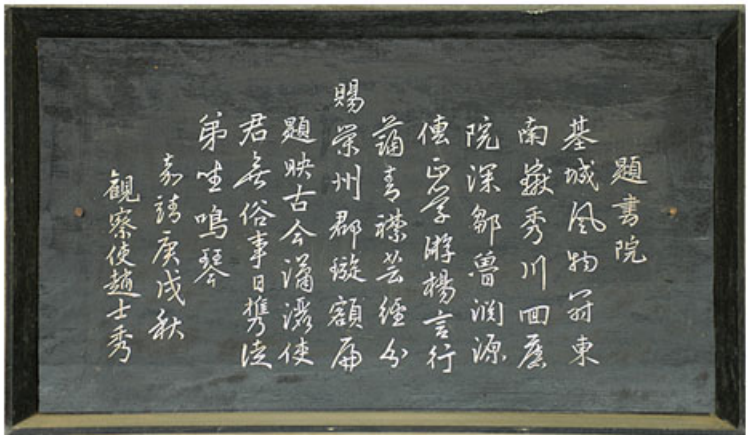
겸암 류운용 선생이 남긴 2수의 시판임. 임란 직전 . 직후 풍기군수 재임 시 백운동 서원을 배알하고, 이어 지락재(至樂齋)에서 옆의 대(臺)를 탁영대(濯纓臺)라 명명하고 앞쪽 낮은 곳에는 못을 파 탁청지(濯淸池)라 명명한 내용이 부기(附記)되어 있음.

題濯纓臺二首　　탁영대에 관한 시를 두수 지음
地藏問幾歲　　땅이 감춘지 몇 해 이던고?
鬼闢始知今　　귀신이 열었음 오늘에야 알겠네
築石鳴淸珮　　쌓인 돌 사이로 맑은 옥소리 들리고
疎林列茂陰　　성근 수풀에도 짙은 그늘 드리웠네
奇巖初露面　　기암괴석 처음으로 얼굴 내비치니
佳賞已盈襟　　좋은 경치 이미 소매에 가득하네
寄語遊仙侶　　신선따라 노니는 이들에게 말하노라
應須取次尋　　다음에 꼭 찾아오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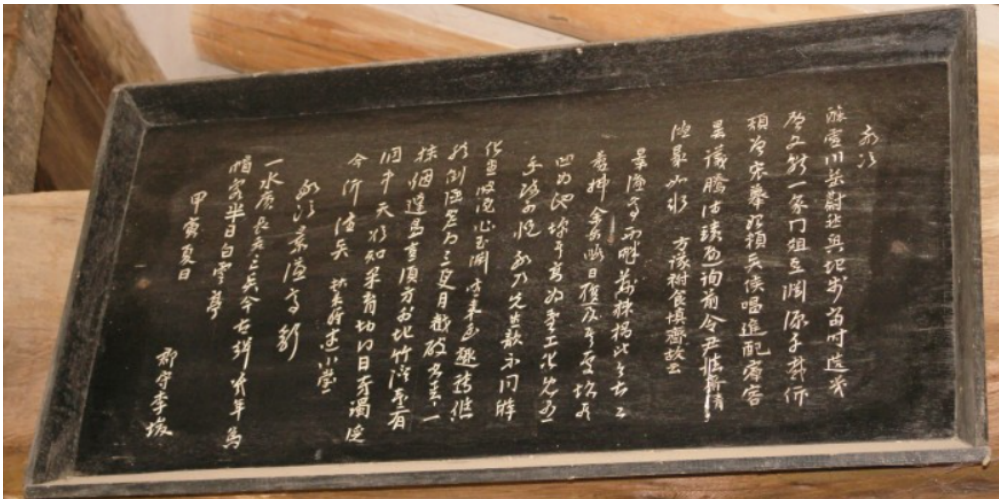
暖日沿溪曲　　따사로운 햇살에 시내 거슬러
偸閑樂此令　　틈을 내어 이곳의 경치를 즐기리
塵泥浣逝水　　세상의 먼지 물따라 씻어버리고
光景惜流陰　　아름다운 광격에 세월이 아쉽네
脈脈思懸佩　　늘 현패만 생각했기에
盈盈積寸襟　　차곡차곡 가슴에 쌓이네
蠙珠價自重　　진주는 저절로 값 나가니
味雋受難尋　　귀한 것은 아껴 찾기가 어렵네

萬曆癸巳 謙菴柳先生 知豊基郡 來謁此院 直至樂齋前鑿塘爲臺 命名濯纓 作此詩時院爲先生治內也 乙酉2月日 만력계사에 겸암 류운룡 선생이 풍기군수로 있으면서 우리 서원에 내방하여 지락재앞 당에 대를 쌓고 탁열이라 명명하면서 이 시를 지었다. 당시 소수서원은 선생의 통치 구역에 있었다. 을유년 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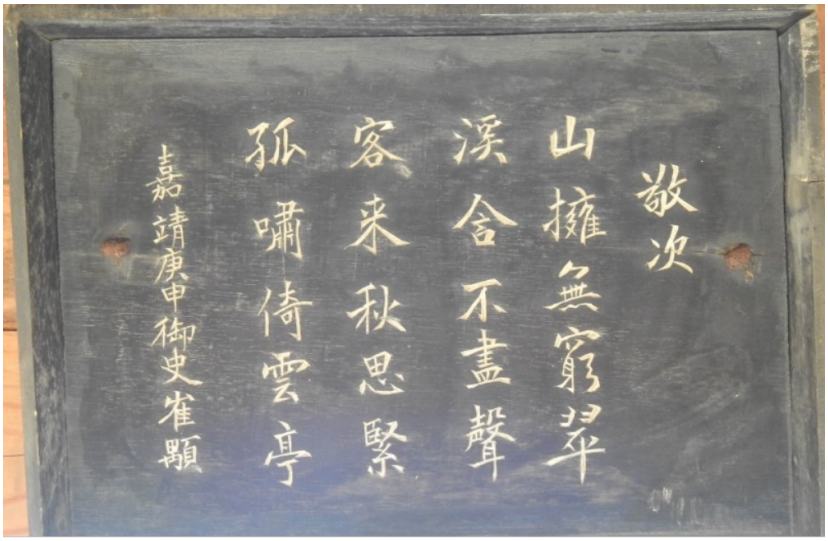
題詠詩, 景濂亭 차운 시판, 초서, 1550년, 33×62, 趙士秀, 조사수
퇴계 선생의 경렴정 원운에 경상관찰사 조사수가 차운한 시판임.



題詠詩, 景濂亭 차운 시판, 초서, 1614년, 30×62, 창석 李埈, 창석 이준
창석 이준이 차운한 시판임.



題詠詩, 景濂亭 차운 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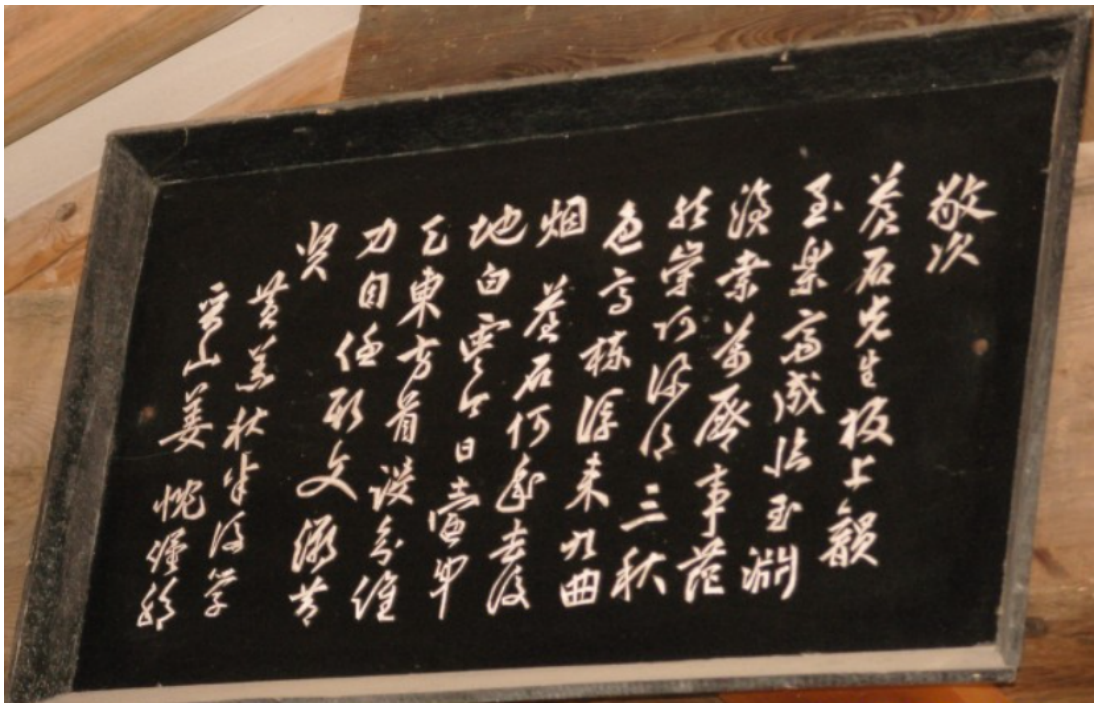


嘉靖 庚申 御史崔顥 시판
敬 次
山擁無窮翠　산은 무궁하게 푸른색을 끌어안고
溪含不盡聲　죽계수는 그치지지않는 물소리 머금었네
客來秋思緊　찾아온 손님 가을 회포에 굳게 엉기고
孤嘯倚雲亭　구름이는 정자에기대 외롭게 휘파람부네
嘉靖　庚申　御史　崔顥

상량문, 지락재 중수 기판, 해서, 1799년, 37×98, 姜忱, 姜忱
영조 49년(1773) 문과에 급제한 강침이 1799년 순흥부사로 부임해 그해 중추절에 지락재를 중수하면서 상량기문을 쓴 것임.

至樂齋 편액, 해서, 조선 후기, 41×95
1730년 소수서원 잡록 기록에 의하면, 원래의 이름은 '동몽재'였음.

題詠詩, 지락재 강침 차운시판, 초서



❍ 학구재

동서재(東 · 西齋)의 동쪽 조금 뒷편에 동남향으로 자리했다. 정면 3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 막돌 허튼층쌓기의 낮은 기단(基壇)이다. 가운데 칸은 개방된 마루를 깔고 좌우에는 온돌방을 설치하였다. 신재(주세붕)의 문인 송간(松澗) 황응규(黃應奎)가 세웠다 한다.

학구재 마루 위에 '동몽재상량문(童蒙齋上梁文)'

동몽재(童蒙齋) 3칸은 옛날에 지금의 제월루(霽月樓) 터에 있었다. 순흥부가 복설되기 전인 정사년(1677) 사이에 지락재(至樂齋) 북쪽 가로 옮겨 세웠다. 그런데 동쪽 담장 구석에 치우쳐 있었고 방이 비좁고 인적이 드물어 여러 해 비어 있어 태반이 퇴락되었다. 이에 지락재와 신방(新房) 사이에 남향으로 터를 잡아 새로 재목을 마련하여 이건하였다. 건물 제도는 옛날 모습과 조금 변화하여 서쪽 2칸은 방을 만들고 동쪽 1칸은 마루를 만들었다. 동몽들이 거재하는 제도가 지금에 이미 없어진지 오래 되어, 모두 말하기를 편액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드디어 주부자(朱夫子)의 글씨 '학구(學求)'두 글자를 구하고 지락재의 '재(齋)' 자를 합하여 '학구재(學求齋)'라고 현판을 걸게 되었다.

《雜錄b 경술년(1730, 영조 6) 7월 원우 수리 기사 [庚戌七月院宇修理時記事] 》

庚戌七月院宇修理時記事

童蒙齋三間。舊在今之霽月樓基。至本府復設前。丁巳年間。移刱至樂齋北畔。僻吊墻之一隅。房室卑窄。人迹罕到。多年曠廢。太半頹壓。乃於至樂齋新房之間。南向拓址。斫新椽移建。而稍變舊制。西二間爲房。東一間爲堂。童蒙居齋。今無此規。已久。僉曰改扁可也。遂摸得朱夫子筆學求二字至樂齋齋字一字。揭板曰學求齋。

❍ 강학당

강학당은 "禮之於人也에 酒之有蘗也니 君子以厚요 小人以薄하니라 故로 聖王이 修義之柄과 禮之序하사 以治人情하시니라 故로 人情者는 聖王之田也니 修禮以耕之하며 陳義以種之하며 **講學以耨之**하며 本仁以聚之하며 播樂以安之니라"(『예기』禮運편)에 나온 말이다.

부(賦), 白雲洞次朱文公白鹿洞賦, 1543년, 43×120, 愼齋 周世鵬, 愼齋 周世鵬

신재 주세붕 선생이 1542년 문성공 묘우를 건립하고, 이듬해 소수서원(강학시설)을 준공하여 그해 첫 입원유생이 3명이었음. 거재유생들이 지켜야 할 원규 등을 각하여 게첨하면서 함께 주자의 「백록동부」를 차운한 부(賦)임. 부는 산문과 운문의 중간에 해당되는 글이나 운자가 들어가고, 댓구를 지키는 등 운문적 요소가 강하므로 운문(韻文)으로 봄.

잠명류(箴銘類), 夙興夜寐箴 편액(扁額), 1827년, 44×120, 宋代 南塘 陳柏, 진성인 李家淳

유생들이 학문을 통해 인격함양에 있어 자신을 스스로 훈계함을 목적으로 판각한 것임. 오래되어 퇴계 선생의 후손인 이가순이 다시 판각한 것임. 잠명류는 총 4편으로 범난계의 心箴, 주자의 敬齋箴 진남당의 夙興夜寐箴, 정이천의 四勿箴임. 소수서원은 심잠, 경재잠이 같은 판에 판각되어 있고, 숙흥야매잠 끝에는 이 잠명을 제작한 내력이 소개되어 있음.

夙興夜寐箴 解題

夙寤 아침에 일찍 깨어난다.
鷄鳴而寤 (계명이오) 닭이 울어 잠에서 깨어나면
思慮漸馳 (사려점치) 생각이 차츰 일어나게 되니
盍於其間 (합어기간) 그간 사이에
擔以整之 (담이정지) 조용히 마음을 정돈해야 한다.
或省舊愆 (혹성구건) 혹은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고
或紬新得 (혹주신득) 혹은 새로 깨달은 것을 모아
次第條理 (차제조리) 차례와 조리를
瞭然默識 (요연묵식)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晨興(신흥) 새벽에 일어난다.
本旣立矣 (본기립의) 근본이 확립 되었으면
昧爽乃興 (매상내흥)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盥櫛衣冠 (관즐의관) 세수하고 머리 빗고 옷을 갖추어 입고
端坐斂形 (단좌렴형) 단정하게 앉아 몸을 가다듬는다.
提掇此心 (제철차심) 마음을 끌어 모으되
皦如出日 (교여출일) 밝게 떠오르는 햇살처럼 해야 한다.
嚴肅整齊 (엄숙정제) 몸을 업숙하고 가지런히 정돈하여
虛明靜一 (허명정일) 마음을 비우고 고요하게 한결 같아야 한다.

讀書(독서) 글을 읽는다.
乃啓方冊 (내계방책) 책을 펴서

對越聖賢 (대월성현) 성현을 대하게 되면
夫子在坐 (부자재좌) 공자께서 자리에 계시고
顔曾後先 (안증후선) 안회와 증자가 앞뒤에 있을 것이다.
聖師所言 (성사소언) 성현께서 말씀하신 것을
親切敬聽 (친절경청) 친절하게 귀담아 들어
弟子問辨 (제자문변) 제자들의 질문과 변론을
反覆叅訂 (반복참정) 반복하고 참고하여 바르게 고쳐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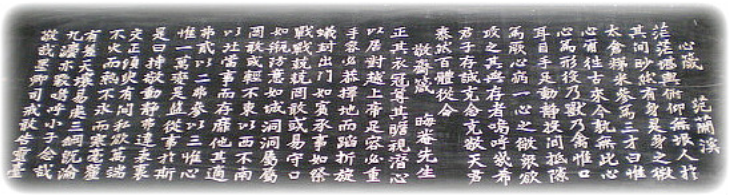
應事(응사) 일을 대응하는 자세
事至斯應 (사지사응) 일이 생겨 대응할 경우에는
則驗于爲 (즉험우위) 실천으로 증명해야 한다.
明命赫然 (명명혁연) 밝은 천명은 빛나는 것이니
常目在之 (상목재지) 항상 눈을 거기에 두어야 한다.
事應旣已 (사응기이) 일에 대응하고 나면
我則如故 (아즉여고) 나는 예전과 같이
方寸湛然 (방촌담연) 마음을 고요히 하고 정신을 모아
凝神息慮 (응신식려) 사사로운 생각을 멈추게 해야 한다.

日乾(일건) 낮이 다할 때까지 부지런히 일함
動靜循環 (동정순환) 움직임과 고요함이 순환하는 것을
惟心是監 (유심시감) 오직 마음만은 볼 수 있으므로
靜存動祭 (정존동제) 고요할때 이 마음 잘 보존하고 움직일 때 관찰하여
勿貳勿叅 (물이물삼) 마음이 둘 셋으로 나뉘어서는 아니 된다.
讀書之餘 (독서지여) 글을 읽다가 틈이 나면
間以游詠 (간이유영) 간혹 휴식을 취하고
發舒精神 (발서정신) 정신을 활짝 펴서
休養情性 (휴양정성) 성정을 아름답게 길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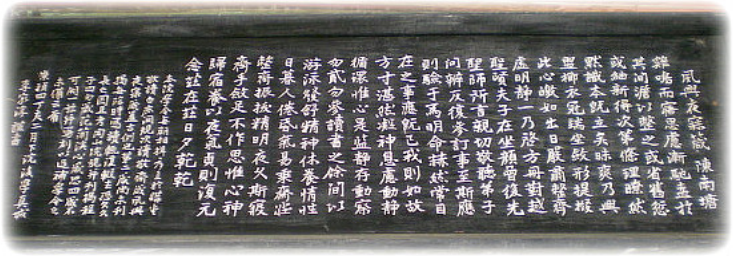
夕惕(석척) 저녁에도 조심하고 마음과 정신을 가다듬는다.
日暮人倦 (일모인권) 날이 저물어 사람이 피곤해 지면
昏氣易乘 (혼기이승) 나쁜 기운이 들어오기 쉬우므로
齋莊整齊 (재장정제) 몸과 마음을 잘 가다듬어
振拔精明 (진발정명) 정신을 맑게 이끌어야 한다.
夜久斯寢 (야구사침) 밤이 깊어 잠을 잘 때는
齊手斂足 (제수렴족) 손발을 가지런하게 모아
不作思惟 (부작사유) 아무 생각을 하지 말고
心神歸宿 (심신귀숙) 마음과 정신을 잠들게 해야 한다.

兼夙夜(겸숙야) 낮부터 밤까지 자신의 정신과 기를 가다듬는 것
養以夜氣 (양이야기) 밤의 기운으로 마음과 정신을 잘 기르면
貞則復元 (정즉부원) 정이 다시 원으로 돌아 올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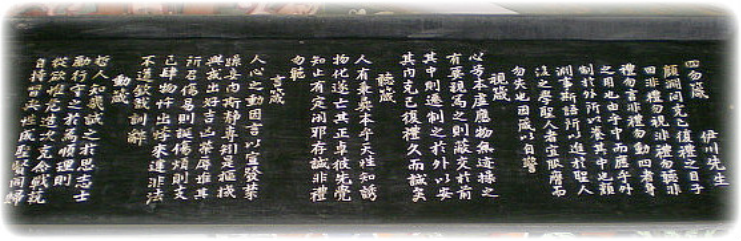
念玆在玆 (염자재자) 이것을 항상 생각하고 마음에 두어
日夕乾乾 (일석건건) 밤낮으로 부지런히 힘써야 한다.



심잠



숙흥야매잠



사물잠

賦, 周世鵬, 행서, 1593년, 43×120, 회암 주희, 신재 주세붕
주세붕 선생의 백록동 부 기판의 원본임.

箴銘類, 心箴과 敬齋箴, 편액, 1827년, 43×114, 范蘭溪(심잠), 朱子(경재잠), 진성인 이가순
이 편액은 범난계의 심잠과 주자의 경재잠이 함께 판각되어 있음.

잠(心箴) 범난계(范蘭溪)
아득한 하늘과 땅
굽어보고 우러러봄에 끝이 없네
그 사이에서 사람들이
작은 몸을 두고 있으니
이 몸의 미미함이란
창고의 낟알 정도인데
끼여서 삼재(三才)가 됨은
오직 마음 때문이라네
옛날부터 지금까지
누구인들 마음이 없었겠는가만

마음이 형체(形體)의 부림을 당하여
마침네 금수같이 되는 법
입과 귀와 눈과
수족(手足)과 동정(動靜)이
틈을 해집고 파고들어
마음의 병을 만든다네
은미한 마음 하나를
여러 욕망들이 공격하니
남아 보존되는 것이
아 얼마나 되겠는가
군자는 지성(至誠)을 보존하여
늘 염려하고 경건하나니
마음이 태연(泰然)하면
온 몸이 그 명을 따르리라

경재잠(敬齋箴) 회암선생(晦庵先生)
의관을 정제하고
보고 듣는 것을 존엄하게 하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상제(上帝)를 대하듯이 하라
발걸음을 중후해야 하고
손놀림은 공손하며
길에서는 땅을 가려서 밟아
개미집이 있으면 돌아서 가라
집 밖에 나가서는 손님을 대하듯이 하고
일을 맡아서 할 때는 제사를 모시듯이 하여
언제나 전전긍긍하여
혹시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라
입은 병처럼 닫아 다물고
사사로운 뜻은 성을 쌓듯이 막으라
성실하고 전일(專一)하게 하여
혹시라도 경솔하게 해서는 안 되니
동쪽으로 간다고 하고 서쪽으로 가지 말고
남쪽으로 간다고 하고 북쪽으로 가지 말라
일을 당하여 정성을 다하여
다른 일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
마음이 두 갈레로 갈라지고
세 갈레로 갈라져서는 안 되니
오직 마음을 전일하게 하여
만물의 변화를 살펴야 하리라
여기에 늘 종사하는 것을

‘경건함을 유지한다. [지경(持敬)]’라고 하니
동정이 서로 어긋나지 않고
겉과 속을 바르게 하라
잠깐 사이라도 틈이 생기면
온갖 욕망이 일어나니
불이 아니어도 뜨거워지고
얼음처럼 차잡게 되어
털끌만큼의 착오에서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나리라
삼강의 윤리가 타락하고
구법(九法) 또한 다 이지러지니
소자들이여
생각하고 공경하라
묵경(黙卿)이 경계를 맡아
감히 영대(靈臺)에 고하노라

箴銘類, 四勿箴, 편액, 행서, 1827년, 40×125, 宋代 伊川 程頤, 진성인 李家淳
입원 유생들이 스스로 지켜야 할 덕목과 본받아야 할 가르침을 통해 성인의 길로 나가는 첩경이 되는 글을 판각 게첨하여 들고 나며 낭송 실천했음.
사물잠(四勿箴) 이천선생(伊川先生)
안연(頻淵)이 극기복례(克己復禮) 사욕을 극복하고 천리(天趣)를 회복함의 조목을 물으니 공자(孔子)가 말하기를“예(禮)가 아니면 보지 말며 예가 아니면 듣지 말며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며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하였다.
심

이 네 가지는 몸의 작용으로서 속에서 말미암아 밖으로 응하니 밖에서 제어하는 것이 바로 그 내면을 기르는 방법이다. 안연(頻淵)이 그 말을 실천한 것이 바로 성인(聖人)의 경지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까닭이다. 후세에 성인을 배우려는 자는 마땅히 가슴속에 간직하여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잠(箴)을 지어 스스로 경계한다.

시잠(視箴)
마음이란 본래 허명(虛明)하여
사물에 응함에 자취가 없다.
붙잡아 간직하는데 요체가 있으니
보는 것이 그 기준이 되느니라
눈앞에서 가리게 되면
그 속마음이 곧 옮겨가니
밖에서 제어하여
속을 편안케 하라
사욕을 극복하고 천리를 회복하여

오래 지속하면 참되게 되리라

청잠(聽箴)
사람이 떳떳한 윤리를 가진 것은
천성(天性)에 근본한 것이나
앎에 이끌리고 외물에 따라 변화되어
드디어 그 바른 것을 잃어버린다.
우뚝한 저 선각자는
지선(至善)에 머물러 뜻을 정하였으니
사특함을 막고 진실을 보존하여
예가 아니면 보지 말라

언잠(言箴)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말을 통하여 드러나나니
조급하고 망령된 것을 금하여야
마음이 고요하고 전일하리라
하물며 이것은 몸의 기틀이라서
전쟁도 일으키고 평화도 이룬다.
길흉과 영욕이
모두 말이 불러오는 것
지나치게 쉽게 하면 허탄하고
지나치게 번잡하면 지리하며
내가 방자하면 남도 거스르고
가는 것이 패려하면 오는 것이 어기니
법언(法言)이 아니면 말하지 말고
성현의 가르침을 공경하라

동잠(動箴)
철인(哲人)은 기미(幾微)를 알아
생각을 진실하게 가지고
지사(志士)는 행실을 힘써
실천하는 데에서 지키나니
이치에 순응하면 편안하고
사욕을 쫓으면 오직 위태하다.
잠시라도 마음을 바르게 가지고
두려워하고 조심하여 잘 간직하라
습관이 오래 되면 성품으로 이루어져
성현과 같은 경지에 돌아가리라

散文類, 백운동소수서원기, 記文, 해서, 1550년 4월, 58×253, 申光漢, 신광한
퇴계 이황 선생이 조정에 청하니 명종이 기재 신광한으로 하여금 백운동서원의 이름을 소수서원으로 새로 짓게 하여 사액을 내리게 된 경위 등이 기록된 기문판임.

백운동 소수서원 기문 [白雲洞紹修書院記]

신광한(申光漢1484-1555)

죽령(竹嶺) 동쪽에 풍기군이 있고 풍기군 북쪽에 소백산이 있으며 소백산이 남쪽으로 뻗어 내려와 그득하고 아늑한 곳에 백운동이 있다. 그러고 죽계수는 소백산에서 발원하여 이곳을 거쳐 흐른다.

죽계수가 경유하여 흐르는 이곳은 옛적 순흥부의 땅으로서 고려 문성공(文成公) 안유(安裕)가 살면서 독서하던 곳이다.

문성공(文成公)이 학문을 돈독히 하고 뜻을 밝혀 벼슬에 올라 현달(顯達)하게 되자 노비와 토지를 국학(國學)에 바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공의 은택을 입고 있으니 사문(斯文)에 끼친 그의 공이 실로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공(公)의 자손이 대대로 여기에 살면서 세대마다 저명한 인물이 나와 여지승람(與地勝覽)에 기재된 바와 같이 고가(故家) 와 유교(遺敎)가 아직껏 남아 있어 사람들의 사모하는 마음이 오래 되어도 쇠퇴하지 않았다. 군수 주세붕(周世鵬)이 평소 유술(儒術)을 좋아하여 수년 간 오로지 학문과 교육에 힘쓰고 서원을 창건했으며 또한 문성공을 위하여 사당을 세우고 제사를 드림으로써 공부하는 자들의 마음에 순응하면서 흥기시켰다. 처음 서원의 터를 다듬다가 얼마간의 놋쇠를 얻었는데 서원이 완성되자 이것을 가지고 서사(書史)를 구입하여 비치하였으며 아울러 식미(息米)와 학전(學田)을 설치하여 군내의 유 식한 선비에게 주관케 하였다. 이에 학도들이 많이 모였는데 생원(生員) 진사(進士)와 준수한 선비가 아니면 참여시키지 않으니 거문고를 타고 글을 읽는 일이 날로 더욱 빛나게 되었다. 그 후 관찰사로 부임한 안현(安玹)은 공의 후손이었는데 또한 주세붕 군수(那守)를 이어 서원을 경영할 어염(魚藍) 등을 보태주고 노비를 공급하여 서 원을 영구히 보존되어 황폐됨이 없게 하였으니 이는 매우 성대한 일이었다. 다만 미흡한 것은 일찍이 군수는 조정에 청하지 않았고 관찰사 또한 아뢰지 않아 성상의 아름다운 뜻이 백성에게 전해지지 못하여 나타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 일이 조정에 의하지 못하고 일이 역사에 기록되지 못하여 또한 영구히 보존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 뒤 군수 이황이 이점을 두려워하여 드디어 서원 창건의 전말을 갖추어 기록하여 관찰사 심통원(沈通源)에게 올려 백록동(白鹿洞) 고사에 따라서 편액(扁額)과 서책을 하사하여 조정의 학문을 숭상하고 교육을 중히 여기는 성대한 뜻을 밝혀주기를 청하였다. 이에 관찰사가 이황의 글을 올리니 임금께서 대신에게 의논하게 하여 윤허하고 시행 하도록 예조에 내렸다. 이에 판서 윤개(尹漑)가 나에게 서원의 명칭과 명명(命名) 의의(意義)를 쓰게 하여 교서관(校書館)으로 하여금 간행하여 반포케 하고 서책을 보내줄 것을 주청하니 임금께서 모두 윤허하셨다. 내가 명을 듣고 황송하여 절을 올리고 그 이름을'백운동 소수서원'이라고 하였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학문의 도가 쇠퇴하여 강구되지 못한지 오래이다. 배우고서 그 이치를 강명(講明)하지 않으면 몸을 닦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경(敬)으로 마음을 바르게 하지 못한다. 하물며 의(義)로써 밖을 바르게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서원 이름을'소수(紹修)'라고 하게 된 까닭이다.

아 삼대 말엽에 성인이 나오지 않아 상서(庠序) 학교가 있었으나 몸소 위에서 실천하여 인도한 이가 없었기에 천하 학자가 혼미하여 숭상할 바를 알지 못함으로써 인의가 상실되고 밝은 덕이 어두워졌었다.

공자는 큰 성인이었으나 군사(君師)의 자리를 얻지 못하고 제자들과 함께 학문하는 도를 강명(講明)하여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수신(修身)으로 근본으로 삼아야 된다."

하였고 그가 가르친 바나 학문한 바는 내외를 닦는 도였다. 이 때문에 천하후세에 모두 공자를 종사(宗師)로 삼았다. 공자의 도가 쇠퇴할 때에 맹자가 나오니 맹자는 공자의 도를 계승하여 전한자이다. 그의 설은 마음을 수렴하고 호연지기를 함양하는 것으로 모두가 나 자신을 돌이켜 보는 공부이니 그 도는 비록 크지만 그 요점은 자신을 닦아 남에게 미치게 하는 것에 불과하였다. 그러므로 공자와 맹자가 살았던 추로(鄒魯) 지방에 지금에 수천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모든 사료에 사모하여 문헌을 구할 때에는 으레 추로를 일컬어 왔다. 후세 현인으로서 비록 공자 맹자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실로 수기(修己)의 공부가 있었던 이에 대하여는 그가 살았던 곳을 빌려 학자들의 마음을 흥기시키기에 충분하였는데 하물며 직접 군사(君師)가 되어 국학에서부터 교화가 이루어지게 하는 일이겠는가. 그러므로 임금이 마음먹는 바는 기미가 미미하더라도 교화를 이루는 효과는 크다. 그 사실을 나는 송 태종(宋太宗)의 일에서 본 바 있다. 한(漢) 당(庸) 위(魏) 진(晉) 이후 학교를 숭상하지 않은 적이 없었으나 모두 한갓 그 이름 만 있고 직접 인도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다스림의 효과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었다. 태종(太宗)에 있어서도 몸소 실천하여 인도했다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들은바 없지만 임금으로서 뜻을 가진 결과로 이루어진 효과는 서원을 통하여 볼 수 있었다. 태종이 천하의 군주로서 작은 지방 은사(隱士)의 서원에 편액과 서책을 하사하여 학문을 진작시킴으로써 송나라가 다할 때까지 진유(眞儒)가 배출되고 천명되어 그동안 단절되었던 공맹의 도통을 계승하였다. 이를 본다면 송조에서 이룬 공효는 서원에서 나왔지 국학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이는 무엇 때문인가? 천하의 국학

이 오히려 이발(李渤)이 몸소 수신하였던 장소보다 못하였기 때문이다. 오늘날 밝은 임금이 위에 계시고 문운(文運)이 형통하여 주세붕이 서원을 창건하고 이황이 조정에 청하여 권장토록 한 것은 비록 인위(人爲)에 의하였지만 실은 하늘이 열어준 것이다. 우리 전하께서는 성심으로 도학을 숭상하고 교화의 근원에 독실하시어 의로운 일을 들으면 과감히 실천하고 선을 보면 즐거이 따르셨다. 성상께서 몸소 솔선하여 위에서 진작시키시니 학자들이 아래에서 감격하여 흥기하였다. 이는 상하가 모두 수신으로 근본을 삼고 내외(內外)를 함께 닦는 학문을 이어나간 결과이다. 교화가 행해지는 것이 임금의 솔선수범에 기인하여 국학의 근원이 되고 국학에서 서원으로 서원에서 사방에 이르니 그 힘은 실로 송조(宋朝)에 비할 바 아니다. 장차 바른 학문을 하는 서원이 우리나라에 많이 설립되어 많은 인재가 등용됨으로써 백성들이 지극한 다스림의 은택을 입게 될 것이다. 이 어찌 송나라 유생처럼 조정에 등용되지 못하고 집에서 은거하며 수신만 하는데 그치겠는가.

가정 29(1550 명종5)년 4월 하순

추성정란위사공신 숭정대부 의정부좌찬성 겸 지경연춘추관 성균관사 홍문관대제학 예문관대제학 영성군(靈城君) 신 신광한(申光漢)이 삼가 절하고 쓰다.

散文類, 記文, 백운동안문성공사당기, 1545년, 60×104, 성세창, 성세창
당시 양관 대제학이었던 성세창이 왕명을 받아 안향 선생을 모신 사당의 기문을지으면서, 안향선생의 공덕과 추모의 뜻을 서술하였고, 자신 또한 회헌 선생의 6대 외손 됨을 밝혔음.

백운동 문성공 사당 기문 [白雲洞文成公廟記]

성세창(成世昌1481-1548)

북쪽 변방에 웅장하게 서 있는 백두산의 남쪽 줄기가 동해안을 따라 달려오다가 강

원도에 이르러 크게 응축되어 빼어난 곳이 금강산이고 다시 남쪽으로 달리다가 삼척(三陟) 지경에 이르러 봉우리가 이루어져 하늘 높이 솟아올랐으니 바로 태백산(太白山)이다. 다시 남쪽으로 뻗어가다가 기운을 감싸 안고 솟아있는 산이 있으니 바로 소백산(小白山)이다. 그 산 아래로 산줄기가 돌고 돌아 그윽하고 깊숙한 골짜기를 이루어 맑은 물이 휘감아 흐르니 이것이 죽계이다.

죽계 가에 옛날 순흥이란 큰 고을이 있었는데 지금은 풍기군으로 통합되었다. 맑게 서린 그곳 산천의 정기로 보면 마땅히 대인군자가 태어나 시운(時運)을 부지(扶持)하고 교화를 일으켜 사도(斯道)를 영원토록 계승시키고도 남음직한 곳이다. 문성공 휘(諱) 안향(安珦)은 실로 특이한 기운을 받아 이곳에서 탄생하였다. 공은 어려서부터 성리학을 좋아하였고 항상 바른 도리로서 몸을 닦았다.

고려 원종조(元宗朝)에서 급제하여 충선왕을 따라 원나라에 다녀 온 후 벼슬이 중찬(中贊)에 이르렀다. 공은 당시 학교가 퇴폐하여 유가(儒家)의 도가 땅에 떨어지려 하자 분연히 몸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사재(私財)로써 학사(學舍)를 세우고 노비를 바쳐 학도들에게 이바지하였다. 공께서 문교(文敎)에 공을 끼친 것은 이토록 큰 것이었다.

만년엔 항상 회암선생(悔菴先生)의 영정을 걸어놓고 사모하면서 스스로'회헌(晦軒)'이라 하였다. 선생이 돌아가시자 나라에서'문성(文成)'이라는 시호를 내리고 문묘에 배향하였다. 장사지내는 날에는 칠관(七館) 십이도(十二徒)의 학생이 모두 소복을 하고 노제(路祭)를 지냈다.

아 우리 도의 흥폐는 실로 세교(世敎)의 높고 낮음에 관계되니 이는 쇠퇴해진 고려의 왕업이 공의 힘을 입어 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조선조가 일어난 이후 학교의 흥성함도 또한 공의 도움이 없지 않았다. 이 어찌 어진 군자의 효험이 아니겠는가.

군수 주세붕은 뜻을 가지고 옛 도를 사모하는 사람으로서 일찍이 공의 영정을 그 후손 전주서(前注書) 안정(安珽)의 집에서 배알한 바 있었다. 이곳에 부임하자마자 먼저 폐지된 순흥부 성 남쪽 몇 리쯤에 있는 공의 고택을 찾았는데 주춧돌이 다 파괴되고 잡초가 우거져 있으므로 깊은 감회에 젖고 한스러움을 금치 못하였다. 이에 다시 고적과 승경(勝景)을 찾아 발길을 옮기다가 옛 순흥부에서 가까운 곳에서 숙수사 옛터를 찾아내었으니

그 절은 바로 전현(前賢) 노여(魯璵)의 시에서
싸늘한 산 빛을 밀치며 스님은 지게문을 닫고
차가운 냇물 소리 밟으며 나그네 누각에 오르네
라고 옳고 안문정공의 시에서
신령스러운 거북이 산머리에 쭈그리고 있는 모양
그 아래 깊은 시냇가엔 백 척의 누각 우뚝 하네

라고 읊었던 곳이다.

이곳이 바로 공이 어린 시절에 독서하던 곳이었으므로 주세붕은 더욱이 감개무량하였다. 이에 목수를 부르고 물자를 모아 사당을 세우고 주서(注書)의 집에 소장된 화상을 모셔와 봉안하고 때맞추어 경건하게 제사를 올렸다. 그리고 사당 옆에 서원을 세워 인근 고을 선비들이 독서하는 장소로 만들었다. 처음에 터를 다듬기 위하여 한 자쯤 파다가 놋쇠 수백 근을 발굴하였는데 어느 시대 물건인지 알 수가 없었다.

이에 그것을 팔아 경사(經史)를 구입하여 학도의 학업에 이바지하게 되었으니 참으로 기이한 일이다. 이것을 통하여 주세붕이 선을 숭상하고 옛것을 좋아한 마음을 대략 엿볼 수 있다.

문성공은 나의 할머니 안씨의 6대조이다. 이번에 외손으로서 선조의 덕업이 오래 전해질수록 더욱 새로워지는 사실을 듣고서 비감을 이기지 못하여 이에 본말을 기록한다.

가정(嘉靖) 24(1545 인종1)년 5월 일

8대손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우의정 겸 영경연사 감춘추관사 홍문관대제학 예문관대제학 지성균관사 성세창 삼가 쓰다.

散文類, 記文, 紹修廟宇 重修記, 1874년, 48×98, 李義悳, 주신재 22세손 周龍鎬

1874년(갑술년) 연안인 이의덕이 문성공묘우의 중수기문을 짓고, 주신재 22세손인 주용호가 쓴 기판임. 성세창의 안문성공 사당기가 1545년 쓰였음을 비교, 중수내력에 담긴 사료적 가치와 문장의 유려한 문학적 가치가 돋보임.

紹修廟宇重修記
東方之有紹修無異於中州之白鹿洞而為我書院之祖宗
晦軒先生倡道立教為百世之宗師後學無疑之謂歟父歿
[illegible]先生沒後二百餘年周濂溪先生創建之退陶先生表章
之寔然國學亦嚴祀注嚴伊來廣養四百有餘年長年久幅頹
屋且漏漏典曠制除增廢紀其事實嚴之地每屆祭陽之
思多士之慕誠來遊修補而先生二十二世孫教煥周旋體陽
之際不勝感愴曾獨鉅費與院儒合集鎮金教林安相鳳諸
賢謀謨經畫遍於外面奉廟宇修理一新竣功翰奐重光庶
山增彩實賴世之偉績也盖紹學仰厄先學晦菴乃先生之
訓而紹學晦菴先學先生退後學之事也尊師所以重道明
道所以廣學昔宋院之新創也實賴之化廣於一時武尚為端世
之儒點致處以林下之欵式發襄休明之治化法父全兼後而處
文春秋釋菜之外舉講會讀開關闡揚講磨參等之款有昔
於先生之時斯道之南莫不必歸容於此豈謂先生之遺澤不修
學不講之致耶東我東都之日嚴先生之志謀先生之業者
循此於先生之家廟宇重修增飾鹿洞儒院之人而四享之
禮宮教會之設左多士之養成實賴於都建先御有光而
副也環滿上風之期作也有歸平敢之觀而無頹朝之風化宜
普四海之日期望益體見有浴歸不成材可期於隻手之陳
蕭一木之支厦也地靈鍾秀豈遠於今之始興勤右之期
州精神湖湘有是一脈實關於斯修理之役實創鹿洞之權
輿本而非徒實動觀瞻之為美宜曰開發期道之為歸一
世之人心方湧集於先生倡道之功倍而廣不欲墜遺緒則
安可因此廟宇之重新復見吾道之重明學侶此皆耶先
生化育中一物平生嘲學之志幸免實滅前從事於院不
者之有年庇中請記竪不事謝記義不敢辭而謹綴一言以
誌柔後
慶甲戌陽復
嘉善大夫前行宮內府特進官前兼 經筵
參贊官春秋館修撰官侍講院侍教事於院不
二十二世孫龍鎬謹書

소수묘우중수기

동방에 있는 소수서원은 중국의 백록동서원과 다르지 않으며, 우리나라 서원의 조종祖宗이 된다. 회헌 선생이 유도를 창도하고 교육을 세워 백세의 종사宗師가 되었기에 후학들이 존모하는 정성이 세월이 오래될수록 더욱 깊어 졌다. 선생이 돌아가신 지

200여년 뒤에 신재 주선생이 창건하였고, 퇴계 선생이 표장하여 장엄한 노전魯殿과 같은 우뚝한 국학 기관으로 이어온 지 400여년이 되었다. 세월이 오래되자 건물이 퇴락하여 지붕 기와는 비가 새고 단청은 벗겨졌으며 담장은 무너졌다. 우러러 사모하는 마음에 늘 두려운 마음을 가져 많은 선비들이 재물과 정성을 냈지만 수리할 겨를이 없었다. 그러다가 선생의 21세손 교환敎煥 씨가 두루 돌아보고 참배할 즈음에 비감함을 이기지 못해 혼자 많은 비용을 마련해 원유院儒 김동진金東鎭, 김교림金敎林, 안상봉安相鳳 등 여러 선비들과 힘을 모아 중수를 도모했다. 이에 계유년(1933) 봄 묘우를 수리하여 옛 모습을 일신해 중건하니 건물은 새롭게 빛나고 계산은 광채를 더하여 실로 세상에 보기 드문 위대한 업적이었다.

대개 공자를 배우려면 회암을 먼저 배우라는 것이 곧 선생의 가르침이다. 그러므로 회암을 배우려면 선생을 먼저 배움이 후학의 할 일이다. 스승을 높임은 도를 중하게 여기기 위함이고, 도를 밝힘은 배움을 넓히기 위함이다. 예전에 이 서원을 처음 세웠을 때에는 선비들의 교육이 일세에 성대하여 혹자는 나가 세상을 아름답게 한 유현儒賢이 되고, 혹자는 산림에 은둔하면서 모범이 되어 아름다운 교화를 보좌했다. 그러나 법이 오래되자 폐단이 생겨 한낱 허문虛文만을 숭상하고, 봄가을 석전 제사 외에는 글 읽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으며, 현관은 굳게 닫혀 뜰에는 봄풀만 가득하다는 탄식이 선생이 계시던 때보다 심함이 없었다. 사도斯道를 잃어버림은 반드시 시운時運으로만 허물을 돌릴 것이 아니니, 어찌 덕을 닦지 않고 학문을 강론하지 않음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처럼 쇠퇴한 때 선생의 뜻을 떨치고 선생의 사업을 계승하는 이가 다시 선생의 가문에서 나왔다. 묘우를 중수한 이는 곧 녹동서원을 창건한 사람으로 곡부曲阜에 위안사慰安使를 보내고, 교회敎會를 설립하였으며, 많은 선비들을 양성함이 선조들의 아름다운 덕을 계승하고 선배들의 훈열에 빛을 더하지 않음이 없다. 온 나라의 사기士氣가 진작되어 이미 천 년 전의 경관을 다시 보게 되니 무너진 풍화가 어찌 다시 빛나지 않겠는가? 이는 예천醴泉에 근원이 있고 등림鄧林의 나무가 재목이 되어 한 손으로 물결을 막으며 나무 하나로 큰 집을 지탱하는 것을 기약할 수 있다.

땅은 경기와 영남으로 떨어져 있지만 학문에는 원근遠近이 없으며, 지금의 막 일어남은 예전 흥주興州와 같으니 정신의 연원은 자고로 일맥상통한다. 지금 이 중수의 일은 실로 녹동에서 선조를 추모함에서 비롯된 것이지, 단지 바라보기에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려는 것은 아니다. 오로지 이와 같은 마음을 드러내 사도斯道가 귀의하는 곳이 되어 온 세상의 인심이 선생이 창도하신 공덕에 모아 남긴 실마리를 떨어뜨리려고 하지 않음이니, 이 묘우의 중건으로 인해 우리 도가 다시 빛남을 보게 되지 어찌 알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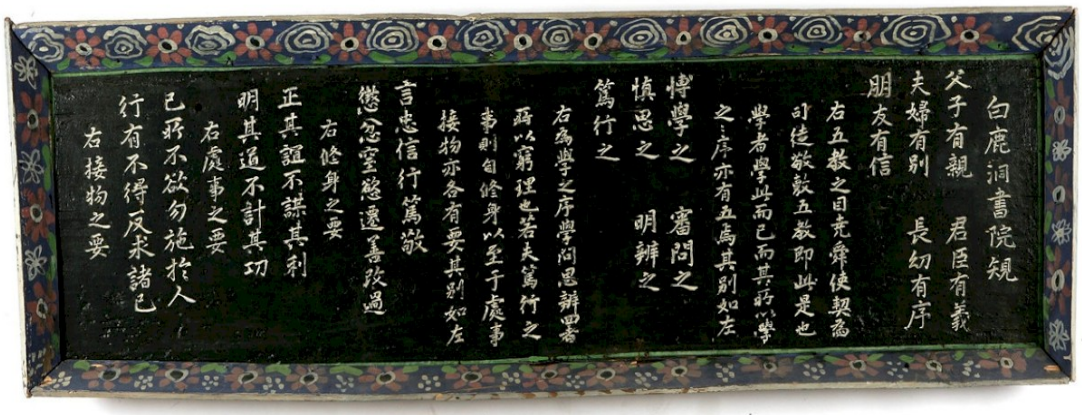
돌아보니 늙은 내 자신도 또한 선생의 교화 속에 사는 한 사람이다. 평생 학문하려는 뜻을 지녔다가 불행히도 실심實心을 져버렸다. 감히 서원의 말석에 종사한 지 몇 년이기에 원중의 제현들이 나에게 중수기를 지으라 요청했다. 의상상 감히 사양할 수 없어 삼가 한 마디 말을 엮어 후세의 증거로 삼는다.

갑술년甲戌年(1874) 양복월陽復月 가선대부 전행궁내부특진관 전 경연참찬관 춘관수찬관 후학 연안延安 이의덕李義悳이 삼가 찬하고 22세손 용호龍鎬가 삼가 쓰다.

公用文, 白雲書院榜, 방(榜), 1545년, 40×109, 신재 주세붕, 신재 주세붕
고을 수령의 자제들이 서원에 머물여 민폐를 끼치거나, 책을 함부로 빌리지 못하게 하고, 유흥과 활쏘기 등을 금하고 학문정진에 힘쓰게끔 규칙을 주신재 선생이 제정한 내용을 판각한 것임.

白雲書院榜

公用文, 白雲洞書院規, 학규, 예서, 1543년, 46×146, 주세붕, 주세붕
백운동 서원의 운영에 필요한 학규로 주자의 백록동서원 학규를 당시 그대로 차용하였으며, 이것은 중용에서 발췌한 내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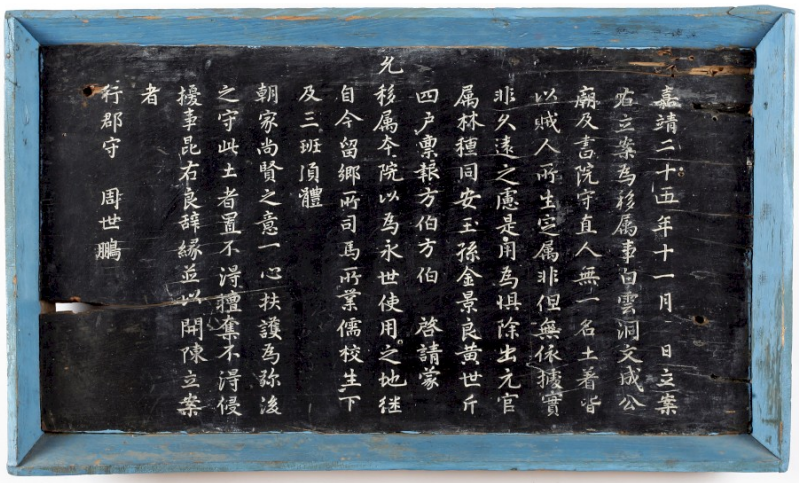

白鹿洞書院規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
右五教之目堯使契爲
司徒敬敷五教卽此是也
學者學此而已而其序
之序亦有五焉其別如左
博學之　審問之
愼思之　明辨之
篤行之
右爲學之序學問思辨
所以窮理也若夫篤行之
事則自修身以至于處事
接物亦各有要其別如左
言忠信行篤敬
懲忿窒慾遷善改過
右修身之要
正其誼不謀其利
明其道不計其功
右處事之要
己所不欲勿施於人
行有不得反求諸己
右接物之要

백록동 서원의 학규를 기록한 것으로 부자유친父子有親, 군신유의君臣有義, 부부유별夫婦有別, 장유유서長幼有序, 붕우유신朋友有信의 오륜五倫과, 박학지博學之, 심문지審問之, 신사지愼思之, 명변지明辨之, 독행지篤行之 등 중용에서의 위학차제爲學次第, 수신지요修身之要, 처사지요處事之要, 접물지요接物之要 등을 기록하였다. 서원의 학규는 요즈음 교육 기관의 학칙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조선시대의 서원은 주자가 세운 백록동 서원의 학규를 자신들의 학규로 차용한 경우가 많았다.

公用文, 白雲洞書院令, 학칙, 해서, 1543년, 32×60, 주세붕, 주세붕
백운동 서원의 학칙으로서, 거재유생들이 지켜야할 내용을 간략히 기술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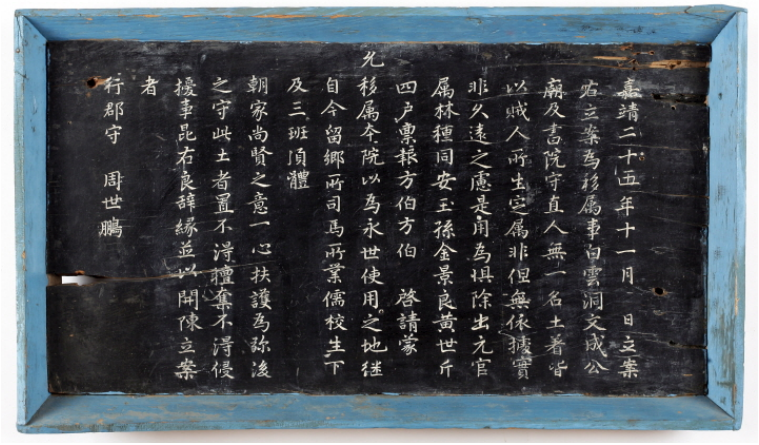
백운동서원의 학칙으로, 서원 내에서 기거하는 학생들이 지켜할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원문]白雲洞書院令司馬則成均 學生則非官旨 不得供饋 不得擅弄書鑰 不得闌入者 儒生之自遠方來者 如有向善慕義 請謁祠廟 禮以送之
[번역문]백운동서원령사마는 성균관과 같이 한다. 학생들은 관의 지시가 아니면 음식을 제공할 수 없고, 서고書庫의 자물쇠를 멋대로 할 수 없고, 함부로 들어 올 수 없다. 유생들 중 먼 곳에서 온 자가 만약 선善을 지향하고 의義를 사모하여 사당에 참배하기를 청하는 자는 예우하여 전송한다.

公用文, 嘉靖二十午年立十日月日立案(白雲洞書院 立案), 1546년, 36×61,주세붕, 주세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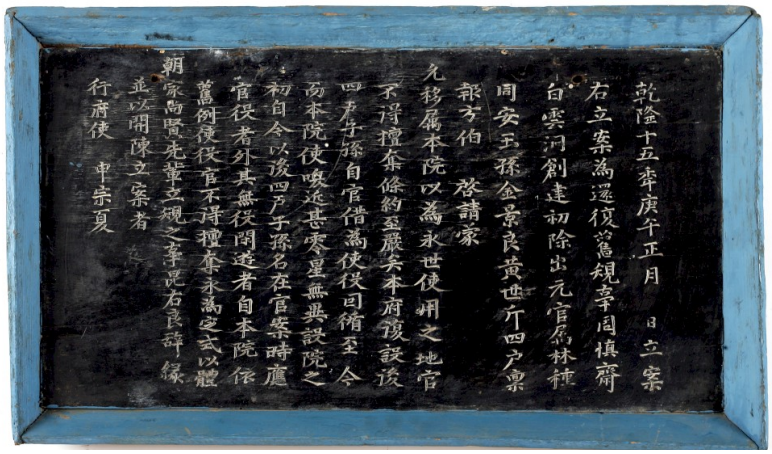
안향 선생을 주향한 사묘와 서원을 관리함에 있어 4인의 수직(守直)에 대해 수령들이 함부로 하지 말 것을 경상감사에 계청하여 왕의 윤허를 받게 된 입안임.
안향의 배향한 사당과 서원을 수직하는 이들은 토착인이 없어 임종동 등 4인을 수직으로 삼고자 경상감사에게 계청하였으며, 경상감사도 국왕에게 보고하여 윤허를 받았으니 향후 이 네 집안에 대해서 영구히 천탈擅奪과 침요侵擾가 없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안이다. 1546년 주세붕이 발급한 입안이다.

<가정 25년(1546)에 세운 11월 입안>


嘉靖二十五年十一月 日立案
右立案為移屬事白雲洞文成公
廟及書院守直人無一名土着皆
以賊人所生定屬非但無依據實
非久遠之慮是用為俱除出元官
屬林種同安王孫金景良黃世斤
四戶稟報方伯方伯 啓請蒙
允移屬本院以為永世使用之地徃
自今留鄉所司馬所業儒校生下
及三班頂體
朝家尚賢之意一心扶護為弥後
之守此土者置不得擅奪不得侵
擾事昆右良辭緣並以開陳立案
者
行郡守 周世鵬

오른쪽은 입안을 이속한 것. 백운동 문성공 사당과 서원을 지키는 사람들은 한 명도 토착민이 없고 모두 적인의 소생으로 정속된 이들임. 단지 의거할 실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멀러 보내지도 못하는 근심이 있음. 원 관속인 임종동林種同、안왕손安王孫、김경량金景良、황세근黃世斤 4호戶를 빼내 감사에게 보고하니, 감사가 계청啓請하여 윤허를 얻어 본 서원으로 이속해 영구히 사용함. 지금 이후로 유향소、사마소, 업유교생과 하급삼반수체들은 조정에서 어진 이를 대우하는 뜻을 한결같이 부호할 것이며, 뒤의 수령들도 멋대로 침탈하지 말 것이며, 침요侵擾하지 말 것. 이런 사연으로 아울러 입안을 발급함.
행行 군수郡守 주세붕周世鵬

公用文, 乾隆 十午年 庚午 立案, 해서, 1750년, 37×62, 순흥부사 申宗夏, 순흥부사 申宗夏
순흥부사 신종하가 1750년 부사 재임시 주세붕 선생이 1546년 국왕의 윤허를 받아 4인의 수직인들에게 대한 외부간섭을 막고 서원 업무에 충실토록 한 입안을 바탕으로 그들 4사람의 후손들에게도 영구히 잡역 면제시켜 서원 사환으로 전념토록 발급해준 입안임.


乾隆十五年庚午正月 日立案
右立案為遂復舊規事周慎齋
白雲洞創建初除出元官屬林種
同安王孫金景良黃世斤四戶稟
報方伯 啓請蒙
允移屬本院以為永世使用之地官
不得擅奪條約至嚴矣本府復設後
四戶子孫自官借為使役回循至今
而本院使喚近甚零星無異設院之
初自今以後四戶子孫名在官案時應
官役者外其無役閒遊者自本院依
舊例使役官不得擅奪永為定式以體
朝家尚賢先輩立規之事昆右良辭緣
並以開陳立案者
行府使 申宗夏

<건륭 15년 병오(1750) 정월 입안>
오른쪽 입안은 옛 제도를 환복하는 일. 예전 주신재가 백운동서원을 창건할 초창기에 원 관속 임종동林種同, 안왕손安王孫, 김경량金景良, 황세근黃世斤 4호戶를 감사에게 보고하니, 감사가 계청啓請하여 윤허를 얻어 본 서원으로 이속하고, 영구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에서 멋대로 침탈하지 못 한다는 조약條約이 지엄하였음. 본부本府가 다시 설치된 이후 4호戶의 자손들은 관에서 빌려 가 부역을 시킴이 지금에까지 이르렀음. 그래서 이 서원의 사환使喚은 근자에 매우 영성하여 서원을 세울 초창기와 다름없게 되었음. 지금 이후론 4호戶의 자손들은 이름을 관안官案에 올리고 적절한 때에 관의 부역에 응하는 것 이외에는 부역을 면제할 것. 한유閒遊한 이들은 이 서원의 옛 제도에 의거해 부역을 시킬 것이므로, 관에서는 멋대로 침탈하지 못함을 영구히 정식定式으로 삼아 조정에서 어진이를 숭상하고 선배들이 세운 규례를 따름을 보여 주고자 함. 오른쪽과 같은 사연으로 아울러 입안을 발급함.
행行 부사府使 신종하申宗夏

其他, 文成公 享祀 執事 粉定記, 분정판, 1543년, 187×43, 주세붕, 주세붕
문성공 묘우에 춘추 제향시, 제의 참여자의 역할을 분담케 한 집사 분정기임.
판목 아래에 이름을 써서 각자의 역할을 나누었다. 초헌관初獻官에서 진설陳設에 이르기까지 총 18명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는데 소임 없이 제사에 참여하는 학생學生도 분정기에 기록한 점이 이채롭다.

❍ 학구재. 지락재

學求齋 편액, 해서, 37×72
지락재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학구성현에서 따온 명칭임.
'나는 6살에 《소학(小學)》을 배워, 이미 회암(晦菴) 선생이 공자를 계승하여 후학을 계몽함을 알았으며, 10세에는 사서의 주해를 외고 곧 오경을 읽었으니, 더욱 선생께서 평생의 고심함을 알게 되었다. 하루는 교수(敎授) 진택(秦澤) 씨의 집에서 회암 선생의, '학문은 성현을 구함이요, 솔개는 날고 고기는 뛴다[學求聖賢 鳶飛魚躍].'는 8자의 큰 글씨를 얻어 보았다. 교수가 말하기를, "우리의 큰 외숙 재상 변수(邊修)가 연경(燕京)에서 얻어온 것이다." 하므로, 곧 모각(模刻)을 박아다가 잡록(雜錄) 끝에 철해 두고, 깊이 성찰하여 주자보다 뒤에 태어난 것을 깨닫지 못했다. 대개 앞의 4자는 곧 학문하는 길을 지시함이요, 뒤의 4자는 요긴하고 묘한 이치가 나타난 것이다.(주세붕 죽계지)

散文類, 記文, 紹修書院 童蒙齋 重建記, 1854년, 41×86, 金曾鉉, 김증현
순흥부사로 재임하던 김증현이 서원 경내 학구재 일명 동몽재를 중건하면서 그 기문을 짓되, 그동안 퇴락해 온 동몽재의 모습과 원임(院任)인 琴舜奎, 朴顯道 등의 일신한 모습, 그리고 순흥 고을의 유풍과 文道가 진작되길 바라는 내용임. “童蒙 求我”(『주역』 蒙괘 彖辭)

동몽재 중건기 [童蒙齋重建記]

학구재 전신인 동몽재 중건기문이다. 1854년 초겨울에 순흥부사 김증현(金曾鉉)이 지은 글이다. 서재는 없어지고 기문만 학구재에 게시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학구재 설립 기록을 보면 1730년 7월에 동몽재를 이건하고서 학구재로 개명하였다고 하였는데 이 중건기문은 1854년에 작성 게시된 것이어서 연대가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기문 중에서 김증현은“사당 동쪽에 건물 한 채가 있었는데 서까래가 꺾이고 기둥이 흔들거려 퇴락하여 집 꼴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상하여 물어보니 이른바 동몽재(童蒙齋)였다.”하여 이 당시에는 현재의 학구재가 동몽재로 존재하였던 것이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동몽재와 학구재의 상호 관련된 연혁에 대하여는 좀 더 세밀한 자료 발굴을통한 고증이 필요하다.

소수서원 동몽재 중건기 [紹修書院童蒙齋重建記] 김증현(金曾鉉)

영남은 우리나라의 추로(鄒魯)로서 유풍(儒風)과 문교의 성대함이 해좌(海左)에서 으뜸이다. 일찍이 한번 유람하려는 뜻을 가졌으나 미처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철종 4(계축 1853)년에 내가 순흥부사로 부임하였다. 고을 동쪽에 죽계(竹溪)가 있고 죽계가에 백운동(白雲洞)이 있으니 바로 문성(文成) 안공(安公)의 유허인데 그곳에 사당을 세웠고 현판을 걸기를‘소수서원(紹修書院)’이라 하였으니 바로 명종대왕의 친필이다. 부임한 이튿날 서원에 나아갔다. 서원이 세워진 것이 대개 3백여 년이 되었는데 조석으로 사당을 청소하고 삭망으로 분향하는 일이 오래도록 끊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사당의 모습이 매우 숙연하였다. 사당 동쪽에 건물 한 채가 있었는데 서까래가 꺾이고 기둥이 흔들거려 퇴락하여 집 꼴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상하여 물어보니 이른바 동몽재(童蒙齋)였다.

이윽고 고을의 선비들이 내가 고을 부사라는 이유로 원장 책임을 맡겼는데 읍하고서 나아와 이르기를

“문성공은 바로 동방 도학을 창시한 분이고 소수서원은 바로 동방 서원의 효시입니다. 이에 조야(朝野)에서 공경하고 존중하고 선비들이 의지하고 우러르고 있으며 학문을 하는 방도에 차례가 정연하고 법도가 있습니다. 소학(小學)의 쇄소응대(灑掃應對)에서부터 대학(大學)의 성정치평(誠正治平)의 공효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동몽(童蒙)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 집을 지어 마음을 수양하게 하였으니 이 땅에 훌륭한 인재가 많고 풍속이 아름다고 성대한 것이 대개 이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한 번 이런 뜻이 강명되지 않고부터 살아서는 학문을 알지 못하고 학문을 하더라도 교육을 알지 못하여 황폐해지고 멸렬(滅裂)되어 성취되는 바가 없었고 이에 건물도 따라서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에 공가(公家)의 학문이 연원이 있고 또 문성공의 외손으로서 마침 이 고을 원으로 부임하였으니 지금에 중수하지 않고서 학문을 일으키고 문치(文治)를 한다고 한다면 어찌 우리들의 수치가 아니겠습니까.”
하였다. 내가 그 뜻을 아름답게 여겼으나 재력이 부족하여 그 일을 추진할 겨를이 없었다.

이듬해인 갑인(1854 철종 5)년 가을에 원임 금순규(琴舞圭) 박현도(朴顯道)가 물자를 모아 고쳐서 새롭게 하였는데 모두 옛날 제도대로 하면서 너무 화려하지도 비루하지도 않게 하였다. 수개월에 걸쳐 공사를 마쳤으나 백성들이 공사 때문에 고생을 한 것이 없었다. 이에 내가 두 사람에게 나아가 고하기를

“아 본 고을이 비록 궁벽한 곳에 있다고는 하나 도학(道學)의 종주와 서원의 성대함이 모두 이곳에 있다. 가르침의 도구가 또한 이 집에 있고 차례가 문란하지 않고 규정이 정해져 있으니 전날 이른바 추로(都魯)라고 한 것이 어찌 이것을 가리켜 말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도가 쇠해지고 교육이 해이되어 사람들이 학문을 알지 못하여 드디어 이 건물이 수년 동안 적막하게 하였고 결국 기울고 황폐하게 하였다. 다행히 제군의 힘에 의지하여 훤하게 일신되니 앞으로 갓을 우뚝하게 쓰고 이 건물에 올라가는 자는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일러주고 형은 이우를 인도하여 이곳에서 학문을 닦게 하고 이곳에서 심신을 수양하게 하여 그 뜻을 감발(感發)시키고 그 인품과 학업을 성취하게 한다면 유풍과 문교가 성대하게 다시 진흥되어 이 건물을 새롭게 한 일에 그치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이 어찌 우리들의 다행이 아니겠는가.”

하였다. 두 사람이 나의 말을 기록하여 고을에 돌아가 고하게 해주기를 청하기에 드디어 써주어 보냈다.

숭정(崇禎) 기원(1628년)후 네 번째 갑인(1854)년 초겨울.
후학 광산(光山) 김증현(金曾鉉) 삼가 짓다.

至樂齋 (仰高齋) : “曾子曰敢問하노니 何謂三至잇가 孔子曰至禮는 不讓而天下治하고

至賞은 不費而天下之士說하고 **至樂은 無聲而天下之民和하니** 明主는 篤行三至라 故로 天下之君이 可得而知也하고 天下之士는 可得而臣也하고 天下之民은 可得而用也니라"(『大戴禮記』主言편) "子夏曰民之父母는 旣得而聞之矣나 敢問何謂五至잇가 孔子曰志之所至에 詩亦至焉하며 詩之所至에 禮亦至焉하며 禮之所至에 樂亦至焉하며 樂之所至에 哀亦至焉하여 哀樂相生하니라 是故로 正明目而視之라도 不可得而見也요 傾耳而聽之라도 不可得而聞也요 志氣 塞乎天地하나니 此之謂五至니라"(『禮記』孔子閒居편) "至樂은 性餘하고 至靜은 性廉이라"(黃帝陰符經)

창석(蒼石) 이준(李埈)이 풍기(豊基)군수로 있을 때, 소수서원(紹修書院) 뜰 동쪽 언덕에 작은 서재(書齋)를세우고, 서재 아래에 대를 쌓고, 대(臺) 아래 못을 파고, 못을탁청지(濯淸池), 대를 앙고대(仰高臺), 서재를 '지락재(至樂齋)라하였다.[재향지(梓鄕誌)/순흥지(順興誌)/학교(學校)]

이준(李埈 1560~1635) : 조선중기의 문신. 자는 숙평(叔平), 호는 창석(蒼石), 본관은 흥양(興陽). 수인(壽人)의 아들이다. 유성룡(柳成龍)의 문인으로 1591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교서관정자가 되었다. 임진왜란에는 정경세(鄭經世)와함께 의병활동을 하였다. 벼슬은 사간、승지、대사간、부제학 등을 지냈다.특히 1613년(광해군 5)부터 1614년(광해군 6) 풍기군수 재임 기간 소수서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락재(至樂齋)를세우고 앙고대(仰高臺)와 탁청지(濯淸池)를 조성하였다. 상주의옥성서원(玉城書院)과 풍기의 우곡서원(愚谷書院)에 제향되었다. 저서로《창석집》이 있다.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학구재 건립내력
기록대로 본다면 학구재는 동몽재의 전신인 셈이다. 동몽재가 애당초 경렴정과 지락재 사이 쯤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제월루(霽月樓) 터에 있다가 지락재
북쪽 가로 옮겼다니 지금의 유물관 쯤이 아닐까 여겨진다. 그곳에 있던 동몽재가 퇴락하자 지금 자리로 이건하고 동몽을 가르치는 제도가 유명무실하여 학구재로 바꾸었다고 한다. 현재 학구재 마루 위에 '동몽재상량문(童蒙齋上梁文)'이 걸려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듯하다.

동몽재(童蒙齋) 3칸은 옛날에 지금의 제월루(霽月樓) 터에 있었다. 순흥부가 복설되기 전인 정사년(1677) 사이에 지락재(至樂齋) 북쪽 가로 옮겨 세웠다. 그런데 동쪽 담장 구석에 치우쳐 있었고 방이 비좁고 인적이 드물어 여러 해 비어 있어 태반이 퇴락되었다. 이에 지락재와 신방(新房) 사이에 남향으로 터를 잡아 새로 재목을 마련하여 이건하였다. 건물 제도는 옛날 모습과 조금 변화하여 서쪽 2칸은 방을 만들고 동쪽 1칸은 마루를 만들었다. 동몽들이 거재하는 제도가 지금에 이미 없어진지 오래 되어, 모두 말하기를 편액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드디어 주부자(朱夫子)의 글씨 '학구(學求)'두 글자를 구하고 지락재의 '지(至)' 자를 합하여 '학구재(學求齋)'라고
현판을 걸게 되었다.《雜錄b 경술년(1730, 영조 6) 7월 원우 수리 기사 [庚戌七月院宇修理時記事] 》
庚戌七月院宇修理時記事

童蒙齋三間。舊在今之霽月樓基。至本府復設前。丁巳年間。移刱至樂齋北畔。僻吊墻之一隅。房室卑窄。人迹罕到。多年曠廢。太半頹壓。乃於至樂齋新房之間。南向拓址。斫新椽移建。而稍變舊制。西二間爲房。東一間爲堂。童蒙居齋。今無此規。已久。僉曰改扁可也。遂摸得朱夫子筆學求二字至樂齋齋字一字。揭板曰學求齋。

지락재기(至樂齋記), 단곡 곽진(단곡선생문집)

지락재 기문

蒼石李侯.守豊之明年.政平民和.印文生綠.乃於白雲書院東庭之隈.構小齋.齋下築臺.　臺下鑿　　池.旣成揭扁.池曰濯淸.臺曰仰高.齋曰至樂.諸生咸進前曰濯淸仰高.旣聞命矣.請聞至樂之義焉.侯曰諸生不聞乎.歐陽子曰至樂莫如讀書.吾於是乎有取焉.諸生.起而更請曰讀書之中.有何至樂.侯曰吁.吾爲諸生演歐陽之意而釋之可乎.夫書.何爲而作也.明理載道之具也.聖賢之立言垂敎.寓於斯.聖賢之修己治人.著於斯.近而一心之危微.遠而萬理之綜錯.無不備述焉.則讀是書者.夫豈徒然哉.明牕晝永.棐几塵稀.整襟端坐.澄神靜慮.手披簡編.心潛義理.孜孜乎如鍊丹.亹亹乎如嗜炙.反復習熟.融會貫通.啖腴喫實.欲罷不能.入德之門.昔迷而今悟.造道之方.前昧而後覺.如寐而呼.如飢而食.裒然自得.歡欣鼓舞.不啻若芻豢之悅我口.於斯時也.百牢九鼎.不足以樂其味.鍾鼓管絃.不足以樂其音.千駟萬戶.不足以樂其富.金袋銀章.不足以樂其貴.盡天下之美.不能易吾之樂.而非僻之念自熄.外物之誘自絶.樂在方寸之間.洋溢六合之內.時或風乎臺上.認彌高之道體.逍遙池畔.悟活水之有本.吟詠至理.和回琴點瑟於千載之上.樂乎樂乎.斯其至矣.孔夫子曰學而時習之.不亦悅乎.其斯之謂歟.如或居是齋也.尋行數墨.含英咀華.從事於文字之末.馳心於名利之中.而不識吾家讀書之本意.則是摘醋梨而已.甘退産而已.何足與議於至樂乎哉.於是乎諸生再拜而謝.請書諸壁.

창석 이준 군수께서 풍기에 부임한 이듬해에 정치는 화평하고 백성들은 화목하여 군수 도장 무늬에 푸른색이 생겼다. 이에 백운동서원 동쪽 뜰 모퉁이에 작은 재실을 짓고 재실 아래에 대를 쌓고 대 아래에 못을 팠는데 이미 모든 것이 완성됨에 편액을 걸었는데 못은 탁청지라 하고 대는 앙고대라 하며 재실은 지락재라 하니 여러 생도들이 모두 앞으로 나아와 말하기를 “탁청지와 앙고대는 이미 그 명명하신 뜻을 들었습니다만 청컨대 지락재의 의미를 듣고 싶습니다.”라고 함에 군수가 말씀하시기를 “여러 생도들은 듣지 못했는가? 구양자(歐陽子)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극한 즐거움은 독서만한 것이 없다.’라고 하였는데 내가 여기에서 뜻을 취했다네.”라고 하였다. 여러 생도들이 일어나 다시 요청하며 말하기를 “독서의 가운데에 무슨 지극한 즐거움이 있습니까?”라고 함에 군수가 말씀하시기를 “아아! 내가 여러 생도들을 위하여 구양자의 뜻을 알기쉽게 해석함이 옳겠다.”라고 하였다. 대개 책이란 무엇을 위하여 만들었을까요? 이치를 밝히고 도를 싣는 도구입니다. 성현이 말을 세 워서 가르침을 내린 것이 여기에 붙어 있고 성현이 자기를 수양하여 남을 다스리는 도가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가까이는 위태롭고 은미한 마음 하나에서부터 멀리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일만 가지 이치에 이르기까지 갖추어서 기술되어 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는 것이 어찌 공연한 일이겠습니까? 긴 날 밝은 창문 아래 티끌이 없는 정결한 책상 앞에서 옷깃을 여미고 단정하게 앉아 정신을 맑게 하고 생각을 고요하게 하여 손으로 책을 펼쳐놓고 읽으며 마음으로 의리에 침잠하는데 마치 단약을 정련하듯이 부지런히 하고 불고기를 즐기듯이 끊임

없이 힘써서 반복하여 연습하고 익혀서 뜻을 소상하게 이해하고 조리가 정연하게 하며 진수를 맛보고 진실을 먹어서 그만두려 해도 능히 그만둘 수 없게 되면 덕으로 들어가는 문이 옛날에는 혼미하였다가 지금에는 깨닫게 되고 도에 나아가는 방법이 이전에는 어두웠다가 후에는 깨닫게 됩니다. 마치 잠자고 있는 것을 깨우는 것과 같고 마치 배고픈 가운데 밥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모아서 스스로 체득하고 기쁨에 고무된다면 이것은 맛있는 고기가 내 입을 즐겁게 하는 정도에 그칠 뿐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경지에 이르면 백뢰(百牢)와 구정(九鼎)의 좋은 음식[21] 도 족히 그 맛을 즐겁게 할 수가 없고 종과 북과 관악기와 현악기로도 족히 그 음조(音調)를 즐겁게 할 수 없으며 천사(千駟)[22]와 만호(萬戶)도 족히 그 부유함을 즐겁게 할 수 없고 금으로 장식한 도장 주머니와 은 도장도 그 고귀함을 즐겁게 할 수 없습니다. 천하의 아름다움을 다 가지고도 내 즐거움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릇되고 편벽된 생각이 저절로 없어지고 외부 사물의 유혹도 저절로 끊어지니 즐거움이 사방 한 치 되는 내 마음속에 있으면서 천지사방의 안으로 넘쳐흐르게 됩니다. 때때로 혹시 대(臺) 위에서 바람을 쐬면서 우러를수록 더욱 높은 도체(道體)를 인식하고 연못 가장자리를 이리저리 소요하면서 살아있는 물의 근원이 있는 것을 깨달으며 지극한 이치를 시로 읊어서 천년 전의 안회(顔回)의 거문고와 증점(曾點)의 비파소리에 화답한다면 즐겁고 즐거움이 이에 지극할 것입니다. 공부자(孔夫子)께서 가라사대 "배우고 어느 때라도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라고 하셨으니 바로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일 혹시라도 이 서재에 거처하며 심항수묵(尋行數墨)[23]하고 함영저화(含英咀華)[24]하면서 문자의 말단에 힘을 기울이고 명리(名利)의 가운데에 마음을 쓰면서 우리들의 독서의 본뜻을 알지 못한다면 이것은 떫은 배를 따는 것일 뿐[25]이고 퇴물이 된 물산을 달갑게 여길 뿐입니다. 어찌 족히 지락(至樂)에 대하여 함께 논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이에 여러 생도들이 재배하며 인사를 올리고 물러가며 벽에 써 두기를 요청하였다.

丹谷(郭瑄)先生文集 卷之一 /詩○七言絶句
諸生製至樂齋絶句。和示公直。

---

21) 성대한 상차림을 말한다. 뇌(牢)는 희생으로 쓰이는 짐승을 말하는데 백뢰(百牢)는 백 가지 짐승을 잡아 요리한 것을 말한다. 구정(九鼎)은 아홉 개의 요리 솥을 펼쳐놓은 진수성찬을 말한다.

22) 매우 부귀한 것을 말한다. 맹자 「만장상(萬章上)」에 이윤(伊尹)은 "말 사천 마리가 묶여 있어도 돌아보지 않는다.[繫馬千駟 弗視也]"라는 말이 나온다. 사(駟)는 말 네 필을 말하므로 천사는 사천 마리이다.

23) 글줄이나 찾고 글자나 헤아린다는 뜻으로, 문자에만 매달려 문자 뒤에 숨어 있는 깊은 뜻은 알지 못하는 것을 이른다. 주희(朱熹)의 「역(易)」 2수 가운데 첫째 수에 "괘를 세우고 효를 만듦은 사물을 본뜬 것이고 양의와 사상은 이미 앞서 말하였지. 모름지기 알지니 위편삼절을 하였던 이가 언어 문자에만 매달린 사람이 아니었네.[立卦生爻事有因.兩儀四象已前陳.須知三絶韋編者.不是尋行數墨人.]"라고 하였다. 晦庵集 卷10

24) 함영저화(含英咀華)'는 정영(精英)을 머금고 화채(華彩)를 씹는다는 뜻으로 시문(詩文)의 정화를 음미하고 터득하는 것을 비유한다. 당나라 한유(韓愈)의 「진학해(進學解)」에 "농욱한 글에 무젖으며 정영을 머금고 화채를 씹어서 문장을 지어 그 책이 집에 가득하다.[沈浸醲郁. 含英咀華.作爲文章.其書滿家.]"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온 말이다.

25) 주자어류 에서 혹인(或人)이 춘추좌씨전 의 의심스러운 뜻에 대해 묻자 주자는 육경과 논어 , 맹자 외에 다른 곳에서 도리를 찾을 필요가 없다면서 그를 '달콤한 복숭아를 버리고 산에 가서 시고 떫은 배를 따는 것[棄却甜桃樹.緣山摘醋梨.]'에 비유하였다. 朱子語類 卷121 朱訓門人

濟濟羣英萃一齋。白雲黃卷趣何佳。直將鑽仰希顔氏。莫把浮榮攪此懷。
여러 총각들이 지락재 절구를 지음에 화운해 공직에게 보여준다
훌륭한 뭇 인재들이 한 재실에 모여드니
백운동서원에서 공부하는 취미 어찌나 아름다운지?
곧장 찬앙하는 마음으로 안연이 되기를 희망하고
뜬구름 같은 영화를 가져서 이 심회 흔들지 말라.

丹谷(郭瑨)先生文集 卷之一 /詩○七言絶句

送玖姪陪疏

至樂齋中酒一瓢。緘章千里劒横腰。劒鋒用盡歸來早。同唱太平行樂謠。

상소를 배종하는데 조카 구를 보내며
지락재 가운데에서 술 한 바가지를 마시고
칼을 허리에 차고 천리 길 상소를 올리네.
칼날의 용도가 다하고 나면 일찍 돌아와서
태평성대의 행락요를 함께 부르자꾸나.

丹谷(郭瑨)先生文集 卷之二/ 七言四韻

至樂齋。追詠蒼石遊蹤。二首

蒼石遺芬至樂存。巋然棟宇[26]枕溪源。雲收萬壑曦生牖。夜靜幽欄月入樽。

宜向簡編啖雋永。肯教心觀慁塵喧。最憐池水無風處。恰似先生默不言。

至樂齋中至樂存。千篇黃卷泝淵源。咀腴不願紅腥俎。啖蔗奚論綠蟻樽。

幽砌露滋花藥繖。晴牕日暖竹禽喧。潛心認得溫知妙。眞味將言未易言。

지락재에서 추가로 창석이 놀던 발자취를 읊는다. 두 수이다.
창석 선생 남긴 향기가 지락재에 존재하니
우뚝 솟은 동우가 죽계수 근원을 베고 있네.
구름 걷힌 일만 구렁에 햇빛이 바라지에서 생기고
밤이 고요한 그윽한 난간에 달이 술통에 들어오네.
마땅히 책을 가지고서는 전영을 음미해야 하고
즐거이 심관으로 하여금 속세의 때로 더럽히랴?
가장 어여쁜 것은 못물의 바람 한 점 없는 곳이니
마치 선생처럼 묵묵하게 말하지 않는 듯해서이네.
지락재 가운데에 지극한 즐거움이 존재하니
천 편이나 되는 책에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네.
살진 것 먹음에 도마의 붉은 뺨 물고기를 원하지 않고
담자를 하는데 어찌 술통의 술을 의논하랴?
그윽한 섬돌에 이슬 젖으니 꽃술이 우산처럼 펴지고
날 갠 창문에 해 따뜻하니 대나무 새가 시끄럽네.

26) 동우(棟宇)는 용마루와 처마를 말한다.

잠심하여 온고지신의 오묘함을 알아차리니
참된 맛을 말하려 해도 쉽게 말하지 못하겠네.

丹谷(郭瑨)先生文集 卷之二/ 七言四韻

謹呈蒼石亭

荒丘初築仰高臺。臺上因成至樂齋。求道宜尋遺馥賸。譚經且與衆賢偕。

雲生曲沼光侵戶。月入疎篁影轉階。郤欠春風留座上。令人引領曷堪懷。

창석정에 삼가 드린다.
황량한 언덕에다 처음으로 앙고대를 건축하니
앙고대 위에 그로 인해 지락재를 완성했네.
도를 구함에 의당 넉넉하게 남긴 향기를 찾고
경전 담론은 또 뭇 어진 이들과 함께 하였네.
굽은 못에 구름 피어나니 빛이 문에 들어오고
성근 대나무에 달이 뜨니 그림자 뜰에 구르네.
문득 봄바람도 없이 자리 위에 머물러 있어서
사람들 목 빼게 하나 어찌 회포를 견디리오?

지락재중수기(至樂齋重修記) ---성언근(成彦根)《稼隱集 卷3》

백운동서원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세워진 서원이다. 신재(愼齋) 선생이 창건하고 퇴계선생(退溪先生)이 마무리를 하였으며, 창석(蒼石)이 그 뒤를 이어 명륜당(明倫堂) 동북쪽 구석에 다시 서재를 짓고 지락재(至樂齋)라는 편액을 걸었다. '지락'의 뜻에 대하여는 단곡(丹谷) 곽징사(郭徵士)의 기문(記文)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 뒤 1백 80여 년이 지나 강침(姜忱) 공이 이 고을 군수로 부임하여 백운동주(白雲洞主)로 추대되었다. 공이 이에 서원 건물을 두루 돌아보다가, 이른바 지락재가 황량한 언덕 위에 서 있으면서 주춧돌이 기울고 기둥이 삐뚤어지고 마루에는 먼지가 가득하여 앉을 수 없는 것을 보고서 개연히 말하기를, "선배가 사문(斯文)을 위하고 후학을 위하여 세운 것이 지금에 이런 상황이니 이것이 어찌 우리 후배들의 수치가 아니겠는가." 하고, 곧 이임(貳任) 성수로(成守魯)·서조윤(徐祚胤)에게 그 일을 담당하도록 명하였다.

이에 농사가 조용한 틈을 타고 한가한 장정을 모아 기둥과 주춧돌을 바로잡아 옛날 칸살 그대로 다시 세우고 마루를 깔고 서까래를 바꾸는 등 공사를 하여, 열흘이 채 안 되어 일을 다 마치게 되니, 옛 서원이 다시 새롭게 되고 백운동이 한층 더 아름답게 되었다.

이에 강공이 손수 상량문을 지었고, 또 벽에 걸린 시에 차운(次韻)하여 새겨서 걸었다. 그리고 나에게 기문을 청하기에, 내가 일어나서 말하기를, "공께서 이 일을 하신 것은 창석과 더불어 전후로 함께 아름다운 일인데, 어찌 이 시대에서 뛰어난 문장가의 글을 구하여 길이 후세에 전해지게 하지 않고 나같이 형편없는 자의 글을 받아 명승지를 더럽히려 하십니까." 하고, 누차 사양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내가 이에 절하고 말하기를, “옛날 세 어진 분이 모두 이 고을 군수로서 학문을 진흥하시어 서원을 세우고 과제를 설치하여 학문을 강론하고 도를 밝혀, 한 구역 백운동에 현송(絃誦)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분들이 규모와 조약을 마련한 것이 그토록 간절하였는데, 그 이후로 뒤이어 군수로 부임하신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보아 생도들에 대한 권과(勸課)와 원우(院宇)의 수리를 모두 고을 부로(父老)들에게 맡겨두고서 간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이 학문에 뜻을 두어 먼저 이 서재를 중수하여 그 즐거움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관동(冠童)들이 이곳에서 독서하고 이곳에서 시를 읊으며 이곳에서 즐거움을 얻게 된다면, 창석옹이 남긴 뜻이 다시 빛을 보게 되고,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신재와 퇴계의 마루와 방에도 차례차례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서재의 흥폐(興廢)를 보고서 사문(斯文)의 성쇠를 가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성상께서 위에 계시어 치교(治敎)가 매우 밝아져서 문화를 높이고 학문을 진흥하는 것이 오늘날보다 성대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성현을 본받도록 하는 교육에 특별한 방도가 있을 것입니다. 어찌 이 일개 서재가 조금 온전하게 되었다고 큰일을 다 마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공이 웃으면서 말없이 물러나갔다. 이것으로 기문을 삼게 되었다.

상(정조) 24년 기미년 9월 일. 창녕(昌寧) 성언근(成彦根) 쓰다.

至樂齋重修記

白雲洞東國之首學也。愼老創之。退爺終之。蒼石繼其後。增置讀書之室於明倫堂之東北隅。扁之以至樂。至樂之義丹谷郭徵士之記已備矣。其後。百八十有餘年。姜公忱宰是邦。推以爲白雲洞主。公乃周視院宇。見所謂至樂齋者巋然在荒臺上。礎傾棟歪。塵滿不可坐。慨然曰。先輩之爲斯文惠後學者。今如是。豈非吾後人之羞乎。乃命貳任成守魯徐祚胤幹其事。乘休農役閒丁。偃柱整礎。仍舊改立。鋪堂易楹。不十日而告落。古院重新白雲增色。公自製梁頌。又次壁上韻。刻而懸之。屬彦根記之。根起而謝曰。公之是役也。可與蒼石前後幷美。何不求於當世文章信筆掾揚不朽於後。而必欲使庸匠血指以涴勝蹟哉。屢辭而不許。根乃拜而言曰。昔我三賢皆以知郡興學於是邦。立院設科講學明道。一區溪山絃誦洋洋。規模條約若是其摯。而後之繼宰者。視若弁髦。生徒之勸課院宇之修葺。一委之鄕父老。而地主則無與焉。今後有意於斯學。而惟齋是先。旣修其齋。可尋其樂。若使冠童讀於斯詠於斯歌於斯樂於斯。則蒼翁之蹟庶幾有隣。而溯而上之。愼老之堂退爺之室。次第而可入矣。觀於是齋之興廢而足以卜斯文之盛衰乎。矧惟我聖上在上。治敎休明。右文興學之方。莫盛於今日。則其在希賢體聖之地。有道在焉。豈以一齋之粗完而曰能事畢乎。公笑而不言而退。而爲之記。上之二十四年己未九月日。昌寧成彦根記。

지락재 중수 상량문 [至樂齋重修上梁文] 강침(姜忱)

상량문을 쓰노라.

건물의 동서(東西)가 기우는 걱정이 절박하니, 옛날 유적이 이 지경에 이르렀도다. 상동하우(上棟下宇)의 제도에 따라 세웠으니, 옛날 규모와 제도를 그대로 따라 보수하는 것이 어떠한가. 수년 동안 서원에서 경영하였으니 바로 지락재 건물을 중수하는 일이로다. 오늘에야 눈앞에 우뚝 서니, 바로 문성공의 묘정에 있도다. 공자의 영정을 모신 곳, 백운동 속에 서원을 세웠도다. 주렴계(周濂溪)의 태극도(兩儀를 게시하니, 묘정 가에 건물 우뚝하도다. 친구들이 먼 곳에서 오니 즐겁지 않겠는가. 바로 영남의 많은 선비들. 하늘이 아직 이 문

화를 없애려하지 않아 동방 한 모퉁이에 남아있도다. 이웃 고을 풍기군수로 부임하여 터를 잡았으니 창석옹(蒼石翁)이 경영하여 시작한 일이고, 서적을 구하여 서가에 가득 비치하였으니 실로 백록동(白鹿洞)의 규모를 따랐도다.

아, 세월이 오래 되어 기둥이 흔들리고 주춧돌이 기울어졌으나, 선현이 학문을 하시던 곳으로서 오직 경렴정이 변함없이 우뚝하도다. 후생들이 의지할 곳이 없게 되고 광풍대와 더불어 멀지 않아 폐허가 되기에 이르렀도다. 백도(百堵 광대(廣大)함을 이름. 1장(丈)이 1판(板)이 되고, 5판(板)이 1도(堵)가 된다. 토목공사를 범범하게 이른 말.)

가 시작되지 못하니 어찌 사림이 한탄할 뿐이겠는가. 기둥 하나 부지하기 어려우니 또한 학궁의 학궁에 흠결이 있도다. 계절이 가을에 이르러, 하늘에 영실성(營室星)이 반짝이도다. 토목공사 수레가 쉬고 있으니 명륜당(明倫堂) 중수가 이제 막 끝난 즈음이고, 재목과 돌이 조금 구비되었으니 전날 직방재(直方齋)의 제도를 간략하게 따랐도다.
일부석면(一浮石面)과 삼부석면(三浮石面)의 재목을 운송하였으나 어찌 백성들을 수고롭게 하랴. 7, 8월 한가한 기회를 만났으니 어찌 하늘이 준 좋은 때가 아니겠는가. 부지런하고 경륜 있는 유사의 힘을 입었고, 신명한 태수께 새로 꾸며주었다고 할 수 있도다. 청아한 뜻 아는 이 적어도 둥근 달 떠오르고, 그 즐거움 형언할 수 없어 술단지 국화 띄워 마시도다.

이제 육위(六偉)의 축송을 하여 큰 들보를 들어 올리노라.
들보 동쪽에 던지세. 拋梁東
요금(瑤琴) 한 곡 역동(易東) 에 연이었네. 瑤琴一曲連易東
맑고 맑은 죽계의 물, 竹溪之水淸如 □
서쪽으로 흐르지 않고 동쪽으로 흐르네. 동쪽으로 흐르네 不流于西流于東
들보 서쪽에 던지세. 拋梁西
근자에 이단(異端)이 서쪽에서 온다네. 近聞異端來于西
우리 영남 배운 것은 오직 주부자(朱夫子), 吾嶺所學朱夫子
시험 삼아 그 당시 강서(江西)의 일 을 보세. 試看當日斥江西
들보 남쪽에 던지세. 拋梁南
산수 맑은 곳 소백산 남쪽이라네. 水麗山明小白南
회헌선생 창도하고 퇴계선생 계승한 곳, 晦軒倡起陶翁繼
지금까지 그 유화 영남에 성대하네. 至今儒化嶠□南
들보 북쪽에 던지세. 拋梁北
지락재 앞에 남북으로 길이 갈라지네. 齋前岐路多南北
스스로 태고 적 시대 사람이라 하여, 使□自謂羲皇人
진종일 맑은 바람 속 북창 아래에 누웠네. 盡日淸風臥窓北
들보 위에 던지세. 拋梁上
중추절 둥근 달이 오동 위에 떠오르네. 仲秋月向梧桐上
배회하며 경자바위(敬石)에 기대어 서니, 徘徊倚杖敬石畔
연비어약(鳶飛魚躍)의 이치를 알 듯도 하네. 倘識鳶魚理下上
들보 아래에 던지세. 拋梁下
제비도 축하하며 처마 아래로 날아드네. 賀燕飛飛來簷下

피리소리 속에 오직 상심하는 곳이 있으니, 笛中獨有傷心處
압각수(鴨脚樹)가 있다네. 錦城□壇鴨樹下

삼가 원하건대, 상량한 두에 선비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독서하는 소리가 양양하게 들리게 하라. 여름에는 예(禮), 겨울에는 시(詩)를 공부하니, 바로 우리 당의 선비들이고 집에서 나오면 공손하고 들어가면 효도하니, 저 영남 일흔 고을을 생각하노라.

을미년 중추절 하순에 통정대부(通政大夫) 전 행승정원우승지 겸 지제교(前行承政院右承旨兼知製教) 진산(晉山) 강침(姜忱)이 쓰다.

至樂齋重修上梁文

述夫。迫東傾西圮之憂。嗟故蹟至于此。建上棟下宇之制。仍舊貫如之何。幾年院中經營。惟彼至樂齋舍。今日眼前突兀。乃在文成廟庭。藏宣聖七分之眞。傍院宇於白雲洞裏。揭濂翁兩儀一圈。敞軒楹於□□庭邊。朋自遠方樂乎。南中多士。天未斯文喪也。東土一隅。佩隣紱而相基。展也蒼石翁經始。購壁書而滿架。允矣白鹿洞規模。嗟乎歲久而年深。以致棟撓而礎仄。先賢之杖屨有所。惟景濂尙自巋然。後生之衿珮靡依。與光風不久墟矣。百堵未作。奚但士林之心嗟。一木難支。抑亦學宮之顔觖。序屆殷秋之月。天垂營室之星。役車旣休。明倫堂之重葺纔訖。木石粗具。直方齋之遺制畧遵。運一浮三浮之材。何必勞民力。値七月八月之會。豈非好天時。寔賴勤幹有司各經綸。敢曰神明太守再雕飾。淸意少人識。□頭之霽月須圓。其樂不可言。樽中之黃花共泛。載陳六偉。用擧雙虹。拋梁東。瑤琴一曲連易東。竹溪之水淸如□。不流于西流于東。拋梁西。近聞異端來于西。吾嶺所學朱夫子。試看當日斥江西。拋梁南。水麗山明小白南。晦軒倡起陶翁繼。至今儒化嶠□南。拋梁北。齋前岐路多南北。使□自謂羲皇人。盡日淸風臥窓北。拋梁上。仲秋月向梧桐上。徘徊倚杖敬石畔。倘識鳶魚理下上。拋梁下。賀燕飛飛來簷下。笛中獨有傷心處。錦城□壇鴨樹下。伏願上梁之後。衿紳濟濟。絃誦洋洋。夏禮冬詩。嗟哉吾黨二三子。出悌入孝。念彼大嶺七十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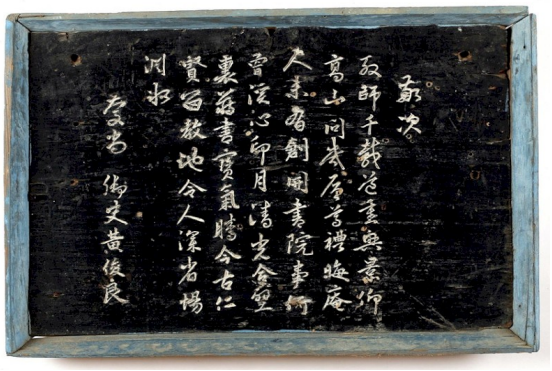
乙未仲秋下澣。通政大夫前行承政院右承旨兼知製教。晉山姜忱稿。

앙고대(仰高臺) 내력과 시
단곡(丹谷) 곽진의 <지락재기(至樂齋記)>에 의하면, "창석(蒼石) 이준(李埈)이 1613년에 풍기군수로 부임하여 그 이듬해에 지금의 지락재(至樂齋)를 짓고 그 아래에 앙고대(仰高대)를 만들고 그 아래에 탁청지(濯淸池)를 팠다." 하였다. 대(臺)란 본래 상형과 같이 흙으로 높고 평평하게 쌓은 것인데, 일부 인위적으로 조경을 하기도 하지만 주로 자연 형태를 그대로 이용하여 명명하였다. 기록으로 볼 때 지락재 뒤 담장 밑쯤에 있었지 않을까 여겨진다. 앙고(仰高)란 <논어>에서 공자의 제자 안회(顔回)가 공자를 비유하여 '仰之彌高 -우러를수록 더욱 높고'라고 한 말에 기인한 것이다. 다른 기록은 보이지 않지만 곽단곡의 시 한 수로도 대충 짐작할 만하다.

앙고대(仰高臺) 곽진(郭山晉) 지음《丹谷先生文集 卷3 詩》

백운동서원 동쪽 담장 밖, 白雲院齋東牆外
바로 죽계의 서쪽 모퉁이라네. 卽是竹溪之西隈
오랫동안 늪이 되어 인적도 없고, 沮洳歲久無人蹤
잡초만 무성하게 자랐네. 苯蓊莽蒼饒草萊
창석선생(蒼石先生)이 오셔서 사당을 참배하고, 蒼石先生來拜廟
지팡이 짚고 한가하게 산보하시더니, 杖屨一夕閒徘徊
비로소 하늘을 바라보고 탄식하시니, 始覩天奧喟然歎
옛날 현인들이 미처 하지 못한 일. 伊昔諸賢未遑哉
거친 언덕 파헤치고 작은 연못을 만들고, 斲破荒原開小塘
연못 위에 대를 쌓으니 얼마나 우뚝하던지. 塘上築臺何其峗
대 뒤에 큰 산 늘어서고, 臺後巨嶽列巃嵸
대 앞에 높은 봉우리 푸르네. 臺前高峯碧崔嵬
우뚝한 면목 하늘 높이 치솟고, 巖巖亩目干雲霄
천지간에 홀로 서서 짝할 이 없네. 屹然獨立雄八垓
우러를수록 더욱 높은 것이 바로 여기에 있으니, 仰之彌高誠在是
당년에 스승을 모신 듯하네. 宛似當年函丈陪
그 전형 추모하니 마치 서 있는 듯하고, 追慕儀刑如有立
여기에 의지하여 큰 슬픔 위로하네. 憑玆庶慰樑木摧
도의 본체 찾으려하니 탄식이 절로 이니, 欲尋道體宜發歎
이 뜻은 정히 훌륭한 안회(顔回)와 흡사하네. 此意正類賢哉回
대의 이름을 지은 것 특별한 뜻이 있으니, 臺之揭號良有以
후학으로 하여금 그 재능을 다하게 하려는 것. 俾我後學竭其才
아홉 길 산 한 삼태기 모자라 공이 무너지고, 九仞恒戒一簣虧
바른 길에 굳건하게 서면 앞 길 여유로우리. 立腳正路因恢恢
가을 밤 고요히 앉아 해맑은 달 대하고, 秋宵靜對霽月明
봄날 산뜻한 바람 기쁘게 맞이하리. 春日喜挹光風來
구름과 안개 걷히면 푸른 산 드러나니, 雲消霧捲只麽靑
높이 우러르면 어느 새 눈이 열리리. 仰止不覺心眼開
앙고대! 앙고대! 참으로 노닐 만한 곳, 臺乎臺乎嘉可遊
대 앞에 맑은 물 쉬지 않고 흐르네. 亦有活水來繞臺

황준량 차운시(지락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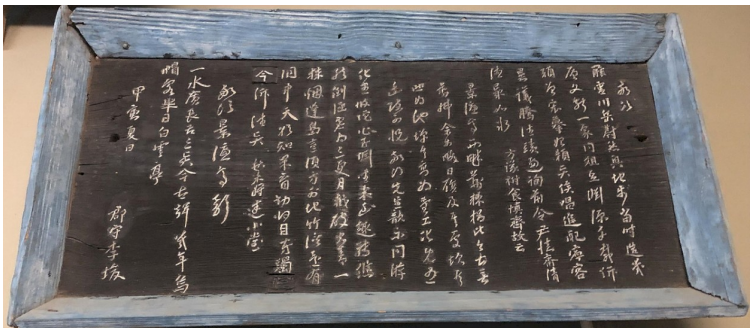


敬次　　공경히 차운함

殷師千載道重興　천 년 전 은사께서 도를 중흥하셨기에
景仰高山問幾層　우뚝한 고산을 우러러 바라보네.
尊禮晦菴人未有　주자를 존모할 줄 남들은 몰랐기에
創開書院事何曾　서원을 열은 일도 없었네.
溪心印月淸光合　시내에 잠긴 달 맑은 빛 어울어지고
壁裏藏書寶氣騰　벽장에 갈무리한 서책엔 보기가 서려있네.
今古仁賢留敎地　예부터 어진이들 가르침 남긴 땅
令人深省惕淵氷　지금도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조심을 일깨우네.

어사御史 황준량黃俊良

지락재 이준 시판(至樂齋 李埈)



<지락재 이준 시판>

냇물과 산 성대하게 일어난 곳
그분들 당시에 걸음도 높았지
문헌은 한 가문 함께 제향되었고
연원은 천년의 안자, 증자 우러렀네
어진 군수 덕택에 큰 일 이루었으니
배향함에 어찌 이론이 있으랴지난
자취 찾아 전 군수에게 물으니
신재의 맑은 덕 얼음과 같았다네

바야흐러 주신재의 배향을 논의하였기에 이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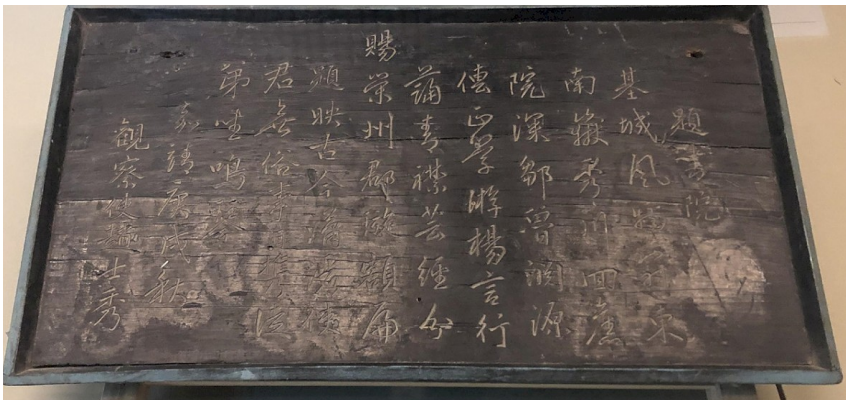
경렴정 서쪽 냇가에 ㅇㅇㅇ.

내가 한가한 날 그곳을 찾아 깊은 곳은 파서 연못을 만들고 높은 곳은 다듬어 대를 만들었 다. 일을 다 마치니 그윽한 경치가 감상할 만하였다. 이에 삼가 선생의 시에 차운하여 함께 놀던 이들에게 보여주다.

비탈을 다듬어 연못을 만들고바라보니
그윽한 정취 끝이 없어라
한밤의 밝은 달 연못 속에 뜨고
허공을 가르는 한 줄기 안개
봉래도가 어찌 세상 밖에만 있을까
죽계에 도리어 신선세계 있다네

교화와 인재 육성 그 방법을 알려면
옛날 현인이 남긴 자취 따라야 하리라
-삼가 경렴정 시에 차운함-
냇물은 소리내어 흐르고세
현인은 고금에 명성 높네
수년 동안 관직생활에 매인 몸
한나절 백운동 정자에 올랐네
갑인년(1614, 광해군 6) 여름 군수 이준.

지락재 조사수 시판



<지락제 조사수 시판>
서원에서
풍기의 풍물은 영남에서 으뜸이고
산 높고 물 도는 곳에 옛날 서원 그윽하네
공맹의 연원 이어 바른 학문 전하였고
유양의 언행 선비들 본받아 닦네
교서관 서적 내려 고을 영예롭고
어필로 쓴 편액 고금에 찬란하네
소탈한 사또 세속에 할 일이 없어
날마다 유생들과 더불어 거문고를 타네
가정 경술년(1550, 명종 5) 가을, 관찰사 조사수, 조사수(지락재)

題詠詩, 창석 이준의 원운 차운 시판, 초서, 1799년, 27×56, 강침, 강침
풍기 군수를 역임했던 창석 이준의 「경렴정」원운에 순흥 부사로 부임해 온 강침이 차운한 시판임. 이 외에도 그가 남긴 지락재 중수 상량문도 게첨되어 있음.

강침은(문과방목에 영조 49년(1773)에 급제한 것으로 기록)이 창석 이준의 원운에 차운한 시로 작성연대는 확실하지 않고 초서로 되었다. 『소수서원지』에는 지락재 시에 차운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敬次蒼石岩生板上韻　　공경히 창석 선생의 시판에 차운함

至樂齋成臨玉淵　맑은 연못에 지락재 우뚝한데
滄桑萬曆事前矜　만력 연간의 좋은 일들 쌍전벽해와 같네.
崇阿深得三秋色　높은 언덕은 가을빛을 깊게 머금었고
高棟浮來九曲烟　누각은 구곡의 아지랑이 속에 떠 있네.
蒼石何年去後地　창석 선생 떠나신 뒤에도
白雲今日壺中天　백운동 지금도 하늘이 호리병 속에 있다네.
東方首設知誰力　동방에 처음 세운 서원 누구의 힘이던가?
自任斯文溯昔賢　옛 현인처럼 사문을 위해 자임했네.
황화黃華 중추절(秋半추반) 후학後學 진산晋山 강침姜沈 삼가 쓰다.

❍ 일신재 · 직방재

동·서재(東 · 西齋)로 사용 되었다.
日新齋 편액, 해서, 53×96,
성언근의 문집(가은집)에 소개되었으며, 일신재 중건기가 전해오며, 대학에서 따온 구절임. “湯之盤銘에 曰苟日新이어든 日日新하고 又日新이라”(『대학』親民장)

直方齋 편액, 해서, 1720년(개각), 46×120, 퇴계 이황, 퇴계 이황
퇴계 선생이 직접 쓰신 글씨가 마모가 심해 이징도가 재생중의 한 사람인 이진주에게 의뢰 개각한 것임. “六二는 直方大라”(『주역』 坤괘 六二爻辭)

동재는 일신재(日新齋), 서재는 직방재(直方齋)로, 양재가 한 채(棟)로 되어있다. 평면은 정면 6칸, 측면 1칸반, 기단은 앞면은 다듬은 장대석을 바른층쌓기로 했고 후면은 거칠게 다듬은 네모진 돌로 바른층쌓기 했다. 건물 중앙에 정면 2칸, 측면 1칸반의 대청을 두고, 좌우에 각각 정면 2칸, 측면 1칸의 온돌방을 두고 방 앞엔 각각 반칸폭의 툇마루를 두었다. 주추는 막돌, 모난 기둥인데, 양쪽 온돌방 앞 두 개씩의 기둥과 뒷면 양쪽 우주(隅柱)만이 두리기둥이다. 기둥에는 굽면이 사면(斜面)이고 굽받침이 없는 주두(柱頭)를 놓고, 첨차(遮)로 결구했는데, 첨차의 모양은 매우 단순하다. 특히 뒷면 우주에는 기둥 웃몸에서 헛첨차모양으로 돌출했는데, 건물쪽으로는 첨차모양을 갖추어 헛첨차모양을 이루나, 건물밖으로는 단순한 직선부재(副材)로서 보아지 형식을 이루고 있음이 주목된다. 가구는 오량(五梁)이다. 대들보를 平柱위에 걸고, 그 위에 간결한 동자기둥을 세워, 종도리를 받치고 있다. 처마는 홋처마, 팔작지붕이나 지붕높이가 낮아 합각면이 적음으로써 웅장한 멋은 적은 편이다.
동재인 일신재의 ‘일신(日新)’은 ‘나날이 새로워져라’라는 뜻으로 ‘대학(大學)’에서 그 이름을 따왔다. 서재인 직방재는 ‘깨어있음으로써 마음을 곧게 하고, 바른 도리로써 행동을 가지런하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일신재는 1804년 당시 원장이던 가은(稼隱) 성언근(成彦根) 선생이 서원 유생 박동원(朴東元)·송희연(宋希淵)에게 실무를 맡겨 지금 모습으로 중수되었다 .그 이름이 애당초 새로 지은 방이라서 신방(新房)이라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중건하면서 '新' 자 앞에 '日'자를 붙여 <대학>에서 "하루 새로워지거든 또 날로 새로워지라 [一日新 又日

新]"라고 한 뜻의 '日新'으로 바꾸었다.

더욱이 서재의 이름을 가지고 至樂(독서의 즐거움) -- 學求(학문 연마)--日新(날로 덕이 진보)--直方(안팎이 완성)---明倫(세상의 교화를 밝힘)으로 구성하여 유가의 기본 명제인 수기치인(修己治人 자신을 완성하여 남을 다스림)의 뜻을 펼치고자 하였다.

기문을 지은 성언근(成彦根)은 호가 가은(稼隱), 본관이 창녕(昌寧)이고, 봉화 가두들 출신으로서 당시 원장을 지낸 분이다.

일신재기(日新齋記)----성언근(成彦根)
지난 가정(嘉靖) 연간에 신재(愼齋) 주선생(周先生)이 백운동(白雲洞)에 서원을 창건하였을 때, 강당 하나는 명륜당(明倫堂)이고, 서재 둘은 학구재(學求齋)와 직방재(直方齋)였다. 그 뒤에 창석(蒼石) 이공(李公 李埈)이 새로이 지락재(至樂齋)를 설치하여 합하여 서재가 셋이 되었다. 봄가을로 향사를 치를 때와 삼동(三冬)에 거재(居齋)할 때에 서재 세 곳으로는 공간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다시 직방재 왼쪽에 작은 서재를 꾸미게 되었다. 그러나 제도가 협소하고 문 위에는 편액도 걸지 않았고 벽에는 기문도 없어, 언제 누가 세운 것인지 알 길이 없었다. 다만 새롭게 더 세운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방(新房)'이라 일컬어 전해오고 있다.

정묘(正廟) 기미년(1799)에 내가 동주(洞主)가 되어 섬돌과 주추, 담장을 수리하다가 퇴락한 재실 보수에까지 계획을 하게 되었는데, 마침 일이 있어 체임되는 바람에 이임(貳任) 서조윤(徐祚胤)·성수로(成守魯)에게 부탁하였던 바, 먼저 지락재를 보수하고 나머지는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6년 뒤인 갑자년(1804)에 내가 재차 동주가 되어 두 재실을 수리하게 되었고, 서원 유생 박동원(朴東元)·송희연(宋希淵)에게 그 실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학구재(學求齋)는 조금 바꾸고 거의 옛날 그대로 하였고, 이른바 신방(新房)은 도저히 옛날 그대로 보수할 수 없었다. 이에 건물을 뜯고 주춧돌을 바꾸고 새로운 재목으로 바꾸어 3칸의 건물을 지었다. 한 칸을 막아 이임(貳任)의 집무실로 하고 작은 마루를 두어 거처에 편리하게 하였다. 이에 서원의 모습이 번듯해지고 새롭게 되었다.

이해 중하(仲夏)에 공사를 다 마쳤다. 드디어 옛날 명칭에다가 한 글자를 더 보태어 '일신재(日新齋)'라 하여 편액을 걸게 되니, 이에 하학상달(下學上達)의 차례와 단계가 크게 갖추어지게 되었다. 대개 학자의 공부는 마땅히 독서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지락재(至樂齋)가 맨 아래에 있고, 독서를 하여 성현과 같이 되기를 구하는 학문을 하기 때문에 학구재(學求齋)가 그 오른쪽에 있고, 학문을 하여 성현과 같이 되기를 구하여 날마다 그 덕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일신재(日新齋)가 또 그 오른쪽에 있고, 날마다 그 덕을 새롭게 하고서 경(敬)으로 내면을 바르게 하고 의(義)로 외면을 방정하게 하기 때문에 직방재(直方齋)가 또 그 오른쪽에 있게 되었다. 경과 의를 양쪽에 끼고 내면과 외면을 수양하게 되면 군자의 도가 이 즈음에서 크게 완성되니, 이것이 《역(易)》에서 이른바 '직방대(直方大)'이다. 직방대가 된 뒤에 편안한 집에 넓게 거처

하면서[廣居安宅] 천하에 교화를 밝힐 수 있기 때문에 명륜당(明倫堂)이 직방재 앞에 있는 것이다. 입문(入門)의 순서와 승당입실(升堂入室 학문이 높은 경지로 진보함을 이르는 말.)의 차례와 공부가 편액의 글씨에 나열되어 있으니, 이 재실에 들어가는 자가 그 이름을 돌아보고 그 뜻을 생각하고서 위로 향하여 진보한다면, 어느 정도 옛날 군자들이 재실에 편액을 건 뜻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日新齋記

粵在嘉靖年間。愼齋周先生創院於白雲洞。堂一曰明倫。齋二曰學求也直方也。其後。蒼石李公增置至樂齋。前後所置。合三齋。而春秋尸祝之際。三冬居齋之時。三齋不能容。故又增置一小齋於直方之左。制度樸陋。楣間無扁。壁上無識。不知何年何人所建也。以其新增之故。至今傳稱爲新房云。正廟己未。余爲洞主。整堦礎新垣墻。謀及齋室之頹圮者。以故遞去。托貳任徐祚胤成守魯。先修至樂齋。餘則未遑焉。越六年甲子。余再添洞主。幷修兩齋。以屬院儒朴東元宋希淵幹其事。學求齋則仍舊館稍變其制。所謂新房則不可因仍苟且。乃撤屋改礎。換以新材。爲屋三間。而隔障一間爲貳任室。爲堂四楹以便棲息。院貌整齊。輪奐新明。是年仲夏。工告訖。遂因其舊稱而增以一字。扁之曰日新齋。下學上達之次第階級。於是焉大備也。盖學者工夫。當裡書爲先。故至樂齋最在下方。讀書而學求聖賢。故學求齋在其右。學求聖賢而日新其德。故日新齋又在其右。日新其德而敬以直內義以方外。故直方齋又在其右。敬義夾持。內外交修。則君子之道於是乎大成。此易所謂直方大也。直方大然後。可以廣居安宅而明教於天下矣。故明倫堂乃在直方齋之前。入門循序升堂入室次第工夫。列在扁楣。入是齋者。顧名思義。向上進步。則庶幾無負古君子扁齋之義云爾。《稼隱集 卷3》

❍ 전사청

其他, 典祀廳 기문, 초서, 33×210

❍ 명륜당

白雲洞 편액, 해서, 47×108

죽계 건너 암벽에 새겨진 백운동 글씨를 탁본하여 모각한 것임.

❍ 사당

扁額, 文成公廟 扁額, 해서, 1605, 52×164, 명사 주지번, 明使 朱之蕃

주희의 후손인 명나라의 사신 주지번이 선조 38년인 1605년에 사신으로 와 서원을 참배하고 묘우명을 쓴 것임.

❍ 기타

翠寒臺 : “松翠寒溪”

정자 이름 翠寒台는 퇴계가 지은 것으로 '연화산 푸른 기운과 죽계의 시원한 물빛에

취하여 시를 짓고 풍류를 즐긴다'는 옛 송취한계(松翠寒溪)에서 가져왔다.
경렴정 정자 아래 물 건너에 바위가 있는데 거기다 흙을 쌓아서 단(壇)을 만들었으니, 이것이 노선생이 명명하신 취한대(翠寒臺)이다. 줄지어 죽 심어진, 한 아름 남짓 되는 소나무는 모두 선생이 손수 기른 것이요(성호전집 제53권 / 기(記) 백운동서원 방문기〔訪白雲洞記〕
霽月樓 : 北宋의 黃庭堅이 쓴『豫章集』濂溪詩序에 "春陵周茂叔 人品甚高 胸懷灑落 如光風霽月"(용릉의 주무숙은 인품이 고고하고 마음이 깨끗했으니 마치 맑은 바람과 청명한 달빛과 같도다)이라고 한데서 따옴.
명륜당(明倫堂) 동쪽 가 지락재(至樂齋) 남쪽 경렴정(景濂亭) 북쪽 시냇가에 비탈진 언덕이 있는데, 선배들이 일찍이 누각을 지을 만한 곳이라고 하였다. 이에 명륜당 중수를 마친 달 갑자일에 담장을 철거하고 터를 닦기 시작하였다. 담장 밑으로 한 길 정도를 파내려가니 큰 주춧돌 10개가 나왔는데 모두 한 줄로 나란히 있어 옛날 건물 터임이 완연하였다. 이를 본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전날 숙수사가 있을 때 노여(魯璵)의 시에서 이른바, '찬 시냇물 소리를 밟으며 나그네 누각으로 오르네.[冷踏溪聲客上樓]'라고 한 것이니, 이곳이 분명 그 터가 아니겠는가?" 하였다.
9월 10일 기둥을 세우고 10월 초하루에 열 칸 건물로 상량하였다. 11월에 추위가 닥쳐 기와를 덮고서 공사를 중지하였다. 이듬해 2월 14일부터 3월 그믐까지 난간과 칠을 다 마쳤다. 인력이 지난 여름보다 갑절 더 소요되었는데, 모두 서원 하인들이 돌아가면서 일을 하였다.
누각이 완성되니, 모두 말하기를, "옛날에 광풍대(光風臺)와 제월교(霽月橋)가 있었으니 다리에 이름 붙였던 것을 가지고 이곳의 이름을 삼는 것이 좋겠다." 하여 드디어 '제월루(霽月樓)라 하였다.

개기축문(開基祝文)
지락재 남쪽, 至樂齋南
경렴정 북쪽, 景濂亭北
시냇가 비탈진 언덕, 阧岸臨溪
완연히 층계가 이루어져, 宛成階級
옛날부터 말하기를, 自古有言
누각을 세울 만하다 하였기에, 可置樓閣
이에 길일을 잡아, 玆涓吉日
감히 공사 시작을 고하나이다. 敢告始役

경자년(1720, 숙종 46) 4월 25일 제월루 낙성회 겸 백일장을 거행하여 노소 합 3백여 명이 참석하였다.
明倫堂庭東畔至樂齋之南景濂亭之北。臨溪阧岸。先輩嘗曰可樓。乃於明倫堂重修旣畢之月甲子。撤墻拓基。掘墻下丈許。得舊礎十餘巨塊。一行成列。宛如舊址。觀者皆曰。在昔宿水寺時魯璵詩所謂冷踏溪聲客上樓者。此非其墟耶云。九月十日立柱。十月初吉上樑十間。十一月初寒凍蓋瓦而止。自翌年二月之望。至三月之晦。欄檻斷手丹艧畢施。用人力比前夏倍之。亦院僕輪役也。樓旣成。僉曰。古有光風臺霽月橋。可以所以名橋者。揭諸此也。遂名之曰霽月樓云。

開基祝文。至樂齋南。景濂亭北。阧岸臨溪。宛成階級。自古有言。可置樓閣。玆涓吉日。敢告始役。

庚子四月二十五日。霽月樓落成會兼設白日場。老少合凡三百餘人。
출전 <紹修書院 雜錄>

濯纓臺 濯淸池 : 선조20년(1593년) 겸암(謙菴) 류운용선생이 풍기군수로 재임할 때 연못을 파고 대를 쌓았던 곳이다.(지락재에는 그의 시판이 걸려 있고 담밖에는 못이 있다) "有孺子 歌曰滄浪之水 淸兮어든 可以濯我纓이오 滄浪之水 濁兮어든 可以濯我足이라 하거늘 孔子曰小子아 聽之하라 淸斯濯纓이오 濁斯濯足矣로소니 自取之也라 하시니라"(『맹자』 離婁上편 제8장)가 출전이다.

죽계구곡(竹溪九曲) : 부사 신필하(申弼夏)가 일찍이 소백산을 유람할 때 초암사 금당(金堂) 앞에 큰 글씨로 '죽계제일수석(竹溪第一水石)'이라 써서 새겼다. 그리고 무이구곡(武夷九曲)을 본떠 처음으로 반석에 1곡(一曲)이라 새기고 시내를 따라 내려오면서 마지막으로 배점[梨店]에서 9곡(九曲)을 새겼다. 그 사이의 거리가 5리쯤 된다. 계곡이 길고 굽이가 많아서 가장 볼만한 데만 취한다 해도 이뿐이 아닐 텐데, 새겨져 있는 9곡은 거리가 너무 짧지 않나 여겨진다. 중국의 무이구곡은 동구(洞口)에서 시작하여 거슬러 올라가면서 계곡 마지막까지 가는데, 동구가 1곡이 되고 계곡 마직막이 9곡이 되었으니 이곳의 9곡과는 반대인 셈이다. 지금에 본다면, 마땅히 백운동(白雲洞) 취한대(翠寒臺)가 처음 1곡이 되고, 금성(金城) 반석이 2곡이 되고, 백자담(柏子潭)이 3곡이 되고, 이화동(梨花洞)이 4곡이 되고, 목욕담(沐浴潭)이 5곡이 되고, 청련동애(靑蓮東崖)가 6곡이 되고, 용추(龍湫)가 7곡이 되고, 금당(金堂) 반석이 8곡이 되고, 중봉의 합류되는 곳이 9곡이 되어야 한다. 우선 이 설을 기록하여 후인들의 평가를 기다린다.

종죽기(種竹記) 곽진(郭山晉)
지난 을사년(1605)에 오일옹(五一翁)이 백운동주(白雲洞主)가 되어, 오죽(烏竹) 몇 그루를 강당 뜰 가에 심었고, 이윽고 체임된 뒤에 그 뒤를 이은 이도 아껴 보호하였으나 무성하게 자라지 못하였다. 금년에 오일옹이 다시 동주가 되었는데, 이해 여름에 대나무 새싹이 많이 자라 거의 수백 그루에 달하여, 담장 위로 높이 솟아 당(堂)의 처마와 키가 비슷하였다. 옥을 깎은 듯한 단단한 자질에 푸른빛이 구름에 엉기고 찬 기운이 강탑(講榻)에 통하고 그늘이 서재에 드리워졌다. 바람이 불어오면 냇물 소리와 조화를 이루고 달이 뜨면 소나무와 더불어 그림자가 이루어져, 서원 문에 들어오는 선비들의 정신이 상쾌하여 마치 기원(淇園)과 위빈(渭濱) 사이에 들어온 듯하였다.

아, 사물의 성쇠란 본래 운수가 있는 법이다. 오일옹이 심은 지 6,7년이 지났는데, 지금에 이르러 이와 같이 성대하게 자라니, 식물 또한 무엇엔가 감동한 뜻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에 대나무 숲가에 서로 둘러앉아서 술잔을 돌리며 그윽한 정취를 맛보았다. 그 아우가 술잔을 잡고 앞에 나서서 말하기를, "형님께서 대나무를 사랑하는 마음이 매우 지극하십니다. 이 대나무가 선비들이 학문을 연마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바가 있습니까?"하니, 옹이 답하시

기를, “그렇다네. 내가 이 뜰에 대나무를 심은 것이 어찌 다만 대나무의 일렁거리는 풍경과 꼿꼿한 자태를 관상하게 한 것일 뿐이겠는가. 강습하는 틈틈이 심신이 피곤하여 뜰을 산보할 때 손으로 푸른 가지를 만지면서 세찬 바람도 흔들지 못하고 거친 눈보라도 꺾지 못하며, 온갖 초목이 다 쓸쓸히 쇠락하여도 이 대나무는 여전히 푸르게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네. 이에 생각하기를, ‘대나무는 한갓 식물인데도 눈보라를 이기고 꿋꿋이 서 있는데 하물며 사람이겠는가.’ 하고, 자신을 반성하며 뜻을 세우고 더욱 견고하게 연마하여 변하지 않게 된다네. 훗날 어지러운 세상을 만나게 되어 탁한 물결 속의 지주(砥柱)처럼 꿋꿋이 지조를 지켜 세상의 강상(綱常)을 부지하는 것이 이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는 법이 있겠는가. 지금 국가에서 인재 육성을 중하게 여겨 서원을 창건하여 선비들이 학문을 연마하고 있으니, 어찌 다만 과거에 급제하여 이록(利祿)을 탐하는 것일 뿐이겠는가. 내가 식물을 빌려 여러 선비들을 면려하는 것이 바로 나라에서 선비를 기르는 뜻을 저버리지 않으려는 것이라네.” 하였다.

이에 아우가 재배하고 하례하여 말하기를, “대나무여! 대나무여! 참으로 제대로 주인을 만났도다. 혹시라도 이 대나무를 보고서 대바구니를 만들려고 생각하거나 빗자루를 만들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바로 우리 형의 죄인이 될 것이다.” 하고, 드디어 그 이야기를 벽에 써서 걸어, 서원에 거주하는 여러 사람들이 경계로 삼게 하는 바이다. 그 아우는 바로 단곡(丹谷)의 산발인(散髮人)이다. 이 해는 명나라 만력(萬曆) 41년(1613)이다.

徃在乙巳歲五一翁作白雲洞主。種烏竹數叢于講堂庭畔。旣已遽任。繼之者或愛護。而未見其盛也。今年。翁再幹斯任。是夏。竹之滋長。兒孫殆累百莖。高出牆上。與堂簷齊堅姿削玉翠色凝雲寒通講榻陰轉書帷風來而響與泉合。月照而影與松交。章甫之入院門者。神淸氣爽。如入淇園渭濱之間也。吁物之盛衰。固自有數。而翁之所植。經六七載。至于今日。其盛也如此。無乃植物亦有情於感遇邪。於是相與鼎坐于竹林邊。酌數杯以寓幽想。其弟病漢。執勺而前曰。兄之愛竹至矣。抑非有輔於藏修邪。翁曰。然。吾之種竹於斯庭也。豈欲使觀者徒取其猗猗之盛。裊裊之姿而止哉。講習之餘。心疲氣倦。散步庭除。手撫綠竿。衝颸不能撼。虐雪不能摧。千林蕭索。此君依舊。因憮然思之曰。竹植物也。亦有耐疾風排歲寒之節。况於吾人乎。反躬植志。堅礪不移。則他日板蕩之際。屹砥柱於狂瀾。扶綱常於旣壞。未必不自此始也。今國家以育人才爲重。創開書院。藏修羣彦。豈但使拾科第饕利祿而已哉。吾之所以借植物礪諸俊者。願不負朝家之意也。其弟再拜而賀曰。竹乎竹乎。誠遇主矣。其或目及乎此。而思欲爲筐篚。思欲爲篝帚。則誠吾兄之罪人也。遂記其說于壁。以爲居院者之戒。其弟爲誰。丹谷散髮人也。今年實皇明萬曆四十一年。《丹谷先生文集 卷4 記》

원중입의(院中立議)-----雲院雜錄》

서원 뜰의 대나무가 하늘을 찌를 듯이 곧게 자라고 성상(城上)이 잘 보살펴서 매년 새싹이 나오고 있다. 사계절 끝 달에 유사에게 청하여 그 숫자를 계산하되, 그 수가 줄어들게 한 자는 원장에게 고하여 처벌하도록 한다. 연말에 회계하여 또한 그 수효를 기준으로 넘겨주는 것을 규칙으로 한다. 그 수효에 맞게 넘겨주지 못하는 자는 경중에 따라 종아리를 치는 것으로 처벌하고 뒤에 힘든 일을 시킨다. 수직하는 자는 겨울에 추위를 막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말라 죽지 않도록 한다.

一. 서원 유생으로서 몰래 벤 자는 1개라도 영영 손도(損徒)하고, 이 수효를 넘는 자는 그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그 뿌리를 벤 자도 아울러 벌한다.

一. 원속(院屬)으로서 몰래 벤 자는 1개이면 종아리 30대를 치고, 2개이면 종아리 50대를 치고, 뒤에 힘든 일을 시키고, 3개 이상은 종아리 50대에 1년 동안 힘든 일을 시킨다. 원속이 아닌 자는 관아에 고하여 엄중하게 처벌한다.

一.유생으로서 관청에 출입하는 것은 일이 온당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처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다. 지금부터 이를 범하는 자는 그 경중에 따라 처벌한다.

一. 원둔전(院屯田)을 서원 유생이 혹시라도 억눌러 감하는 일이 있거나 수직하는 이가 제멋대로 경작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일이다. 앞으로 이를 범하는 자는 엄중하게 처벌한다.

만력(萬曆) 42년(1614, 광해군 6) 정월 일. 안(安)·안(安)·곽(郭)·권(權)·곽(郭)·황(黃)·황(黃)·황(黃)·황(黃)·곽(郭)·김(金)·김(金)·곽(郭)·곽(郭)·김(金).

院中立議
院庭竹茵干爲直。城上勾察。每年必添挺。四時季月。請于有司。計其數。減其數者。告院長罰之。歲末會計。亦此數以準傳爲規。不能準傳者。從輕重笞罰。後定苦役事。守直者。冬月亦須壅護。勿令致枯。

一.院儒潛刈者。一箇永永損徒。過此者。以此加等事。斲其根者。幷罰之。
一.院屬偸刈者。一箇笞三十。二箇笞五十。後定苦役。三箇以上笞五十。後定苦役一年。非院屬者。告官重治事。
一.儒生出入監官廳。非但事甚非便。處身失所。今後犯此者。隨其輕重。以施責罰事。
一.院屯田。院儒或有抑減。例直擅占畊食。事甚無謂。今後犯此者。重施責罰事。
萬曆四十二年正月日。 安 安 郭 權 郭 黃 黃 黃。 黃 郭 金 金 郭 郭 金 徐 南。

❍ 소수박물관 유물관

題詠詩, 景濂亭 차운 시판, 행 . 초서, 40×59, 立齋 鄭宗魯
정입재(1738~1816)가 서원에 들려 경렴정을 차운한 시판임. 연대 미상의 행 . 초서로 혼용하여 쓴 3수임.

題詠詩, 京濂亭 차운 시판, 초서, 25×51, 完山人 李毅遠, 완산인 이의원
정조 14년(1790)에 중광시에 합격한 바 있는 이 의원이 언제 들려 시를 남긴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정종로의 원운에 차운한 것으로 보임.

題詠詩, 景濂亭 차운 시판, 초서, 창원인 黃龍漢, 창원인 황용한
입재 정종로의 시를 차운한 것으로 보이며, 초서로 게첨이 되어 있는 시임.

景濂亭 편액 (초서, 행서), 48×104/51×118, 주세붕/황기로, 주세붕/황기로
행서(경렴정)와 초서(경렴정)의 이 두 글씨가 원본임.

文聖王影幀室 편액, 해서, 조선말, 39×136
옛날 영정을 봉안했던 장소에 게첨되었던 현판임.

散文類, 記文, 鳳棲樓 重營記, 記板, 고려말, 119×60, 근재 안축, 근재 안축
소수서원 문성공 문우에 배향된 근재 안축 선생이 삼남에서 가정 오래된 누각이던 봉서루를 중건하면서 중영기문을 남긴 것이다. 서원에는 원판으로 추정되는 것과을 유년에 각을 한 판각 두 점이 함께 전해옴.

散文類(記文), 儒道敎育館記, 1992년, 47×173, 달성인 徐丙極, 달성인 徐丙極
소수서원 도감이었던 달성인 서병극이 서원 경내에 건립된 충효교육관에 게첨코자 판각한 것임, 산업화 이래 전통 질서와 도의문화가 무너지고 사라지는 데 대해 선비의 고장 영주가 새로운 세계를 지향하는 정신사의 보루임을 소개한 내용임.

散文類, 記文, 史料館記文, 기판, 해서, 1992년, 48×153, 달성인 徐丙極, 달성인 徐丙極
소수서원 경내에 충효교육관과 사료전시관을 건립하게 된 것은 자손만대 도의문화 진작과 민족정기 계승을 잇는 계기가 될 것임을 천명하며 유도회의 막중한 책무를 토로한 내용임.

公用文, 完文順興, 完文, 해서, 36×112
경상감사 ○○○가 순흥고을의 돈암 서한정을 제향한 구고서원에 내린 완문임. 이미 조정에서 내린 노비와 신역면제 등을 감사가 재확인하고 영구히 함을 기록한 것임.

公用文, 啓下關文, 關文, 해서, 1726년, 45×152, 경상감사, 경상감사
경상도 4개 서원의 훼철에 대한 군정의 논의를 경상감사와 순흥부에 내린 관문임. 당시 훼철령을 따르지 않는 단계 서원 등을 역사가 오래된 서원이니 훼철대상이 아님을 알리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음.

名言 名句, 鳶飛魚躍 2, 편액, 29×98, 회암 주희, 주희
회암 주희의 연비어약을 종서판각한 것임.

其他건물, 興州都護府 편액, 해서, 1413년(추정), 35×160, 傳 공민왕, 傳 공민왕
순흥이 려말 흥주도호부 시절, 홍건적 난리에 몽진 온 공민왕이 부석사 무량수전 현판과 봉서루 누각 현판 글씨를 남긴 것임. “흥주도호부아문”이란 현판이나, 비를 맞아 한쪽 모서리가 삭아 “司”자만 보임.

遺物館 편액, 해서
소수서원이 소장하고 있는 중요 유물을 보관했던 60년대 과거 유물관 현판임.

名言 名句, 學求聖賢 1, 주련, 해서, 28×108, 회암 주희, 회암 주희
회헌 안향 선생이 48세 때 원(元)나라에 가서 공자 영정과 함께 주희암의 글씨 체본을 직접 가져와 판각한 것임.

名言 名句, 學求聖賢 2, 28×108, 회암 주희, 회암 주희
No 44번의 학구성현을 다시 판각한 것임.

名言 名句, 學求聖賢 3, 주련, 해서, 29×106, 회암 주희, 회암 주희
횡서 판각된 원판을 모본으로 종서판각한 주련임.

名言 名句, 鳶飛魚躍 1, 주련, 해서, 122×36, 회암 주희, 주희
회암 주희의 연비어약 주련을 종서 판각한 것임.

2) 남계서원(濫溪書院)[27]

남계서원에 걸린 편판은 풍영루(風咏樓)、준도문(遵道門) · 명성당(明誠堂)、동서재인 보인재(輔仁齋)-영매헌(詠梅軒), 양정재(養正齋)-애련헌(愛蓮軒) 등이 있다. 영매헌과 애련헌은 각각 그 앞에 조성된 방지(方池)와 관련된 명칭이다. 강당 명성당 건물 전면에 걸린 서원 현판이 좌우로 '濫溪', '書院'로 분리되어 걸려 있는 것이 특성이다. 명성당 좌측 방에 '居敬齋', 우측 방에 '集義齋' 현판이 걸려 있다.

기문으로 강당에 걸린 강익의 <濫溪書院記>, 풍영루에 걸린 정환필의 <風詠樓記>, 奇正鎭의 <風詠樓重建記>가 있다. 기문에는 인근의 경치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술하면서, 특히 이 경치를 즐김이 曾點이 風詠하는 즐거움과 같을 것이라고 기술하였다. 풍영루에서 남계서원 앞에 전개된 경치를 바라보는 감회는 一蠹가 지리산 유람을 다녀오며 지은 頭流詩와도 그 기상이 통한다.

❍ 서원현판

濫溪書院, 사액현판
남계서원 현판은 남계와 서원이 두 개의 현판으로 나뉘어 좌우로 걸려 있다. 濫溪란 서원 앞을 흐르는 시내 이름이다. 濫은 '물 맑을' 남이지만, 물이 넘친다는 '濫'과도 통한다.

濫溪書院, 1566년(명종21) 7월 사액, 사액현판
남계서원 현판은 남계와 서원이 두 개의 현판으로 나뉘어 걸려 있다. 강당이 사당-명성당-풍영루 축선에서 서쪽으로 치우쳐 있다. 강당 대청이 두 칸이므로 강당의 중앙

27) 이 자료는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에서 실시한 학술대회에서 경상대 김덕현 지리학과 교수가 조사하여 보고한 내용을 수록한 것이다.

에 서원 현판을 나누어 걸면서 瀛溪 현판을 축선과 일치시키는 방식을 추구한 결과로 보인다.

❍ 강당

明誠堂, 1564년(명종19), 姜翼, 梅菴 조식
강당 이름이다. 서원 창립을 주도한 姜翼이 찬술한 書院記에 의하면, 명성이란 중용의 明則誠의 뜻을 취한 것이라 하였다.『中庸』, 第21章 1절에는 "참됨으로 말미암아 밝아지는 것을 성품이라 하고 밝힘으로써 참된 것을 가르침이라 하니 참되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참된 것이다.(自誠明, 謂之性; 自明誠, 謂之敎. 誠則明矣, 明則誠矣)"하였다.

瀛溪書院記, 1561년(신유년), 姜翼
남계서원 설립을 주도한 강익이 정여창을 모시는 서원을 건립하게 된 동기, 서원의 규모, 강당과 재실의 命名, 그리고 죽계서원 다음으로 세운 남계서원에 거처하는 선비들에 대한 기대를 기록하였다.

院規, 癸丑 四月 重刊
院生이 독서할 서책과 서원 생활 규칙 및 예절을 열거하고 있다.

居敬齋, 梅菴 조식
강당의 동쪽 협실이다. 姜翼의 書院記에 의하면, 居敬이란 程子의 '居敬窮理'에서 뜻을 취한 것이라 하였다. '居敬窮理'는『朱子語類』卷9 學3 論之下에 나온다. 즉, "학자의 공부는 오직 거경과 궁리 두 글자에 있으니 이 두 가지 일은 서로 계발한다. 능히 리를 궁구하면 거경의 공부가 점점 나아지고 능히 거경하면 궁리의 공부가 날로 더욱 정밀해진다.(學者工夫，唯在居敬、窮理二事 此二事互相發 能窮理，則居敬工夫日益進；能居敬，則窮理工夫日益密)" 하였다.

集義齋, 姜翼, 梅菴 조식
강당의 서쪽 협실이다. 姜翼의 書院記에 의하면, 集義란『孟子』의 '集義所生'에서 뜻을 취한 것이라 하였다. 즉 浩然之氣는 道와 짝이 되는 義를 축적해서 생기는 것이지 갑자기 엄습하듯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한 말에서 나왔다.

❍ 동서재

養正齋, 姜翼, 梅菴 조식
남계서원 동재이다. 姜翼의 書院記에 '蒙以養正'에서 뜻을 취한 것이라 한다.『周易』蒙卦 彖辭에 보면, "교육함으로써 사람을 바르게 기르는 것은 성인의 공덕이다.(蒙以養正, 聖功也)"하였다.

詠梅軒, 姜翼, 梅菴 조식
姜翼의 書院記에 동재인 養正齋에 딸린 마루를 詠梅軒이라 하였다.

輔仁齋, 姜翼, 梅菴 조식
西齋의 이름이다. 姜翼의 書院記에 '以友輔仁'의 뜻을 취한 것이다 하였다. -『論語』, 顔然 편에 "군자는 글로써 벗을 사귀고, 벗으로써 인을 돕는다."(曾子曰, '君子以文會友, 以友輔仁)라 하였다.

愛蓮軒, 姜翼, 梅菴 조식
남계서원 동재인 보인재에 딸린 마루이다. 앞에는 방지가 있어 愛蓮軒이라 이름하였다. 주염계의 愛蓮說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 문루

遵道門, 姜翼, 梅菴 조식
남계서원 문루 이름은 풍영루이고, 문루 내측에 '遵道門'이란 현판이 걸려 있다. 정환필의 '風詠樓記'에는 "遵道란 이로 말미암아 행하면 도가 여기에 있다.(遵道者由是而行道在斯焉)"라는 뜻으로 풀이했다. '遵道'는 中庸 10장에 나오는데,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알아주는 이가 없어도 도를 좇아 행한다.(君子遵道而行)' 하였다.

風詠樓, 1841(辛丑), 鄭煥弼
창립 당시부터 있던 준도문 위에 올린 다락집이다. 정환필은 風詠樓記에, 그 의미를 "두류산의 만첩 봉우리와 花林川의 아홉구비의 흐름에서 거의 선생의 風標를 보고 선생의 기상을 우러러 볼 수 있음이니, 흡사 선생이 계신 자리에 뫼시고 서서 曾點이 쟁그렁하고 비파를 밀쳐놓던 뜻이 있는 듯 한 까닭으로 말미암아서 風詠樓라 이름하였다." 고 설명하였다. 풍영이란 말은『논어』先進 편에 나오는 曾點의 "風乎舞雩詠而歸"에서 유래한 것이다.
風詠樓記(정환필 찬), 1849년(헌종15년 기유), 鄭煥弼
풍영루를 낙성하면서, 쓴 기문이다. 남계서원의 건립 연혁을 기술하고, 후대에 이르러 풍영루를 건립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였다. '학문을 강론하고 휴식하는 여가에 심회를 펼칠 곳이 없어서는 안 된다. 선부로들이 꾀했으나 미처 하지 못한지가 벌써 수 백년이 되었다. 1840년에 여러 사람들이 도와 1841년에 드디어 낙성하였다고 하였다. 아울러 풍영루에 올라 보이는 경치를 읊었는데, 곧 曾點의 詠而歸하는 지취이다.

風詠樓重建記(기정진 찬), 1849년(憲宗15년 기유), 奇正鎭
일두선생의 후손인 鄭煥弼의 요청으로 기정진이 기문을 지었다. 누를 창설하고 그 이름을 風詠이라고 한 것은 '학문을 하면서 긴장하기만 하고 조금도 풀지 않으면 문과 무에도 능하지 못한 것이다. 정신을 펼치고 성정을 휴양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기정진은 기문에 적었다.

風詠樓重建記(민병승 찬), 1940년(庚辰), 閔丙承
풍영루 2층에 걸려 있다. 풍영루가 1840년 창건되었으며, 1847년(丁未) 화재를 입어서 1849년(己酉)에 중건하고, 1937년(丁丑)에 전면 개축한 후 1940년(庚辰)에 민병승이 그 전말을 기록한다는 중건기이다.

3) 옥산서원(玉山書院)

❍ 外三門

亦樂門, 1572년, 129×49, 蘇齋 盧守愼(1515-1590), 石峯 韓濩(1543-1605)
역락문의 이름은 중종때 영의정을 지낸 蘇齋 盧守愼(1515-1590)이 명명하고, 현판 글씨는 石峯 韓濩(1543-1605)가 썼다. 역락문은 『論語』「學而」편에 나오는 "벗이 멀리서 찾아오니,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有朋而自遠方來不亦樂乎)"라는 글에서 취한 것이다. 학문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 출입하는 문이라는 의미이다.

❍ 無邊樓

無邊樓, 1572년, 114×62, 蘇齋 盧守愼(1515-1590), 石峯 韓濩(1543-1605)
이 현판은 누마루 서쪽 벽 가운데 칸 윗부분에 걸려 있다. 韓濩의 글씨이다. 무변루의 본래 명칭은 '納淸樓' 였는데, 노수신이 이언적의 유적으로서는 마땅치 않은 이름이라 하여 바꾸었다. '무변'이란 북송의 유학자 주돈이의 '風月無邊'에서 유래한 것으로, 말 그대로 서원 밖 계곡과 산이 한눈에 들어오게 하여 그 경계를 없애는 곳을 의미한다. 이 편액 좌측에 작은 글씨로 '모자람도 남음도 없고, 끝도 시작도 없다. 빛이여, 맑음이여! 태허에 노닐도다(靡欠靡餘 罔終罔始 光歟霽歟 遊于太虛)'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이것은 소재 노수신(1515~1590)이 나중에 따로 추가한 것으로, 무변루 이름의 의미에 관한 주석 글이다.

玉山書院記, 1573년, 130×44, 草堂 許曄(1517-1580)
이 기문은 무변루 누마루 서쪽 벽 왼쪽(남쪽)칸 윗부분에 걸려 있다. 이 기문은 草堂 許曄이 1573년에 이언적의 문인인 龜峰 權德麟의 부탁을 받고 지었다. 그 내용은 이언적 사후 경주유림들이 공의로 경주부윤과 경상감사에게 서원의 건립을 요청하게 된 本末을 적고 있다. 또한 서원건립을 계기로 경주가 鄒魯之鄕이 되어 국가에 필요한 인재를 배출하기를 바라는 소망도 담겨 있다.

國忌, 200×49
太祖부터 正祖까지 역대 왕과 왕비의 忌日을 적은 것이다.

❍ 玉山書院

求仁堂, 182×84, 盧守愼, 韓濩
옥산서원의 강당인 구인당의 현판으로, 강당 대청 뒷벽의 가운데 윗부분에 걸려 있다. 이 편액은 석봉 한호의 글씨이다. 구인당의 '求仁'은 이언적이 쓴 『求仁錄』에서 따온 것으로 성현의 학문이 오로지 仁을 求하는데 있다는 이언적의 성리학의 핵심사상을 의미한다.

白鹿洞規, 150.5×62
대청 뒷벽 왼쪽(남쪽) 윗부분에 걸려 있다. 주자의 白鹿洞書院 學規를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다. 학규는 五敎之目, 爲學之書, 修身之要, 處事之要, 接物之要의 다섯 조목에 각각의 세목이 있다.

傳敎謄書, 158×62
강당 뒷벽 오른쪽(북쪽) 윗부분에 현판이 걸려 있다. 1676년(숙종 2) 10월 10일에 숙종이 밤에 신하를 불러 경연을 베푸는 야대(夜對) 때 서원에 내려진 인력들이 흩어져 선비들이 학문에 전념할 수 없음을 염려하는 논의가 있었다. 이에 모든 서원에 특전을 줄 수는 없기에 교화에 정도가 큰 서원에 먼저 조치를 취할 것을 傳敎한 내용을 등서한 것이다. 원래의 전교는 강당 화재때에 영조조의 備望記板, 정조조의 御製祭文板 등과 함께 소실되었다.

御製祭文, 220×95
강당 중앙 윗부분에 현판이 걸려 있다. 정조가 이언적의 학문을 특별히 존숭하여 옥산서원에 내린 치제문이다. 원본은 강당 화재시에 소실되었다. 이언적이 스스로 깨달아 얻은 성리학적 세계와 그의 忠을 기리는 내용을 담아 정조가 지은 제문을 새긴 것이다. 1792년에 정조가 제물과 제문을 보내 致祭한 일과 1839년(헌종 5)에 강당에 불이 난 일, 그리고 중건과 함께 다시 사액을 내린 일에 대한 전말이 적혀 있다.

兩進齋, 110×63, 盧守愼, 韓濩
구인당 내 남쪽방(동방)의 출입문 위에 걸려 있다. 양진재의 '兩進'은 '明(도덕을 밝힌다)'과 '誠(의지를 성실하게 한다)'을 갖추어 전진함을 말하는 것이다. 『중용』에 '명은 선을 밝게 앎이요, 성은 진실하고 망령됨이 없음이니, 천리의 본연이다(誠者眞實無妄之謂 天理之本然也)'라는 뜻이다. 이는 가르치는 이가 明善을 거쳐 誠實함을 이루어야 함을 말한다.

偕立齋, 111×63, 盧守愼, 韓濩
'偕立'은 '敬義偕立', 즉 '경건한 마음가짐과 신의로써 사물에 대처한다'는 뜻에서 취한 것이다. 敬義와 明誠은 성리학의 으뜸이 되는 뜻이다. 程子는 『주역』<전>에서 "군자는 경을 주장해 안을 곧게 하고, 의를 지켜 밖을 방정하게 해서, 경과 의를 확립하면 덕이 성해진다(君子敬以直內 義以方外 敬義立而德不孤)"고 하였다.

玉山書院, 1839년, 180×79, 秋史 金正喜(1786-1856)
강당 건물 앞면에 있는 '玉山書院' 편액은 구인당 화재 이후 1839년(헌종 5)에 다시 받은 편액이다. 秋史 金正喜(1786-1856)가 쓴 글이다. 현판의 좌측에 "萬曆甲戌 賜額後二百六十六年 己亥失火改書 宣賜"라 적혀 있다.

玉山書院, 1573년, 240×83, 鵝溪 李山海(1539-1609)
강당 대청 앞면에 있는 '玉山書院' 편액은 1574년(선조 7) 사액 당시의 鵝溪 李山海(1539-1609)의 글씨를 모각한 것이다. 흔히 '舊額'이라 한다. 현판의 좌측면에 '舊額摹揭'라 적혀 있다.

❍ 講修齋

敏求齋, 82×35, 許曄, 裵大維
구인당 앞 마당의 남쪽에 있다. 東齋 혹은 南齋라고도 한다. 민구재의 敏求는 『論語』 「述而」편에 공자가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옛 것을 좋아하여 부지런히 찾아서 배운 사람(好古敏以求之)"이라고 했던 글에서 따온 것이다.

闇修齋, 84×34, 許曄, 裵大維
구인당 앞 마당의 북쪽에 있다. 西齋 혹은 北齋라고도 한다. 암수재의 闇修는 朱子가 스스로의 학문에 대해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나날히 새롭고 밝게 학문을 펼쳐 나간다(闇然自修)"고 한 말에서 취한 것이다.

❍ 體仁廟

體仁廟, 133×92, 盧守愼, 韓濩
구인당 뒤에는 內三門인 體仁門이 있고, 그 뒤 담으로 둘러싸인 공간에 사당인 體仁廟와 典祀廳이 있다. '體仁'은 어질고 착한 일을 실천에 옮긴다는 말로 성리학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다. 이언적의 일생은 자기 완성인 成己를 바탕으로 백성의 완성인 成物을 이루는데 있었다. 성물의 근본이 되는 성기는 仁을 體得함으로써 얻는 것이기에 이언적을 모신 묘우의 이름을 體仁이라 하였다.

❍ 御書閣

經閣, 94×42
원래 御書閣으로 불렸다. 內賜本과 회재수필, 퇴계수필 외에 기타 귀중도서와 각종 서원 문서를 보관하였다.

御書閣, 102×61
원래 經閣을 御書閣이라 했었는데, 1972년 유물전시관인 청분각을 지으면서 어서각 현판도 청분각에 걸게 되었다. 현재는 2010년에 신축한 유물전시관 내 수장고에 보관중이다.

書院書冊不出院門, 庚子(1840 ?) 仲春, 138×86
어서각(경각) 문 위에 걸어둔 현판이었지만, 1972년 청분각을 지으면서 청분각 문루에 옮겨 걸었다. 현재에는 옥산서원유물전시관을 신축하면서 전시관내 수장고에 있다. 이 현판은 "서원의 책을 서원문밖으로 내지 않는다"는 원규 중 하나를 적어 놓은 것이다. 일찍이 퇴계 이황이 정해서 서원의 책을 보존했고, 이후 300년이 지나 정조 또한 이 일을 가상히 여긴다는 綸音이 있었다. 이에 사림들이 이를 기억하기 위해 일의 전말을 기록해서 걸었다.

❍ 神道碑閣

碑閣, 100×63
사당 담 밖 북쪽으로는 碑閣이 있으며, 비각 내에 神道碑가 있다. 이 신도비는 1577년(선조 10)에 회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후학들이 뜻을 모아 건립하였다. 奇大升이 신도비문을 지었고, 1577년에 李山海가 글을 썼다. 이언적의 신도비는 이후 1586년에 기대승의 신도비명을 良洞 출신의 孫曄이 다시 쓰서 포항에 있는 회재의 묘소 앞에 건립되었다.

❍ 藏板閣

文集板閣, 188×51
서원 영역 남쪽에 문집판각이 있다.『회재집』판목을 비롯한 서원에서 출간한 서적의 판목을 보관하고 있었다. 현재 신축한 유물전시관내 수장고에 판목을 보관하고 있다.

❍ 遺物展示館

淸芬閣, 102×61
1972년에 건립된 서원 영역 남쪽에 위치한 유물 전시관이다. 2010년 옥산서원유물전시관이 신축되면서 청분각은 허물어지고 현판은 전시관내 수장고에 있다. 淸芬은 깨끗하고 맑은 향기이니 상대방의 인품이나 덕행을 칭송하는 말이다. 서고를 '청분'이라 명명한 것은 책이 머금고 있는 단아한 향기를 표현한 것이다.

❍ 其他

洗心門, 55×17.5
碑閣과 옥산서원 앞 계류의 洗心臺로 이어지는 통로의 문 위에 걸려 있다. 문명은 세심대로 통하는 문이란 뜻이다.

독락당 현판

구분	명칭	찬자	서자	크기(가로×세로)	연대
獨樂堂(사랑채)	玉山精舍	·	李滉	154×48.5	1570년 이전
	獨樂堂	·	李山海	126.5×57.2	?
	玉山精舍記	南公轍	·	166×66.7	1802
御書閣(장서각)	御書閣	朴慶新	·	135×51	1618
	書冊不出門外	朴慶新	·	113×29.5	1618
溪亭(정자)	溪亭	·	韓濩	82×48	·
	養眞菴	·	李滉	142×58	·
	仁智軒	·	韓濩	62×32	·
敬淸齋(행랑채)	敬淸齋	·	鄭壽岩	×	·
亦樂齋(안사랑채)	亦樂齋	·	韓濩	50×19	·

❍ 獨樂堂

玉山精舍, 1570년 이전, 154×48.5, 退溪 李滉(1501-1570)
독락당 정면 처마 아래의 '玉山精舍' 현판은 退溪 李滉의 글씨이다. 옥산정사는 독락당 건물 마당 둘레의 담으로 형성된 마당과 함께 극히 개인적이고 숨겨져 있는듯하면서도 자연속에 스며들어간 듯 땅에 낮게 깔려 자연과 함께 하는 배치와 구성을 하고 있어서, 선비가 계곡에 묻혀 학문을 하며 은자의 생활을 한 精舍의 면모를 잘 보여준다. 이에 紫玉山 자락에 있는 精舍라는 의미로 '玉山精舍'라 명명하였다.

獨樂堂, 126.5×57.2, 鵝溪 李山海(1539-1609)
독락당은 이언적이 1532년 관직을 그만두고 돌아와 6년간 성리학 연구에 전념하였던 서재 겸 사랑채였다. '獨樂堂'은 말 그대로 '홀로 즐겁다는 뜻이다'. 송나라 司馬光이 왕안석의 개혁정치를 거부하고 낙향하여 향촌에 '獨樂園'을 경영하고 은거생활에 들어갔던 것에서 유래한다. '독락당' 현판은 鵝溪 李山海의 글씨이다.

玉山精舍記, 1802년 8월 下澣, 166×66.7, 金陵 南公轍(1760-1840)
대청내 서쪽면 우측 상단에 기문이 걸려 있다. 이 기문은 1802년 8월 下澣에 경상도 관찰사 南公轍이 경주일대를 순회하던 중 독락당을 들렀다가 후손들의 청으로 지은 글이다. 독락당의 정취에 대하여 적고 있다.

❍ 御書閣

御書閣, 1618년, 135×51, 朴慶新
마당을 중심으로 서쪽에 위치해 있다. 이언적의 서자 李全仁이 1554년 안채를 중수하고, 御書閣과 사당을 건립하였다. 어서각에는 이언적의 手筆稿本과 생전에 사용하던 유품·서적, 인종이 세자시절 안동부사로 나아간 스승 회재에게 멀리 떨어진 아쉬움을 표현한 친필 서찰 등을 보관하고 있다.

書冊不出門外, 1618년, 113×29.5, 朴慶新
어서각내 어서각 현판 아래에 걸려 있다. 이언적의 서자 李全仁이 1554년 御書閣을 건립하였다. 이후 회재가 사용하였던 서적과 수필고본 및 인종의 세자시절 친필 서찰을 보관하여 왔다. 그러나 회재 사후에 회재의 서적 보관을 둘러싼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이에 회재의 옥산파 후손들은 경상도 관찰사, 즉 공권력을 빌어 어서각내의 문적 유출을 영구히 막음으로써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 내지 높이는 한편,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이에 관찰사의 어서각 서책의 반출을 금한다는 명을 편액에 새겨 걸어 놓은 것이다.

❍ 溪亭

溪亭, 82×48, 石峯 韓濩(1543-1605)
마당을 중심으로 동쪽에 계정이 있다. 마루 남쪽 벽면 위에 현판이 걸려 있다. 계정은 동쪽 마루가 계정이고, 북쪽은 창고와 방 2개인데 서쪽 방은 양진암이고, 동쪽 방이 인지헌이다. 이언적은 1532년 낙향한 이후 안채와 사랑채인 독락당을 지었고, 1533년 선친 李蕃이 지었던 亦樂齋를 개수하여 '溪亭'으로 이름을 고쳤다. 지금의 건물은 1629년 경 소실된 것을 1650년에 다시 지은 것이다. '계정'이란 현판은 韓濩의 글씨이다.

養眞菴, 142×58, 退溪 李滉(1501-1570)
지금의 溪亭, 양진암과 仁智軒 자리는 1515년 초려삼간이 있던 자리이다. 안채를 지금의 자리로 확장 신축하고 양진암을 들인 것은 평소 회재와 이곳에서 수학하며 공양하던 정혜사 주지 상재가 떠나지 않고 회재를 시중하니, 회재는 상재의 도움으로 초려삼간을 헐어 계정에 방 한 칸을 들여 머물게 하였고, 그 방을 '養眞菴'이라 하였다. '양진'이란 유가와 불가의 진리 속의 양진을 뜻한다. 또한 유학자의 공부방인 '齋'가 아닌 불가의 암자와 같은 '菴'을 사용함으로써 승려가 편안히 머물 수 있도록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양진암'이란 현판은 退溪의 글씨이다.

仁智軒, 62×32, 石峯 韓濩(1543-1605)
양진암 옆 계정 마루와 연결된 방이다. 인지헌은『論語』에 "어진 자는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한다(仁者樂山 智者樂水)"라는 말을 계정 경관에 부합되게 한 의미로 회재가 1550년에 지은『求仁錄』에 仁을 구하는 방법인 仁道之天에도 부합된다.

❍ 敬淸齋

敬淸齋, 德峰 鄭壽岩
경청재는 숨방채라고도 불리었다. 행랑채로 사용되는 건물로 대문의 정면에 있다. 현판은 방문 위에 걸려 있다. 이 건물은 1601년 3월 12일에 회재의 서손자 李浚, 李淳 형제가 옥산별업을 奉守하기 위하여 和議文을 작성하면서 세운 것이다. 회재는 1538년 3월에 淸白吏에 加資 되었는데, 청백은 恭敬之心에서 나온다 하여 후손들이 이 건물을 敬淸齋라 이름 하였다. 1900년 이후 머슴들이 사용하기도 하였다.

기타 현판·기문

❍ 용추

龍湫, 退溪 李滉(1501-1570)
霞溪 李家淳이 설정한 玉山九曲 중 제2곡은 '龍湫'이다. 용추는 상·하 2개가 있는데 상용추는 세심대 아래에 있으며, 서원마을 입구에 하용추가 있다. 이가순이 설정한 제2곡은 하용추를 일컫는다. 세심대 부근의 상용추에는 퇴계 이황이 쓴 '龍湫'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다만, 세심대 근처에 있기에 상용추는 하나의 굽이로 설정되지 못하였다.

❍ 세심대

洗心臺, 退溪 李滉(1501-1570)
옥산구곡 중 제3곡은 '세심대'이다. 옥산서원과 서원 앞을 흐르는 옥산천 사이에 너럭바위가 층을 이루며 넓게 자리하고 있는데, 그 중간 지점에 퇴계 이황이 쓴 '洗心臺'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세심대는 회재가 명명한 四山五臺 중 하나로서 맑은 시냇물의 굽이와 넓은 바위를 보면서 시속의 티끌을 깨끗이 씻을 수 있었기에 이를 염두해 두고서 너럭바위를 '세심대'라 이름 하였다.

❍ 독락당

李安訥 詩板, 1770년, 74×44, 李瀰
독락당 대청에는 걸려있는 시판으로 東岳 李安訥의 溪亭 板上韻을 그의 오대손인 李瀰가 1770년에 차운한 것이다.

尹斗壽 詩板, 37×50, 梧陰 尹斗壽
독락당 대청에 걸려있는 편액 가운데 하나로 梧陰 尹斗壽의 옥산서원 板上韻이다.

朴素立 詩板, 1576년, 192×47, 朴素立
독락당 대청에 걸려있는 편액 가운데 하나이다. 蘇齋 盧守愼의 獨樂堂 十四詠을 차운한 시판으로 1576년 관찰사 朴素立이 찬하였다.

朴啓賢 詩板, 1568년, 173×43, 近思齋 朴啓賢
독락당 대청에 걸려있는 편액 가운데 하나이다. 近思齋 朴啓賢이 1568년 紫溪十六詠을 題詩하고 그 후 附하여 懸板한 것이다.

完文, 甲寅, 152×65
독락당의 선조묘 수호에 잡역을 면제해 준다는 완문

國忌板, 190×53
독락당 대청에 걸려있는 편액 가운데 하나인 國忌板이다.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후의 기일이 기록되어 있다.

尹致謙 詩板, 46×31, 尹致謙
독락당 대청에 걸려있는 편액 가운데 하나로 윤두수의 후손인 尹致謙이 차운한 시판이다.

權泰一 詩板, 癸丑(1613), 46×35, 藏谷 權泰一
독락당 대청에 걸려있는 시판으로 藏谷 權泰一의 獨樂堂韻을 揭板한 것이다.

沈東龜 詩板, 1636년, 82×28, 沈公俊
독락당 대청에 걸려있는 편액 가운데 하나인 晴峯 沈東龜의 시판이다. 1636년 심동귀의 5대손인 沈公俊이 揭板한 것이다.

尹仁涵 詩板, 庚寅(1590), 51×36, 尹仁涵
독락당 대청에 걸려있는 시판 가운데 하나로 府尹 尹仁涵이 溪亭을 차운한 것이다.

尹得雨 詩板, 癸巳, 49×35, 尹得雨
독락당의 대청에 걸려있는 시판으로 府尹 尹得雨가 자신의 6대 선조인 尹斗壽의 옥산서원 판상운을 차운한 시판이다.

尹匡烈 詩板, 48×33, 尹匡烈
독락당 대청에 걸려있는 시판으로 尹斗壽의 8대손인 尹匡烈이 윤두수의 판상운을 차운한 시판이다.

李重協 詩板, 丙申(1716), 64×43, 李重協
독락당 대청에 걸려있는 편액 가운데 하나이다. 丙申年에 작성된 李重協의 시판이다.

李慶山 洛城送 詩板, 己亥, 134×38, 李慶山
독락당 대청에 걸려있는 李慶山의 시판이다. 還鄕이라는 이 시판은 五峯 李好閔과 西厓 柳成龍의 시를 次韻한 것이다.

權泰一 詩板, 1793, 66×34.5, 李益運
독락당 대청에 걸려있는 시판으로 이익운의 獨樂堂韻을 게판 한 것이다.

李安訥 詩板, 1614, 107×39, 東岳 李安訥
독락당 대청에 걸려있는 시판으로 동악 이안눌(東岳 李安訥)이 독락당에서 오봉 이호민의 운을 차운하여 1614년 구암공 이준에게 보낸 시를 갈판(揭板)한 것이다.

盧守愼 詩板, 1574, 153×53.5, 蘇齋 盧守愼
독락당 대청에 걸려있는 편액 가운데 하나로 蘇齋 盧守愼의 獨樂堂 十四詠 시판이다.

❍ 계정

李彦迪 詩板, 77×36, 晦齋 李彦迪
계정에 걸려있는 李彦迪의 澄心臺卽景 시판이다.

趙絅 詩板, 1629년, 73×35, 龍州 趙絅
계정에 걸려있는 龍州 趙絅의 시판이다.

李陽鼎 詩板, 1781, 61×37, 李養鼎
계정에 걸려있는 李養鼎의 시판이다.

李殷敬 詩板, 1768년, 101×39, 李殷敬
계정에 걸려있는 시판으로 東岳 李安訥의 시를 차운한 것이다.

趙明鼎 詩板, 89×40, 趙明鼎
계정에 걸린 趙明鼎의 시판으로 그의 시와 함께 趙明謙, 趙明澤의 시가 차운되어 있다.

金陽淳 詩板, 癸巳年, 88×36, 金陽淳
계정에 걸려있는 시판으로 玉山溪亭 시가 차운되어 있다.

吳翻詩板, 숭정 신미(1631), 58×38, 吳翻

穉 詩板, 甲寅年(1614), 48×38, 李穉
계정에 걸려있는 이욱(李穉)의 시판이다.

趙基復詩板, 戊戌年, 55×26, 趙基復

李安訥 詩板, 만력 갑인(1614), 132×38, 李安訥
계정에 걸려있는 東岳 李安訥의 시판이다.

漁得江 詩板, 68×35, 漁得江
계정에 걸려있는 灌圃堂 漁得江의 시판이다.

4) 도산서원(陶山書院)

❍ 사우

陶山書院 尙德祠, 16세기, 70.0 × 169.5
도산서원 사우 편액으로, '상덕'은『논어』「헌문(憲問)」편에 "군자로다, 이 같은 사람이여! 덕을 숭상하도다, 이 같은 사람이여![子曰 君子哉 若人 尙德哉 若人]"라고 한데서 인용한 것으로, 퇴계의 학덕을 숭상한다는 의미이다.

❍ 서당

陶山書院 陶山書堂, 16세기, 58.5 × 27.8, 퇴계 이황, 퇴계 이황
도산서당의 편액으로, 퇴계가 61세 때 도산서당을 창건하고 직접 글씨를 썼다. '도산'의 명칭에는 성군(聖君)인 순임금과 진나라 도연명의 인품을 흠모한 퇴계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 편안한 기분을 주지만 정통성을 벗어난 상당히 독창적인 글씨다. 기본적으로 안진경체의 웅혼한 기풍을 바탕으로 삼으면서, '산'자를 상형자로 구성하고, '서당' 두 글자에 예서에서나 볼 수 있는 파책을 가미한 점이 이채롭다.

陶山書院 陶山書院, 1575년, 57.5 × 206.3, 한석봉(사액편액)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서원의 편액이다. 퇴계 사후 1574년에 서원이 지어졌고, 이듬해 1575년에 사액된다. 도산서원은 퇴계가 생전에 진리를 강론하던 도산서당 뒤에 세워진 곳으로 여타 서원과는 차별성이 있으며, 퇴계학파의 학문적 중심 역할을 하였다. 글씨는 선조의 명에 의해 당대 명필인 한석봉이 썼으며, '만력 3년(1575) 6월 일에 사액한다'라고 부기되어 있다. 사적 제170호로 지정되었으며, 훼철되지 않은 47개 서원 중의 하나이다.

陶山書院 巖栖軒, 16세기, 29.0 × 54.5, 퇴계 이황, 퇴계 이황
도산서당 건물 안의 마루에 걸린 편액으로, '암서'는 주자의「운곡이십육영(雲谷二十六詠)」의 하나인「회암(晦庵)」의 전구와 결구인 "오래되어도 자신이 없으니, 암혈에 살면서 작은 효험을 바라네.[自信久未能 巖栖冀微效]"에서 인용한 것이다. 주자에 대한 존모의 마음과 현실정치에 참여하기보다 자연에 은거하는 삶을 지향한 정신을 읽을

수 있다. 쓰기보다는 그린 듯한 예서풍의 글씨로 고매한 기풍을 느낄 수 있다. 퇴계 친필이다.

陶山書院 玩樂齋, 16세기, 30.0 × 62.0, 퇴계 이황, 퇴계 이황
도산서당 건물 안에 있는 작은 방의 편액으로 퇴계가 기거하던 곳이다. '완락'은 주자의「명당실기(名堂室記)」에 나오는 "도(道)와 이(理)를 즐기고 완상하여 일생을 마치어도 싫증내지 않으련다.[樂而玩之 足以終吾身而不厭]"고 한 것에서 인용하였다. 납작한 것이 예서의 틀을 본뜬 해서이다.

❍ 강당

陶山書院 典敎堂, 16세기, 76.1 × 208.8
도산서원 정당(正堂) 편액으로, '전교'는 오전(五典)을 가르친다는 것인데 인륜을 밝힌다는 뜻이다.

陶山書院 閑存齋, 16세기, 57.1 × 147.1
도산서원 정당의 서쪽 협실의 편액으로, '한존'은『주역』「건괘, 문언전」의 "사악함을 막고 그 성실함[誠]을 보존한다.[閑邪存其誠]"는 것에서 인용하였다. 사악함을 막으면 자연히 성실함이 보존되는 것으로, 이는 경(敬) 공부의 방도이며, 퇴계철학의 핵심요소이다.

陶山書院 夙興夜寐箴, 37.0 × 61.5, 남당(南塘) 진백(陳柏)
도산서원 정당 오른쪽 벽에 걸린 현판으로, '숙흥야매잠'은 '새벽 일찍 일어나 밤에 잠들 때까지 자신을 경계하고 정신을 가다듬는 자세'를 논한 글이다. 송(宋)나라 때 남당(南塘) 진백(陳柏)이 지은 글로, 한마디로 공부와 수양에 필요한 지침을 담고 있다. 퇴계의「성학십도」중 제10도가「숙흥야매잠도」이다.

陶山書院 四勿箴, 37.0 × 81.0, 이천(伊川) 정이(程頤)
도산서원 정당 오른쪽 벽에 걸린 현판으로, '사물잠'은 눈(보는 기능), 귀(듣는 기능), 말(정보나 의사를 표현하는 기능), 움직임(의지나 마음의 표현 기능) 등 네 가지 기능에 대한 경계를 논한 글이다. 북송 때 주돈이의 제자인 정이(程頤)가 지었다.

陶山書院 白鹿洞規, 38.0 × 98.0, 주희(朱熹)
도산서원 정당 오른쪽 벽에 걸린 현판으로, '백록동규'는 남강군(중국 江西省 廬山의 五老峰 아래)에 있던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의 학자들에게 게시하기 위해 송나라 주자가 지은 학규(學規)이다. 여기에는 오륜(五倫)과 위학지서(爲學之序), 수신지요(修身之要), 처사지요(處事之要), 접물지요(接物之要) 등의 내용들이 적혀 있다. 퇴계의「성학십도」중 제5도가「백록동규도」이다.

陶山書院 國忌(1), 42.0 × 138.0
도산서원 정당 북쪽 벽면에 걸려있는 현판으로, '국기'는 조선시대 역대 임금들의 제삿날을 기록한 것이다. 태조부터 정조까지 역대 왕과 왕비의 기일(忌日)과 능호(陵號), 그리고 왕능이 있는 지명까지 적은 것이다.

陶山書院 國忌(2), 35.5 × 55.5
도산서원 정당 북쪽 벽면에 걸려있는 현판으로, '국기'는 조선시대 역대 임금들의 제삿날을 기록한 것이다. 효의왕후 김씨부터 명성황후 민씨까지 역대 왕과 왕비의 기일(忌日)과 능호(陵號), 그리고 왕능이 있는 지명까지 적은 것이다.

陶山書院 院規, 55.5 × 145.0, 퇴계 이황
도산서원 정당 북쪽 벽면에 걸려있는 현판으로, '원규'는 이산서원(伊山書院)의 교과과정, 공부방법 등을 규정한 서원 규칙으로 '이산원규(伊山院規)'를 가리킨다. 이후 이 원규는 영남지역 서원원규의 모범이 되었다.

陶山書院 肅廟丙辰十月初十日..., 18세기, 34.5 × 75.0
도산서원 정당 북쪽 벽면에 걸려있는 현판으로, 서원을 운영하기 위해 백성들을 뽑아들인 일에 대해 퇴계와 도산서원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그대로 인정해 줄 것을 바라는 내용이다. 이후 공급해 주도록 전교한다는 내용이 부기되어 있다.

陶山書院 忌日, 63.0 × 35.0
도산서원 정당 서쪽에 걸려있는 현판으로, 퇴계선생의 기일과 종향위(從享位) 월천(月川) 조목(趙穆)의 기일이 적혀있다. 퇴계선생은 12월 8일이고 월천은 10월 29일이다.

陶山書院 享祀時獻官執事, 40.5 × 131.2
도산서원 정당 북쪽 벽면에 걸려있는 현판으로, 도산서원 향사시 헌관집사 분정판이다. 임진(2012) 8월 18일 추향 때의 분정이 걸려있다.

陶山書院 壬子三月初三日...,, 1792년, 56.0 × 82.0, 정조, 규장각각신 이만수(李晩秀)
도산서원 정당 중앙 들보 위에 걸려있는 현판으로, 1792년(정조 16) 3월 3일에 정조가 전교(傳敎)한 내용이다. 규장각각신 이만수를 도산서원으로 보내 제문을 지어 치제(致祭)하고 시험을 치르게 한다는 내용이다. 퇴계선생 연보부록에는 시험보는 날에 이 내용을 전교당에 간게(刊揭)한다는 글이 첨부되어 있다.

陶山書院 陶山書院遣閣臣致祭文, 1792, 54.0 × 73.0, 정조, 규장각각신 이만수
도산서원 정당 중앙 들보 위에 걸려있는 현판으로, 1792년(정조 16) 3월 24일에 정조대왕이 규장각각신 이만수를 도산서원으로 보내 치제(致祭)한 제문이다. 글씨는 정조대왕의 전교를 받들어 각신 이만수가 썼다.

❍ 동서재

陶山書院 博約齋(동), 16세기, 53.5 × 141.5
도산서원 동재(東齋) 편액으로, '박약'은『논어』「자한(子罕)」편에 "안연이 크게 탄식하며 말하기를 '부자께서 차근차근히 사람을 잘 이끄시어 문(文)으로써 나의 지식을 넓혀주시고 예(禮)로써 나의 행동을 요약하게 해 주셨다.[顔淵喟然歎曰 夫子循循然善誘人 博我以文 約我以禮]'"고 한 구절에서 인용하였다. 강하면서 아름답고 묵직한 해서체이다.

陶山書院 弘毅齋(서), 16세기, 58.0 × 148.0
도산서원 서재(西齋) 편액으로, '홍의'는『논어』「태백(泰伯)」편에 "증자가 말하기를, '선비는 도량이 넓고 뜻이 굳세지 않으면 안 되니, 책임이 무겁고 길이 멀기 때문이다.'[曾子曰 士不可以不弘毅 任重而道遠]"라고 한 데서 인용하였다. 강약이 어우러져 있는 해서로 한석봉의 편액서에서 보여주는 기풍이 엿보이는 글씨로, 대단히 활달하면서도 숙달된 필치를 보여주고 있다.

❍ 기숙사

陶山書院 隴雲精舍, 16세기, 58.0 × 28.0, 퇴계 이황, 퇴계 이황
도산서당의 유생들이 기숙하던 곳의 편액이다. '농운'은 양나라 은사(隱士) 도홍경(陶弘景)의 "산중에 무엇이 있는가? 언덕 위엔 흰 구름이 많지. 다만 내 스스로 기뻐할 뿐, 가져다 그대에게 줄 수는 없네.[山中何所有 隴上多白雲 只可自怡悅 不堪持贈君]"라는 시에서 인용한 것으로, 현실의 이욕을 멀리하고 자연을 벗하며 학문에 침잠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퇴계 친필이다.

陶山書院 觀瀾軒, 16세기, 25.3 × 56.7, 퇴계 이황, 퇴계 이황
유생들의 기숙사인 농운정사 서쪽 마루에 걸려있는 편액으로, '관란'은『맹자』「진심(盡心)」상(上)에 "물을 보는 데는 방법이 있으니 반드시 그 물결을 보아야 한다.[觀水有術 必觀其瀾]"고 한 데서 인용하였다. 이는 물결이 세찬 물은 그 원천(源泉)이 깊듯이 성인(聖人)의 학문도 그 근원이 깊음을 말한 것이다. 전서, 예서, 해서의 서풍이 어우러져 상당히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편안한 글씨이다.

❍ 외삼문

陶山書院 進道門, 76.0 × 209.0
도산서원으로 들어가는 문의 편액으로, '진도'는 도에 나아간다는 뜻이다. 주자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것이 '도'라고 하였다. 도는 사람이 가야할 길이며 서원에서 공부하는 유생들은 이 길을 가야 한다. 그러므로 서원 교문에 '진도'라는 편액을 걸어놓았다. 강하면서도 날카로운 해서이다.

❍ 장서루

陶山書院 光明室(동), 48.2 × 108.3, 퇴계 이황, 퇴계 이황
도산서원 동쪽 장서고(藏書庫)의 편액으로, '광명'은 주자의「장서각서주자호명(藏書閣書厨字號銘)」의 "나에게 광명을 준다[惠我光明]"는 데서 인용한 말이다. 퇴계는 역동서원이 건립되자 서고를 '광명실'이라 이름하고 친히 글씨를 썼는데, 후에 도산서원이 설립되자 역동서원의 '광명실' 글씨를 모각하여 도산서원에 게시하였다.

陶山書院 光明室(서), 46.5 × 106.2, 퇴계 이황, 퇴계 이황
도산서원 서쪽 장서고(藏書庫)의 편액으로, '광명'은 주자의「장서각서주자호명(藏書閣書厨字號銘)」의 "나에게 광명을 준다[惠我光明]"는 데서 인용한 말이다. 퇴계는 역동서원이 건립되자 서고를 '광명실'이라 이름하고 친히 글씨를 썼는데, 후에 도산서원이 설립되자 역동서원의 '광명실' 글씨를 모각하여 도산서원에 게시하였다.

陶山書院 眞城李東俊公功績記, 21세기(2012), 37.0 × 107.0, 유성종(劉成鍾), 문재구(文在球)
도산서원 서쪽 광명실 건물의 뒤쪽 벽면에 걸린 현판이다. 퇴계학의 창달을 위해 퇴계학연구원을 창립하고 국제퇴계학회를 결성하는 등 퇴계학 현창에 지대한 공을 세운 퇴계의 15대 후손인 춘곡(春谷) 이동준(李東俊)의 공적을 기록한 기문이다.

陶山書院 李主簿公事蹟, 19세기(1848), 35.5 × 96.5, 고계(古溪) 이휘녕(李彙寧)
도산서원 동쪽 광명실 건물의 뒤쪽 벽면에 걸려있는 현판이다. 임진왜란 때 도산서원의 서적과 퇴계선생의 위패를 안전하게 보관한 영천이씨 농암 이현보의 증손인 지산(芝山) 이운(李芸, 1568~1638)의 사적을 기록한 글이다. 원래 1678년에 만든 구판이 있었으나 세월이 지나 닳고 흐려져서 이휘녕에게 새로 지어서 게판하도록 한 것이다. 도산서원에서는 그의 고마움을 잊지 않기 위해 지금까지 매년 기일에 약간의 제수물품을 보내주고 있다.

❍ 서재

陶山書院 亦樂書齋, 42.0 × 120
죽헌(竹軒) 정두(鄭枓, 1508-1576)가 도산서당에 수학하는 아들 지헌(芝軒) 정사성(鄭士誠, 1545-1607))과 매창(梅窓) 정사신(鄭士信, 1558-1619)을 위해 지은 건물의 편액이다. '역락'은『논어』「학이」편의 "벗이 먼 곳으로부터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라는 구절에서 인용한 것이다. 힘이 강하면서 우아함과 멋스러움을 함께 한 해서체이다.

陶山書院 時習齋, 16세기, 24.7 × 57.3, 퇴계 이황, 퇴계 이황
유생들의 기숙사인 농운정사 동쪽 방에 걸려있는 편액으로, '시습'은『논어』「학이」편의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學而時習之 不亦說乎]"에서 인용한

것이다. 학문에 부지런히 매진하라는 의미이다. 퇴계의 친필이다.

❍ 유물전시관

陶山書院 玉振閣, 20세기, 80.5 × 177.0, 연민(淵民) 이가원(李家源), 연민 이가원 도산서원 유물전시관 입구에 걸려 있는 편액으로, '옥진'은『맹자』「만장(萬章)」하(下)의 "집대성이란 것은 금속 소리로 시작하고 옥의 소리로 거둔다.[集大成也者 金聲而玉振之也]"고 한 데서 인용하였다. 이는 원래 처음과 끝을 두루 갖춘 공자의 성덕(聖德)을 음악에 비유하여 찬양한 말인데, 여기서는 퇴계가 추구했던 학문을 높여서 표현한 것이라고 하겠다.

기타

❍ 천연대(天淵臺) :『시경』大雅 旱麓(한록)편에 "鳶飛戾天이어늘 魚躍于淵이로다 豈弟君子여 遐不作人이리오(솔개는 날아 하늘에 이르거늘 물고기는 못에서 뛰도다. 즐거운 군자여, 어찌 사람을 진작시키지 아니하리오)"에서 취한 이름.『중용』제12장에서는 "鳶飛戾天이어늘 魚躍于淵이라"를 "言其上下察也(그 위와 아래에 드러남을 말함이니라)"고 해석한다.

❍ 운영대(雲影臺) : 주자의 觀書有感 시에서 취한 이름이다. 참고로 두 편을 소개한다.

半畝方塘一鑑開 반 묘의 네모난 연못이 하나의 거울처럼 열리니
天光雲影共徘徊 하늘빛과 구름그림자가 함께 어른거리네
問渠那得淸如許 묻노니 연못이 어찌 저리 맑을까
爲有源頭活水來 근원이 있어 솟아오르기 때문이라네
昨夜江邊春水生 지난밤 강변에 봄물이 불어나니
蒙衝巨艦一毛輕 큰 배가 터럭처럼 가볍게 움직인다네
向來枉費推移力 접때엔 힘들여 밀려고 했는데
此日中流自在行 오늘은 흐르는 물 가운데 저절로 떠다니네

❍ 절우사(節友社) : 節友社와 관련해 高峯은 이렇게 읊었다.

壇徑栽培一對三 뜨락을 건너서 하나를 심고 셋을 대하노라
竹松梅菊便相參 대나무 소나무 매화 국화가 문득 서로 어울리며
風霜雨露殊榮落 바람과 서리 비와 이슬에 영락이 다르니
造化微機幸自諳 조화의 미묘한 기틀 다행히도 스스로 아는구나.

❍ 정우당(淨友塘) : 淨友는 연꽃의 별칭으로 주돈이(周敦頤)의 愛蓮說애서 나온 말이다. 애련설의 내용 중에 “予獨愛蓮之出於游泥而不染이오 濯淸漣而不妖하며 中通外直하고 不蔓不枝하며 香遠益淸하고 亭亭淨植하니 可遠觀而不可褻翫焉이로다(나는 홀로 연꽃이 진흙에서 나왔으면서도 물들지 않고 맑은 물에 씻기면서도 요염하지 않으며, 속은 비어 있으되 겉은 곧으며 덩굴 벋지 않고 가지 치지 않으며, 향기가 멀수록 더욱 맑고 우뚝이 깨끗하게 서 있어, 멀리서 바라볼 수는 있으나 함부로 갖고 놀 수 없음을 사랑하노라).”

❍ 열정(洌井) : “九五는 井洌寒泉食이로다”(『주역』井卦 九五爻辭)
퇴계 선생의 시에 ‘書堂之南 石井甘洌 千古煙沈 從今勿幕’
도산서당 남쪽에 달고 시린 돌샘 있어 천년안개에 덮였으니 이제부터는 덮지 말라

❍ 몽천(蒙泉)
陶山雜詠[도산잡영] 二十六絶[이십육절] 五言 退溪 李滉[퇴계 이황]

書堂之東[서당지동] : 서당 동쪽에
有泉曰蒙[유천왈몽] : 샘이 있어 몽천이라 한다.
何以體之[하이체지] : 어떻게 본 받으랴
養正之功[양정지공] : 바르게 기르는 공부니라.

山泉卦爲蒙[산천괘위몽] : 산의 샘이 솟는 괘가 몽이 되었으니
厥象吾所服[궐상오소복] : 그 점괘에 나는 복종하는 바이다.
豈敢忘時中[기감망시중] : 어찌 감히 시의를 망각하랴 ?
尤當思果育[우당사과육] : 도리어 마땅히 과행육덕 생각하네.

* 도산서당의 동쪽에 몽천이라는 샘이 있는 데
이 샘을 잘 살펴보면 올바름을 기르는 공을 체득할 수 있다.
<주역>의 山水蒙의 괘상은 위에 산이 있고 아래에 물이있는 형상이다.
지금 도산의 아래에 샘이 있는것이 그것과 꼭 부합하여 내가 그 교육과
관련있는 괘상을 따라서 이곳에서 서당을 열었다.
또한 <주역> 에서는 "교육하여 형통함은 때에 맞추어 시행하는 것이다."라
하였으니 내가 어찌 감히 그 사실을 잊을 수 있겠는가?
하물며 역시 몽괘의 "군자는 과단성 있는 행동으로 덕을 기른다." 라
한말을 더욱 신경써서 생각해야 할 것이다.

蒙泉 : 무지몽매함을 깨우친다는『주역』山水蒙괘에서 취한 뜻으로, 공자는 彖傳에서 “蒙은 山下有險하고 險而止 蒙이라 蒙亨은 以亨行이니 時中也요 匪我求童蒙童蒙求我는 志應也요 初筮告은 以剛中也요 再三瀆瀆則不告은 瀆蒙也일새니 蒙以養正이 聖功也라”하였고, 大象傳에서는 “山下出泉이 蒙이니 君子 以하여 果行하며 育德하나니라” 고 하였다. 무지몽매함을 깨우치는 단계로는 發蒙(초효) 包蒙(이효) 困蒙(사효) 童蒙(오

효) 擊蒙(상효)의 순이다.

5) 필암서원(筆巖書院)

❍ 우동사(祐東祠) : 111×47, 주자서 집자. 필암서원 신실의 명칭으로 중국 송나라 주자[朱熹, 1130-1200]의 글씨를 집자 하였다. 우동사 안에는 북쪽에 하선 김인후, 동쪽에 고암 양자징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우동(祐東)」의 의미는 송시열의 「신도비명」에 「하늘이 우리 동방(東方)을 도와(祐) 하서 김선생을 종생(鍾生)하게 하였다(天祐我東 鍾生河西金先生則殆庶幾焉」의 뜻이다. 편액은 주자(朱字)의 글씨를 안규용(安圭鏞)이 집자하였다.

❍ 경작각(敬藏閣) : 88×46, 정조. 하서 김인후를 문묘에 배향코자 할 때 정조가 내탕금으로 경장각을 세우도록 했으며, 인종이 하사한 묵죽도 판각을 보관한 곳이다. 정조 어필로 전한다.

❍ 진덕재(進德齋) : 141×45, 同春堂 宋浚吉(1606-1672). 필암서원의 동재에 해당하는 진덕재의 편액이다. 동춘당 송준길(同春堂 宋浚吉, 1606-1672)의 글씨로 전한다.

國忌(懸板), 1887년(崇禎기원5정해, 고종 24), 170×33
필암서원 도재인 진덕재에 걸려 있다. 태조에서 철종까지 역대 왕과 왕비의 기일과 능호, 능의 소재지를 기록하고 있다. 끝에는 '崇禎紀元五丁亥九月重修時重建'이라는 연기와 게판 사유를 적고 있다. 27인의 왕과 38인의 왕비가 기록되어 있는데, 추존왕인 원종(元宗, 1580-1619, 인조의 아버지, 선조의 아들), 진종(眞宗, 1719-1728, 영조의 맏아들, 1725년 왕세자 책봉), 익종(翼宗, 1809～1830, 순조의 세자, 1812년 왕세자 책봉)이 포함되어 있다. 연대는 1887년(고종 24) 9월이고 이 무렵에 장성부사 김승집(金承集)의 지원하에 중수를 하게 되는데 이때 그 이전의 것을 보완하여 게판한 것으로 보인다. 김승집의 필암서원중수기(6-20)(1888)는 청절당에 있다.

朱熹尺牘(與彦修少府帖), 61×25, 朱熹
중국 송나라의 주자(朱熹, 1130-1200) 尺牘 '與彦修少府帖'를 새겨 게판한 것이다. 처음에 宋朱熹書라 기록하고 끝에는 仲春六月이라는 표기가 있다. '與彦修少府帖'은 원래 지본(紙本)으로 台北故宮博物院에 소장되어 있다고 한다.

❍ 숭의재(崇義齋) : 146×52, 同春堂 宋浚吉(1606-1672). 필암서원의 서재에 해당하는 숭의재의 편액이다. 동춘당 송준길(同春堂 宋浚吉, 1606-1672)의 글씨로 전한다.

(謁河西書院 次松江使相鄭公(澈)韻), 重峯 趙憲(1544-1592)

필암서원의 서재인 숭의재의 방에 보관되어 있는 重峯 趙憲(1544-1592)의 시판이다. <重峯先生文集> 권1에는 '謁河西書院 次松江使相鄭公(澈)韻'의 제목으로 2수의 시가 있는데, 그 가운데 1수를 판각한 것이다.
謁河西書院 次松江使相鄭公(澈)韻(<重峯先生文集>권1/한국문집총간 a054집-140a쪽)
長城有霞谷 淸絶天下聞 會當登絶頂 一望太行雲 百年安宅欠經營 最愛河西保性情 今到祠前容一拜 春風如舊繞溪亭(현판 시). 重峯

❍ 장판각(藏板閣) : 80×39. 필암서원 목판을 보관하는 장판각의 편액이다. 장판각에는 하서문집목판(초간본 목판 1매, 중간본 목판 258매, 삼간본 목판 391매, 총 650매,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215호)이 보관되어 있다.

❍ 청절당(淸節堂) : 146×54, 同春堂 宋浚吉(1606-1672). 필암서원 강당인 청절당의 편액이다. 동춘당 송준길(同春堂 宋浚吉, 1606-1672)의 글씨로 전한다. 『청절당(淸節堂)』이란 이름은 우암 송시열(宋時烈)이 쓴 하서 선생 신도비문 중 『청풍대절(淸風大節)』이라는 구절에서 인용한 것이다(其明知達識 超乎事物紛糾之表 而深造厚積 進乎精密正大之域 至其**淸風大節**)

筆巖書院, 148×54, 屛溪 尹鳳九(1681-1767)
필암서원 편액이다. 끝에 '壬寅 正月 日 賜額'이라 사액 연기가 표기되어 있다. 액자는 용문양을 조식하였으며 단청을 하였다. 필암서원은 1658년(효종 9) 전라도 유생들의 연명 상소로, 1659년에 '筆巖'이라는 액호가 내려 졌으며, 실제적인 선액은 3년 뒤인 1662년(현종 3, 임인)에 이루어졌다. 병계 윤봉구(屛溪 尹鳳九, 1681-1767)의 글씨로 전한다.

文廟從祀頒敎文, 1796년(정조20) 11.9, 100×41, 藝文提學 具庠(1730~?)
필암서원 주향인 하서 김인후를 문묘에 종사하고 내린 교서를 새겨 게판한 것이다. 김인후에 내린 교서는 3종이 원본(국립광주박물관 소장) 으로 전하는데 1796년(정조 20) 11월 9일 세 번째로 내린 교서(광3892)이다. 정조가 김인후를 문묘에 배향하면서 경향각지의 대소신료들에게 하서의 학식과 덕망을 본받으라는 내용으로 교서를 내린다. 원본의 첫부분 '敎中外大小臣僚耆老軍民閑良人等書' 대신 '文廟從祀頒敎文'이라 하였고, 끝부분 '嘉慶元年十一月初九日'의 연기 표기는 제외하고 판각하였다.

文廟從祀敎書/文廟陞配祝文, 1796년(정조 20) 10. 26., 110×39, 具庠/朴載淳
필암서원 주향인 하서 김인후를 문묘에 종사하고 내린 교서를 새겨 게판한 것이다. 김인후에 내린 교서는 3종이 원본(국립광주박물관 소장)으로 전하는데 1796년(정조 20) 10월 26일 첫 번째로 내린 교서(광3889)이다. 정조는 1796년 9월 17일 성정각(誠正閣)에서 김인후를 동방의 주염계(周濂溪)와 같은 인물이라 하면서 문묘배향을 허락하였고 10월 26일 교서를 내렸다. 원본의 첫부분 '敎贈領議政文正公金麟厚從祀 文廟書' 대신 '文廟從祀敎書'라 하였고, 끝부분 '嘉慶九年十一月初九日'의 연기 표기는

제외하고 판각하였다. 提學 具庠(1730-?)이 지었다.
뒷부분에는 文廟陞配祝文이 있는데, 知製敎 朴載淳(1737-?)이 지은 것이다.

傳敎, 1692년(숙종 17/1710(숙종 36), 101×62
1691년(숙종 17, 신미) 8월 10일에 내린 교서이다. 끝에 '崇禎紀元八十三年庚寅九月下澣刊'의 게판 연기가 표기되어 있다.

白鹿洞學規/附先生讀白鹿洞規詩, 주희, 하서 김인후, 1710(숙종 36), 210×75
주자의 백록동학규를 새겨 놓은 것이다. 백록동학규는 중국 장시성[江西省] 싱쯔현[星子縣] 북쪽의 여산오로봉(廬山五老峯) 밑에 송대에 세운 백록동서원을 주자가 남강군(南康軍)의 지사(知事)가 되었을 때 재흥시켜서 스스로 백록동서원 원장이 되어 유교(儒敎)의 이상 실현에 힘썼는데 그 교육목표와 순서에 대한 것이다. 백록동학규에서는 학문의 목표로 오륜(五倫)의 도를 들고 있으며, 이 오륜의 도를 배우는 순서를 박학, 심문, 신사, 명변, 독행을 들고 있다. 그리고 수신, 처사, 접물의 생활훈련방식까지 체계있게 구성되어 있다.
후반부에는 김인후의 오언고시 '讀白鹿洞規'가 있고, 끝에 '崇禎紀元八十三年庚寅九月下澣刊'의 게판 연기가 표기되어 있다.

頒祭文, 1662(현종 3), 57×35, 예조정랑 윤형
662(현종 3) 2월 16일 국왕이 내린 제문이다. 파견관은 예조정랑 윤형(尹衡)이었다.

(魚允中詩), 1887년(정해), 39×27, 어윤중(魚允中, 1848-1896)
일재(一齋) 어윤중(魚允中, 1848-1896)의 시를 정해년(1887년) 중수 때 게판한 것이다. 어윤중은 1877년 전라우도암행어사로 임명되어 만 9개월간 전라도 일대를 고을마다 샅샅이 돌아다니면서 지방행정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탐관오리들을 징벌하고 돌아와서 파격적인 개혁안을 제안한다. 이 무렵 장성부사 김승집이 필암서원을 중수하는데 관련이 있어 보인다.
當年事經濟 白日忽西沈 痛哭寃無極 誰知千載心 魚允中 丁亥重修時揭板

筆巖書院敬次淸陰族祖韻, 41×35, 金時粲
안동인 김시찬의 시판이다. 선조인 청음 김상헌(淸陰 金尙憲, 1570-1652)의 시를 차운 한 것이다. 청음의 시는 '龜山雜詠' 8수 가운데 '河西先生' 시판(6-8)이 청절당에 있다.

筆巖書院敬次淸陰金先生韻, 51×34, 屛溪 尹鳳九(1681-1767)
병계 윤봉구(屛溪 尹鳳九, 1681-1767)의 시판이다. 청음 김상헌(淸陰 金尙憲, 1570-1652)의 시를 차운 한 것이다. 청음의 시는 '龜山雜詠' 8수 가운데 '河西先生' 시판(6-8)이 청절당에 있다.

筆巖書院謹次曾祖韻, 31×79.5, 金昌翕(1653-1722)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翕, 1653-1722)의 시판이다. 증조인 청음 김상헌(淸陰 金尙

憲, 1570-1652)의 시를 차운 한 것이다. 청음의 시는 '鼇山雜詠' 8수 가운데 '河西先生' 시판(6-8)이 청절당에 있다. 끝에 '崇禎後丁酉'의 연기가 있는데 1657년(효종8)에 해당한다. 확인이 필요하다.

筆巖書院敬次松江先生韻, 32×26, 金鎭玉(1659-1736)
온재(韞齋) 金鎭玉(1659-1736)의 시판이다. 송강 정철(松江 鄭澈, 1536-15932)의 시를 차운 한 것이다. 송강의 시는 '懷河西' 인데 시판(6-17)이 청절당에 있다.

筆巖書院敬西坰柳相公韻/題書院重營廳, 61×29, 金友伋(1574-1643)
추담(秋潭) 김우급(金友伋, 1574-1643) 시판이다. 서경 유근(柳根, 1549-1627)의 시를 차운 한 시 등 2수이다. 서경의 시는 시판(6-14, 6-16)이 청절당에 있다.

(題河西書院), 1617(광해군 9), 70×38, 西坰 柳根(1549-1627)
서경 유근(西坰 柳根, 1549-1627)의 시판이다. 끝에 萬曆 丁巳之仲夏下澣'의 연기가 있다.

(權石洲詩), 51×30, 石洲 權韠(1569-1612)
석주 권필(石洲 權韠, 1569-1612)의 시판이다.

嗟韻河西先生書院 2, 1618(광해군 9), 87×45, 石洲 權韠(1569-1612), 西坰 柳根(1549-1627), 盤桓 洪千璟(1553-1632)
석주 권필(石洲 權韠, 1569-1612)과 서경 유근(西坰 柳根, 1549-1627)의 시판이다. 끝에 '戊午春 洪千璟'의 간지와 인명이 있는데, 무오년인 1618년(광해군 9) 봄에 반환 홍천경(盤桓 洪千璟, 1553-1632)이 석주와 서경의 시를 보고 쓴 것을 게판한 것으로 보인다.

(懷河西/鼇山雜詠 河西先生), 45×24, 松江 鄭澈(1536-1593), 淸陰 金尙憲(1570-1652)
송강 정철(松江 鄭澈, 1536-1593)의 오절구와 청음 김상헌(淸陰 金尙憲, 1570-1652)의 칠언절구 시판이다. 시판에는 제목이 기록되지 않았는데, 문집을 통하여 송강의 시는 '懷河西', 청음의 시는 '鼇山雜詠 贈柳安世赴長城' 8수 가운데 '河西先生;임을 알 수 있다. '鼇山雜詠'은 청음이 장성으로 부임하는 문하생 안세 유시정(安世 柳時定, 1596~1658)에게 장성 경관 8수를 지어준 것이다. 縣裏, 葦嶺, 山城, 丹巖驛, 雙溪樓, 印月寺, 物產과 河西先生 등이다.

(讀河西集), 40×22, 霽峯 高敬命(1533-1592)
제봉 고경명(霽峯 高敬命, 1533-1592)의 시판이다.
高矣河西子 如天不可階 斯人今寂寞 此道已沈埋 寶稿披蘭雪 虛襟磬沐齋 文章方日下 三復有餘懷 霽峯

御製賜祭文, 1786년(정조 10).4.4, 49×30, 左副承旨 朴天行(1730-1791)

1786년(정조 병오) 4월 4일에 임금이 내린 어제사제문이다. 좌부승지 박천행(左副承旨 朴天行, 1730-1791)이 치제관으로 파견되었다.

筆巖書院重修記, 1888년(고종 25) 6월, 149×38, 知府 金升集
1888년(고종25, 上之25年 戊子) 6월에 필암서원을 중수한 기문으로 기축년(1889년) 3월에 게판(己丑揭板)하였다. 1886년(고종 23) 10월 7일 장성부사로 부임(<일성록>)한 김승집(1826~?)이 정해년(1887) 봄에 서원이 낡아서 掌議 宋榮淳 등 원임과 후손들이 신실과 敬藏閣, 淸節堂, 廓然樓 등을 중수하고 기문을 청하자 지은 글이다. 전반부는 중수 경위, 후반부는 하서의 생애와 서원의 내력에 대해서 간략히 기록하였다. 끝에 서원의 소임자들을 기록하였다. 院貳 道伯李憲植, 搢紳有司 地主金升集, 儒林都有司 進士郭璟鍾, 副有司 幼學朴萬升, 本縣都有司 叅奉金義柱, 副有司 進士金琪中, 監董有司 進士金興煥, 幼學金理中, 掌議 宋榮淳, 色掌 奇宇仁. 김승집은 김홍집(1842-1896)의 형이다.

鼓巖先生追配時儒林上言/儀曹回啓 批答, 1786년(정조 10) 2월 28일, 70×39, 金履鉉
필암서원에 김인후의 자제이자 사위인 고암 양자징(鼓巖 梁子徵, 1523-1594)을 추배해달라는 유림들의 상언과 예조(儀曹)의 회계(回啓)에 대하여 1786년(정조 10) 2월 28일 내린 추배윤허 비답(批答)을 기록한 것이다. <조선왕조실록> 기사[정조 21권, 정조10년(1786) 병오 2월 경자(26일)]에서도 확인이 된다.

執事分定記, 甲寅 八月刊, 160×38
필암서원 제향시의 집사 분정기이다. 헌관 3인, 진설, 집례, 대축, 봉향, 봉로, 봉작, 전작, 알자, 찬자, 찬인, 사전, 전향, 장생, 세작, 척기, 관세, 학생 등 20개의 소임을 새겨 놓고 소임자는 제향시마다 종이에 기록하여 붙인다. 갑인년 8월에 게판한 것이다.

院中執綱記, 壬申三月 刊
필암서원 임원 집강기이다. 종이에 써서 붙이고 있다. 임신년 3월에 게판한 것이다.

講修齋(執綱記), 癸亥 五月
필암서원의 강수재(講修齋)의 집강기(執綱記) 이다. 강장, 접유사, 장재유사의 소임이 기록되어 있다. 계해년 5월에 게판하였다. 필암서원에서는 매월 초하루와 보름[朔望] 분향(焚香) 뒤에 강당(講堂)에서 설강(設講)하였다. 이를 강수재라 한 것으로 보인다.

❍ 확연루(廓然樓) : 192×90, 尤庵 宋時烈(1607-1689). 필암서원 문루인 확연루의 편액이다. 우암 송시열(尤庵 宋時烈, 1607-1689)의 글씨로 전한다. 확연루에는 외부와 누각안 등 2개의 '廓然樓' 편액이 있다.

廓然樓, 192×90, 尤庵 宋時烈(1607-1689)
필암서원 문루인 확연루의 편액이다. 우암 송시열(尤庵 宋時烈, 1607-1689)의 글씨로 전한다. 확연루에는 외부와 누각안 등 2개의 '廓然樓' 편액이 있다.

廓然樓記, 1760년(영조 36), 136×46, 苕泉 金時粲
필암서원 문루인 확연루의 중수기문이다. 1760년(영조 36, 崇禎紀元後3庚辰) 2월 안동인 초천 김시찬(苕泉 金時粲)이 지었다. 강당 앞의 문루 이름을 확연으로 명명한 것은 우암이었고, 글씨도 자서 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廓然大公'에서 연유한 명명 유래 등을 기록하였다. '확연'은 '마음이 맑고 깨끗하여 넓게 탁 트이고 공평무사하다'는 의미다. 이는 모든 일에 사심 없이 공평한 성인의 마음을 배우는 군자의 학문하는 태도를 뜻한다. '확연루기(廓然樓記)'는 '확연'이라 이름 지은 연유에 대해 '정자(程子)의 말에 군자의 학문은 확연해 크게 공정하다 했고, 하서 선생은 가슴이 맑고 깨끗하며 확연히 크게 공정하므로 우암 송시열이 특별히 두 글자를 차용했다'고 적고 있다.

筆巖書院廓然樓重建上樑文, 1772년(영조 48).3.20, 93×42, 櫟泉 宋明欽(1705-1768)
필암서원 문루인 확연루 중건 때의 상량문으로 1772년(영조 48, 崇禎紀元 145年 壬申) 3월 20일 역천 송명흠(櫟泉 宋明欽, 1705-1768)이 지었다.
筆巖書院前方塘/口呼於筆巖, 68×35, 自然堂 金時瑞
필암서원 문루인 확연루에 있는 自然堂 金時瑞의 시판이다. '筆巖樓前方塘'은 주자의 '讀書有感' 시를 모방한 듯한데, 필암서원 앞에 방당이 있음을 암시한다.

❍ 계생비(繫牲碑) · 묘정비(廟庭碑) : 진덕재 앞에는 춘추 향사(享事) 때 쓰기 위해 희생(犧牲)을 묶어 놓고 검사하는 『계생비(繫牲碑)』가 있다. 앞면의 「필암서원계생비」는 송재 송일중이 썼다. 이 비는 『묘정비(廟庭碑)』도 겸(兼)하고 있는데 뒷면에 서원의 건립 취지와 연혁 등이 기록되어 있다. 비문은 연재(淵齋) 송병선(宋秉璿)이 찬하고 글씨는 석촌(石村) 윤용구(尹用求)가 썼다.

❍ 원진각(元眞閣) : 필암서원 유물전시관인 원진각의 편액이다.
『원진각(元眞閣)』이라 명칭 한 것은 정조대왕이 감탄했다는 하서 선생의 시 《중니원기자양진》(仲尼元氣紫陽眞)이라는 시구의 '원(元)'자와 '진(眞)'를 차용(借用)하여 명명했다.

水墨世家, 訥人 曹匡振(1772～1840)
필암서원 유물 전시관인 원진각에 있는 訥人 曹匡振(1772～1840)필 현판이다.

元眞閣上樑文
필암서원 유물전시관인 원진각의 편액이다.

❍ 집성관(集成館) : 필암서원 재실인 집성관의 편액이다.

集成館上樑文
필암서원 재실인 집성관의 편액이다.

❍ 마을

筆巖 石刻, 병계 윤봉구
서원의 명칭 유래와 연관이 되는 석각으로 하서 김인후 태생 마을 입구 산 기슭에 있다.

6) 도동서원(道東書院)

❍ 서원현판

도동서원, 17세기 초반, 퇴계 이황
강당 앞면에 걸린 서원 현판이다. 퇴계 이황의 서원 글씨를 집자하여 모각한 것이다. 1568년 지방 유림에서 비슬산 동쪽 기슭에 세워 쌍계서원(雙溪書院)이라고 하였고 1573년 사액되었다.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었다가 1604년 사당을 먼저 지어 위패를 봉안하고 이듬해 강당 등 서원 일곽을 완공했는데 건립을 주도했던 인물이 김굉필의 외증손자이자 뛰어난 예학자 한강 정구와 퇴계 이황이었다. 1605년 사림들이 지금의 자리에 사우를 중건하여 보로동서원(甫勞洞書院)이라고 하였고 1607년 선조로부터 친필로 쓴 도동서원(道東書院)이라는 편액을 하사받아 지금의 도동서원으로 사액되었다. 도동(道東)의 의미는 '성리학의 도가 동쪽으로 왔다'는 의미라고 한다.
도동서원(사액현판), 1607년(선조 40), 慶尙道 都事 裵大維
강당 안쪽 정면에 걸린 서원현판으로 선조 임금의 사액 현판이다.

❍ 강당

中正堂, 18세기 숙종연간, 奉朝賀 李觀徵
사액 현판 도동서원 아래에 걸려 있다. 강당 이름 '中正'의 의미는 주돈이『태극도설』 가운데 "성인은 中 · 正 · 仁· 義로써 온갖 일은 안정시키고 고요함을 위주로 사람의 표준(人極)을 세우셨다.(聖人定以中正仁義, 而主靜, 立人極焉)"에 나타난다. 강당 中正堂과 앞에 있는 居仁齋 居義齋가 中 · 正 · 仁· 義를 표상한다고 볼 수 있다.

傳敎, 書院謄錄 권1
1676년(숙종 2) 10월 10일에 숙종임금이 밤에 신하를 불러 경연을 베푸는 자리(夜對)

에서 서원에 내려진 인력들이 흩어져 선비들이 학문에 전념할 수 없음을 염려하는 논의하면서, 문묘종사 등 공이 큰 현인을 향사하는 서원에는 특전을 주는 것을 허용하도록 한 국왕의 傳敎를 등서한 것이다. 경주 옥산서원 강당에 걸려 있는 傳敎謄書와 같은 내용이다.

정한강수서(書道東書院額板下), 鄭逑, 鄭逑
강당 전면 현판아래 걸려 있는 정구의 글이다. 현재의 장소에 도동서원을 건립한 정구가 국왕이 하사한 판액과 함께 스승인 퇴계의 글씨를 모각한 현판을 강당 안팎에 건 사유를 밝힌 글이다.

示玄風學者, 金安國
강당에 좌측 벽면에 걸려 있다. 경상감사 金安國이 경상도 각읍 학자에게 학문을 장려하는 시를 지어 보냈는데, 현풍의 학자들에게는 현풍 사람인 김굉필의 학문을 세상에서 으뜸으로 추존한다는 내용을 적었다.

도동서원 規目, 숭정후 오무오 6월 중간
강당 뒷면 벽 왼편에 걸려 있다. 도동서원의 학규이다. 다른 서원에 게시된 학규에 비하여 매우 상세하다.

白鹿洞規 學者十訓,
강당 중정당 뒷벽 오른 편에 걸려 있다. 주자의 白鹿洞書院 學規과 학자십훈이 적혀 있다. 백록동규는 五敎之目, 窮理之要, 修身之要, 處事之要, 接物之要을 기록하고, 學者十訓을 추가해서 적어 놓았다.

國忌
강당 중정당 뒤 오른 편에 걸려 있다. 太祖부터 純祖 翼宗(추존왕)까지 역대 왕과 왕비의 忌日과 陵號를 적은 것이다.

❍ 동서재

거인재(居仁齋)
도동서원 동재에 해당한다. 도동서원이 북향을 하고 있어 서쪽이지만 강당에서 바라보면 좌측이 되므로 동재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仁義禮智信의 순서에 따라 居仁齋가 된다. 강당 중정당의 中正과 함께 동서재 이름을 仁과 義로 하여 『태극도설』이 말하는 中·正·仁·義를 상징화하였다.
거인(居仁)과 거의(居義)는 『맹자』 離婁 上에 "내 몸이 인(仁)에 머물러 의(義)를 말미암을 수 없다는 것은 스스로를 포기한다는 것이다. 인은 사람의 편안한 집이고 의는 사람의 바른 길이다.(吾身 不能居仁由義 謂之自棄也. 仁 人之安宅也 義 人之正路也)"에 나온다.

거의재(居義齋)
도동서원 서재에 해당한다. 도동서원이 북향을 하고 있어 동쪽이지만 강당에서 바라보면 우측이 되므로 서재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仁義禮智信의 순서에 따라 居義齋가 된다. 강당 중정당의 中正과 함께 동·서재 이름을 仁과 義로 하여 『태극도설』이 말하는 中·正·仁·義를 상징화하였다.
거인(居仁)과 거의(居義)는 『맹자』 離婁 上에 "내 몸이 인(仁)에 머물러 의(義)를 말미암을 수 없다는 것은 스스로를 포기한다는 것이다. 인은 사람의 편안한 집이고 의는 사람의 바른 길이다.(吾身 不能居仁由義 謂之自棄也. 仁 人之安宅也 義 人之正路也)"에 나온다.

❍ 문루

환주문(喚主門)
도동서원의 문 이름이다. 창립초기부터 있었던 서원 문이다. '내 마음의 주인을 부른다.' 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갓 쓴 선비들은 고개를 숙여야 들어올 수 있을 만큼 문이 낮고 두 사람이 함께 들어올 수 없을 만큼 좁다. 문지방 자리에 꽃봉오리 문양의 돌부리가 있어 더욱 출입이 조심스럽다.

수월루(水月樓), 1974년 중건
水月樓는 도동서원 창립 초기에 존재하지 않았다. 1849년(憲宗 乙酉 3월)에 건립되었다가, 1863년에 重修하였으며, 1888년(고종25)에 소실된 후 오랫동안 없었다. 1974년에 지금의 四架三間 규모로 다시 중건하였다. 水月樓上樑文(1849), 水月樓重修上樑文(1863), 水月樓重建記(1974), 水月樓重建顚末小記(1974) 참조
주자(朱子)의 시 구절 중 '가을 달빛이 차가운 물에 비춘다(秋月照寒水)'에서 따온 것이다.

水月樓上樑文, 1849년(憲宗 乙酉 3월), 李源祚
창건 당시 서원 문의 규모가 갖추어지지 못함을 한스러워 하다가, 19세기 중반에 문루를 세우게 된 경과와 감회를 기록한 상량문이다. 또한 서원 밖 넓은 평야 평평한 백사장을 바라보며 밝고 상쾌한 경치를 구경하며 궁극을 추구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기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水月樓重修上樑門, 1863년(哲宗 癸亥 6월), 李鍾祥
수월루를 중수하면서 올린 상량문이다.

水月樓重建記, 1974년, 鄭華植
도동서원 창건과 수월루 건립 과정을 기술하고, 수월루의 의미가 주자 시 "秋月照寒水"와 한훤당 시 "處獨居閒絶往還 只呼明月照孤寒"에서 연유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水月樓重建顚末小記, 1974년, 金殷永
수월루의 건립, 중수, 그리고 1888년(고종25)에 소실된 후 오랫동안 없었다가, 1974년에 지금의 모습으로 다시 중건하게 된 과정을 밝히고, 중건에 물심양면으로 도움준 사람들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있다.

7) 병산서원(屛山書院)

❍ 사우

존덕사(尊德祠), 82.0 × 171.0
병산서원 사우 편액으로, '존덕'은 서애 류성룡의 학덕을 존모한다는 의미이다. 이 사우는 서애가 세상을 떠난 7년 후인 1614년(광해 6)에 정경세, 이준, 김윤안, 안담수 등 그의 문인들과 유림이 힘을 합해 세우고 위패를 모셨다고 한다. 그 후 1620년 여강서원에 위패를 봉안한 뒤, 1629년에 병산서원으로 다시 위패를 봉안하였다. 1937년에 중건하였다. 특히 사당으로 들어가는 삼문에는 태극이, 삼문의 기둥에는 팔괘가 그려져 있다.

❍ 서원

병산서원(屛山書院), 78.3 × 226.0
안동시 풍천면 병산리에 있는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 1542~1607)의 학문과 업적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된 서원의 편액이다. '병산'은 서원 앞 낙동강을 끼고 흐르는 산이 병풍을 두른 듯이 펼쳐져 있는데서 유래하였다. 원래 풍산현에 있던 풍악서당을 서애가 1573년(선조 6)에 이곳으로 옮겼고, 1614년(광해 6) 존덕사를 세워 그의 위패를 모시고 병산서원으로 개칭하였다. 1662년(현종 3) 셋째 아들 수암(修巖) 류진(柳袗, 1582~1635)을 추가 배향하였으며, 1863년(철종 4) 사액을 받았다. 류성룡은 퇴계의 고제로서 도학과 문장, 덕행과 글씨로 이름을 떨쳤을 뿐만 아니라, 임진왜란 때는 재상으로 이순신과 권율 장군을 천거하고, 성곽수축.화기제작 등 군비확충에 힘써 많은 공을 세웠다. 사적 제260호로 지정되었으며, 훼철되지 않은 47개 서원 중의 하나이다.

❍ 강당

입교당(立敎堂), 80.5 × 177.5
병산서원 정당(正堂)의 편액으로, '입교'는 유생들이 배워야 할 성현의 가르침, 이를테면 오교(오륜)를 바르게 세운다는 의미이다. 유생들은 성현의 가르침을 받아 자기의

몸을 바로 세우고, 나아가 선비로서의 사명을 바로 세우는 공부를 하였다. 현재의 건물은 1921년에 중수하였다. “澤上有地 臨이니 君子 以하여 敎思无窮하고 容保民无疆하니라”(『주역』臨괘 대상전) “聖人이 以神道設敎而天下服矣니라”(『주역』觀괘, 단전) “風行地上이 觀이니 先王以省方觀民하여 設敎하니라”(『주역』觀괘, 대상전) “水洊至 習坎이니 君子 以하여 常德行하며 習敎事하나니라(『주역』坎卦 대상전) “帝曰契아 百姓이 不親하며 五品不遜일새 汝作司徒니 敬敷五敎하되 在寬하라”(『서경』 虞書 舜典편) “帝曰夔아 命汝하야 典樂하노니 敎胄子호대 直而溫하며 寬而栗하며 剛而無虐하며 簡而無傲케하리니 詩는 言志오 歌는 永言이오 聲은 依永이오 律은 和聲하나니 八音이 克諧하여 無相奪倫이라사 神人以和하리라”(『서경』虞書 舜典편) “子以四敎하시니 文行忠信이니라”(『논어』술이편 제24장)

屛山書院 明誠齋(동), 37.3 × 88.0
병산서원 정당의 동쪽 협실의 편액으로, ‘명성’은『중용』21장에 “성(誠)으로 말미암아 밝아짐을 성(性)이라 이르고, 명(明)으로 말미암아 성(誠)해짐을 교(敎)라 하니, 성(誠)하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성(誠)하게 된다.[自誠明 謂之性 自明誠 謂之敎 誠則明矣 明則誠矣]”고 한 구절에서 인용한 것이다. 성(誠)은 성실히 하는 것으로 행(行)에 해당하고 밝음[明]은 이치를 밝히는 것으로 지(知)에 해당하며, 성(性)은 배우지 않고 본성대로 하는 것으로 성인(聖人)을 이르고, 교(敎)는 가르침을 받아야 비로소 선행을 하는 현인(賢人)을 이른다. “自誠明을 謂之性이오 自明誠을 謂之敎니 誠則明矣오 明則誠矣니라” (『중용』제21장)

屛山書院 敬義齋(서), 40.0 × 84.0
병산서원 정당의 서쪽 협실의 편액으로, ‘경의’는『주역』「곤괘(坤卦), 문언전(文言傳)」에 “군자는 경으로써 내면을 곧게 하고 의로써 외면을 바르게 한다.[君子 敬以直內 義以方外]”는 구절에서 인용하였다. 경으로써 내면을 수양하고, 의로써 외부적 행동의 판단준거를 삼는다는 뜻이다. “直은 其正也요 方은 其義也니 君子 敬以直內하고 義以方外하야 敬義立而德不孤하나니 直方大不習无不利는 則不疑其所行也라”(『주역』 坤괘 문언전 제2절)

屛山書院 屛山尊德祠復享記, 17세기(1630), 47.0 × 130.0, 창석(蒼石) 이준(李埈)
병산서원 정당 북쪽 벽면에 걸려있는 현판이다. 1620년 서애 류성룡의 위패를 여강서원에 봉안한 뒤, 1629년에 병산서원 존덕사로 다시 위패를 모시게 되었다. 이때 서애의 제자로 부제학을 지낸 창석(蒼石) 이준(李埈, 1560-1635)이 병산서원 건립내력과 선생의 학덕에 대해 적은 기문이다.

屛山書院 尊德祠享祀執事分定(1), 29.5 × 83.0
병산서원 정당 북쪽 벽면에 걸려있는 현판으로, 병산서원 존덕사 향사시 집사 분정판이다. 임진(2012) 3월 6일 춘향 때의 분정이 걸려있다.

屛山書院 尊德祠從祀位執事分定(2), 29.5 × 82.5
병산서원 정당 북쪽 벽면에 걸려있는 현판으로, 병산서원 존덕사 종사위 집사 분정판

이다. 한 가지 특기할 것은 주향(主享)과는 달리 종향하는 배위의 집사 분정판이 별도로 있고, 분정판의 구성요소도 다르다는 것이다. 이 또한 임진(2012) 3월 6일 춘향 때의 분정이 걸려있다.

❍ 동서재

屛山書院 動直齋(동), 40.0 × 91.0
병산서원 동재(東齋) 편액으로, '동직'은 주렴계의『통서(通書)』에 어떤 사람이 성인이 되는 방법을 묻자, "한결같음[一]이 요체가 되니, 한결같음이란 욕심이 없는 것이다. 욕심이 없으면 고요할 때에는 텅 비고 움직일 때는 곧게 된다. 고요할 때에 텅 비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천하의 이치에 통하게 된다. 움직일 때에 곧으면 공평하게 되고 공평하면 천하의 서무(庶務)를 널리 처리할 수 있다. 밝아서 통하고 공평하여 넓게 되면 성인의 도에 거의 가까워지지 않겠는가?[一爲要 一者 無欲也 無欲 則靜虛動直 靜虛則明 明則通 動直則公 公則溥 明通公溥 庶矣乎]"고 한데서 인용하였다. 결국 경(敬)을 통해 마음을 수양하여 사욕이 없는 경지에 나아가기를 바라는 뜻이 내재해 있다. "六二之動이 直以方也니 不習无不利는 地道光也라"(『주역』坤괘 육이효 소상전)

屛山書院 靜虛齋(서), 38.0 × 87.0
병산서원 서재(西齋) 편액으로, '정허'은 주렴계의『통서(通書)』에 어떤 사람이 성인이 되는 방법을 묻자, "한결같음[一]이 요체가 되니, 한결같음이란 욕심이 없는 것이다. 욕심이 없으면 고요할 때에는 텅 비고 움직일 때는 곧게 된다. 고요할 때에 텅 비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천하의 이치에 통하게 된다. 움직일 때에 곧으면 공평하게 되고 공평하면 천하의 서무(庶務)를 널리 처리할 수 있다. 밝아서 통하고 공평하여 넓게 되면 성인의 도에 거의 가까워지지 않겠는가?[一爲要 一者 無欲也 無欲 則靜虛動直 靜虛則明 明則通 動直則公 公則溥 明通公溥 庶矣乎]"고 한데서 인용하였다. 결국 경(敬)을 통해 마음을 수양하여 사욕이 없는 경지에 나아가기를 바라는 뜻이 내재해 있다.

屛山書院 藏書室, 50.5 × 107.0
병산서원 서재에 있는 장서실 편액으로 서원의 서책을 보관하는 곳이다.

❍ 문루

만대루(晩對樓), 78.5 × 202.0
병산서원 2층 누대의 편액으로, '만대'는 당나라 두보의「백제성루(白帝城樓)」시의 "푸른 절벽 저물녘에 마주하기 마땅하네.[翠屛宜晩對]"라는 구절에서 인용하였다. 향사나 행사가 있을 때는 유생들의 개좌석(開座席)이 되고, 학문을 강의할 때는 강학처가 되기도 한다. 특히 만대루에 올라 낙동강과 병산을 바라보는 운치는 더 없이 뛰어나다. "翠屛宜晩對 白谷會深遊"(杜甫, 白帝城樓)

❍ 외삼문

복례문(復禮門), 67.0 × 183.0
병산서원 정문의 편액으로, '복례'는『논어』「안연(顔淵)」편에 "안연이 인(仁)에 대해 묻자, 공자가 말하기를, '자신의 사욕을 이겨 禮로 돌아가는 것이 인을 실행하는 것이니, 하루라도 자신의 사욕을 이겨 예로 돌아간다면 천하 사람이 모두 어질다고 허여(許與)할 것이다.'[顔淵問仁 子曰 克己復禮爲仁 一日克己復禮 天下歸仁焉]"고 한 구절에서 인용하였다. '복례'는 '극기복례'의 준말로서, 자기의 사욕을 극복하고 天理를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顔淵이 問仁한대 子曰克己復禮 爲仁이니 一日克己復禮면 天下 歸仁焉하나니 爲仁이 由己니 而由人乎哉아 顔淵이 曰請問其目하노이다 子曰非禮勿視하며 非禮勿聽하며 非禮勿言하며 非禮勿動이니라 顔淵이 曰回雖不敏이나 請事斯語矣로리이다"(『논어』안연편 제1장)

❍ 장판각

장판각(藏板閣), 31.0 × 98.5
병산서원 정당 뒤에 있는 장판각 편액으로, 유생들의 학습에 필요한 각종 도서의 목판이나 선조의 문집 목판 등을 보관하는 장소이다. 보통 서원이나 향교 등 교육기관에 장판각을 두고 여러 종류의 목판을 보관하였다. 이 건물은 가장 단아한 장판각 건물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

❍ 전사청

전사청(典祀廳), 28.0 × 68.5
병산서원 사우 동쪽에 있는 전사청의 편액으로, 제사를 지내기 전날에 제수를 보관하는 곳이다. 평상시에는 제기와 제구를 보관한다. 사당과 같은 울타리에 있는 것이 보통인데 이 전사청은 별도로 담장을 두르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8) 무성서원(武城書院)

❍ 태산사(泰山祠)

泰山祠(편액), 50×190, 石田 黃旭(1898-1992)
무성서원이 자리한 칠보면 일대는 통일신라 이후 태산현(泰山縣)에 속했던 곳이다. 무성서원은 1543년(중종 38)에 현감으로 부임한 申潛이, 태산현감을 지낸 崔致遠(857-?)의 생사당을 건립하고 흥학의 기틀을 마련한데서 시작하였다. 石田 黃旭(1898-1992)의 글씨로 좌수체로 유명하였다.

泰山祠 柱聯, 118×18
聖朝恩額 士林首善(어진임금(숙종)의 은전과 사액으로 선비들이 학문하는 으뜸된 곳이라는 의미)

❍ 講堂

武城書院(편액), 1696년(숙종 23), 54×201
'武城'이란 서원이 속한 태인현의 신라 때 이름이다. 무성서원은 1696년(숙종 23) 1월 5일 도내 유림들이 청액소를 올려 같은 해 11월에 사액 받았다.

講堂重創記, 1828년, 34.5×90, 金玟
무성서원이 1825년(순조 25) 불의의 화재로 소실되자 이를 중창하기 위하여 제향인의 후손들이 힘을 합치고 태인현감 서호순에게 품보하여 그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면모를 일신한 내력을 적고 있다. 김민은 鳴川 金灌의 6대손이고 당시 협조한 직임 명단이 적혀있다. 현재 게판 된 기문 중에 가장 앞선 시대의 것이며 이 글에서 김민은 아버지가 지은 중수상량문이 화재로 불탔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武城書院崔先生文集重刊記, 1834년, 38×94, 朴海彦
계원필경을 전주 감영에서 중간하여 무성서원에 문집을 소장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당시의 관련 직임들이 연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무성서원지』권상(1884년간)에는 별도로 「계원필경집개간기」라 하여 개간 전후 상황을 상세하게 정리하여 놓았다.

武城書院重修記, 1847년, 34×90, 金秉欽
誠齋 金若默의 10대손인 김병흠이 찬한 무성서원 중수기로 화재 이후 중수한 서원이 다시 황폐하여 건물은 무너질 지경이고 제복과 기물들도 볼품이 없어지게 되자 訥菴 宋世琳의 후손과 불우헌의 후손. 묵재의 후손들이 출연하여 서원을 중수하였음을 기록하고 있다. 김병흠은 아버지는 40년 전인 갑자년(1804)에 원임으로 신문과 장담을 수축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성상 즉위 13년 정미로 헌종 13년 1847년에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武城書院重修記, 1854년, 40×140, 宋持灝
1854년(철종 5)에 한산인 李承敬의 태수로 부임하여 서원 중수에 지원과 협조로 아끼지 않았음을 기록한 것으로 글을 지은 송지호는 訥菴 宋世琳의 10세손이다. 뒤에 당시의 서원 원임으로 중수에 참여한 인명이 기록되어 있다.

武城書院重修記, 1875년, 35×93, 宋鍾壽
무성서원이 徐灝淳 현감의 지원으로 중수된 이후 그 아들인 徐相鼎이 경오년에 호남을 순시하면서 서원에 들러 비각건립하고 중수의 자금을 지원하여 준 것, 그리고 태인현감 李敏泰의 재정지원으로 중수가 이루어졌음을 기록하고 있다

武城書院重修記, 1879년, 31×82.5, 宋程淳
訥菴 宋世琳의 11대손 송정순이 찬한 중수기이다. 병자년(1876) 대흉년으로 서원관리와 운영이 어려웠던 사정과, 그럼에도 향론이 일어나 힘을 모아 서원을 중수한 사실을 적고 있다.

武城書院復戶保奴還復記, 1882년, 33.5×96.5, 金稷欽
무성서원 사액 시 복호 3결과 보노 30명이 획급되어 서원의 재원으로 삼았으나 서원 훼철 때에 보노의 관할권이 넘어가 이를 복구하려는 노력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리하여 무인년에 송정순 등 본손들이 영읍에 청원하고, 당시 영상 이최응에게도 부탁하여 특별히 원상 회복 명령이 있었음에도 미진하였다고 한다. 그러다가 태인현감 李定稙이 부임하여 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원상 복구한 사실을 기록하였다. 찬자는 誠齋 金若默의 10대손인 金稷欽이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전후 사정이 기록이 『무성서원지』(1884년간)에 「복호보노환복기」라 하여 별도로 정리되어 있다.

武城書院誌改刊記, 1884년, 30×80, 奇亮衍
무성서원 원지의 발간 및 서원 연혁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원지 발간이후의 중수사실을 적은 글이다. 찬자는 鳴川 金灌의 8대손인 金永朝이다.정읍현감 奇亮衍이 찬한 무성서원원지 개간기로 서원지의 편간에 이르는 과정을 약술하고 있다. 奇亮衍은 무성서원지의 발문도 지었으며, 그 글이 서원지에 전한다.

武城書院重修記, 1886년, 32.5×90, 金永朝
무성서원 원지의 발간 및 서원 연혁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원지 발간이후의 중수사실을 적은 글이다. 찬자는 鳴川 金灌의 8대손인 金永朝이다.

武城書院重修記, 1888년, 34.5×88.5, 金光欽
김완순의 물력으로 서원을 중수하였음을 칭송한 글이다. 무성 현가지성의 고사를 소개하고 무자년은 강당이 소진된 지 4주갑이 되는 해이고, 백일장으로 시사한 지 회갑이 되는 해임을 강조하고 있다. 誠齋 金若默의 10대손 김광흠 찬이다.

武城書院重修記, 1892년, 32×105.5, 尹濟翼
무진 서원훼철이후 서원의 수보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사림들의 발의와 도내 유림들의 부조로 현가루 창건, 신문 중수, 제기를 수보한 사실들 모아 기록하고 칭송하였다. 찬자는 담양도호부사 尹濟翼이다.

武城書院重修記, 1895년, 30.5×119.5, 尹 秉
진신장의였던 고부군수 尹秉이 찬, 서한 것으로 1895년 중수를 기리는 글로 구체적인 중수사실은 보이지 않음

武城書院賢宇重修記, 1901년, 34×99, 閔申鎬
1901년 사우를 중수하면서 당시의 과정과 다짐을 기록한 기문으로 閔申鎬기 짓고 썼으며, 당시 원장은 관찰사 조한국이었다.

武城書院重修記, 1906년, 26×92, 金秉述
1906년 서원의 제향을 비롯한 제반 운영에 문제가 생기자 진신장의였던 종2품 金昌喜의 출연으로 중수한 사실을 기록한 기문이다. 鳴川 金灌의 9대손 金秉述 찬이다.

武城書院記, 1906년, 31×79.5, 金麟○,

武城書院重修記, 1917년, 44×154, 李在宇
1917년에 유림들의 부조와 출연으로 서원을 중수한 사실을 기록한 기문이다.

武城書院重修記, 1927년, 37×106, 金煥一 찬 金◯聲 서원장 尹用求

武城書院椅盤重修記, 1927년, 34×119, 金澤 찬, 金奉斗 서
옥구인 申泰貞이 재임 김인기 등과 뜻을 모아 椅盤을 새로 마련한 사실을 기록하였다.

武城書院墻垣重修記, 1928년, 95×41, 金煥豊
1929년 재임 李凞元과 원유 金東浩 金炳鈺 등이 담장을 수보한 사실을 기록한 기문

賢宇重修及典祀所創建記, 1930년, 39×106, 金煥豊 찬, 姜直秀 서
서원 중수가 미진하던 차에 도내장의 朱燦馨이 중수를 발의하고 스스로 출연하여 마침내 사우를 중수하였고, 동시에 5현의 문중과 협력하여 고직사 북쪽에 2칸의 전사소까지 건립하였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武城書院重修記, 1932년, 37×106, 金煥一 찬, 金秀聲 서
도내 유지와 각 가문의 협조로 유림장의 尹二炳 등이 강당 및 흥학재 등의 개와, 개토로 면모를 일신하였음을 기록한 기문으로 당시 원장은 尹用求였다.

武城書院院址復舊記, 1937년, 35×105, 金煥豊 찬, 李喜元 서
서원의 대지가 개인 소유로 넘어간 것을 1936년에 다시 복구한 내용으로 당시 모든 재원을 부담한 해주오씨 吳琪煥의 공적을 칭송하는 기문이다.

武城書院慕賢記, 1953년, 33×83, 柳源模
효우로 행적이 있던 안동인 權寧祚가 기묘년(1939)에 모현의 정신으로 출연하여 서원 제향에 도움을 준 사실을 칭송하는 기문

武城書院祭器改修記, 1967년, 37×99, 金麟基
서원의 제기와 의물들이 일제강점기와 6.25로 인하여 10중의 2,3만이 남아 잇는 지경이었는데 宋榮玉이 수만 원을 희사하여 재정비하였음을 기록한 기문

柱聯 6매, 140-142 × 17.0-17.5

揖讓進退杏壇遺敎 月朔參拜享禮兩丁(읍양진퇴행단유교 월삭참배향례양정)

春秋講磨經義四子 文藝時習詩書禮樂(춘추강마경의사자 문예시습시서예락)
德業日新孝悌忠和 勸規交恤藍田故約(덕업일신효제충화 권규교휼남전고약)

절하고 사양하며 들고 나아가니 공자의 가르침이고
매월 공손히 뵙고 절하며 봄과 가을에 제사 올리네.
논어, 맹자, 대학, 중용과 '춘추'를 익히고 닦으며
문예를 때때로 익히니 시와 글씨, 예절과 음악이구나.
덕을 날로 쌓으니 효도와 공경, 충심과 화합이고
서로서로 풍속과 예절을 지키니 남전의 옛 향약이라.

❍ 絃歌樓

絃歌樓(편액), 1904년, 50.0×149, 태인군수 孫秉浩
현가루는『論語』의「陽貨」편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유래 한 것이다. 공자의 제자 자유(子游)가 노나라 武城의 현감이 되었는데, 그는 禮樂으로서 백성들을 잘 다스렸다고 한다. 공자가 이 고을을 찾아가니 絃歌之聲이 들려와 탄복했다는 고사와 연관된다.

武城書院 絃歌樓記, 1891년, 32.0×122, 金奎弘
전라관찰사이자 당시 원장인 金奎弘의 현가루 창건기문으로 무성서원의 연혁과 제향인물, 원장 재임 중 황기환 김직술 등 원임들이 문루를 건립하고자 노력한 일과 필암서원, 포충사의 예와 같이 전라남북 열읍 유림들의 예부전을 모아 1891년 현가루를 창건한 사정을 기록하고 있다.

武城書院絃歌樓創建記, 1891년, 50.0×148.5, 閔正植
무성서원의 연혁과 제향인물, 주요 연혁을 적고 관찰사로 부임하여 황기환, 김직술 등 원유들의 요청으로 무성서원 원장에 취임하였음과 대대적인 서원 중수와 함께 현가루 창건에 유림들이 협조와 지원이 이루어졌음을 기록한 기문이다.

武城書院絃歌樓重修記, 1903년, 50.5×119, 鄭寬求
함열군수 鄭寬求가 지은 현가루 중수기로 무성서원의 연혁과 제향인물, 현가지성의 고사를 상세히 소개하고 현가루 창건에 대하여 기록하고 이때의 현가루 중수과정을 적고 있다.

絃歌樓重修記, 1936년, 38.0×139.5, 高元勳
현가루가 창건이후 세월이 지나 수보가 필요하여지자 전라남북도의 유림들이 힘을 모아 중수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다. 찬자는 전북지사 高元勳이다.

❍ 講修齋

강수재(講修齋;편액), 1884년(?), 26 × 63, 불　명
강수재중수기(정해, 1887년 김영상 기)에 의하면 사액후 유생들의 거접소로 고사를 사용하다가 1707년에 동, 서재와 중앙청을 갖춘 강수재를 창건하였고, 1884년 서원지 간행을 마친 황기환, 김형식 등이 5현의 후손과 유림들에게 구재하여 중수하였다 한다. 이대의 현판으로 추정된다.

武城書院記, 1902년, 金直述
서원지에는 '作脯事實'로 기록되어 있다. 갑오경장으로 서원의 제수 마련이 어렵게 되자 황기환, 김직술 등 서원 유림들이 관부에 요청하여 본면 庖肆의 세금 60냥을 받아 제수를 마련하도록 한 사정이 기록되어 있다. 당시 관찰사는 조한국, 군수는 손병호였다

武城書院重修記, 1904년, 權直相 찬, 金煥玟 서
전주군수 권덕상이 짓고 명천 김선생의 10 대손인 김환민의 서로 11879년 이래 서원의 변천과 수호, 강학의 기틀이 정비된 이후 세월이 흘러 다시 퇴이해지자 재원을 마련하여 중수한 사정을 기록한 것이다. 원장 관찰사 이용직 원임 등이 열서되어 있다.

武城書院記, 1916년, 金思謙
김제 사인 전주최씨 崔庸植, 崔南廷이 장의가 되어 출연한 사실을 기록한 글로 당장인 金思謙의 찬하였고, 당시 직월이 金直述이었다.

武城書院講修齋重修記, 1965년, 金麟基
申祥雨 군수가 무성서원방문을 계기로 원우를 일신하기로 하고, 도내 사림들의 구재로 강수재를 중수한 사실을 기록한 기문으로 집강 외 직임이 기록되어 있다.

(無題), 1977년, 宋興燮
정사년 춘향시 출연하여 도움을 준 吳邦煥의 모범으로 칭송하는 기문

金榮得讚揚文, 1994년, (재장 金東基)
재장 김영기 외 본원 유림색장으로 7-8년간 재임하면서 어려운 서원 재정운영에 모범을 보였던 金榮得을 찬양하는 기문

柱聯 6매

萬國罔知定 家家久太平(만국망지정 가가구태평)
承帝忘形處 犇華永不明(승제망형처 분화영불명)
세상이 지극함을 아는 곳으로 정하고
집집마다 백성들이 오래도록 평화로우니
하나라 우임금의 뜻을 잊지 않는 곳이라네.

한없이 빛나고 영원히 그 밝음을 떨쳐라.

淵源追潮洙泗濂閩 依仁遊藝德業日新(연원추조수사렴민 의인유예덕업일신)
規模己宏心身家國 愼思篤行倫理自明(규모이굉심신가국 신사독행윤리자명)
유교의 학문적 뿌리는 공자, 맹자, 주돈이, 주자에 있고
어짐에 의지하고 학문과 노닐며 덕을 쌓으니 날로 새롭구나.
자신을 수양하고 가정이 화목하면 나아가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신중하고 성실하게 행동하니 사람의 도리가 스스로 밝아지는구나.

9) 돈암서원(遯巖書院)

돈암서원의 당호 현판으로 문루 山仰樓, 入德門(遯巖書院, 1660년, 현종 1), 강당 凝道堂, 養性堂, 靜會堂, 사당 唯敬祠(崇禮祠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등이다. 양성당의 좌우 방에는 居敬齋와 精義齋 현판이 있다. 최근에 중수한 문루 山仰樓에는 吟諷弄月와 浩然之氣이라는 편액과 시판도 있는데 최근의 것으로 보인다.

❍ 堂號

養性堂, 1602년(선조 35) 추정
「養性堂記」에 의하면 사계 김장생이 이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이름을 바꾸어 '양성당'이라 하였다. 김장생은 '양성'이란 '오래도록 힘들여 쌓아온 곳'이라는 의미로 늙더라도 게으르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하고자 붙였다고 하였다.

遯巖書院, 1660년(효종 10) 1월, 宋時烈(1607-1689) 추정
'遯巖'이란 서원 서북쪽에 자리한 커다란 바위를 일컫는 말이다.『효종실록』1659년 3월 28일의 기사에 김장생과 김집 등을 제향하는 서원의 편액을 '遯巖'이라 내렸다고 하였다. 지금의 현판은 尤庵 宋時烈이 쓴 것으로 전해지며, 사액을 받은 이듬해 正月에 쓴 것이다.

凝道堂
'凝道'란 '도가 엉긴다'는 뜻으로『中庸』의 구절에서 유래한 것이다. 응도당은 돈암서원의 강학활동이 펼쳐진 강당이자 학생들의 학습장이었다. 중용27장에 나오는 '넉넉하고 넉넉하도다. 예의가 3백이요, 위의가 3천이로구나. 그러므로 진실로 **지극한 德이 아니면 지극한 道가 모여지지 않음이라.** (優優大哉라! 禮儀三百라 威儀三千이로다. 故로 曰 苟不至德이며 至道不凝焉이라)에 나오는 말이다.

靜會堂, 한말 이후, 金禮山
沙溪 金長生의 父親 黃岡 金繼輝가 講學하던 건물이며, 大芚山 자락의 孤雲寺터에서 1954년에 옮겨 講學空間 서쪽 外廓에 세웠다. 정면 4칸, 측면 2칸으로 後面 列 가운

데 2칸은 마루방을 두고 우물마루를 깔았다. 실제로 이 정회당이 훗날 돈암서원을 건립하는 기반이 되었다. 金繼輝가 1557년(명종 12)에 파직되어 낙향한 후 이 곳에서 후학을 양성했다. 靜會는 儒生들이 修行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고요하게 몸소 실천하며 修行한다'는 뜻이다.

藏板閣, 한말 이후
돈암서원 장판각에는 김장생과 김집부자의 문집을 비롯하여, 『喪禮備要』 등 서원에서 발간한 책자의 목판이 보관되어 있다.

崇禮祠, 현대
현재 돈암서원의 중심 건물로 김장생, 김집, 송시열, 송준길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까지는 이 숭례사에 '遯巖書院(1660년)' 현판을 걸었었다.
중용에 '그러므로 君子는 德性을 높이고 문학(學問)을 말미암으니, 廣大함을 지극히 하고, 精微함을 다하고, 高明함을 다하고, 中庸을 따르며, 옛 것을 잊지 않고, 새로운 것을 알며, 厚함을 돈독히하고, 禮를 높이는 것이다. (故로 君子는 尊德性而道問學이니 致廣大而盡精 微하며 極高明而道中庸하며 溫故而知新하며 敦 厚以崇禮니라)라는 글에서 채택한 것이다.

居敬齋, 현대
주자의 학문수양 방법 중 '居敬'은 내적 수양을 강조한다. 유생들이 거처하는 곳이다. '居敬'은 性理學 修養方法 중의 하나로 '우러르고 받드는 마음으로 삼가고 조심하는 태도를 가짐'을 말한다.

精義齋, 현대
'精義'는 '자세한 意義'라는 뜻으로 精義齋는 儒生들이 모여 經典의 意義를 자세하게 講論하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정면 3칸, 측면 2칸이다.

慶會堂, 현대
최근에 지어진 건물로 관리인들의 근무공간이다.

入德門, 현대
돈암서원의 외삼문기능을 한다.
'入德'은 <中庸>에 나오는 말로, '聖人의 德에 들어간다'는 뜻이다. 講學領域 출입문 안쪽에 '入德'이란 扁額을 걸어, 儒生들이 항상 聖人의 德으로 들어가기 위해 공부한다는 배움의 목적을 周知하도록 했다.

山仰樓(東, 西), 현대
최근 돈암서원 외삼문 밖에 건립 된 누각이다. 높은 산을 우러르는 것과 같이 김장생을 모신다는 뜻을 내포하며, 이는「양성당기」내용 중 '仰而樂山'에서 취한 것으로 보인다.

❍ 응도당 : 돈암서원의 기문으로 書揭遯巖院儒(송시열), 雅閑亭題詠, 養性堂記(김장생), 養性堂記(1603년, 정엽 찬), 養性堂後記(1883년 김상현 찬), 憶沙溪先生有感(이유태), 從享遯巖書院(김집), 題凝道堂壁右(유일준), 藏板閣記(1926년, 李商永), 遯巖書院上樑文(1633년, 김상헌), 遯巖書院重修記(1955년 군수 박유진), 遯巖書院重修記(유사 황택수), 養性堂重修記(1956년), 양성당 이건기(1971년, 송재성), 양성당이건기(1978년, 김영완), 산앙루중건기(2006년), 산앙루중건상량문 등이 있다.

養性堂記, 1603년(선조 36) 4월 8일, 鄭曄(1563-1625)
김장생은 1602년(선조 35) 고향으로 돌아와 양성당을 짓고 鄭曄에게 記文을 부탁하였다. 정엽은 이 글에서 김장생이 양성당을 건립하게 된 사연과 함께 그의 행적을 칭송하였으며, '養性'의 의미처럼 학문의 큰 줄기가 이어지기를 기원하고 있다. 김장생은 정엽에게 양성당 주변의 경관을 설명하며 기문을 부탁하였고, 정엽의 기문에도 일부 양성당 주변경관의 아름다움을 소개하였다.

養性堂後記, 1883년 3월, 金尙鉉(1811-1890)
김장생의 9대손 김상현이 지은 기문이다. 응도당(강당)의 현판을 '양성당'이라 한 것에 대해, 이는 김장생의 원래 뜻과 이치에 맞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양성당의 내력을 이야기 하면서 김장생이 쓴「양성당기문」중 경관에 관해 묘사한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養性堂移建記, 1971년 7월, 宋在晟
퇴락한 양성당을 1969년 林里에서 현재의 자리로 이건한 사실과 이 일을 주도한 黃敎性, 宋喜燮의 공로을 기록하였다.

孔孟程朱之道 …, 1988년, 40 × 100, 金永玩
후손 金永玩이 돈암서원의 연혁과 의미, 사계 김장생의 행적 등을 기록하였다.

養性堂題詠, 45 × 120
돈암서원의 연혁과 양성당 창건기록, 국내 명사들의 시문을 모아 쓴 것이다. 내용은 10영으로 구성되어,「전계조어」,「후윤탁족」,「계룡방은」,「대둔심승」,「매소명월」,「죽오청풍」,「연지취우」,「유정취연」,「횡사담경」,「임정관덕」 등을 기록하였다.

❍ 양성당

遯巖書院上樑文, 1633년(인조 11) 3월, 金尙憲(1570-1652)
돈암서원 건립 당시 대들보를 올리면서 쓴 글로, 이 서원이 유학의 전통을 잇고 수많은 학자와 선비들을 배출하기를 기원하고 있다.

養性堂重修記, 1956년, 黃澤秀
오래되고 낡은 양성당을 김장생의 11대손 金千洙가 주도하여 중수하게 되었음을 기

록한 글이다. 당시 충남고적현창회의 기금 조성 내역과 중수사실이 기록되어 있어 당시 건물의 현황을 점검할 수 있는 자료이다.

扶安郡儒林, 20세기
전라북도 부안군 내 유림들의 부조록이다. 성명과 거주지 부조금액을 나열하였다.

遯巖書院重修記, 1955년, 朴有鎭,『돈암서원지』(1958년) 수록
1955년 새롭게 돈암서원을 중수하면서 쓴 기록이다.

(무제)遯巖書院扶助錄, 20세기
열읍의 유림들이 부조한 목록이다. 성명과 거주지, 부조금액 등을 기록하였다. 거주지는 연산을 비롯하여 부여, 공주, 사천, 함양, 순창, 담양 등 다양하다.

(무제)書院扶助記, 1924년 7월, 金在夏
돈암서원의 부조인을 기록한 현판이다.

本院扶助記(甲子), 1924년
열읍의 유림들이 부조한 목록이다. 성명과 거주지, 부조금액 등을 기록하였다. 거주지는 연산을 비롯하여 금산, 담양, 나주, 익산, 강진 등 다양하다.

本院扶助記(乙丑), 1925년
열읍의 유림들이 부조한 목록이다. 성명과 거주지, 부조금액 등을 기록하였다. 거주지는 연산을 비롯하여 금산, 담양, 남원, 나주, 익산, 강진 등 다양하다.

本院扶助記(癸亥), 1923년
열읍의 유림들이 부조한 목록이다. 성명과 거주지, 부조금액 등을 기록하였다. 거주지는 연산을 비롯하여 금산, 담양, 남원, 나주, 익산, 강진 등 다양하다.

무제(本院扶助記), 20세기
열읍의 유림들이 부조한 목록이다. 성명과 거주지, 부조금액 등을 기록하였다. 거주지는 연산을 비롯하여 금산, 담양, 남원, 나주, 익산, 강진 등 다양하다.

무제(本院扶助記), 20세기
열읍의 유림들이 부조한 목록이다. 성명과 거주지, 부조금액 등을 기록하였다. 거주지는 연산을 비롯하여 익산, 정읍, 부여, 영암 등 다양하다.

養性堂十詠, 李端夏 외
김장생은 雅閑亭에 걸린 시들을 읊조리기도 하고, 스스로 당시 名士들의 작품을 구해 새겨 놓는 등 시를 즐겼다. 養性堂에도 많은 사람이 시를 남겼으나, 이 현판에는 가장먼저 松磵 李端夏가 지은 것(五言)이 소개 되었다. 다음은 黃赫의 글(五言)이며 세 번째는 당대의 문장가 張維, 마지막 제영은 梁慶遇(七言)의 글이다.

崇慕契員名單(一), 20세기
돈암서원 숭모계원의 명단과 거주지기록이다. 대부분 연산에 거주하며, 논산, 공주, 대전 등에 거주하는 계원도 일부 확인된다.

崇慕契員名單(二), 20세기
돈암서원 숭모계원의 명단과 거주지기록이다. 대부분 연산에 거주하며 광산김씨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崇慕契員名單(三), 20세기
돈암서원 숭모계원의 명단과 거주지기록이다. 대부분 연산에 거주하며, 논산, 공주, 대전 등에 거주하는 계원도 일부 확인된다.

崇慕契員名單(四), 20세기
돈암서원 숭모계원의 명단과 거주지기록이다. 서천, 서울, 대전 등 거주지가 다양하다.

養性堂重修補助, 1927년
논산군 채운면 하리에 거주하는 申錫順이 양성당 중수 시 보조한 기록이다.

養性堂重修補助記, 1927년
양성당 중수 시 기금을 낸 사람들의 성명, 거주지, 금액을 기록한 것이다.

題凝道堂壁右, 1903년 10월, 兪一濬
서원운영에 관한 기금 등을 모으는 절목 등을 기록하였다.

雅閑亭題詠, 1881년, 金國光 外, 崔昌煥
아한정에 관한 여러 시를 모아 놓은 것이다. 金國光, 申叔舟, 宋翼弼 등의 시가 있다.

養性堂記, 1602년, 金長生 書
1602년 김장생이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임리에 건립된 양성당을 기념하여 지은 기문이다.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雅閑亭 터에 김장생이 건립한 양성당에 대한 기문으로, 유고집『沙溪先生遺稿』권5에 수록되어 있다.

❍ 산앙루

山仰樓重建上樑文, 2006년 10월
외삼문 밖으로 산앙루를 중건하면서 지은 기문이다. 돈암서원의 간단한 역사와 산앙루를 건립하게 된 배경 등을 기록하였다.

山仰樓重建上樑文解釋, 2006년 10월
외삼문 밖으로 산앙루를 중건하면서 지은 기문이다. 돈암서원의 간단한 역사와 산앙루를 건립하게 된 배경 등을 기록하였다.

浩然之氣, 2006년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찬 넓고 큰 원기.『맹자』의 상편에 나오는 말이다.

吟風弄月, 2006년
바람을 말하고, 달을 바라보고 즐긴다.

謹題山仰樓, 2007 8월, 田光弘
산앙루를 읊은 시이다.
祝詩山仰樓重建, 현대, 池載熙
산앙루 중수를 기념하는 祝詩이다.

❍ 주련

凝道堂柱聯, 매(4연 8구)
송(宋)나라 난계(蘭溪) 범준(范浚)이 지은 심잠(心箴)의 일부분으로 마을을 다스리면 천지에 함께 할 수 있다 하여 경계와 권면의 내용을 담고 있다.

茫茫堪輿俯仰無垠 (망망감여부앙무은) 망망한 천지여 굽어보고 쳐다보아도 끝이 없다
人於其間渺然有身 (인어기간묘연유신) 사람이 그 사이에 있어 가물가물하게 몸을 두고 있다
是身之微太倉稊米 (시신지미태창제미) 이 몸의 보잘 것 없음이 태창의 한 톨의 쌀이로다
爲參三才曰惟心爾 (위참삼재왈유심이) 삼재에 참여하니 말하기를 오직 마음 뿐이라고 한다
往古來今孰無此心 (왕고래금숙무차심) 옛부터 지금까지 누가 이 마음이 없겠느냐마는
心爲形役乃獸乃禽 (심위형역내수내금) 마음이 형체에 사역을 당하니 바로 금수로다
惟口耳目手足動靜 (유구이목수족동정) 오직 입 귀 눈 손 발의 동정이
投間抵隙爲厥心病 (두간저극위궐심병) 사이에 의탁하고 틈에 던지니 그 마음의 병이 된다
一心之微衆欲攻之 (일심지미중욕공지) 한 마음의 보잘 것 없음을 여러 욕심들이 공격을 하니
其與存者嗚呼幾希 (기여존자오호기희) 그 더불어 보존된 것이 아아! 드물구나
君子存誠克念克敬 (군자존성극념극경) 군자가 정성을 보존하고 능히 념하고 능히 공경하면
天君泰然百體從令 (천군태연백체종령) 천군(마음)이 태연하고 모든 지체가 천명을 따른다.

養性堂柱聯, 6매(3연 6구)
朱子의 경제잠(敬齋箴)에서 골라 낸 글로 복장와 행동을 신중히 하고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면 세상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正其衣冠尊其瞻視(정기의관존기첨시) 의관을 바르게 하고 그 눈길은 존엄하게 하라.
足容必重手容必恭(족용필중수용필공) 발 가짐은 반드시 정중하게 하고 손 자세는 반드시 공손하게 하라.
出門如賓承事如祭(출문여빈승사여제) 문을 나설때는 손님을 뵈 듯 하고, 일 할 때는 제사를 지내는 듯 정성껏 할 것이며,
守口如甁防意如城(수구여병방의여성) 입 조심하기를 병(甁)과 같이 하고 뜻 방어하기를 성(城)과 같이 하라.
當事以存靡他其適(당사이존미타기적) 일에 임해서는 마음을 그 일에만 두며, 다른 곳에 두지 않도록 하라.
惟精惟一萬變是監(유정유일만변시감) 오직 정성스런 마음을 하나로 하면 만 가지 변화를 보살필 수 있다.

山仰樓柱聯, 12매(6연 12구)
소강절(邵康節)의 「세한(歲寒, 1-4구)」과 「청야음(淸夜吟, 5-8구)」을 걸어두었으며, 9-12번째의 주련은 돈암서원의 번성을 기원하는 내용이다. 어려움이 있어도 지조와 절개를 지킬 것이며, 고요한 자연 속에서 천지의 이치를 깨닫고자 하는 내용이다.

세한(歲寒)
松栢入冬靑(송백입동천) 소나무 잣나무는 겨울에 들어 더욱 푸르니
方能見歲寒(방능견세한) 비로소 추운 겨울이 온 것을 볼 수 있네
聲須風裡聽(성수풍리청) 소리는 모름지기 거친 바람 속에서 들어야 하고
色更雪中看(색경설중간) 그 빛깔은 눈 속에서 보아야 새로워 진다네

청야음(淸夜吟)
月到天心處 (월도천심처) 달은 하늘 중간에 떠 있고
風來水面時 (풍래수면시) 바람은 물결 위에 찰랑인다.
一般淸意味 (일반청의미) 이러한 맑은 기분을
料得少人知 (요득소인지) 아는 이 적으리라

4.6 서원과 교류(交流) 활동

교류(交流)는 여러 분야에서 이룩된 문화나 사상 따위의 성과나 경험 등을 지역, 개인 간에 서로 주고받는 행위를 말한다 할 수 있다. 서원과 서원간, 서원과 타 지역간, 서원과 국가간의 교류들이 강학(講學)활동 이외에도 많은 부분들에서 진행이 되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소통방식이 마을과 고을의 풍속과 이를 바로잡기 위한 향약(鄕約)활동, 소통하거나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인 통문(通文), 국가에 대해 청원하는 방식의 상소(上疏)활동으로 서원의 정치참여, 주로 예학적 차원에서의 정치참여 방식인 만인소 운동 등을 대표로 들 수 있다. 이 중에 통문과 만인소 운동, 서원을 중심으로 한 향약활동 등에 대해 간략히 기술한다.

1) 소통의 형식 통문(通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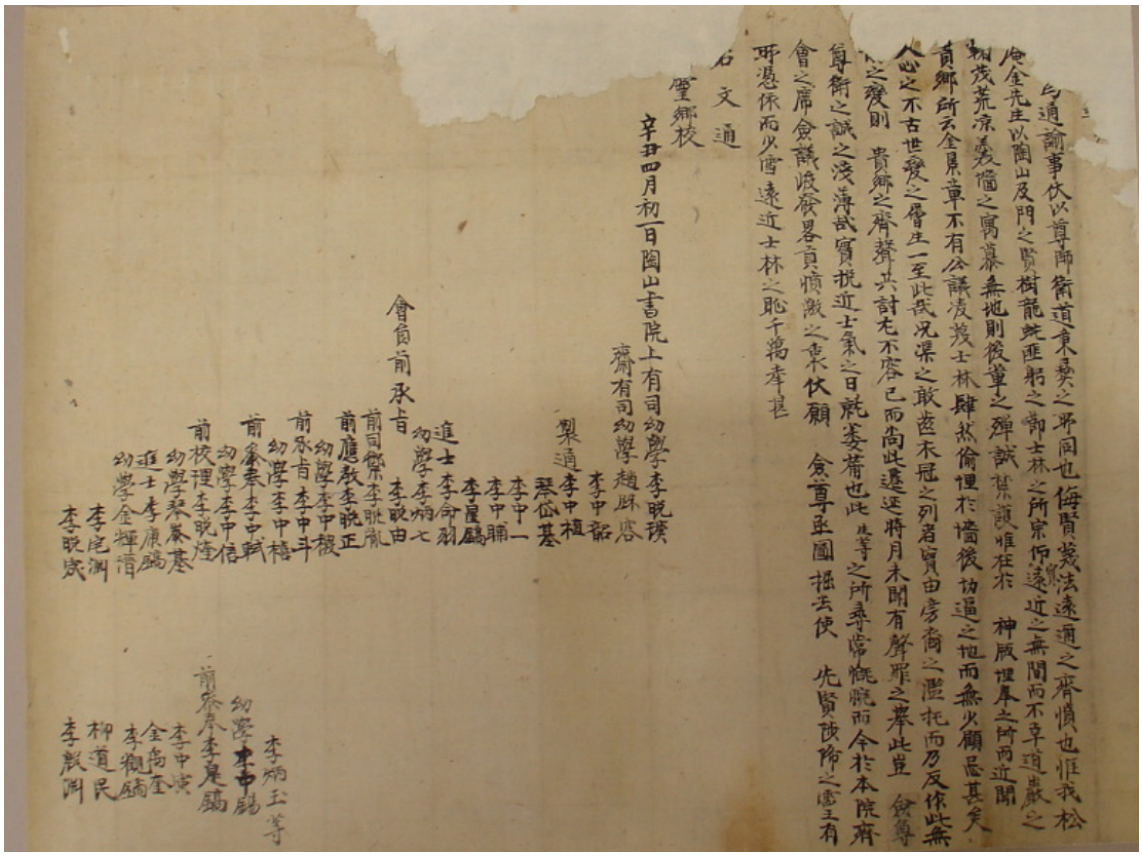
사전적인 의미의 통문은 개인이나 단체가 타인이나 혹은 다른 단체에게 보내는 문서다. 주로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보낸다. 이런 통문은 원래 서원의 건립이나 증축, 조상의 문집 발간이나 향약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때로는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했으며,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통문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은 조선이 선비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통상 통문(通文)은 유생들이 공통된 의견을 결집하거나 혹은 공동의 관심사를 공론화하기 위해 왕래하는 일종의 연락문이었다. 그러나 발급주체와 사안에 따라 통문을 무시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을 표방하기도 했다. 그렇기에 긍정적인 여론을 결집하기 위해 통문의 수급대상은 신중히 선별되었다.

> 오후에 서원에서 통문이 왔는데, 전임 원장의 일 때문에 여러 고을에 통문을 돌려 감사의 죄를 성토하기 위하여 내일 도산서원에 모이기로 약속한 것이었다. 이유도가 비명에 죽은 것은 원통함이 하늘에 사무쳐 말할 수 없고 차마 말할 수 없는 것이지만 사림(士林)으로서 감사의 죄를 성토한다는 것은 서원에서 마땅히 할 일이 아니니, 어찌해야 할까 어찌해야 할까. 저녁에 이실 형제가 오고, 여희도 와서 서원의 일을 논의하였다.[28]

조선후기 유생 공론의 거점이었던 서원은 사회·정치적 기능이 강화·확대되면서 수·발급한 통문이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있다. 주지하다시피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서원들은 각 지역들의 수원(首院;대표서원)으로서 해당 지역은 물론이거니와 사안에 따라 도내 여론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다. 그렇기에 현재 이들 서원에 남아있는 통문이 당시 사회적 현안을 모두 다룬 것은 아니지만 당시 지역 사족사회의 주요 현안을 개관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통문의 내용은 19세기 초반에는 서원을 운영을 둘러싼 신·구향 내지 구향간의 갈등이 많았으며, 선조(先朝) 내지 제향인(祭享人) 현양을 위한 문집간행·원사(院祀) 신설 내지 중건(重建)에 관한 부조(扶助)가 뒤를 이었다. 19세기 말에는 서세동점의 시기에 맞선 유생들의 유회(儒會)개최, 가문 간 대립이 첨예해지면서 나타난 산송(山訟[29]), 양반을 능욕한 자들에

28) 계암일록 병인년(인조 4년, 1626년) 4월 8일자 中
29) 산송(山訟)은 일명 '묘지 소송'으로, 노비·전답 소송과 함께 조선시대의 3대 사송(詞訟)의 하나이다.



도산서원에서 고령향교에 보낸 통문. 고령 도암서원이 훼철 후에 위판이 아무데나 버려진 것을 힐책하는 내용의 통문이다.

대한 유벌(儒罰[30]) 등과 관련된 내용들도 후기에 새롭게 등장하였다. 특히 선조(先朝) 우열

특히 16세기 이후 성리학적 의례의 정착과 종법 질서의 확립 과정에서 부계 분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등장하여 조선 후기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었다. 조상의 분묘를 수호하는 사대부가로 산송을 겪지 않은 집안이 드물 정도로 한 시대를 풍미하였다.

30) 사림유벌은 사림공론을 명분으로 시행되는 유벌이다. 그 시원적인 형태는 명종대 후반 지방 유생들의 儒疏 과정에서 확인되며 선조대부터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사림유벌은 毁家黜鄕, 黜鄕, 黜道, 損徒, 削迹, 合郡停擧, 合郡削迹 등 그 형식이 다양하였다. 이 중 훼가출향과 합군정거, 합군삭적, 출향 등은 시행 사례는 많지 않지만 사림의 共憤과 시벌자들의 武斷性을 대표하는 대명사로 인식되었다. 이에 비해 손도와 삭적은 향교•서원을 중심으로 하는 유생사회에서의 활동 정지나 削名, 停擧 등 구체적인 효력을 지니며 널리 시행되었다.

사림유벌은 發議와 同議라는 과정을 거쳐 사림의 공론을 명분으로 시행되었다. 시행단위는 疏會나 儒會와 같은 대규모 集會에서부터 一邑, 개별 향교나 서원 등 층위가 다양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은 반드시 향교와 서원을 매개로 하였다. 사림유벌의 효력은 사림사회로부터의 배제•퇴출과 정거 두가지로 축약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과거응시를 제한하는 停擧가 보다 강력한 효력이었다. 이것은 解罰을 앞당기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사림유벌이 시행되는 행위는 儒疏의 소임 기피나 불참, 先賢•先輩 모독, 학교 수호, 서원 位次, 정치적 사안 등 다양하였으나 명분 상 儒學과 學校의 수호 문제로 제한되어 있었다. 사림유벌은 향교·서원에서의 활동 제한과 퇴출로 구체화되었다. 17세기 이후 지방 사족들의 활동이 서원과 향교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것은 곧 사족사회로부터의 퇴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유벌은 유생층의 공론에 기초한 자치적인 처벌로 16세기 후반에 등장한 후 사회적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유벌이 출현하여 확대된 것은 이 시기 유생층이 집단화되며 공론을 형성하는 주체로 성장한 결과다. 이후 유벌은 의미가 축소되기는 하지만 유생층 내부의 관행으로 성균관, 향교, 서원이 해체되는 한말까지 유지되었다.
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4052&res=y

경쟁에서 나타나는 문자시비[31]와 같은 향전(鄕戰[32])이 심화되고 있었다. 한편으론 무너진 유교 윤리 회복을 위한 교육과 기강을 강조하면서 효열인(孝烈人)에 대한 정려(旌閭)와 표창(表彰)을 청원하는데 동참(同參)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증가하였다. 20세기에는 문집간행, 훼철되었던 원사원 중건, 효열인에 대한 표창과 비 건립 등의 요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2) 국가적 청원 형식을 결집한 서원 만인소(萬人疏)

만인소는 조선시대 만여 명에 달하는 재야 유교 지식인들이 연명해서 왕에게 올린 청원서다. 만인소가 18세기 후반에 나온건 맞지만, 만인소는 기본적으로 16세기 후반부터 나오기 시작한 유소의 전통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가면서 인원이 만명까지 확대된 것이라고 학자들은 지적하고 있다.[33]

만 명이 중요했던 것은 '만(萬)이 모든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만인소 운동은 1792년 억울하게 죽은 사도세자를 신원해 달라는 청원으로부터 시작됐으며, 이후 각기 다른 사안들을 가지고 19세기 말까지 총 7차례 진행됐다.
7차례의 '만인소' 가운데 5차례의 상소운동을 영남지역을 근거로 했던 영남유생들이 주도했다. 첫 만인소는 '사도세자 신원 만인소'(1792년·정조 16)로 2차에 걸쳐 모두 2만425명이 참여했다. 호계·병산·도산서원 등 안동지역 서원에서 상소운동이 시작됐다.
'서얼 차별 철폐 만인소'(1823년·순조 23)는 9천996명, '사도세자 추존 만인소'(1855년·철종 6)는 1만94명이 연명했다. 또, '서원 훼철 반대 만인소'(1871년·고종 8)는 1만27명, '대원군 봉환 만인소'(1875년·고종 12)와 '척사 만인소'(1880년·고종 17)가 실천됐다. 마지막으로 '복제 개혁 반대 만인소'(1884년·고종 21)에는 8천849명의 영남 유생이 참여했다.
한편 만인소는 '만여 명의 개인이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유교적 윤리관을 국가에 실천적으로 적용하고자 한 민주주의의 초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권력을 갖지 못한 재야 유교 지식인들이 자발적 참여를 통해 형성된 공론을 국가에 적용시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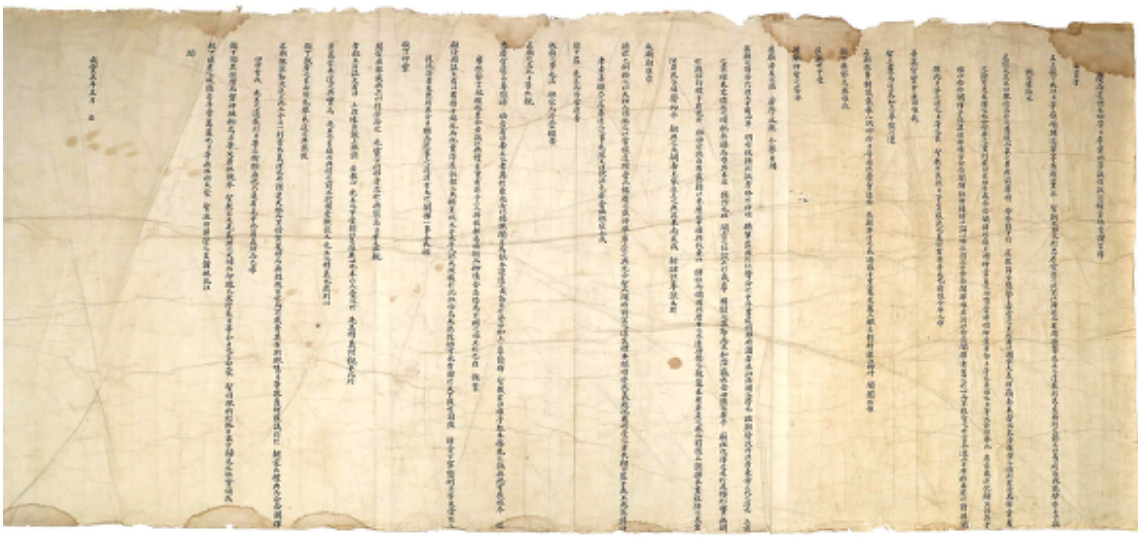
---

31) 19세기 중엽 이후로 들어서면 시비가 더욱 흔해져서 반촌(班村)을 형성하고 있는 곳에는 시비가 하나쯤 있어야 양반 행세를 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이런 시비들 가운데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일어난 것이 문자시비였다. 문집 등 각종 서책이 발간될 때마다 자기들의 조상과 관련된 기술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변정록(辨正錄)』, 『변무록(辨誣錄)』 등을 끊임없이 펴냈다. 향촌에서 벌어진 사족 간의 갈등은 문중들 사이의 분쟁으로 끝나지 않고, 문중 내 파별(派別)에까지 확대되어 더욱 분열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수습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19세기 이후 향촌 사회에서 재지 사족들 간에 벌어진 각종 시비는 성리학의 말폐적 현상이었으며, 이로 인해 향촌 사회는 자체 붕괴되는 양상으로 나아갔다.

32) 향전은 중세사회 내의 향촌지배권 쟁탈로서, 대체로 향권 장악을 둘러싼 재지세력과 신흥세력인 신향간의 대립을 말한다. 향권은 재지사족들의 결속에 바탕을 둔 향촌 지배권으로, 사족들간의 대립은 향전으로 파악되지 않았다. 향전은 기존에 향촌을 지배해왔던 재지사족과 새롭게 향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세력 간의 대립을 뜻한다. 따라서 향전은 사족 중심의 향촌지배질서가 해체된다는 의미와 관련되어 있다. 신향이라 불리는 새로운 사회세력들은 향청·작청·장청 등의 직임을 확보함으로써 신분적 지위를 상승시키고 나아가 향권을 장악하려 했던 자들로, 경제적으로는 요호부민층, 신분적으로는 중인·서얼·평민 출신이다. 이와 같이 향전은 향촌지배층이 기존의 재지사족으로부터 경제력을 바탕으로 성장한 신향층의 세력으로 바뀌어감을 보여준다.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167XX56700074

33) 설석규 교수의 논문 『16-18세기의 儒疎와 公論政治』, 정재훈 교수의 『16세기 士林 公論의 내용과 의미』 논문 등이 이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원했던 결과물이라는 점이 등재의 주된 이유가 됐다.
특히 만인소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던 부분은 작성과정에서 충실하게 여론을 듣고 합리적으로 가는 과정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것이었다. 만인소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통문(通文)과 회합(會合)을 통해 공론(公論)을 모으는 과정을 거친다. 공론에 따라 만인소 운동이 결정되면, 추천과 투표라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상소의 대표와 업무 담당자를 선출하고, 여러 상소 초고를 수렴해 논의를 거쳐 공론으로 최종 상소문을 완성한다. 이 상소문에 모든 참여자들은 자필로 이름을 쓰고 수결(手決)을 함으로써 자발적 참여와 자기 책임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
아태지역 기록유산으로 지정된 만인소는 2점인데 앞에서 밝힌 것처럼 만인소는 청원 내용과 그 청원에 참여한 만여 명의 서명 및 수결로 이루어진 대형 기록물이다. '사도세자 추존 만인소'는 1만94명이 연명한 상소로, 폭 1.11m, 길이 96.5m, 무게 16.6kg이다. '복제개혁 반대 만인소'는 8천849명이 연명한 상소로, 폭 1.02m, 길이 100.36m, 무게 8.3kg이다. 이 두 상소의 청원 내용은 다르지만, 유교적 올바름을 실천하려 했던 참여 운동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1855년 사도세자 추존 만인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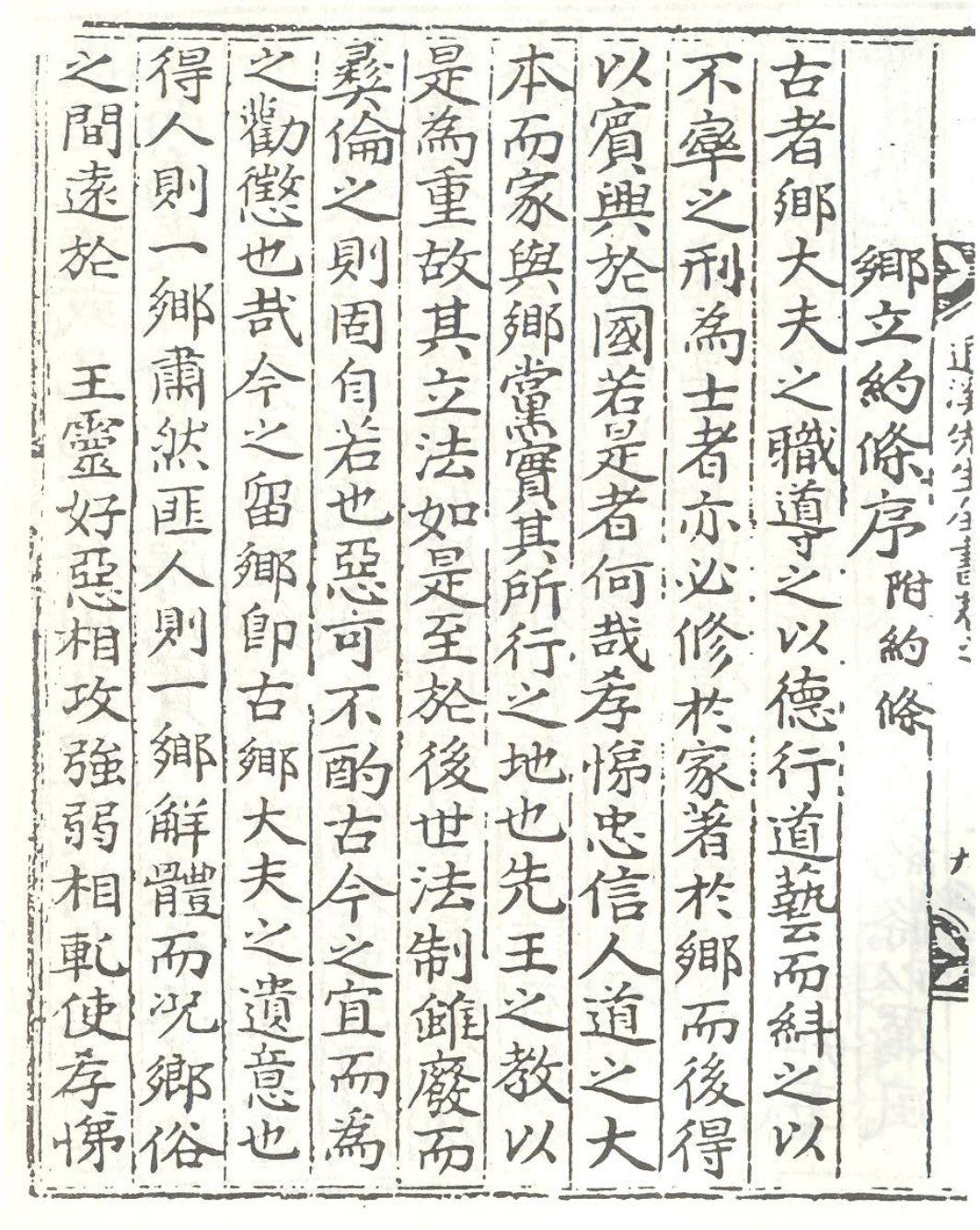
'사도세자 추존만인소'는 정통 왕위 계승자임에도 불구하고 당파 싸움으로 인해 뒤주에 갇혀 불운하게 생을 마친 사도세자를 왕으로 추존해 달라는 내용이다. 당파적 이해관계로 인해 왕통이 올바르게 서 있지 않은 현실을 바로 잡으려 했던 것이다. '사도세자 추존 만인소'는 1855년 1월, 안동 병산서원과 호계서원에서는 정조 이후 처음으로 장헌세자 존호와 관련 도산서원 '유회'(儒會)가 제안되면서 시작됐다. 도산서원은 같은 해 1월 27일 사도세자의 신원과 추존을 상소하는 모임을 가졌다. 도산서원에는 90여 명의 유생이 모였으며, 퇴계 선생의 후손인 소계 이휘병을 '소두'(疏頭;예전에 연명하여 올리는 상소에서 맨 먼저 이름을 적은, 주동이 되는 사람을 이르던 말)로 선발했다.
이후 영남 유생들의 회합과 문경 출발, 한양 도착과 '영남소청' 설치, 일주일간의 소지 작성과 상소 과정, 왕명을 받들었던 5월 16일까지 숱한 우여곡절과 몇 차례의 물러남을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상소인들의 처벌을 둘러싼 조정 논란이 야기됐으며, 철종은 결국 영

남인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도 특별히 불문에 부쳤다.
'복제개혁 반대 만인소'는 1884년 내려진 복제 개혁에 반대하면서 이 정책에 대한 재고를 청원하는 내용이다. 복제개혁에 대한 반대는 현재적 관점에서 볼 때, 시대에 역행하는 내용일 수 있지만, 유교 이념에서 벗어난 중앙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처럼 재야 유교 지식인들은 100m에 달하는 연명 상소를 작성해 왕조의 정통성 논쟁에 참여하고, 유교적 예제(禮制)를 회복하려는 입장을 중앙에 강력하게 전달했다. 만인소는 그 성격상 중앙정부를 비판하고, 옳은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권력에 반하는 성격들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만인소 운동에 참여한 재야 지식인들은 목숨을 걸어야 했다. 실제 만인소 운동을 이끌었던 대표는 유배를 가기도 하고, 중앙정부의 탄압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았다.

3) 향촌사회 계몽을 위한 서원의 사회적 역할 확대 향약(鄕約)

서원은 지방의 풍속을 순화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는 곳이었다. 서원에서는 그 지역의 여론을 이끌어 나갔음은 물론, 각 지방별 향약을 기준으로 효자나 열녀 등을 표창하고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사람을 성토하는 등의 직접적인 교화 활동도 하였다.
지방사림들은 사화기를 거치면서 지방 엘리트(士林)의 희생 위에 국가의 역할을 확장하고자 시도하기보다는 이제 향촌사회에서의 유학적 배움의 확산과 지방자발주의를 지원하였다. 남송시대에 주자가 중앙정부 위주보다 지방자치적인 향약을 통해 지방자발주의를 강조해 간 것처럼 조선에서도 지방 자발주의가 싹트기 시작했다. 그런점에서 서원의 부족한 면을 채우며 직접적으로 향촌에 살고 있는 평민들을 유교적으로 교화해 나간 것은 '향약(鄕約)'이다. 향약은 말 그대로 향촌 사회의 자치규약이다. 주희, 즉 주자는 북송 대에 유학자 여씨(呂氏) 4형제가 실시한 이른바 '여씨 향약'을 소개하면서 이것을 성리학적 향촌 질서를 만들어가는 실천 규범으로 간주하였다. '덕업상권(德業相勸)', '과실상규(過失相規)', '예속상교(禮俗相交)', '환난상휼(患難相恤)'이 바로 그 여씨 향약의 4대 강목이다. 이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려고 노력한 이는 기묘사화로 세상을 떠난 중종 대의 유학자 조광조이고 이를 직접 현실에 적용한 대학자는 퇴계와 율곡으로 예안(禮安)향약과 서원(西原;청주의 옛이름) 향약, 해주(海州)향약이 대표적이라 하겠다.

조선 중기 기득권 세력이었던 훈구파(勳舊派)에 대항하여 성리학적 도덕정치를 주장하였던 사림파는 한때 조광조(趙光祖)처럼 사화(士禍)로 목숨을 잃기도 했지만 결국 중앙 정계는 물론 지방까지 자신들의 의도를 관철시켜 간다. 특히 16세기 후반부터 사족들이 주도한 향약은 기존 전통적인 미풍양속과 자연스럽게 결합하면서 조선을 성리학적 유교 사회로 재편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퇴계 이황은 향약을 어기는 사람은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백성이라고 규정할 정도로 실제 그는 '예안향약'을 시행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가족의 도리를 어지럽힌 사람은 벌을 주도록 하였다. 율곡 이이는 오늘날 청주 지역에서 '서원향약'을 시행하면서 평민들도 쉽게 지킬 수 있도록 선악의 두 가지 내용을 명확하게 나누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가 있으며 친구 간에 화목하고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곧 선행이고 반대의 행위는 악행으로 규정 하였다. 서원을 중심으로 향약운동을 펼치면서



鄕立約條序 附約條

古者鄕大夫之職導之以德行道藝而糾之以不率之刑爲士者亦必修於家著於鄕而後得以賓興於國若是者何哉孝悌忠信人道之大本而家與鄕黨實其所行之地也先王之教以是爲重故其立法如是至於後世法制雖廢而彝倫之則固自若也惡可不酌古今之宜而爲之勸懲也哉今之留鄕卽古鄕大夫之遺意也得人則一鄕肅然匪人則一鄕鮮體而況鄕俗之間遠於 王靈好惡相攻強弱相軋使孝悌

1556년 예안현(禮安縣) 향입약조(鄕立約條) 서문(序文). 퇴계집. 1556년 퇴계 이황이 예안현의 풍속을 교화하기 위해서 만든 향약(鄕約)

자연스럽게 유교적 덕목, 즉 삼강오륜의 내용이 결합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유교 윤리가 확산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4) 성리학의 확산을 가져온 서원과 향약

이렇게 서원과 향약을 통해 향촌 사회를 바꿔갔던 이들은 사림파(士林派)이다. 이들의 뿌리는 원래 고려말 조선 건국에 반대하거나 참여하지 않았던 정몽주, 길재 등이다. 그 제자들이 중앙 정계로 나아가지 않고 충절을 기본으로 성리학적 학문 탐구와 수양을 하면서 향촌 사회에서 자신들이 배운대로 곧 실천하면서 향촌 자치를 추구해 왔다. 그것이 16세기 이후 조선 자체를 유교사회로 바꾸는 결정적 힘이 되었던 것이라 볼 수 있다.

물론 한계나 폐단이 있었다. 사림 세력이 향약을 통해 향촌에서 재판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생기며 국가 권력과 마찰을 빚는 경우도 있었고 서원은 17세기 이후 붕당 정치가 극단으로 치달으며 파벌 정치의 근거지가 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원과 향약이 있었기에 조선은 지속적인 유교 정치와 함께 성리학적 규범을 바탕으로 한 사회를 유지할 수 있었다 하겠다.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inscrib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in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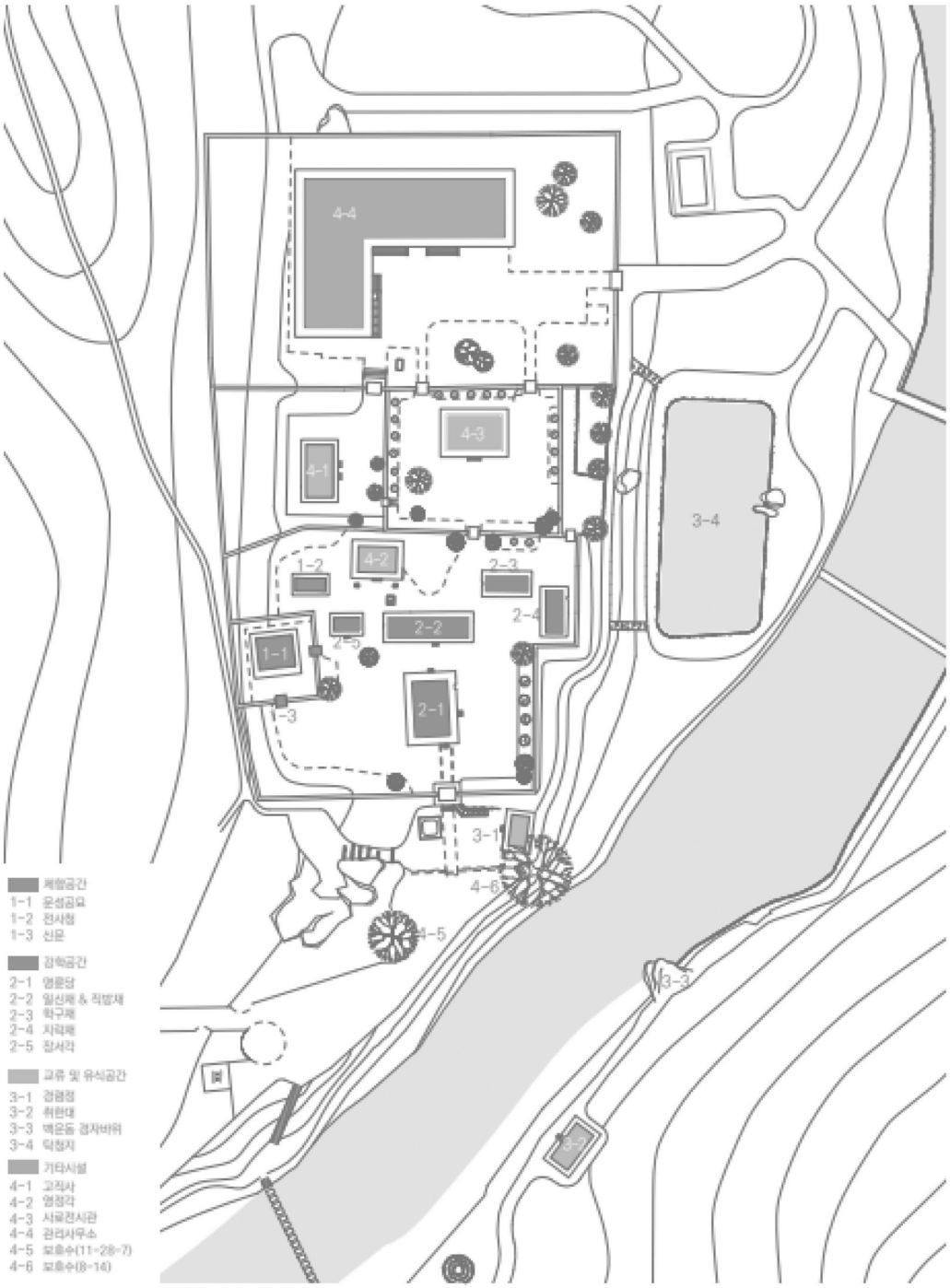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2022년 문화관광해설사 현장교육

부록. 한국의 9개 서원 배치도 및 현황

소수서원
紹修書院

배치도
配置圖



소수서원
紹修書院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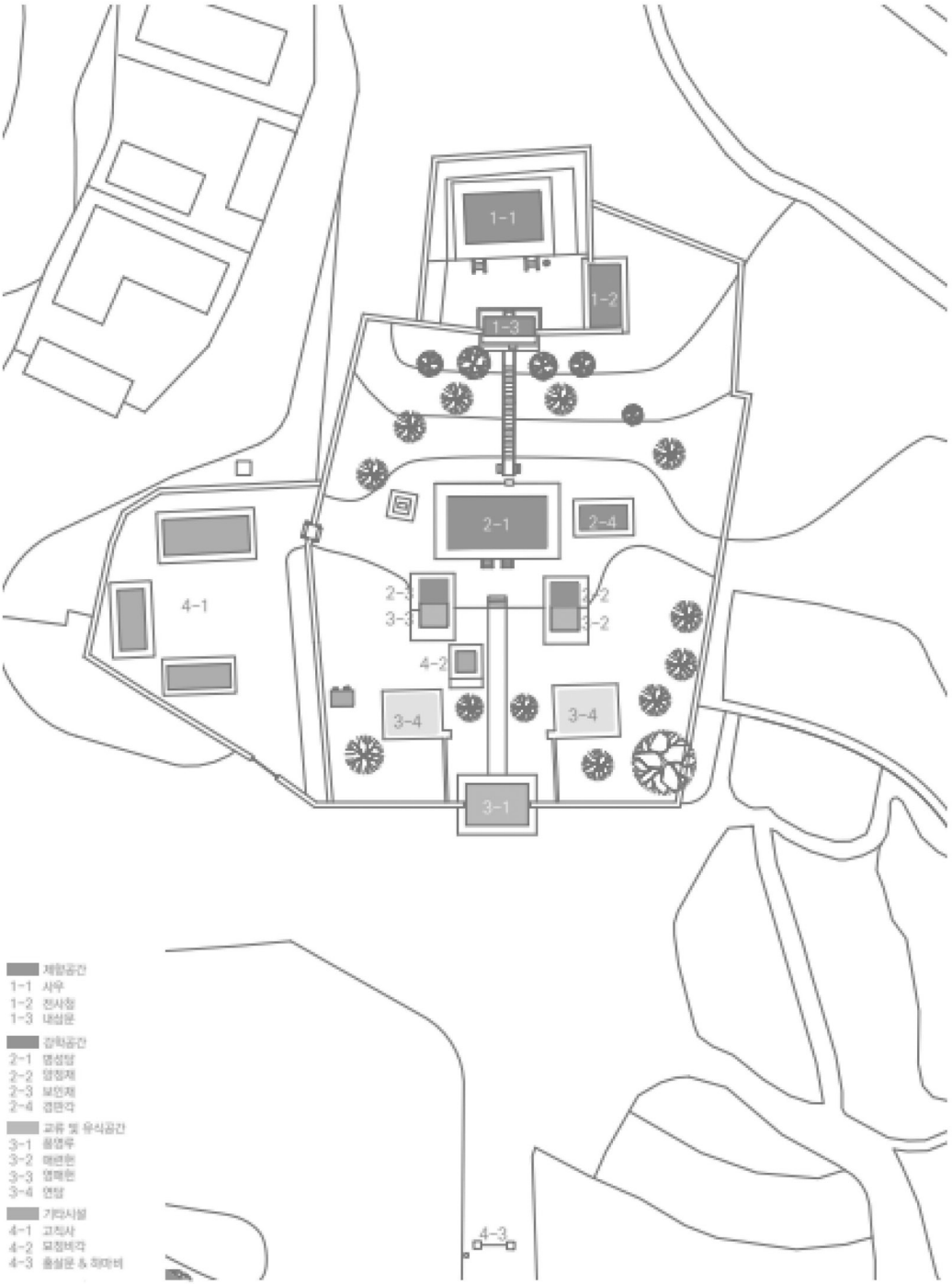
■ 현판(13), ■ 기문(40), ■ 석각(1)

구분	건물명	연번	구분	명칭
유식/교류	경렴정	1	■ 현판	경렴정(景濂亭)
		2	■ 현판	경렴정(景濂亭)
		3	■ 기문	경렴정(景濂亭)
		4	■ 기문	경렴정(景濂亭)
		5	■ 기문	경렴정(景濂亭)
		6	■ 기문	경렴정(景濂亭)
		7	■ 기문	차주신재백운동경렴정운(次周愼齋白雲洞景濂亭韻)
		8	■ 기문	경차경렴정판상운(敬次景濂亭板上韻)
		9	■ 기문	경차(敬次)
		10	■ 기문	경차(敬次)
		11	■ 기문	경렴정 앙차벽상선생운(景濂亭仰次壁上先生韻)
		12	■ 기문	차경렴정(次景濂亭)
		13	■ 기문	차경렴정(次景濂亭)
		14	■ 기문	차경렴정(次景濂亭)
		15	■ 기문	차경렴정(次景濂亭)
		16	■ 기문	차경렴정(次景濂亭)
		17	■ 기문	차경렴정(次景濂亭)
	취한대	18	■ 현판	취한대(翠寒臺)
	경자바위	19	■ 석각	백운동(白雲洞), 경(敬)
강학	명륜당	20	■ 현판	소수서원(紹修書院)
		21	■ 현판	백운동(白雲洞)
		22	■ 기문	백운서원방(白雲書院榜)
		23	■ 기문	백운동소수서원기(白雲洞紹修書院記)
		24	■ 기문	가정25년11월입안(嘉靖二十五年十一月日立案)
		25	■ 기문	건륭15년정월입안(乾隆十五年庚午正月日立案)
		26	■ 기문	문성공향사집사분정기(文成公享祀執事分定記)
		27	■ 기문	심잠(心箴)·경재잠(敬齋箴)
		28	■ 기문	숙흥야매잠(夙興夜寐箴)
		29	■ 기문	사물잠(四勿箴)
		30	■ 기문	백록동서원규(白鹿洞書院規)
	장서각	31	■ 현판	장서각(藏書閣)
	직방재	32	■ 현판	직방재(直方齋)
	일신재	33	■ 현판	일신재(日新齋)

구분	건물명	연번	구분	명칭
강학	지락재	34	■ 현판	지락재(至樂齋)
		35	■ 기문	백운동서원령(白雲洞書院令)
		36	■ 기문	백운동축대명명탁영유제(白雲洞築臺命名濯纓留題)
		37	■ 기문	경차(敬次)
		38	■ 기문	지락재중수상량문(至樂齋重修上樑文)
		39	■ 기문	경차창석선생판상운(敬次蒼石先生板上韻)
		40	■ 기문	경차(敬次)
		41	■ 기문	경차(敬次)
		42	■ 기문	경차(敬次)
		43	■ 기문	제서원(題書院)
		44	■ 기문	경차(敬次)
		45	■ 기문	경차(敬次)
		46	■ 기문	경차(敬次)
	학구재	47	■ 현판	학구재(學求齋)
		48	■ 기문	소수서원동몽재중건기(紹修書院童蒙齋重修記)
	지도문	49	■ 현판	지도문(志道門)
제향	문성공묘	50	■ 현판	문성공묘(文成公廟)
		51	■ 현판	문성공 시호와 시주
		52	■ 기문	백운동안문성공사당기(白雲洞安文成公祠堂記)
		53	■ 기문	소수묘우중수기(紹修廟宇重修記)
	전사청	54	■ 현판	전사청(典祀廳)

남계서원
瀛溪書院

배치도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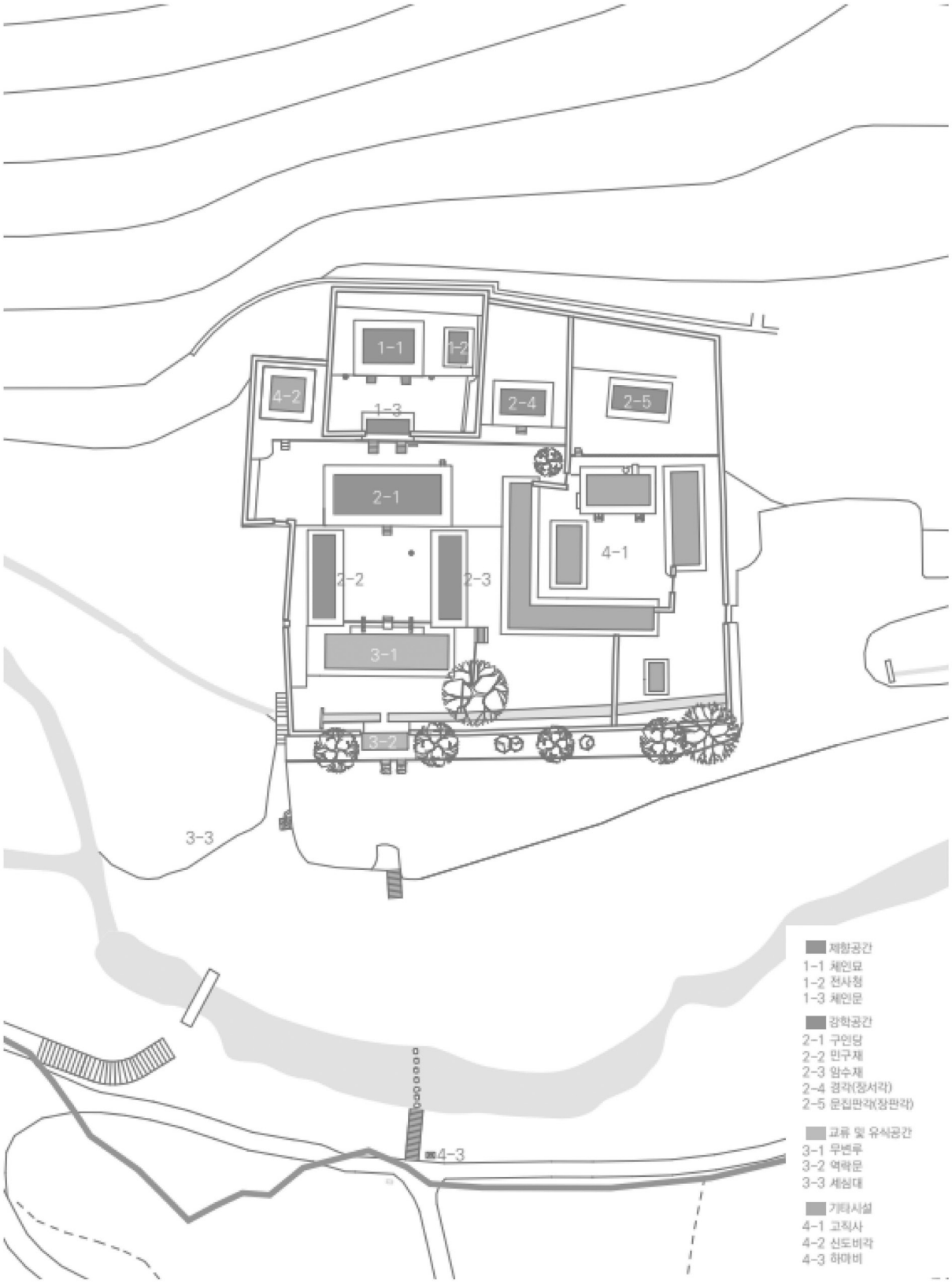
[현황]

■ 현판(6), ■ 기문(6), ■ 비문(1)

구분	건물명	연번	구분	명칭
유식/교류	풍영루	1	■ 현판	풍영루(風咏樓)
		2	■ 현판	준도문(遵道門)
		3	■ 기문	풍영루기(風詠樓記)
		4	■ 기문	풍영루중건기(風詠樓重建記)
		5	■ 기문	풍영루중건기(風詠樓重建記)
강학	명성당	6	■ 현판	남계서원(濫溪書院)
		7	■ 현판	명성당(明誠堂)
		8	■ 현판	집의재(集義齋)
		9	■ 현판	거경재(居敬齋)
		10	■ 기문	남계서원기(濫溪書院記)
		11	■ 기문	국기판(國忌版)
		12	■ 기문	원규(院規)
	양정재	13	■ 현판	양정재(養正齋)
	보인재	14	■ 현판	보인재(輔仁齋)
	영매헌	15	■ 현판	영매헌(咏梅軒)
	애련헌	16	■ 현판	애련헌(愛蓮軒)
	비각	17	■ 비문	남계서원묘정비(濫溪書院廟庭碑)

옥산서원
玉山書院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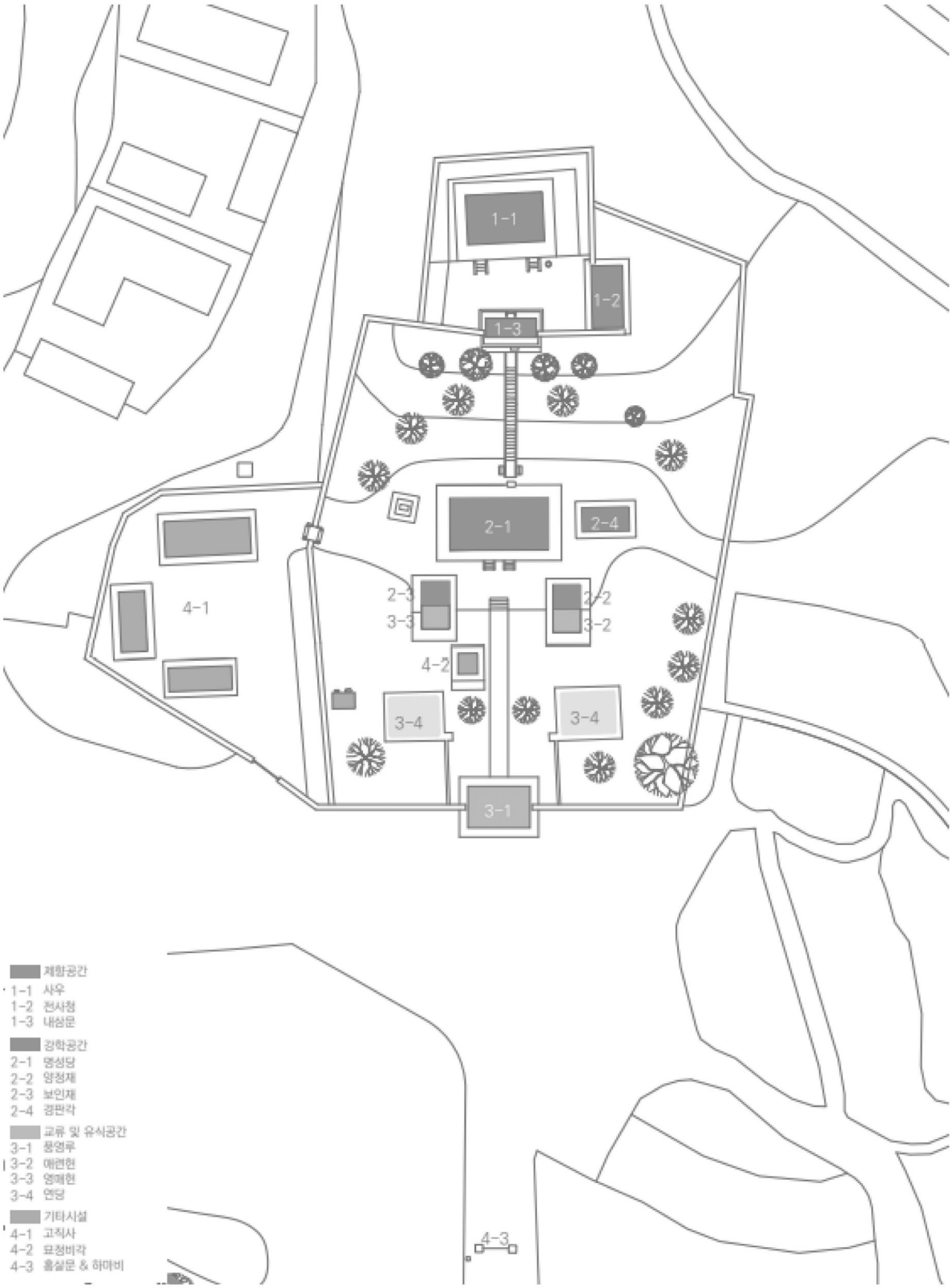
[현황]

■ 현판(16), ■ 기문(14), ■ 비문(1), ■ 석각(1)

구분	건물명	연번	구분	명칭
유식/교류	무변루	1	■ 현판	무변루(無邊樓)
	역락문	2	■ 현판	역락문(亦樂門)
	세심대	3	■ 석각	세심대(洗心臺)
	유물전시관	4	■ 현판	옥산서원(玉山書院)
		5	■ 현판	옥산서원(玉山書院)
강학	구인당	6	■ 현판	구인당(求仁堂)
		7	■ 현판	양진재(兩進齋)
		8	■ 현판	해립재(偕立齋)
		9	■ 기문	옥산서원기(玉山書院記)
		10	■ 기문	백록동규(白鹿洞規)
		11	■ 기문	전교등서(傳敎謄書)
		12	■ 기문	옥산정사기(玉山精舍記)
		13	■ 기문	국기판(國忌版)
		14	■ 기문	어제제문(御製祭文)
		15	■ 기문	사물잠(四勿箴)
		16	■ 기문	원규(院規)
		17	■ 기문	경재잠(敬齋箴)
		18	■ 기문	숙흥야매잠(夙興夜寐箴)
	암수재	19	■ 현판	암수재(闇修齋)
	민구재	20	■ 현판	민구재(敏求齋)
	어서각	21	■ 현판	어서각(御書閣)
		22	■ 기문	서원서책불출원문(書院書冊不出院門)
	비각	23	■ 현판	비각(碑閣)
		24	■ 비문	문원공회재이선생신도비명(文元公晦齋李先生神道碑銘)
	경각	25	■ 현판	경각(經閣)
	문집판각	26	■ 현판	문집판각(文集板閣)
제향	체인묘	27	■ 현판	체인묘(體仁廟)

도산서원
陶山書院

配置圖



[현황]

■ 현판(18), ■ 기문(15), ■ 비문(1), ■ 석각(9)

구분	건물명	연번	구분	명칭
유식/교류	-	1	■ 석각	천광운영대(天光雲影臺)
	-	2	■ 석각	천연대(天淵臺)
	-	3	■ 석각	천연대(天淵臺)
	-	4	■ 석각	열정(洌井)
	-	5	■ 석각	석간대(石磵臺)
	시사단	6	■ 비문	시사단비명(試士壇碑銘)
강학	전교당	7	■ 현판	도산서원(陶山書院)
		8	■ 현판	전교당(典敎堂)
		9	■ 기문	한존재(閑存齋)
		10	■ 기문	기일판(忌日版)
		11	■ 기문	춘추향사시 분정판(春秋享祀時 分定版)
		12	■ 기문	숙종대왕 전교(肅宗大王 傳敎)
		13	■ 기문	향입약조(鄕立約條)
		14	■ 기문	경재잠(敬齋箴)
		15	■ 기문	사물잠(四勿箴)
		16	■ 기문	백록동규(白鹿洞規)
		17	■ 기문	숙흥야매잠(夙興夜寐箴)
		18	■ 기문	원규(院規)
		19	■ 기문	정조대왕 전교(正祖大王 傳敎)
		20	■ 기문	도산서원견각신치제문(陶山書院遣閣臣致祭文)
	박약재	21	■ 현판	박약재(博約齋)
	홍의재	22	■ 현판	홍의재(弘毅齋)
	광명실	23	■ 현판	광명실(光明室)
		24	■ 현판	광명실(光明室)
		25	■ 기문	이주부공사적(李主簿公事蹟)
		26	■ 기문	진성 이동준공 공적기(眞城 李東俊公 功績記)
	진도문	27	■ 현판	진도문(進道門)
	도산서당	28	■ 현판	도산서당(陶山書堂)
		29	■ 현판	암서헌(巖栖軒)
		30	■ 현판	완락재(玩樂齋)
		31	■ 석각	몽천(蒙泉)
		32	■ 석각	정우당(淨友塘)
		33	■ 석각	절우사(節友社)
		34	■ 석각	매화원(梅花園)
	농운정사	35	■ 현판	농운정사(隴雲精舍)
		36	■ 현판	시습재(時習齋)
		37	■ 현판	관란헌(觀瀾軒)
		38	■ 기문	도산기(陶山記)
	역락서재	39	■ 현판	역락서재(亦樂書齋)
	옥진각	40	■ 현판	옥진각(玉振閣)
제향	상덕사	41	■ 현판	상덕사(尙德祠)

필암서원
筆巖書院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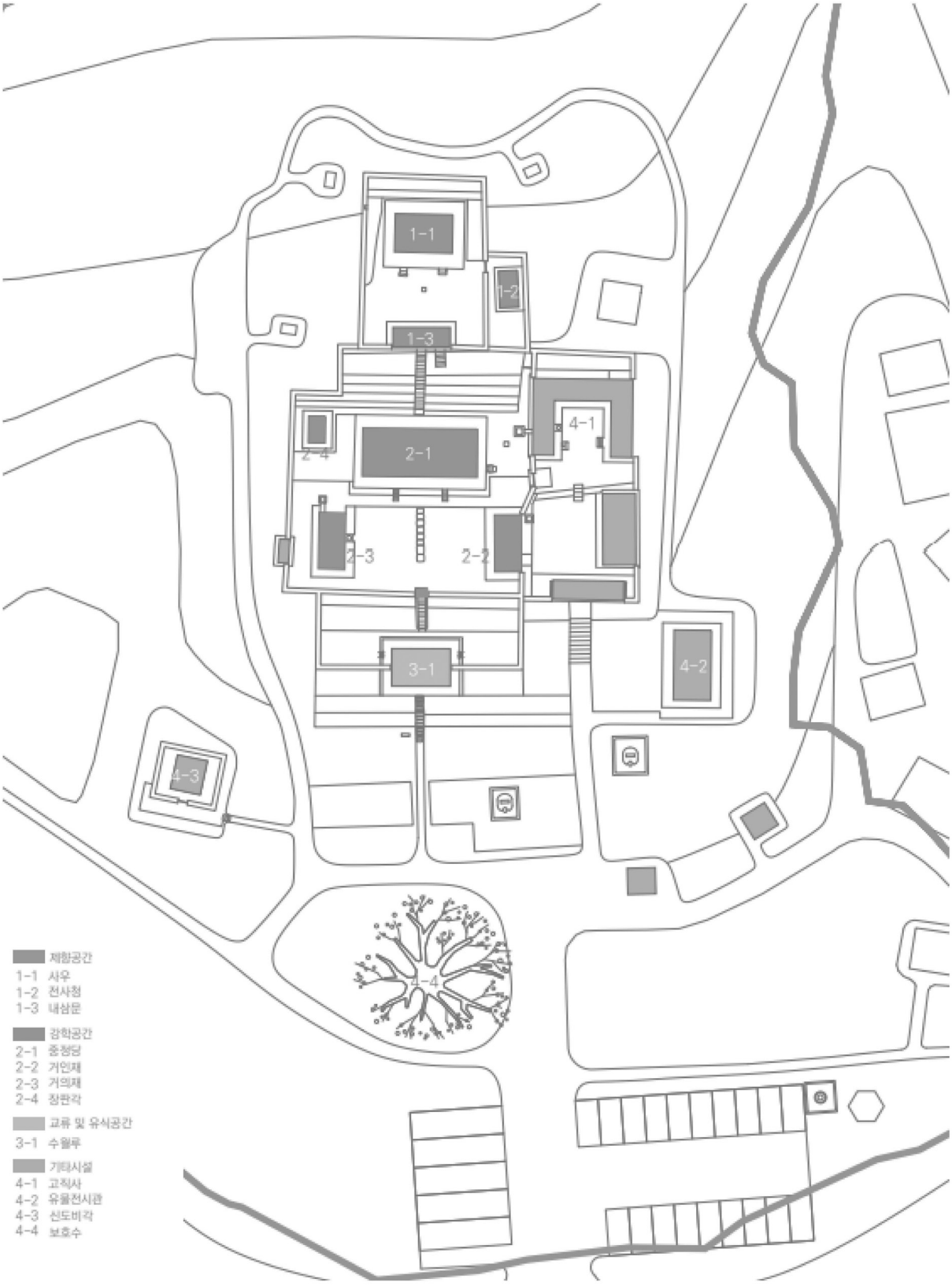
[현황]

■ 현판(8), ■ 기문(28), ■ 비문(1)

구분	건물명	연번	구분	명칭
유식/교류	확연루	1	■ 현판	확연루(廓然樓)
		2	■ 기문	확연루기(廓然樓記)
		3	■ 기문	필암서원확연루중건상량문(筆巖書院廓然樓重建上樑文)
		4	■ 기문	필암루전방당(筆巖樓前方塘) · 구호어필암(口呼於筆巖)
강학	청절당	5	■ 현판	필암서원(筆巖書院)
		6	■ 현판	청절당(淸節堂)
		7	■ 기문	전교(傳敎)
		8	■ 기문	백록동학규(白鹿洞學規)
		9	■ 기문	문묘종사반교문(文廟從祀頒敎文)
		10	■ 기문	문묘종사교서(文廟從祀敎書) · 문묘승배축문(文廟陞拜祝文)
		11	■ 기문	강희 원년 치제문(康熙 元年 致祭文)
		12	■ 기문	필암서원근차증조운(筆巖書院謹次曾祖韻)
		13	■ 기문	필암서원경차청음김선생운(筆巖書院敬次淸陰金先生韻)
		14	■ 기문	필암서원경차청음족조운(筆巖書院敬次淸陰族祖韻)
		15	■ 기문	차필암서원송강판상운(筆巖書院松江板上韻)
		16	■ 기문	제필암서원(題筆巖書院)
		17	■ 기문	원중집강기(院中執綱記)
		18	■ 기문	제하서서원(題河西書院)
		19	■ 기문	집사분정기(執事分定記)
		20	■ 기문	고암선생추배시유림상언(鼓巖先生追配時儒林上言)
		21	■ 기문	필암서원중수기(筆巖書院重修記)
		22	■ 기문	어제사제문(御製賜祭文)
		23	■ 기문	정해중수시게판(丁亥重修時揭板)
		24	■ 기문	회하서(懷河西) · 영하서선생(咏河西先生)
		25	■ 기문	독하서집(讀河西集)
		26	■ 기문	필원경차서경유상공운(筆院敬次西坰柳相公韻)
		27	■ 기문	무제(無題)
		28	■ 기문	강수재 집사분정(講修齋 執事分定)
	숭의재	29	■ 현판	숭의재(崇義齋)
	진덕재	30	■ 현판	진덕재(進德齋)
		31	■ 기문	송주희서(宋朱熹書)
		32	■ 기문	국기판(國忌版)
	경장각	33	■ 현판	경장각(敬藏閣)
	장판각	34	■ 현판	장판각(藏板閣)
제향	우동사	35	■ 현판	우동사(祐東祠)
		36	■ 비문	계생비(繫牲碑)·묘정비(廟庭碑)

도동서원
道東書院

配置圖



[현황]

■ 현판(7), ■ 기문(10), ■ 비문(1)

구분	건물명	연번	구분	명칭
유식/교류	수월루	1	■ 현판	수월루(水月樓)
		2	■ 기문	수월루상량문(水月樓上樑文)
		3	■ 기문	수월루중수상량문(水月樓重修上樑文)
		4	■ 기문	수월루중건기(水月樓重建記)
		5	■ 기문	수월루중건전말소기(水月樓重建顚末小記)
강학	중정당	6	■ 현판	도동서원(道東書院)
		7	■ 현판	도동서원(道東書院)
		8	■ 현판	중정당(中正堂)
		9	■ 기문	서도동서원액판하(書道東書院額板下)
		10	■ 기문	백록동규(白鹿洞規)·구사(九思)·구용(九容)·학자십훈(學者十訓)
		11	■ 기문	숙종 전교(肅宗 傳敎)
		12	■ 기문	도동서원규목(道東書院規目)
		13	■ 기문	국기판(國忌版)
		14	■ 기문	시현풍학자(示玄風學者)
	거의재	15	■ 현판	거의재(居義齋)
	거인재	16	■ 현판	거인재(居仁齋)
	환주문	17	■ 현판	환주문(喚主門)
기타	비각	18	■ 비문	김굉필신도비(金宏弼神道碑)

병산서원
屛山書院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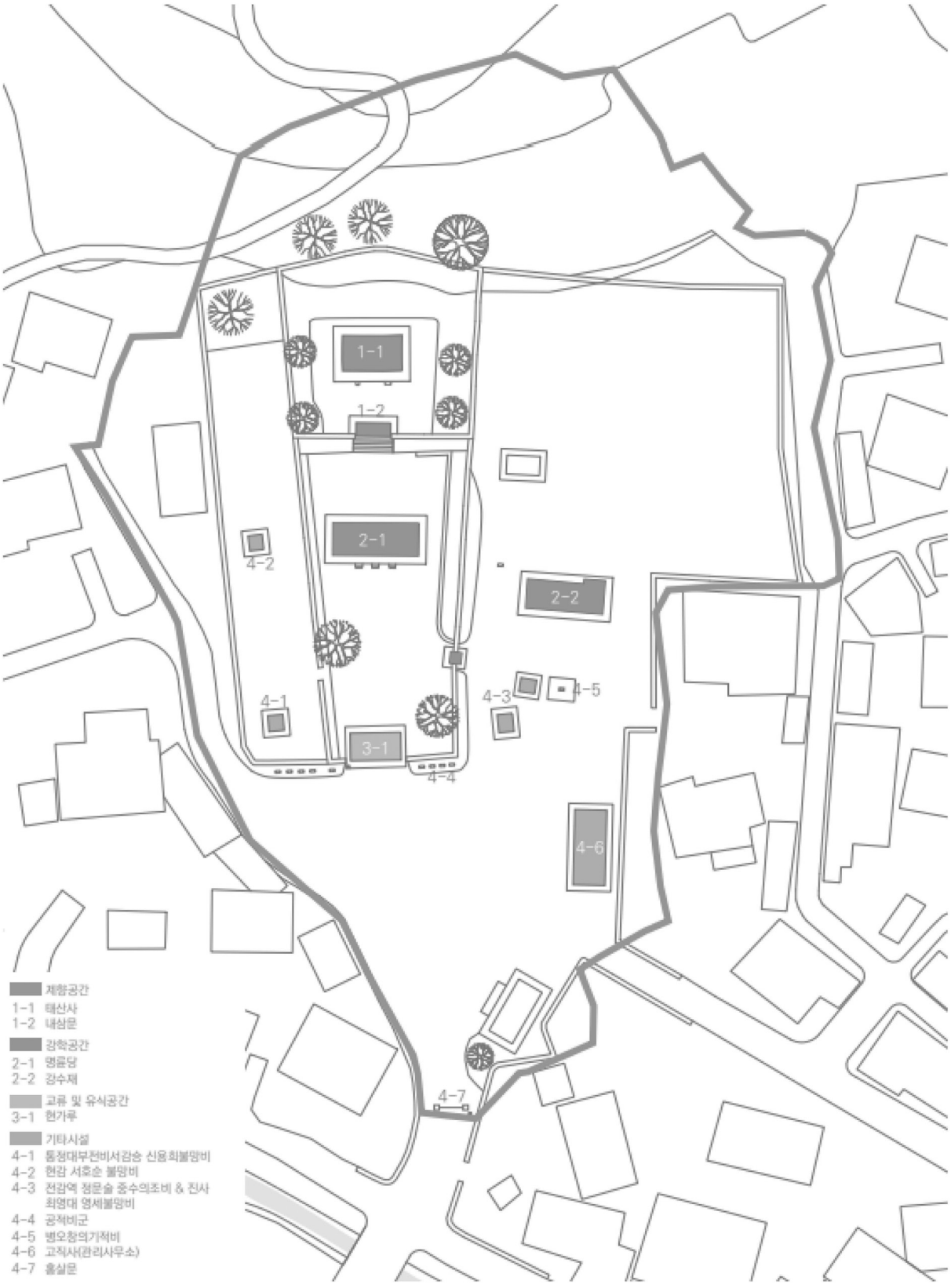
[현황]

■ 현판(2), ■ 기문(2)

구분	건물명	연번	구분	명칭
유식/교류	만대루	1	■ 현판	만대루(晩對樓)
	복례문	2	■ 현판	복례문(復禮門)
강학	입교당	3	■ 현판	병산서원(屛山書院)
		4	■ 현판	입교당(立敎堂)
		5	■ 현판	경의재(敬義齋)
		6	■ 현판	명성재(明誠齋)
		7	■ 기문	병산존덕사복향기(屛山尊德祠復享記)
		8	■ 기문	향사집사분정판(享祀執事分定版)
	동직재	9	■ 현판	동직재(動直齋)
	정허재	10	■ 현판	정허재(靜虛齋)
		11	■ 현판	장서실(藏書室)
	장판각	12	■ 현판	장판각(藏板閣)
제향	존덕사	13	■ 현판	존덕사(尊德祠)
	전사청	14	■ 현판	전사청(典祀廳)

무성서원
武城書院

配置圖



[현황]

■ 현판(4), ■ 기문(33), ■ 주련(3), ■ 비문(14)

구분	건물명	연번	구분	현판명
유식/교류	현가루	1	■ 현판	현가루(絃歌樓)
		2	■ 기문	무성서원현가루기(武城書院絃歌樓記)
		3	■ 기문	현가루중수기(絃歌樓重修記)
		4	■ 기문	무성서원현가루창건기(武城書院絃歌樓刱建記)
		5	■ 기문	무성서원현가루중수기(武城書院絃歌樓重修記)
강학	명륜당	6	■ 현판	무성서원(武城書院)
		7	■ 기문	강당중창기(講堂重刱記)
		8	■ 기문	무성서원최선생문집중간기(武城書院崔先生文集重刊記)
		9	■ 기문	무성서원복호보노환복기(武城書院復戶保奴還復記)
		10	■ 기문	무성서원원지개간기(武城書院院誌開刊記)
		11	■ 기문	무성서원원지복구기(武城書院院址復舊記)
		12	■ 기문	무성서원장원중수기(武城書院墻垣重修記)
		13	■ 기문	무성서원중수기(武城書院重修記)
		14	■ 기문	무성서원중수기(武城書院重修記)
		15	■ 기문	무성서원중수기(武城書院重修記)
		16	■ 기문	무성서원중수기(武城書院重修記)
		17	■ 기문	무성서원중수기(武城書院重修記)
		18	■ 기문	무성서원중수기(武城書院重修記)
		19	■ 기문	무성서원중수기(武城書院重修記)
		20	■ 기문	무성서원중수기(武城書院重修記)
		21	■ 기문	무성서원중수기(武城書院重修記)
		22	■ 기문	무성서원중수기(武城書院重修記)
		23	■ 기문	무성서원중수기(武城書院重修記)
		24	■ 기문	무성서원현우중수기(武城書院賢宇重修記)
		25	■ 기문	무성서원제기개수기(武城書院祭器改修記)
		26	■ 기문	무성서원모현기(武城書院慕賢記)
		27	■ 기문	무성서원기(武城書院記)
		28	■ 기문	무성서원기(武城書院記)
		29	■ 기문	무성서원의반중수기(武城書院椅盤重修記)
		30	■ 기문	현우중수급전사소창건기(賢宇重修及典祀所刱建記)
		31	■ 주련	명륜당 주련(明倫堂 株聯)
강학	강수재	32	■ 현판	강수재(講修齋)
		33	■ 기문	무성서원중수기(武城書院重修記)
		34	■ 기문	무성서원강수재중수기(武城書院講修齋重修記)
		35	■ 기문	김득영찬양민(金榮得讚揚文)
		36	■ 기문	무성서원기(武城書院記)
		37	■ 기문	기문(記文)
		38	■ 주련	강수재 주련(講修齋 柱聯)
제향	태산사	38	■ 현판	태산사(泰山祠)
		40	■ 주련	태산사 주련(泰山祠 柱聯)

무성서원
武城書院

구분	건물명	연번	구분	현판명
기타	비문	41	■ 비문	무성서원묘정비(武城書院廟庭碑)
		42	■ 비문	무성서원묘정비창의의연방명록(武城書院廟庭碑創建義捐芳名錄)
		43	■ 비문	무성서원사적지정기념비기(武城書院史蹟指定紀念碑記)
		44	■ 비문	무성서원중수기념비(武城書院重修紀念碑)
		45	■ 비문	병오창의기적비(丙午倡義紀蹟碑)
		46	■ 비문	사인김인기불망비(士人金麟基不忘碑)
		47	■ 비문	영상이공최응불망비(領相李公最應不忘碑)
		48	■ 비문	전감역정문술중수의조비(前監役丁文述重修義助碑)
		49	■ 비문	전의관이경희불망비(前議官李慶熙不忘碑)
		50	■ 비문	전참봉주찬형기공비(前參奉朱燦馨紀功碑)
		51	■ 비문	진사최영대영세불망비(進士崔永大永世不忘碑)
		52	■ 비문	통정대부전비서감승신용희불망비(通政大夫前祕書監丞申瑢熙不忘碑)
		53	■ 비문	현감서후호순불망비(縣監徐侯灝淳不忘碑)
		54	■ 비문	현감이후정식불망비(縣監李侯定植不忘碑)

돈암서원
遯巖書院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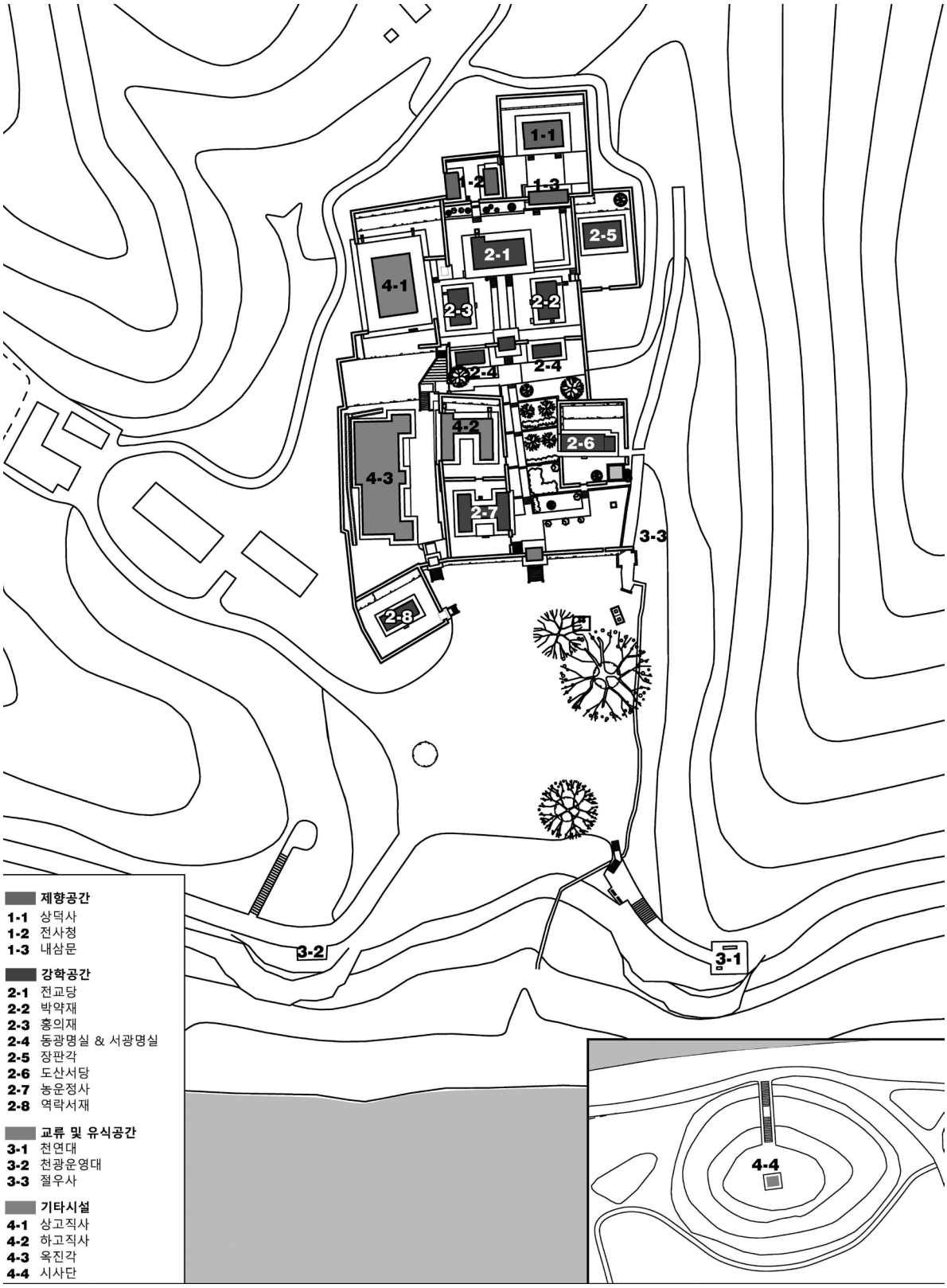
돈암서원
遯巖書院

[현황]

■ 현판(15), ■ 기문(14), ■ 주련(3), ■ 비문(2), ■ 석각(1)

구분	건물명	연번	구분	명칭
유식/교류	산앙루 비석	1	■ 현판	산앙루(山仰樓)
		2	■ 현판	호연지기(浩然之氣)
		3	■ 현판	음풍농월(吟風弄月)
		4	■ 기문	산앙루중건상량문(山仰樓重建上樑文)
		5	■ 기문	산앙루중건상량문해석(山仰樓重建上樑文解釋)
		6	■ 기문	축시산앙루중건(祝詩山仰樓重建)
		7	■ 기문	근제산앙루(謹題山仰樓)
		8	■ 주련	산앙루 주련(山仰樓 柱聯)
		9	■ 비문	돈암서원이건묘정비(遯巖書院移建廟庭碑)
강학	응도당	10	■ 현판	돈암서원(遯巖書院)
		11	■ 현판	응도당(凝道堂)
		12	■ 기문	양성당기(養性堂記)
		13	■ 기문	양성당중수기(養性堂重修記)
		14	■ 기문	연산현돈암서원상량문(連山縣遯巖書院上梁文)
		15	■ 기문	산앙루기(山仰樓記)
		16	■ 기문	양성당제영(養性堂題詠)
		17	■ 기문	양성당십영(養性堂十詠)
		18	■ 기문	아한정제영(雅閑亭題詠)
		19	■ 기문	양성당후기(養性堂後記)
		20	■ 기문	양성당이건기(養性堂移建記)
		21	■ 기문	양성당이건기(養性堂移建記)
		22	■ 주련	응도당 주련(凝道堂 柱聯)
	양성당	23	■ 현판	양성당(養性堂)
		24	■ 주련	양성당 주련(養性堂 柱聯)
		25	■ 비문	연산현돈암서원비기(蓮山縣遯巖書院碑記)
	정회당	26	■ 현판	정회당(靜會堂)
	정의재	27	■ 현판	정의재(精義齋)
	거경재	28	■ 현판	거경재(居敬齋)
	장판각	29	■ 현판	장판각(藏板閣)
	관리사무소	30	■ 현판	경회당(慶會堂)
	입덕문	31	■ 현판	입덕문(入德門)
제향	숭례사	32	■ 현판	숭례사(崇禮祠)
		33	■ 석각	지부해함 박문약례 서일 화풍(地負海涵 博文約禮 瑞日和風)
	전사청	34	■ 현판	전사청(典祀廳)

配置圖


1-1
1-2
1-3
2-1
2-2
2-3
2-4
2-4
2-5
2-6
2-7
2-8
4-1
4-2
4-3
3-2
3-3
3-1
4-4
제향공간
1-1 상덕사
1-2 전사청
1-3 내삼문
강학공간
2-1 전교당
2-2 박약재
2-3 홍의재
2-4 동광명실 & 서광명실
2-5 장판각
2-6 도산서당
2-7 농운정사
2-8 역락서재
교류 및 유식공간
3-1 천연대
3-2 천광운영대
3-3 절우사
기타시설
4-1 상고직사
4-2 하고직사
4-3 육진각
4-4 시사단